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박사학위논문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예비 직업사회화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 “탈주적 직업정체성”과 경제교육적 함의 -

Narrative Inquiry in Exploring Vocational Anticipatory  
Socialization of Adolescents from Low-income Families

- “Vocational Identity as a Line of Flight”  
and Its Implications on Economic Education -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일반사회전공  
박 하 나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예비 직업사회화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 “탈주적 직업정체성” 과 경제교육적 함의 -

지도교수 조 영 달

이 논문을 교육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일반사회전공  
박 하 나

박하나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12월

위원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원 \_\_\_\_\_ (인)

위원 \_\_\_\_\_ (인)

위원 \_\_\_\_\_ (인)

## 국문초록

일과 노동(work)은 인간의 본질이자 역사와 문명을 만들어온 원천이며,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은 경제생활의 기초가 된다. 고도로 분업화된 현대 사회에서 노동과 생산의 기회는 ‘직업’을 통해 개인에게 주어지고 있으며, 청소년기는 직업생활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청소년기에 형성한 직업 관련 지식, 기능, 가치관은 미래 직업생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과 경제교육에서는 노동자와 직업인의 사회적 역할을 가르쳐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이 직업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예비 직업사회화(vocational anticipatory socialization: VAS)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비 직업사회화 과정을 살펴볼 때는 사회계층과 집단, 개인에 따라 보이는 광범위한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 부유한 가정의 자녀와 가난한 가정의 자녀는 직업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경험을 한다. 이 경험의 차이가 미래 직업지위와 임금의 차이를 가져오며, 직업생활을 통한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저소득가정의 후기 청소년은 일의 세계로 진입하고 직업적 성취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한다.

본 연구는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예비 직업사회화 경험을 드러내고, 그 의미를 이해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이를 토대로 경제교육에의 함의를 도출하고, 사회취약계층의 학교-노동 이행을 도울 수 있는 교육적·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는 ‘직업’을 주제로 실생활 중심 경제교육, 평생교육으로서의 경제교육, 역량중심 경제교육의 지향점을 실천하고, 교과 연계 진로교육을 시도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예비 직

업사회화 내러티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둘째, 연구 참여자의 예비 직업 사회화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셋째, 연구 참여자의 예비 직업사회화는 경제교육에 어떤 함의를 지니는가?

연구 방법으로는 해석적 이해의 패러다임 안에서 내러티브 탐구를 수행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 참여자가 직접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연구자는 화자에 의해 재해석되고 재구성된 경험을 탐구하는 연구 방법이다. 연구 참여자는 선정기준과 모집절차에 따라 비수도권, 비도시지역인 금산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가정의 후기 청소년 4명을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예비 직업사회화 내러티브는 아동기부터 학창시절, 진로선택 시기,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시기에 걸쳐 구성되었다. 비정규직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부모님이 전하는 메시지, 부모의 이혼과 가족구성원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메시지, 동아리와 수업시간, 대학 진학 문화가 전해주는 학교의 메시지, 금산 지역을 벗어나기 위한 시도 속에서 지역사회가 전하는 메시지, 인터넷 공간이 전해주는 가능성과 한계의 메시지 등 그들의 내러티브 안에서 다양한 예비 직업사회화(VAS)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취업지원제도의 도움으로 다시 직업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한지민, 역사학자가 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물리치료학과에 진학한 김서연, 간호조무사 엄마보다 조금 나은 삶을 계획하며 간호학과에 진학한 강은진, 남들의 인정을 받아 신분상승을 하고 싶은 김민서의 진로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일상에 참여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 4명의 내러티브를 통해 청소년의 예비 직업사회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들은 가족구성원, 교육기관, 지역사회, 아르바이트, 인터넷 공간 등 사회화 원천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별적 VAS 메시지를 형성하였다. 사회화 원천은 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하여 사회의 관습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였으나, 청소년들은 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수용 혹은 거부하거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재해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자기 메시지 만들기(self-message making)”, “자기 공간 조직(self-spacing)”, “자기 사회화(self-socializing)”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둘째, 청소년들은 구조적·개별적으로 만들어진 VAS 메시지를 바탕으로 진로선택이라는 실천적 행위를 하였다. 진로선택 행위를 이끄는 힘은 진로 이야기 속에 내재된 “진로욕망(career desire)” 이었고, 행위를 방해하는 힘은 불안과 “신뢰자본(trust capital)”의 부족이었다. 청소년들은 진로선택 행위를 둘러싼 진로 이야기를 구성하였고, 농촌의 저소득가정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은 내외부적 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진로자아의 단절 현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단절을 극복하고 자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직업인으로서 자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상(像)을 지니게 되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예비 직업사회화를 “청소년의 직업정체성(vocational identity of adolescents)”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의 직업정체성은 “탈주적 직업정체성(vocational identity as a Line of Flight)”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직업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 구조의 억압과 제약을 극복/저항해 가는 과정이라는 의미이다. 탈주적이라는 용어는 들뢰즈의 탈주선, 탈영토화 개념에서 가져온 것이다. 사회적 구조나 질서, 제도적으로 틀 지어진 주체성의 제약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새로운 대상과 새로운 접속을 추구하는 욕망의 유목적 움직임을 의미한다(Deleuze & Guattari, 1980). 이들은 예비 직업사회화 메시지를 스스로 창조하고, 진로욕망에 따른 진로행위를 하며, 욕망의 생성적 힘을 통해 주어진 공간과 계층을 넘어서려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청소년들은 직업인 ‘되기’를 통해 ‘금

산에서 벗어나기' 와 '부모보다 조금 더 나은 삶' 으로의 여정을 걷고 있었다. 사회와 구조의 작용에 대응하면서 작용하고 반작용하는 청소년들은 구조를 거스르고 탈주하는 힘을 가진 주체였으며, 직업의 영역에서 삶의 작은 변화를 '생성 중' 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방법론적, 실천적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후기 청소년의 학교-노동 이행 문화를 새롭게 밝혔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는 경제교육에서 노동과 직업이라는 주제로, 노동자 역할 교육을 위한 보다 활발한 논의 확장을 가져올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진로선택 행위를 설명함에 있어서 진로욕망, 사회자본 등의 개념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개인의 행위를 생애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셋째, 사회화와 정체성 분석에 있어서 메시지 '전달' 이 아닌 '형성' 패러다임으로 전환, 정체성 '발견' 이 아닌 정체성 '형성'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통해 탈 근대적 방법으로 분석하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넷째, 공간 관점에서 교육 불평등 개선을 위한 방안, 사회제도의 한계와 가능성 제시, 학교 현장 경제수업의 위기와 진로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을 시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과 교육과 경제교육의 새로운 인간상으로서 '탈주의 인간상' 을 제안하였다. 경제교육은 교육과정 구성, 내용, 방법의 개혁을 위해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리즘적 사유방식을 지니고, 배움 중심 학교 문화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경제교육, 예비 직업사회화, 저소득가정 청소년,  
청소년의 직업정체성, 탈주적 직업정체성, 진로욕망, 신뢰자본

**학 번** : 2007-30397

# 목 차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 문제 .....	4
3. 연구 의의 .....	5
II. 이론적 논의 .....	8
1. 청소년의 예비 직업사회화 .....	8
1) 예비 직업사회화 개념과 VAS 메시지 .....	8
2) 진로발달과 진로선택 .....	14
3) 경제교육과 예비 직업사회화 .....	19
2.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삶과 직업 .....	22
1) 저소득가정의 의미 : 사회적 배제 .....	22
2) 저소득가정 환경과 청소년의 진로발달 .....	24
3) 저소득가정 후기 청소년의 학교-노동 이행 .....	27
3. 직업정체성 형성과 욕망이론 .....	32
1) 결핍의 욕망과 생성의 욕망 .....	32
2) 직업정체성과 탈주의 개념 .....	39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	42
1. 연구 방법 : 내러티브 탐구 .....	42
1) 내러티브 탐구의 이해 .....	42
2) 본 연구와의 적합성 .....	44
3) 내러티브 탐구의 절차 .....	46
2. 연구 참여자 선정 .....	48
1) 선정 기준 및 연구 참여자 모집 .....	48



2) 선정 과정 및 연구 참여자 정보 .....	49
3. 자료의 수집과 분석 .....	52
1) 자료의 수집 .....	52
2) 자료의 분석 .....	55
4. 연구의 윤리와 신빙성 .....	58
1) 연구의 윤리를 위한 노력 .....	58
2) 연구의 신빙성을 위한 노력 .....	58
<b>IV. 내러티브 : 직업인으로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 .....</b>	<b>63</b>
1. 한지민의 이야기 .....	63
1) 아동기~학창시절 .....	63
(1) 가족구성원의 메시지 .....	64
(2) 교육기관의 메시지 .....	71
(3) 아르바이트의 메시지 .....	76
2) 진로선택 시기 .....	83
(1) 대학의 의미 : 대학 가는 애들 그리고 나 .....	83
(2) 예술실용전문학교의 선택 : 몸으로 부딪치는 일 .....	86
(3) 진로장벽 : 아빠의 반대와 경제적 어려움 .....	88
3) 고등학교 졸업 후 .....	92
(1) 다시 시작된 직업의 길 : 취업지원제도 .....	92
(2) 직업인 의식의 형성 .....	94
(3) 미용인 정체성 형성 .....	101
2. 김서연의 이야기 .....	104
1) 아동기~학창시절 .....	104
(1) 가족구성원의 메시지 .....	104
(2) 교육기관의 메시지 .....	108
(3) 지역사회의 메시지 .....	111
2) 진로선택 시기 .....	115
(1) 전공 선택의 고민 : 사학과와 물리치료학과 .....	115
(2) 대학의 의미 : 취업을 위한 곳, 차별받지 않기 위한 곳 .....	118

(3) 진로장벽 : 소극적 교육지원, 경제적·사회적 자본 부족 .....	121
3) 고등학교 졸업 후 .....	123
(1) 부정적 자아의 회복 : 진로 자기효능감의 형성 .....	123
(2) 물리치료사 정체성 형성 .....	127
3. 강은진의 이야기 .....	131
1) 아동기~학창시절 .....	131
(1) 가족구성원의 메시지 .....	131
(2) 교육기관의 메시지 .....	137
(3) 지역사회의 메시지 .....	140
2) 진로선택 시기 .....	142
(1) 전공 선택의 과정 : 받아들임과 거리두기 .....	142
(2) 대학입시와 간호학과 합격 .....	147
(3) 사회적 지지 : 간호조무사 엄마는 풍부한 사회자본 .....	152
3) 고등학교 졸업 후 .....	155
(1) 간호사 직업정체성의 형성 .....	155
(2) 경제생활의 시작 : 본격적 소비행위의 시작 .....	158
4. 김민서의 이야기 .....	161
1) 아동기~학창시절 .....	161
(1) 가족구성원의 메시지 .....	161
(2) 교육기관의 메시지 .....	164
(3) 지역사회의 메시지 .....	169
(4) 아르바이트의 메시지 .....	172
(5) 인터넷 공간의 메시지 .....	173
2) 진로선택 시기 .....	180
(1) 대학의 의미 : 명문대와 의대 그리고 직업 .....	180
(2) 낮은 자기효능감 .....	183
3) 고등학교 졸업 후 .....	185
(1) 새로운 경험과 자기 이해의 변화 .....	185
(2) 회사원 직업에 대한 가능성 .....	188

V. 내러티브의 이해 : 청소년의 탈주적 직업정체성 .....	191
1. 사회화 원천과의 상호작용 이해 .....	191
1) 가족구성원과의 상호작용 .....	191
2) 학교와의 상호작용 .....	198
3)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	207
4) 인터넷과의 상호작용 .....	213
5) 종합: 자기 메시지 만들기, 자기 공간 조직, 자기 사회화 ·	225
2. 진로선택 행위의 이해 .....	232
1) 진로선택 행위와 관련된 힘 .....	232
2) 진로선택 과정의 특징 .....	245
3) 종합 : 진로욕망과 신뢰자본, 진로자아의 단절과 회복 .....	250
3. 예비 직업사회화의 의미 : “탈주적 직업정체성”의 형성 .....	253
1) 청소년 직업정체성 개념의 제안 .....	253
2) 탈주적 직업정체성의 형성 .....	256
VI. 결론 및 시사점 .....	270
1. 요약 및 결론 .....	270
2. 시사점과 한계 .....	275
1) 이론적 시사점 .....	275
2) 실천적 시사점 .....	281
3) 연구의 한계 .....	286
참고문헌 .....	289
부 록 .....	311
Abstract .....	319

## 표 목차

<표 1> 진로선택 이론의 발전 .....	15
<표 2> 진로 패러다임의 변화 .....	18
<표 3> 저소득가정 환경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 .....	25
<표 4> 욕망론의 상이한 관점 .....	33
<표 5> 내러티브 탐구의 절차 .....	47
<표 6> 연구 참여자 정보 .....	51
<표 7> 금산군 인구 변화 .....	51
<표 8> 초기 면담질문지 .....	53
<표 9> 심층면담 일정 .....	54
<표 10> 사회화 원천-한지민 상호작용과 VAS 메시지 .....	63
<표 11> 사회화 원천-김서연 상호작용과 VAS 메시지 .....	104
<표 12> 사회화 원천-강은진 상호작용과 VAS 메시지 .....	131
<표 13> 사회화 원천-김민서 상호작용과 VAS 메시지 .....	161
<표 14> 연구 참여자-할머니 상호작용 양상 .....	194
<표 15> 가족구성원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VAS 메시지 .....	197
<표 16> 진로교육 관련 내러티브 .....	200
<표 17> 경제수업의 부재 관련 내러티브 .....	202
<표 18> 학교의 의미와 개별적 행위 .....	204
<표 19> 한지민의 금산 지역 벗어나기 .....	210
<표 20> 김민서의 금산 지역 벗어나기 .....	212
<표 21> 사회화 원천으로서 인터넷 .....	214
<표 22> 인터넷 사회화의 한계 .....	217
<표 23> 강은진-인터넷 상호작용 .....	220
<표 24> 김민서-인터넷 상호작용 .....	222
<표 25> 인터넷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VAS 메시지 .....	224
<표 26> 연구 참여자들의 진로욕망 .....	233
<표 27> 한지민의 진로욕망이 이끄는 진로행위 .....	235
<표 28> 김민서의 진로욕망이 이끄는 진로행위 .....	236
<표 29> 진로선택 행위를 방해하는 힘 .....	239
<표 30> 직업생활을 통한 작은 변화 .....	264

## 그림 목차

[그림 1] 생애적인 직업사회화 .....	9
[그림 2] Holland의 진로개념과 Super의 진로개념 .....	17
[그림 3] 주제 분석법을 이용한 내러티브 구성과정 .....	56
[그림 4] 위계화, 관련성 분석 작업의 예시 .....	57
[그림 5] 가족구성원과의 개별적 상호작용 .....	194
[그림 6] 경제적 어려움 속 개별적 상호작용 .....	195
[그림 7] 한 부모 가정 속 개별적 상호작용 .....	196
[그림 8] 학교 사회화의 구조 .....	199
[그림 9] 무의미한 진로교육의 구조 .....	200
[그림 10] 자기 메시지 만들기 .....	225
[그림 11] 학교-한지민 상호작용과 자기 공간 조직 .....	228
[그림 12] 인터넷-강은진 상호작용과 자기 사회화 .....	230
[그림 13] 김서연의 진로선택을 방해하는 힘 .....	241
[그림 14] 진로 이야기의 단절 .....	245
[그림 15] 한지민, 김서연의 진로 이야기 단절 .....	246
[그림 16] 이야기 재구성을 통한 자아 회복 .....	248
[그림 17] 청소년의 직업정체성 형성 과정 .....	254
[그림 18] 한지민의 탈주적 직업정체성 형성 과정 .....	258
[그림 19] 김서연의 탈주적 직업정체성 형성 과정 .....	260
[그림 20] 강은진의 탈주적 직업정체성 형성 과정 .....	261
[그림 21] 김민서의 탈주적 직업정체성 형성 과정 .....	262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이 연구는 개인적 경험<sup>1)</sup>과 연구 관심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연구자는 지역구청에서 진행하는 ‘저소득가정 자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자원봉사 교사로 참여하면서 청소년들과 만나게 되었다. 고등학생이었던 이들의 주요 관심사는 ‘직업 갖기’였으며<sup>2)</sup>, 서서히 직업인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동시에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은 진로와 관련하여 중산층 가정의 청소년과는 다른 경험을 하고 있었다. 가정에서 생계 유지에 바쁜 부모의 무관심과 진로준비에 대한 소극적 지원, 진로체험 및 정보의 한계 등을 경험하고 있다(구인회, 2003; 김광혁, 2008; 방하남·김기현, 2002). 연구자는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이 직업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차별적 경험을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사회적으로는 노동시장 및 직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육적 요구가 등장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노동자 또는 직업인에게 개성과 창의성이 발현

- 
- 1)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연구자 내러티브를 중시한다. 연구자의 내러티브와 연구 참여자의 내러티브가 만나 새로운 내러티브를 공동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보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소수 학생의 문화와 교육 정의 실현에 관심이 있다. 중학교 사회교사로 재직하던 때 우연히 탈북 청소년을 가르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연구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학교가 다양한 학생들이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기를 바라지만, 이와 같이 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교육과정, 교사의 배경, 수업의 구성, 평가 방식 및 수준 등이 중산층 가정의 자녀와 중간 이상의 학업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계층에 대한 관심과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연구자는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직업과 관련된 고민과 차별적 경험의 현상을 접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갖기 시작했다. 직업인으로 성장하는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삶의 이야기는 어떠할까? 학교에서 노동으로 이행 과정 동안 이들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의 경험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 2) 오늘날 청소년들은 ‘공부’와 ‘직업’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다. 「2015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청소년(13~24세)의 고민거리 순위는 2014년 ‘공부(35.3%)’에 이어 직업(25.6%)이 두 번째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이후 2년 마다 조사된 ‘청소년의 고민거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다(통계청, 2015).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용의 불안정과 실업, 불평등의 위협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일(work)의 세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청년실업’이라는 사회문제 앞에서 청소년들은 불확실한 미래 노동시장에 대비하기를 원하며, 현명하게 진로를 선택하고, 일터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

따라서 경제교육에서는 일과 노동, 생산에 대한 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일과 노동은 인간의 본질이자 역사와 문명을 만들어 온 원천이다(Braverman, 1974: 50). 경제학적 관점에서 노동은 시장, 자본과 함께 다루어야 할 주요 이슈이다. 개인은 분업과 특화를 통해 얻은 소득으로 시장에서 교환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고도로 분업화된 현대 사회에서 경제적 의미의 일, 노동, 생산의 기회는 ‘직업’을 통해 개인에게 주어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노동과 생산에 대한 관심은 직업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노동의 삶과 경제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 직업인의 삶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들이 직업을 갖기 힘든 사회적 세대<sup>3)</sup>, 일과 직업 개념의 급격한 변화<sup>4)</sup>, 생활 중심 경제교육에 대한 요구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 속에서 개인의 직업생활에 대한 경제교육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교육에서 개인의 직업생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예비 직업사회화(vocational anticipatory socialization)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동안 경제교육 연구들은 소비습관, 화폐, 소득, 부의 분배, 경제윤리, 조세, 여가활동 등 다양한 주제로 경제사회화(economic

---

3) 청년층 실업률은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청년층(15~29살) 실업률은 9.3%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취업준비생과 ‘알바생’, 구직단념자 등을 실업자로 포함시켜 계산한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2.6%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나 뛰었다. ...<중략>...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인구 구조에 따라 향후 4~5년간은 청년 고용시장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한겨레, 2017).

4)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산업사회의 유물이 되고, 다양한 직업인의 모습이 등장하였다. 계약제로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프리에이전트(free agent), 업무에 따라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일하는 이랜서(e-lancer), 일을 따라 직종과 국경을 넘나드는 잡 노마드(job nomad) 등이 그들이다(Malone, 2004).

socialization)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하지만 일, 생산, 노동과 관련한 주제는 활발하게 연구되지 못했다. 근대 이후 학교제도 안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일터와 분리되었고, 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경험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우리는 청소년기가 직업생활을 준비하는 중요한 발달과정의 시기임을 알고 있다(Arnett, 2000; Blustein & Noumair, 1996; Erikson, 1968; Savickas, 1985). 청소년기는 경제적으로 독립된 주체가 되어가는 인생의 단계로서 경제활동과 관련된 특정한 입장을 취하게 되며, 경제행동의 많은 부분을 결정한다. 청소년기에 형성한 직업 관련 지식, 기능, 가치관은 미래 직업생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Greve & Seidel, 2014; Lunt & Furnham, 1996). 따라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일의 세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직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식, 기능, 가치관을 형성하는지, 진로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밝히는 일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예비 직업사회화를 이해할 때는 연구대상에 보다 미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에서 사회계층에 따른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선행 경제사회화 연구들은 개인의 경제행위가 역사적·사회적·문화적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사회계층과 집단에 따라 그리고 개인에 따라 광범위한 차이를 보임을 밝혀왔다(Webley, 2001). 청소년의 직업적 성장이라는 주제 역시 개인의 능력발휘와 같은 중립적인 문제가 아니다. 부모와 가족들이 교육제도를 활용하여 자녀가 미래의 경제세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열어주는 사회계층 제도의 문제가 포함된다. 즉,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수입의 측면에서 얼마나 높은 목적을 지향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Lunt & Furnham, 1996).

우리 사회에서는 학교에서 직업의 세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수많은 선행연구들은 소득의 양극화가 교육의 양극화, 계급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김경근, 2005; 김미란, 2014; 오욱환, 2008). 부모의 사회경제적 영향력과 가정배경이 사교육에 투입하는 비용을 통해 교육격차를 만들어내고, 나아가 자녀의 취업에 중



요한 변수로 작용하여 불평등 구조의 대물림 현상을 지속시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남인숙, 2011). 즉, 부유한 가정의 자녀와 가난한 가정의 자녀는 직업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경험을 하며, 이 경험의 차이가 미래 직업지위와 임금의 차이를 가져오며, 직업생활을 통한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예비 직업사회화 과정과 그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교육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이 직업과 관련하여 아동기부터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그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 직업의 의미와 지식, 기능, 가치관은 무엇인지, 이것이 어떻게 진로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는지 등을 상세히 밝히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직업의 세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생하게 드러내어, 독자들이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의 삶에 참여하고 내부자의 시선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사회계층을 구체화하기 위해 경제적 측면에서 저소득가정 청소년이라는 대상에 초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비(非)수도권, 비(非)도시 지역이라는 공간적 측면 역시 고려하였다. 이들의 독특한 예비 직업사회화 문화와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직업인으로 성장한다는 것의 의미, 즉, 예비 직업사회화의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나아가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의 직업인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경제교육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이 직업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의 경험을 이해하고, 이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청소년의 예비 직업사회화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이를 통해 경제교육에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예비 직업사회화 내러티브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 ① 아동기~학창시절 동안 무엇을 경험하는가?
- ② 진로선택 시기에는 무엇을 경험하는가?
- ③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무엇을 경험하는가?

둘째, 연구 참여자의 예비 직업사회화 과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 ① 사회화 원천과의 상호작용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 ② 진로선택 행위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셋째, 연구 참여자의 예비 직업사회화는 경제교육에 어떤 함의를 지니는가?

### 3. 연구 의의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예비 직업사회화 경험과 그 의미를 이해하려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방법론적·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첫째, 경제교육에서 노동자와 직업인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청소년들의 직업 관련 지식, 기능, 가치관을 이해하고, 이것이 경제행위로 이어지는 과정, 미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세하게 밝힌다.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의 노동관 및 직업관, 진학 및 취업에 대한 행위 결정, 학교에서의 경제교육 및 진로교육,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체험, 부모의 직업생활과 직업에 대한 태도, 미디어를 통해 접한 경제현상 및 직업생활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 등 다채로운 이야기는 청소년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과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이해하게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직업인으로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경제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특히 사회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진로교육은 무엇인지에 대한 실천적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생애적인 직업사회화 관점에 입각하여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 직업사회화 논의를 시작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국내에서 지금

까지 예비 직업사회화 논의는 활발하지 않으며, 주로 직업을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사회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청소년기에 일과 직업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발달하고,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보는 일은 중요하다(Harpaz & Fu, 2002).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장래의 교육적·직업적 미래를 결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준비를 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Erickson, 1968). Frese(1982)는 직업사회화를 ‘일의 상황 속에서 혹은 일 때문에 나타나는 개인의 변화’로 정의했다. Cohen-Scali(2003)는 직업사회화가 아동기부터 시작되는 길고 복잡한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넓은 의미의 직업사회화는 특정 나이에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생애적인 개념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예비 직업사회화라는 변화 과정을 새롭게 조명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셋째,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저소득가정 청소년이라는 대상에 집중하여 그들의 일상과 목소리를 드러냈다는 의의를 지닌다. 현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일상의 삶 속으로 들어가 내부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학교와 교육현상에 대한 기능주의적 견해와 이에 대한 비판으로서 마르크스적 구조주의 견해가 대립하였을 때, Willis(1981)는 실제로 교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자계급 아이들이 노동자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자는 교실로 들어가 청소년들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했다. 그는 계급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이데올로기적 실천 속에, 공장과 사무실에, 그리고 노동자끼리의 사귄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그들에게 힘을 부여한다는 의미 또한 지닌다. 조영달(2015)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첫 번째 단계는 감정이입과 상상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노력을 돕거나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질적 연구를 통해 소외되고 무기력했던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 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삶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권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

넷째, 경제교육과 진로교육의 연계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

대한다. 경제교육과 진로교육은 ‘다양한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기르는 것’ 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여러 학자들은 새로운 방식의 경제교육과 교과연계를 통한 진로교육을 주장하고 있다. 조영달(2012)은 경제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경제개념이 소비, 소득, 부의 분배, 소유, 시장, 화폐뿐만 아니라 노동, 실업 등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활경제교육의 일환으로서 경제교육의 장을 통한 진로교육을 주장하며(이혜원·박형준, 2009), 경제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경제학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경제생활에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돕는 것이어야 함을 강조한다(안현효, 2005; 오영수, 2005). 장원섭(2006)은 자라나는 세대를 학습시키는 초·중등교육에서 직업생활의 중요한 측면들을 포괄하는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봉환 외(2017)는 교과통합 진로교육을 주장하며 다양한 교과의 수업전략, 교과 지식과 연계한 직업 체험활동의 사례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 교육과정 역시 학교 교육을 통해 ‘일과 노동’의 중요성을 학생들이 명료하게 인식하고, 합리적인 진로선택을 통해 만족스러운 삶을 꾸려나가면서, 동시에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교육부, 2015)<sup>5)</sup>. 따라서 경제교과에서 일의 세계를 통해 경제 지식과 원리를 이해하고, 직업과 관련한 학습 목표를 통해 학습자에게 흥미와 동기를 부여하며, 교실 안과 밖이 연결되는 내용을 선정·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 현장의 경제교육 및 진로교육 현황을 밝히고, 직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청소년들의 경험을 이해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

5)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경제교과 교육과정에서는 “노동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변동에 따른 직업의 변화를 예측한다.”는 학습내용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

## II. 이론적 논의

### 1. 청소년의 예비 직업사회화

#### 1) 예비 직업사회화 개념과 VAS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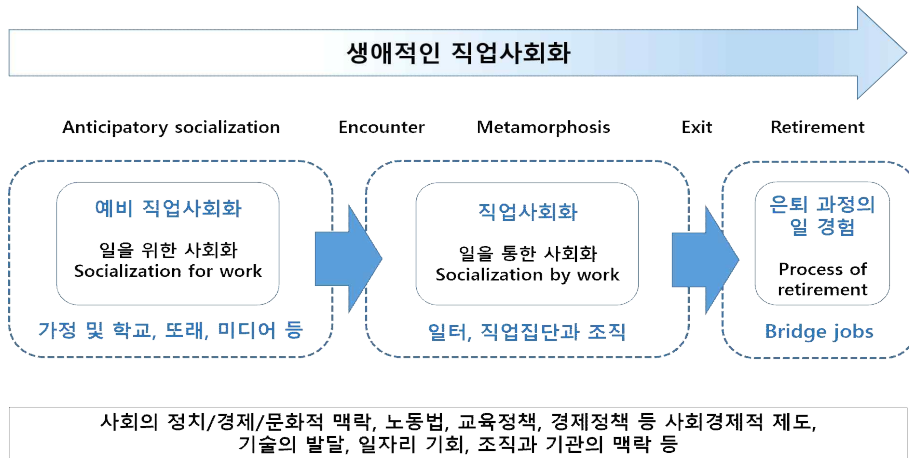
직업사회화(vocational/occupational socialization)는 개인이 직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학습과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발달 과정을 설명하는 개념이다(Jablin, 2001; Myers, Jahn, Gailliard, & Stoltzfus, 2011). 직업사회화 연구는 산업심리학과 조직심리학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노동자의 일터와 조직 적응에 관심을 가진다. 이에 따라 직업사회화를 좁은 의미로 바라볼 때 조직사회화(organizational socialization)의 용어와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직업사회화는 직업적 특성을 강조하여 사회화 과정을 살펴보는 반면, 조직사회화는 상황적 특성을 강조하여 구체적인 조직체 현장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화 과정을 바라본다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두 관점 모두 직업 집단 혹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원으로서 적응해 가는가, 일과 직업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행위를 어떻게 습득 하는가, 그 과정을 밝히고자 하는 공통점이 있다(Wanberg, 2012: 17).

최근에는 직업사회화를 생애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여러 기간과 단계로 나누어 살펴본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동기부터 청소년기에 집중한 연구, 직업 집단과 조직에 참여하는 성인기에 집중한 연구<sup>6)</sup>, 은퇴 이후 노년기에 집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인생의 단계별로 경험하는 직업과 관련한 사회화 과정을 다음 [그림 1]과 같이 구성해 보았다. 이 중 직업 집단에 진입하기 이전 아동 및 청소년기에 가정과 학교에서

---

6) 고용된 노동자가 조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해 가는 ‘일을 통한 사회화’ 과정은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으며, 이 과정은 다시 3단계-접촉 단계(encounter stage), 변형 단계(metamorphosis), 출구 단계(exit)-로 나누어 설명한다(Jablin, 2001).

경험하는 사회화를 일을 위한 사회화(socialization for work)라고 한다. 이후 직장과 일터에서 직접적인 일을 경험하고 조직과 문화에 적응하는 사회화를 일을 통한 사회화(socialization by work)라고 한다. 즉, 생애적인 직업사회화는 ‘일을 위한 사회화’와 ‘일을 통한 사회화’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Cohen-Scali, 2003).



[그림 1] 생애적인 직업사회화

‘일을 위한 사회화’에 주목한 선행연구들은 개인이 직업 집단에 진입하기 이전 이미 예비 사회화가 일어난다고 본다. 아동과 청소년들은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개념을 형성하고, 일의 세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고려하며, 특정한 직업과 일터의 환경에 대한 기대와 신념을 형성한다. 이 과정을 ‘예비 직업사회화(vocational anticipatory socialization: VAS)<sup>7)</sup>’라고 칭하며, ‘개인이 노동과 일에 대하여 배우고 교육적 관심, 진로 흥미, 직업 기대를 발달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Jablin, 2001; Kramer, 2010; Levine & Hoffner, 2006).

청소년들은 예비 직업사회화를 통해 특정 직업 영역을 추구하는 방향성

7) 예비 직업사회화는 예비 조직사회화(organizational anticipatory socialization)와 구분되기도 한다. 예비 직업사회화(VAS)는 아동기부터 원하는 직업으로 향하는 매우 긴 과정임에 반해, 예비 조직사회화(OAS)는 보다 짧은 시기이며 면접과 채용의 과정을 거치며 이루어진다(Kramer, 2010).

을 보인다. 자신이 소속되어 일하게 될 집단을 지향하며, 자신이 그 집단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기대와 예측을 하게 된다. 청소년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직업과 관련한 정보를 자신의 자아개념과 비교하고, 다양한 요인과 대안들을 살펴본 후 최종적으로 그들의 미래 직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된다. 청소년들은 지속적인 진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과 상호작용하며 직업 관련 가치관과 신념을 발달시켜 나간다(Jablin, 2001; Vondracek & Porfeli, 2003).

선행연구들은 사회화를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기억에 남는 메시지(memorable messages)를 전달받는 의사소통의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이 중 진로와 직업 관련 사회화 메시지를 예비 직업사회화 메시지(VAS messages)라고 칭하였다(Gibson & Papa, 2000; Jablin, 2001; Medved, Brogan, McClanahan, Morris, & Shepherd, 2006). 이러한 메시지는 개인에게 특정한 방향으로 행위 하도록 하고, 일상의 경험을 형성하며, 이것을 바탕으로 직업인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VAS 메시지를 통해 개인은 특정한 직업의 영역으로 사회화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여러 연구들은 VAS 메시지를 분석함으로써 사람들이 직업 세계에 진입하기 이전에 직업의 세계에 대해 어떻게 배워 가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VAS 메시지의 원천은 크게 부모와 가족구성원, 학교와 교육기관, 또래와 동료, 아르바이트, 미디어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Feij, 1998; Jablin, 2001; Levine & Hoffner, 2006). 각 원천은 일과 일터에 대한 서로 다른 메시지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은 이러한 메시지를 통합하여 진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가족구성원들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사회화에 큰 영향을 주는데, 특히 부모는 자녀의 예비 직업사회화에 가장 주된 영향력을 행사한다. 아동은 부모의 직업생활 이야기를 전해 듣고, 부모의 일터에 방문하여 일하는 모습을 관찰하기도 한다. 심부름이나 집안일을 부여받고, 감독받고, 평가받는 양식에 따라 일의 규범을 배우기도 한다. 청소년인 자녀에게 부모는 직업인의 역할모델이 되거나, 교육과 진로에 대한 조언을 하고, 일의 가

치와 태도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기도 한다(Hoffner, Levine, & Toohey, 2008; Jablin, 2001).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모, 가족구성원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내용의 VAS 메시지를 전달한다. 부모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따분한 작업, 짜증나는 상사 이야기 등을 통해 노동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VAS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Levine & Hoffner, 2006). 그리고 ‘열심히 일하기, 일자리 잃지 않기’와 같은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는 VAS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Gibson & Papa, 2000). 자아실현의 가치(너의 열정에 따라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 자급자족의 가치(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마라, 가족을 부양하라 등), 적성과 재능을 중시하라는 VAS 메시지(너에게는 수학적 재능이 있으니 엔지니어가 되어라)를 전해 주기도 한다(Jahn & Myers, 2014).

학교와 교육기관은 학생들이 특정 진로 및 직업에 흥미를 가지도록 이끌어 간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경험과 교육을 통해 일의 세계를 향해 사회화된다. 학교는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직의 맥락 안에서 사회적 관계를 발달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Levine & Hoffner, 2006).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특정 진로 흥미를 발달시키기도 하지만, 주로 제도화된 환경, 규범, 규칙들을 배우며 권위에 따르고 복종하는 법을 배운다(Adya & Kaiser, 2005; Myers et al., 2011). 또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특정 교과, 학문영역과 관련된 직업 흥미를 형성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학생들이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전공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학교에서 수학, 과학 교과 수업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STEM education policy)을 하고 있다(Jahn & Myers, 2015; Johnson, 2012).

또래, 동료와의 관계는 특정 교과, 진로, 직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준다. 친구와의 상호작용은 특정 직업 영역의 흥미를 자극하고, 원하지 않는 진로선택을 저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과학에 대한 흥미를 공유한 청소년들이 과학자 직업과 미래 삶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였다(Stake & Nickens, 2005). 또한 또래와 관계 맺기 경험은 함께 일하기 위해 감정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와 같이 일의 세계에 필요



한 사회적 기능을 습득하는 데 영향을 주기도 한다(Jablin, 2001).

아르바이트는 청소년들이 직접 노동에 참여함으로써 VAS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는 사회화 원천이다. 청소년들은 일터에서 관계의 특징과 중요성, 의사소통 기능을 배우고, 조직의 문화 등 미래 직업 집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동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정직, 시간 지키기 등 일의 세계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자질, 학교 밖 세계에서 경제와 돈의 개념을 배운다.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높은 질의 노동 경험은 청소년에게 책임감, 좋은 직업에 대한 동기 부여, 성취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진로 흥미와 관련된 아르바이트 경험은 진로 네트워크와 기회를 제공하며, 전문적인 직업사회화를 촉진하기도 한다(Jablin, 2001; Levine & Hoffner, 2006).

하지만 청소년들이 주로 종사하는 아르바이트는 숙련된 기능을 요구하지 않는 저임금의 노동(심부름하기, 음식 서빙, 설거지 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래 직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Greenberger & Steinberg, 1986; Loughlin & Barling, 2001; Mortimer, 2003). 이렇게 아르바이트가 청소년의 예비 직업사회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쟁적이다.

미디어는 직업 세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은 미디어 속 인물을 통해 가치, 신념, 행위를 배운다(Hoffner et al., 2008). 텔레비전은 로펌, 병원, 식당, 기업 등 수많은 조직과 일터를 묘사하며,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과 업무 등 일 관련 행위를 보여준다. 하지만 미디어는 직업 세계에 대한 부정확하고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Signorielli & Kahlenberg, 2001). 여성이나 소수 민족에 대한 고정관념의 이미지를 전해주기도 하며, 특정 직업과 관련한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화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여학생들은 미디어의 영향을 받아 STEM 관련 직업 영역에 대해 남성이 주로 종사한다고 여긴다. 또한 교사나 간호사와 같은 직업은 여성이 종사하기에 적합하다고 여긴다(Myers et al., 2011).

그러나 사회화 원천이 전달하는 VAS 메시지의 영향은 서로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다. 부모의 특정 직업영역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가 계층과 문화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르게 작용하였다. 일반적으로는 자녀가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일치하는 직업영역으로 사회화된다고 밝히고 있다 (Gibson & Papa, 2000). 하지만 반대로 노동자 계층의 부모는 자녀의 대학교육을 격려하고, 육체노동이 아닌 직업을 지지하며, 중산층의 삶의 양식을 지향하는 가치를 전달하여 유동적 사회화(mobility socialization)가 일어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Serravallo, 2004). 중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일정 이상의 교육수준, 전문적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좋은(honorable)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사회화한다고 밝혔다(Berkelaar, Buzzanell, Kisselburgh, Tan, & Shen, 2012: 107). 따라서 사회화 원천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가, 문화, 집단, 계층 등 다양한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예비 직업사회화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화 원천을 밝히는데 주목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다양한 사회화 원천과의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주로 가족구성원의 영향을 밝히는 연구가 많으며, 또래의 영향, 미디어의 영향 등 특정한 사회화 원천에 집중하여 VAS 메시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국내에서는 예비 직업사회화 개념을 기반으로 한 연구를 찾기 어렵다. VAS 메시지는 국가마다 상이한 일과 노동에 대한 역사, 제도, 가치 등 사회문화적 토대 위에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예비 직업사회화 과정은 새롭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 대상 청소년의 개별 맥락에 따라 형성되는 VAS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을 밝힌 연구는 거의 없다. 청소년이 VAS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내부자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sup>8)</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 직업사회화와 VAS 메시지 개념에 기반 하여 분석의 틀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예비 직업사회화 과정과

---

8) 몇몇 연구에서 계층과 문화의 ‘차이’에 따른 예비 직업사회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이해하려고 시도하였다. 노동자 계층의 가족은 중산층의 직업과 고등교육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행사 한다(Lubrano, 2004: 34). 이러한 가족을 ‘black-hole families’라고 불렀다. 노동자 계층의 자녀로 태어났으나 고등교육을 통해 결국 중산층의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인 ‘straddlers’는 두 개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두 영역 모두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 두 세계의 삶의 양식은 매우 달라서 아동이 부모의 반대에도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면 자녀와 부모는 영원히 분리되는 삶을 살게 된다.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각 사회화 원천과의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고, 저소득가정이라는 계층과 거주지역의 차이에 집중하였으며, 상황과 맥락에 따른 구체적 VAS 메시지를 분석하기 위해 청소년의 내러티브를 분석하는 연구 설계를 하였다.

## 2) 진로발달과 진로선택

직업심리학 영역에서는 청소년의 예비 직업사회화를 진로발달(career development)과 진로선택(career choice)의 과정으로서 바라보았다. 이들은 청소년의 직접적 노동 참여가 아닌 미래 직업인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아동과 청소년은 일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나 직업태도, 인식, 행위를 형성하고 직업인으로 변화해 나간다. Super(1980)는 진로발달이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며, 직업의 여러 측면에 대한 지식, 흥미, 가치, 태도, 규범, 신념, 기대 등은 발달의 단계를 통해 내면화되고 분화된다고 주장했다.

Super(1980)의 진로발달이론은 진로에 대한 자아개념(self-concept)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인간은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자아개념에 부합하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진로발달의 과정을 진로 자아(career identity)의 발달과 실행 과정이라고 보았다. 사회적 학습의 산물인 진로 자아 개념은 유아기부터 형성(formation), 전환(translation), 실행(implementation)의 과정을 거치며 발달하며 청소년기에 본격적으로 형성된다. 이후 청소년 후기에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선택과 적응 선상에서 점차 안정적이게 된다. 진로 자아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개인은 이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의사결정은 실행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정체성의 재형성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순환적이고 연속적인 자아 개념의 발달과 정체성의 형성 관계를 탐색함으로써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Wallace-Brosious, Serafica, & Osipow, 1994).

진로이론에서 핵심 개념은 진로선택과 진로의사결정(career decision making)이다<sup>9)</sup>. 진로선택 이론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진로선택 이론의 발전

이론	학자	주요 내용
특성-요인 이론	Parsons (1909)	진로선택은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특성 간 관계를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연결시키는 과정
성격이론	Holland (1973)	진로선택은 개인을 6가지 성격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직업 환경을 연결시키는 과정
진로발달이론	Super (1980)	개인은 성장기-탐색기-확립기-유지기-쇠퇴기의 진로발달단계를 거치면서 생애역할을 수행하고, 직업적 자아개념을 형성해 감
제한타협이론	Gottfredson (1981)	개인은 연령별 발달과업을 수행하면서 진로대안을 제한하고, 수용 가능한 진로대안 중 현실적 여건에 따라 어떤 부분을 포기하는 타협의 과정을 거침
사회학습이론	Krumboltz (1996)	개인의 직·간접적 학습경험을 통해 진로 흥미와 행동이 형성됨. 이 과정에서 선천적 특성, 환경조건, 문제해결기술의 영향을 주고받음
사회인지 진로이론	Lent, Brown & Hackett (2000)	개인의 특성과 인지(자기효능감, 결과기대), 환경적 맥락(진로장벽 등)과 행위가 상호작용하는 과정
진로구성주의 이론	Savickas (2013)	행위자, 주체, 작가로서 자아의 차원을 거치며 진로 이야기를 만드는 자기구성(self-construction) 과정

9) 진로발달 연구에서는 진로선택과 관련된 전체적인 과정에 관심을 기울인다. 반면 진로의사결정이란 개인이 정보를 조직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진로선택을 위한 행동과정에 전념하는 심리적인 과정이다(Harren, 1979). 따라서 진로의사결정은 진로발달의 미시적 분석(micro-analysis)이라고 볼 수 있다. 진로발달 관점에서 진로선택은 범위가 넓고, 개인의 내적인 심리과정에는 관심을 덜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반면, 진로의사결정이론들은 진로선택이 이루어지는 구체적 과정, 그 선택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설명하는데 주목하여 왔다(Phillips & Paziienza, 1988: 김봉환 외, 2010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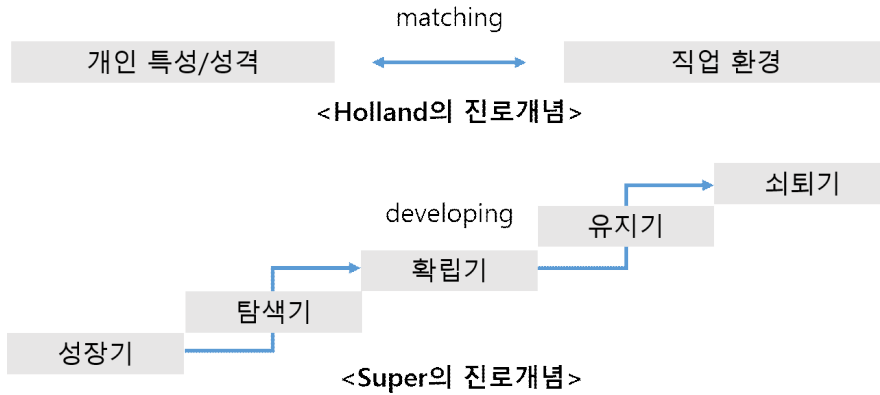
초기 진로이론가 Parsons(1909)와 Holland(1973)는 개인의 특성과 직업 환경의 특성을 파악하여 직업 선택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후 Super(1980)는 진로선택이 과정적·연속적·생애적인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개인이 일련의 발달과업을 수행하며 발달단계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Gottfredson(1981)은 청소년기까지 발달단계를 거치면서 서열, 성역할, 사회적 가치 등을 획득하며 수용 가능한 진로 대안 영역을 형성하고 그 영역 안에서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축소해 가는 진로포부의 제한(circumscription)과정을 거친다고 보았다. 이후 그 직업을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 어떤 부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타협(compromise)의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Krumboltz(1996)는 진로 및 직업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4가지(선천적 특성, 환경적 상황, 학습경험, 문제해결기술)를 제시하였다. 특히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최근의 진로이론가들은 이러한 진로이론들을 통합하여 진로선택의 과정을 개인적 특성, 인지적 측면(자기효능감), 환경적·맥락적인 요인 등을 모두 고려하여 설명하고자 한다(Lent et al., 2000).

이와 같이 20세기 진로이론들은 선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과성을 전제로 개인의 진로선택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과거의 진로이론들은 진로의사결정이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절차와 원리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전제를 하였다<sup>10)</sup>. Holland(1973)가 주장하는 진로개념은 일터마다 적합한 노동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했던 근대 산업 사회의 필요에 따른 것이며, 개인-환경 사이의 연결이라는 객관주의적 시각을 담고 있다. Super(1980)가 주장하는 진로개념은 자아발견, 자아실현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개인이 설정한 목표를 향해 발달단계의 과

---

10) 최근에는 이러한 전제에 비판을 가하며 진로선택 과정의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소수의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Bubany & Hansen, 2010; Hartung & Blustein, 2002). 기존의 진로이론들이 간과해 왔던 현상들 즉, 맥락, 복잡성, 우연/기회, 체제의 영향들, 직관 또는 영성 등을 탐구하고자 시도한다(손은령, 2009). Hartung & Blustein(2002)은 이러한 새로운 경향을 대안모델이라고 한다. 대안모델은 직업세계의 급격한 변화와 현실의 불안정으로 인해 과거 개인의 학습 혹은 경험을 미래의 직업 세계와 합리적으로 예측하고 연결 지으려는 접근방식이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려 한다.

업을 수행해 간다는 주관주의적 시각을 담고 있다(Savickas, 2013). 그 차이는 [그림 2]와 같이 선형적 매칭(matching) 과정, 계단적 과업 달성(developing) 과정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림 2] Holland의 진로개념과 Super의 진로개념

한편, 21세기의 진로이론은 진로의 재개념화와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장한다. 디지털 혁명과 정보화 사회, 글로벌 경제로의 변화는 기업 구조와 일 세계의 변화를 가져왔다. 평생직장의 해체와 시간제 노동자의 증가 등 개인의 직업생활이 변화하였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해서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연결이 안정적일 수 없다. 21세기의 진로는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하고, 사회적 현실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다. 진로 패러다임은 특성과 상태에서 맥락으로의 변화, 처방에서 과정으로의 변화, 선형적 인과성에서 비선형적 역동성으로의 변화, 과학적 사실에서 내러티브적 실재로의 변화가 일어났다(Savickas et al., 2009).

현대 진로이론 중 기존의 실증적 접근에 대한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 구성주의 관점이다(Brown & Lent, 2005; McMahon & Patton, 2002). 구성주의는 개인의 인지적 과정을 통한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세상의 구조와 의미부여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 ‘의미’란 형성된 관계 속에서 실천과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 역사적·사회적·문화적인 구조를 말한다(Young & Collin, 2004). Savickas(2013)의 진로 구성주의 이론

(career construction theory)에 따르면 개인은 행동함으로써 자기 구성을 시작한다. 그 이후에는 행위의 방향을 제시하는 행위주체가 되고, 그 행위를 설명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진로 이야기를 만들어 자아를 구성하는 창조적 저자로 변화한다(McAdams & Olson, 2010).

<표 2> 진로 패러다임의 변화(Savickas et al., 2009 참고)

20세기 진로 패러다임	21세기 진로 패러다임
진로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로(path)</li> <li>•위치의 이행(from school to work)</li> <li>•관찰가능한 선형적 궤적을 지닌다.</li> <li>•과업수행, 다음 단계로의 발달과정</li> </ul>	진로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미의 전달(carrier of meaning)</li> <li>•이야기 구성(constructing a story)</li> <li>•선형적이거나 예측할 수 없다.</li> <li>•주관적 자아를 만드는 정신적 작용</li> </ul>

근대와 현대 진로이론의 변화와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Savickas(2013)의 진로 구성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진로선택 행위를 분석하였다. 이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내러티브를 통해 자신이 왜 그러한 진로 행위를 하였는지를 해석하도록 하여 정체성을 구성하는 방식이다(Del Corso & Rehfuß, 2011). 이는 현대 진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진로 연구를 시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진로선택 행위를 분석할 때 개인의 변화하지 않는 특성, 정적인 상태를 가정하지 않았으며, 맥락과 경험 안에서 변화하는 모습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진로선택의 결과보다 선택의 과정을 드러내고자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려 하지 않았다. 진로선택의 특정한 절차와 경로를 전제하지 아니하며, 기존 이론과 진로개념의 틀에 맞추어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들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내려가는 진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제시하였으며, 그 이야기 안에서 주인공인 연구 참여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화자/저자는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지, 진로선택 행위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주목하였다.

### 3) 경제교육과 예비 직업사회화

사회과에서는 사회적 역할 모형<sup>11)</sup>을 통해, ‘노동자(worker)’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김경모·전창완, 2006; Superka & Hawke, 1982). 경제교육은 학교 안과 밖에서 구성원들이 경제주체로 성장해 가는 경제사회화에 관심을 가지며, 예비 직업사회화도 그 중 하나이다. 일의 세계는 경제생활의 중요한 영역이며, 직업 관련 행위는 대표적인 경제행위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숙명적으로 노동과 생산 활동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며, 현대의 개인은 직업인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경제교육에서 노동자와 직업인의 사회적 역할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일의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예비 직업인으로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일의 세계로 가까이 가고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적 지원은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선행연구들은 청소년들이 일의 의미(meaning of work)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경험이 일 가치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일에 대한 신념의 변화 등을 조사하였다(Csikszentmihalyi & Schneider, 2000; Miller, Woehr, & Hudspeth, 2002).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거의 청소년(80~90년대)에 비해 요즘의 청소년(90년대 이후)들은 일의 우선성, 직업의 안정성에 의미를 덜 부여하며 여가를 중시한다(Wray-Lake, Syvertsen, Briddell, Osgood, & Flanagan, 2011). 도시의 저소득계층 청소년들은 일을 외부적 보상(돈)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으며, 주로 그들의 가족으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는다(Chaves et al., 2004).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아동과 청소년이 인식하는 일의 세계가 경제현실의 변화와 사회상을 반영하며, 미래 직업생활의 결과와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

11) 사회적 역할 모형은 일곱 가지 사회적 역할-시민, 노동자, 소비자, 가족구성원, 친구, 사회단체 구성원, 자아-을 제시하였다. NCEE(1998)에서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사회적 역할을 구분하였다. 전 생애에 걸친 의사결정자(lifelong decision maker), 지적인 소비자(knowledgeable consumer), 생산적인 노동자(productive worker), 책임 있는 시민(responsible citizen), 사려 깊은 저축자(prudent saver), 전 지구적인 참여자(global participant)이다(김경모, 2004).



(Lee & Mortimer, 2009; Vondracek & Porfeli, 2003).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청소년들에게 직업의 외재적 가치, 내재적 가치 등 그 의미를 범주화하여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일의 주관적 의미와 다양한 가치관을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방법론적 한계를 지닌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경제교육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예비 직업사회화를 밝힌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경제교육에서 노동자 역할 교육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부족하다.

미국에서는 경제학, 심리학, 행동과학, 인지과학, 신경과학 등의 이론들을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을 위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경제심리학 연구들을 통해 개인의 돈 관리행태를 이해한 후 투자와 차입 행태를 제어하기 위한 학습 내용이 연구되었다. 이렇게 개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보다 학습자에게 적합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금융교육이 가능함을 지적하였다(Schuchardt et al., 2009).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청소년이 예비 직업인으로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의사결정 과정의 특징을 이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경제교육에서 예비 직업사회화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경제교육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경제교육 연구자들은 일상에 참여하는 경제교육, 평생교육으로서 경제교육, 역량교육<sup>12)</sup>으로서 경제교육 등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김경모, 2004; 김준태, 2015; 이미경, 2004; 최종민, 2011). 학생들에게 ‘직업’의 주제는 실생활과 연결될 수 있는 흥미로운 경제교육 내용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은 일의 세계를 이해함으로써 경제학적 지식과 원리를 습득할 수 있다. 일상의 경제 경험을 토대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

12) OECD의 DeSeCo(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es) 보고서 이후 여러 국가에서 핵심역량 개념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과정을 통한 핵심역량 계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왔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역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을 지향하였으며 각 교과역량을 설정하고자 하였다(교육부, 2015; 이광우 외, 2015).

경제 이해력(economic literacy) 증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평생교육으로서 경제교육을 위해서는 일·학습·삶을 연계하는 경제교육 프로그램이 일관성 있게 설계되고 수행되어야 한다(이운호, 2010). 이를 위해서 경제교육과 직업이라는 주제는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경제역량을 증진하는 경제교육이란 삶의 경제적 국면에서 환경에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인간의 대응력을 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권해수·김민성·강영신, 2011). 경제교과 역량과 진로문제 해결 역량은 공통된 경험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경제교육과 진로교육의 연계를 시도하기 위해 청소년의 예비 직업사회화에서 진로교육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교과통합 진로교육’의 개념을 제시하였고,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교과 영역에서 진로교육과의 연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 이지연 외, 2009)<sup>13)</sup>. 이는 교과교육을 통한 진로교육의 효과성에 근거한 것이다. 교과 내용이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성이 높을수록 학습동기가 높아지며,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습효과가 장기적이며, 학습개념을 실생활에 더 쉽게 적용한다. 또한 진로와 관련된 교육활동은 현실세계를 반영하여 세상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을 기를 수 있다(ACTE, 2009; Evans, Hoyt, & Mangum, 1973; 이지연 외, 2009 재인용).

---

13) 경제교육과 진로교육과의 연관성을 경제교육과정의 하위 목표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김경은·성락영, 2013; 이혜원·박형준, 2009).

## 2.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삶과 직업

### 1) 저소득가정의 의미 : 사회적 배제

일반적으로 ‘저소득가정<sup>14)</sup>’이라는 용어는 경제적 소득이 낮은 가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의미 이외에도 주거환경, 건강상태, 교육 및 기타 사회적 서비스의 수준 등이 낮은 가정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경제적 소득의 부족은 가정불화, 열악한 건강상태, 심리적 좌절감, 관계망의 단절 등 수많은 문제로 연결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노혁, 2009). 빈곤의 양상이 이전과는 다른 ‘신빈곤(new poverty)<sup>15)</sup>’으로 질적 변화를 보이면서 빈곤을 보는 관점은 물질적 부족에서 사회·문화적 차원을 포함하는 상대적 결핍의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저소득가정이란 경제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를 포함한 절대적 빈곤가정<sup>16)</sup>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심리적인 구조에서 소외받고 억압받는 가정 즉,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로 인해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가정을 포함하는 의미를 지닌다.

‘사회적 배제’란 소득의 부족, 사회적 자본 및 유대의 결핍을 포함하

---

14) 여러 연구들에서는 저소득층, 저소득가정, 빈곤가정 등의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빈곤의 용어보다 비교적 완화된 ‘저소득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5) 1970년대 중반 이후 유럽 각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빈곤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working poor)’이었다. 과거의 빈곤은 노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배제가 주원인이었다면, 신빈곤은 불안정한 고용, 저임금, 저기술 등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Room, 1999).

16) 빈곤이란 전통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자원(소득)의 결핍 또는 부족 상태’를 의미한다. 빈곤은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으며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의 개념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절대적 빈곤은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본다. 빈곤선은 사회적 합의로 결정되기는 하나 경험적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로 나눈 욕구 소득비에 기초하여 산출하고 있다(김광혁, 2006). 상대적 빈곤 개념은 특정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수준과 비교하는 상대적 박탈과 불평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주관적 빈곤 개념은 사람들이 빈곤으로 간주하는 인식 수준을 지칭한다. 빈곤은 개인의 안녕(well-being)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주관적인 판단을 무시할 수 없으며 객관적인 기준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이경상·임희진·박창남·정의중, 2008).

는 빈곤의 개념이다<sup>17)</sup>. 자원의 소유여부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회를 공유하지 못한 것,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수준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경제적·정치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심창학, 2003; Room, 1999). 대개 소득 및 화폐의 결핍과 함께 노동의 기회, 신기술, 여가활동으로부터 배제되고, 공식적인 사회조직과 제도에의 참여가 제한되는 과정으로 본다(신명호 외, 2004; Somerville, 2000). 따라서 사회적 배제의 개념은 상대적 빈곤에 가까운 박탈, 노동빈곤, 복합적 빈곤 등 훨씬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여, 빈곤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별과 평등의 문제를 포괄하는 담론을 형성한다.

특히 본 연구는 이동성과 접근성의 제약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에 주목하였다. 교통의 제약이 큰 집단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주류집단으로부터 배제되는 과정에 놓이게 된다. Kenyon과 Rafferty(2002)는 교통과 관련된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높은 수준의 이동성을 전제로 형성된 사회에서 이동의 제약에 의하여 사람들이 다양한 기회, 서비스, 사회적 네트워크 등으로의 접근이 제한되고, 이로 인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경제·정치·사회적 생활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되는 과정이다. 접근성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공간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Church, Frost와 Sullivan(2000)은 접근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회적 배제의 유형으로 물리적 배제, 지리적 배제, 시설물로부터의 배제, 경제적 배제, 시간제약으로 인한 배제, 공포로 인한 배제, 공간적 배제 등 다양한 유형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접근성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가 지역의 공간적·사회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가 사회적 배제의 관점으로 저소득가정을 정의하는 이유는 사회적 배제가 개인의 생애사와 인생 과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기 때

---

17)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다. 국가, 시기, 문화, 학문적 성향에 따라 배제의 대상과 현상을 다르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최하층 계급을 지칭하여 일탈적, 부도덕적, 주변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데 반해, 프랑스의 경우 희생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실업, 사회적 유대의 붕괴 현상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심창학, 2001).

문이다(심창학, 2003). 사회적 배제의 관점은 개인이 빈곤화가 되어가는 다차원적·동태적 과정에 주목하고, 빈곤의 상황을 관계적·문화적인 문제로 바라본다(Berghman, 1995; Hague, Thomas, & Williams, 2001; Room, 1999). 이 연구는 ‘배제된’ 사람을 둘러싼 교육, 문화, 의료, 사회 참여 정도 등 삶의 다양한 측면이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지를 밝히고자 하며, 개인이 사회구성원들과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 2) 저소득가정 환경과 청소년의 진로발달

저소득가정 배경은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Brooks-Gunn & Duncan, 1997; Coleman, 1990; Conger, Conger, & Elder, 1997). 우리나라에서도 부모의 소득이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학업성취가 낮다는 것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다수이다(김경근, 2005; 류방란·김성식, 2006; 박창남·도종수, 2005; 성기선, 2010; 신명호, 2010). 우리나라에서는 학업성취가 대학 진학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이는 낮은 직업지위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저소득가정 배경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경란·박용호·허선주, 2011; 신명호 외, 2004; 이경상 외, 2008; 장상수·송병선, 2005). 저소득가정 자녀들은 역할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고, 체계적인 진로지도나 진로정보를 얻기 어려워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방하남·김기현, 2002; 허남순 외, 2005). 그리고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자유로운 진로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노성환, 2003). 저소득가정 청소년은 경제적인 이유로 상급학교 진학이 어려우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비숙련 기술 등의 이유로 그 기회가 제한적이다(노 혁, 2006).

저소득가정의 환경이 자녀들의 교육적·직업적 성취에 영향을 주는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논의되어 왔다. 다음 <표 3>과 같이 경제학적 접근, 사회학적 접근, 심리학적 접근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3> 저소득가정 환경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

경제학적 관점	사회학적 관점	심리학적 관점
인적 자본 이론	사회적 자본 이론 문화적 재생산 이론 합리적 행위 이론	가족 스트레스 모형

첫째, 경제학적 관점에서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은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금전적·시간적 투자가 학업성취 및 미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성인이 되었을 때 소득과 임금을 증대시킨다고 주장한다(Becker & Thomes, 1986; Schultz, 1961).

둘째,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사회적 자본 이론, 문화적 재생산 이론, 합리적 행위이론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 이론(social capital theory)은 가족구성원의 존재,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또한 그들이 지닌 사회적 관계 등이 자녀의 성취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Bourdieu, 1986; Coleman, 1988).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주요한 영향을 준다. 문화적 재생산 이론은 낮은 계층의 집단이 가진 빈곤의 문화(culture of poverty)가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상류계층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습관, 기술, 정보 등의 문화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 집단의 문화 속에서 노동자 계층의 자녀들이 무의식적으로 형성하는 언어 및 세계관은 직업 열망과 학교 성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Bernstein, 1990; Bourdieu, 1986; Bowles & Gintis, 1976; Lewis, 1961)<sup>18)</sup>. 한편, 합리적 행위 이론(rational action theory)은 노동자 계층의 자녀들이 낮은 열망과 의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계층 자녀들과 비슷한 수준의 열망을 지니지만, 위험을 회피하는 방식, 교육의 수익을 평가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말한다. 노동자 계층은 학력이 가져다 주는 수익에 관심을 덜 기울이고 교육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기 때문

18) 미국의 빈민 흑인 집단은 문화적으로 교육열이 낮고, 저소득층 부모는 대화보다 체벌을 가하는 등 자녀와 토론하는 경향이 적다. 반면 중산층 이상의 부모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질과 가정의 교육적 분위기는 학업능력, 학습 동기 및 태도를 고양시킨다(신명호 외, 2004).

에 교육 및 진로와 관련하여 보다 낮은 포부, 낮은 직업지위에 연결되는 진로계열, 가치관, 사회적 지지 등을 보여준다(신명호 외, 2004).

셋째,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가족 스트레스 모형(family stress model)은 저소득가정 배경이 청소년 스스로에 대한 평가와 스트레스 및 우울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빈곤이나 소득의 감소는 낮은 소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정서적 스트레스,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하며, 부적절한 양육 태도, 사회적 지지의 감소로 이어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기신뢰 등이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저소득가정 자녀들의 스트레스와 정서적 불안정, 낮은 자존감과 우울증 등은 사회적응력(유연성)을 떨어뜨린다(Conger et al., 2002).

이러한 기존 이론들은 각각 ‘저소득가정 환경’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부모의 학력, 소득, 사회적 지위, 부모와의 동거 여부,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양육방식<sup>19)</sup>, 생활에 대한 만족 수준, 어머니의 취업 유무, 가족의 구조, 가정환경에 대한 청소년의 주관적 인식 등 여러 요인들이 청소년의 교육적·직업적 발달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저소득가정 환경을 결정론적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이론들을 비판하고, 저소득가정 환경이 청소년의 발달에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어느 정도의 경제적 결핍은 청소년에게 자극을 주어 도전의식을 갖게 하는 등 성취동기를 가져다주는 측면이 있고(노 혁, 2003), 역경의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적응 및 발달을 이룰 수 있다는 유능성을 강조한 연구도 존재한다(Masten, 2001: 좌현숙, 2010: 8 재인용). 빈곤은 청소년 적응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나 항상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Huston, 1991: 이승영, 2011 재인용). 성열관과 김정숙(2014)은 빈곤청소년의 부적응, 소외 및 저항에 대한 연구들이 빈곤청소년 삶의 전형인 것처럼 오해하기 쉬우나 실제로 빈곤청소년들은 다양한 적응 양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대부분은 ‘가난하지만 성실한 학생’으로 평범하게 살고 있음을 이야기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저소득가정과 계층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

19) 중산층의 아이들은 뽀뽀한 일정 속에서 부모의 관리를 받으며 ‘집중 양육’된다. 반면 노동자 계층의 아이들은 ‘자연적 성장을 통한 성취’를 한다(Lareau, 2003).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연구 결과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Kingston(2000)은 사회에 존재하는 불평등과 차이를 개별적인 패턴, 즉 정도의 차이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나의 명확하고 결정적인 패턴은 없으며, 임의적인 패턴들이 다양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Lareau(2003)는 지나치게 특수화된 이론은 그 효력을 잃어갈 수 있으며, 연구자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삶을 폭넓게 살펴 일반적인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애써야 한다고 주장한다(Lareau, 2003: 6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관점을 모두 고려하였으며, 매 순간 연구자가 수립한 가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하였다. 그리고 계층의 차이는 일상생활의 세세한 차이에서 드러나며, 이러한 차이를 통해 연구자는 저소득가정 환경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 3) 저소득가정 후기 청소년의 학교-노동 이행

후기 청소년기는 학교에서 노동의 세계로 이행(school to work transition)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시장의 급격한 변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고용과 실업의 과정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는데, 후기 청소년기에는 이러한 이행이 매우 역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시기의 일에 대한 경험과 가치관은 이후 직업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행노동시장이론(theory of transitional labour markets)은 후기 청소년의 학교-노동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고용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sup>20)</sup>. 첫 일자리로의 이행 기간이 길어지면 이후의 임금수준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직업 세계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경험은 지속적으로 미래 직업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병희·안

---

20) 이행노동시장이론은 노동시장의 변화와 생애과정에 걸친 다양한 고용관계의 흐름(flow)에 초점을 둔다. 생애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다양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취업, 실업, 은퇴 등)과 관련하여 고용가능성의 강화를 위해 노동시장 정책 및 제도적 대안 마련에 관심을 가진다(Schmid, 2009: 윤도현, 2010 재인용).



주엽 · 전병유 · 장수명 · 홍서연, 2002; Blustein et al., 2002).

우리 사회에서도 후기 청소년들의 노동 이행은 힘겹게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구조와 기술의 변화, 불안정한 경제 상황, 기업 간 경쟁 심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수요의 불일치 등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교육에서 노동으로 이행기간이 장기화되고, 이들의 경제적 곤란이 심각하다. 한국의 후기 청소년(초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빈곤연구에서 18세 미만 아동보다 18~24세의 후기 청소년 빈곤율이 더 높고, 빈곤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빈곤의 점프 현상이 나타났다(김수정, 2010). 88만원 세대, 삼포세대, 캥거루족, 청춘론 등의 수많은 용어가 만들어지고 청년실업, 반값 등록금, 열정페이 등이 이슈화되는 환경 속에서 후기 청소년들은 노동시장으로 이행 한다<sup>21)</sup>.

선행연구에 따르면 저소득가정이라는 환경은 후기 청소년이 일의 세계로 진입하고 직업적 성취를 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노 혁, 2006; 전현중 · 류장수 · 조장식 · 박성익 · 김종한, 2009; 정미나 · 임영식, 2010; Blustein et al., 2000). 이들 연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하여 빈곤가구에서 성장한 자녀의 경우 인적자본의 결핍, 정보의 부족, 지지체계의 결핍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밝혀내었다. 이는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실업이나 시간제 고용과 같은 촉발사건<sup>22)</sup>이 발생할 위험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촉발사건은 생애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Meager, 2008).

우리나라 후기 청소년의 노동 이행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재학 시기 노동 경험(아르바이트)에 대한 연구이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에 영향을 주는 공통적인 요인은 가족의 소득이었다(이경상 외, 2008: 23). 가정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김기현, 2003; 김기현 · 유성렬, 2006; 안선영 외, 2013; 장원섭, 2001). 특히 조손가정

---

21) 미국사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저소득계층 청소년의 학교-노동 이행 어려움과 낮은 임금의 노동자가 되는 현상, 만성적 실업을 경험하는 현상에 대해 고민하여 왔다 (Blustein, Juntunen, & Worthington, 2000).

22) 촉발 사건(trigger events)이란 잠재적으로 향후 경력과 생애 기회(life-chance)에 낙인효과 혹은 역효과를 초래하는 생애주기의 사건으로 정의된다(Meager, 2008).

등 사회취약계층 청소년의 경우 아르바이트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고, 시작하는 시기도 다른 계층에 비해 이른 경향이 있었다(안선영 외, 2014)<sup>23</sup>).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은 하루빨리 노동시장에 진출해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오만석·은기수·김복수·이윤석·김정석, 2005).

저소득가정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참여를 통해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경향이 있다<sup>24</sup>).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전일제 노동을 하거나 학업과 병행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아르바이트에 의해 학비와 생활비를 보충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력에 연결되지 않는 저임금의 소진적 노동에 참여하였다. 교육을 연장하는 것이 등록금 부담으로 인해 허용되지 않으며 학교를 중단하고 저임금, 반복 실업, 불안정 고용의 트랙에 들어서기도 한다(노 혁, 2006).

이러한 노동 경험은 세상이 변변한 학력과 사회적 자본이 없으면 차별 받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계급적 위치를 간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로서의 삶을 받아들이고 체념하게 된다(안수찬 외, 2010). 또한 이들의 노동 참여는 성장 동기보다 물질 동기가 강하여 노동의 효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예성, 2006).

두 번째 유형은 졸업 이후 노동시장 진입(취업)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가족의 경제적 박탈과 낮은 소득 수준이 성인이 된 이후 노동시장 성취 즉,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Duncan, Ziol-Guest, & Kalil, 2010; Hill & Sandfort, 1995; Johnson & Schoeni, 2011). 우리나라에서도 만 17세 시점에 빈곤을 경험한 청년들이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청년들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극빈층 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변금선, 2013). 학교

---

23) 가정의 경제적 수준의 경우 잘사는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8.6%, 못사는 편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3.9%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안선영 외, 2014).

2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 시간제 노동을 한 중·고등학생 가운데 44.8%가 최저임금 위반을 경험하였고, 임금을 늦게 받거나 받지 못한 경우도 16.4%에 달했다(안선영 외, 2014).

-노동 이행기 동안 저소득가정과 고소득가정의 자녀는 서로 상이한 경험을 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생애소득에 영향을 주었다. 고소득가정의 자녀들은 청년기에 이미 전문직 혹은 사무직 정규 근로자로의 이행이 고정되고 있는 반면, 저소득가정의 자녀들은 잦은 이직을 경험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진입과 이탈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혜진, 2012).

그런데 청소년의 노동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경험은 노동의 성격과 그 맥락에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장원섭, 2001; Mortimer & Finch, 1986). 청소년들의 노동 이행을 둘러싼 생태학적인 환경(일을 하게 된 동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오랜 시간 일을 했는지, 일을 선택하게 된 과정은 어떠한지, 일터의 분위기, 가족의 지지 등)을 상세히 살펴봐야 한다(Hansen & Jarvis, 2000). 또한 저소득가정 청소년 노동 이행에 있어서 객관적인 여건보다는 삶에 대한 주관적 의미와 해석이 중요하다. 청소년의 사회 진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은 ‘현재 어려운 사회경제적 상황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미래를 준비 하는가’로 나타났다(김경휘,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가정 청소년이라는 대상에 집중하여 연구 설계하였으며, 이들의 경험을 개별적·맥락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방법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노동자 계층 청소년들의 학교-노동 이행 문화를 밝힌 대표적인 문화기술지 연구들을 참고하였다. Willis(1981)는 학교로 들어가 노동자 계층의 아이들이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과정을 밝혔다. 이들의 특수한 문화를 ‘반 학교 문화(counter school culture)’로 정의하였고, 이것은 단순히 일탈이 아니라 계급 불평등을 간파하고, 이에 저항하는 적극적인 행위임을 밝혔다. Brown(1987)은 노동자 계층 밀집지역의 영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가난한 학생들이 학교를 수단적으로 이용함을 밝혔고, 이들이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 행위양식이 다른 다양한 부류로 나누어짐을 밝혔다. Holland(1990)는 영국 웨스트 미드랜드에서 청년훈련계획에 참여한 노동자 계급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험과 정체성에 대해 2년 반에 걸친 현장연구를 하였다. 그 역시 청년들이 사무-관리직부터 기술 습득을 하려는 부류까지 사회적 정체성과 장래전망에 있어서 다양한 폭이

존재함을 밝혔다.

국내에서도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삶과 학교-노동 이행 문화에 집중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이 연구들은 빈곤의 대물림 과정이 얼마나 복잡적으로 발생하는지, 빈곤의 상황을 얼마나 탈출하기 어려운지를 보여준다(강지나, 2015). 직업 이행 과정에서 비(非) 빈곤청소년은 본인의 흥미와 성적의 변화, 부모의 권유 때문에 자신의 진로를 바꾸지만, 빈곤청소년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진로를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광·김민수·김민주, 2014). 대학 진학을 선택한 경우에도 이들은 취업에 대한 두려움과 학비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문준희·김성환·김민주, 2014). 사회진출을 위한 인적자본이 미약하고 진로지원을 위한 공적 시스템이 부실한 상황에서 이들은 부모와 같은 불완전 노동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았다(강지나, 2015). 학업보다는 아르바이트에 시간을 더 쏟고 노동현장에서는 저임금과 착취를 당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었다. 가정에서 자녀, 학교에서 학생, 일터에서 노동자라는 통상적인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었으며<sup>2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나름의 전략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형성하여 성인기로의 이행을 준비하고 있었다(정수남·권영인·박 건·은기수, 2012).

저소득가정 청소년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을 키우고 독립된 경제주체로 성장하고 있으며, 직업 이행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함께 보여준다.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에게 직업을 꿈꾼다는 것의 의미는 현실의 반영과 동시에 극복의 과정이었다. 이들은 불안정한 환경에 맞추어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고 내재적인 힘을 키워나간다. 그들은 당장 수입을 얻을 수 있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손에 잡히는 일자리를 희망하며, 일자리 정보를 얻는 통로도 이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김경희·박근혜, 2013).

선행연구를 통해 학교-노동 이행기는 교육의 연장과 노동의 유예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교육과 노동의 삶이 복합적으로 교차되어 있음을 알

---

25) 가정에서는 준 성인에 가까운 역할을 받 강제적으로 부여받고, 학교에서는 일반적인 학생의 표상에서 벗어난 학생으로 취급받으며, 이른 나이부터 노동시장에 참여하지만 경제적 독립 가능성은 희박한 불안정한 노동자의 위치에 있었다(정수남 외, 2012: 91).

수 있다. 후기 청소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여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한 노동자이기도 하여 그 경계와 정체성이 모호하다. 하지만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이 시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시기이며, 여러 기회가 제공되는 가능성의 시기(age of possibility)이기도 하다(Arnett, 2000). 이 시기를 의미 있고 합당하게 겪어낸다는 것은 안정적인 정체성이 형성됨, 교육의 결실을 맺음, 독립된 경제주체로 성장함, 국가의 인적 자원이 축적됨을 의미한다. 특히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에게 이 과정이 정의롭게 이행된다는 것은 사회 불평등이 해소되고 사회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가질 것이다.

### 3. 직업정체성 형성과 욕망이론

#### 1) 결핍의 욕망과 생성의 욕망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행위를 해석하기 위해 ‘욕망(desire)’의 개념을 사용한다. 욕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진로선택 행위의 의미가 달라지고, 욕망의 주체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예비 직업사회화 과정에서 청소년의 존재론적 위치가 달라진다. 따라서 서양 철학사 속의 욕망이론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여 연구자는 욕망과 인간의 행위, 사회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행위를 이해함에 있어서 탈구조주의적 욕망이론에 기반하였음을 제시한다.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해명하는 데 있어서 ‘욕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는 중요한 주제였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욕망 개념은 부정적인 의미로 자주 쓰인다. 하지만 욕망 개념 자체가 부정적 혹은 긍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욕망론’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 욕망을 바라보는 관점은 플라톤에서 시작하여 데카르트, 칸트, 헤겔, 니

체, 프로이트, 라깁, 들뢰즈까지 이어지는 서양 철학사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여 왔다. 욕망론의 역사와 관련된 여러 문헌들을 참고하여 다음 <표 4>와 같이 ‘결핍의 욕망론’ 과 ‘생성의 욕망론’ 으로 구분하여 제시해 보았다.

<표 4> 욕망론의 상이한 관점

결핍의 욕망론	생성의 욕망론
<p>욕망은 결핍에서 유래한다.                      욕망은 이성에 의해 제어되어야 한다.                      욕망하는 주체는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p>	<p>욕망은 아무것도 결여하고 있지 않다.                      욕망은 이정보다 근원적인 본성이다.                      욕망은 어떤 것의 원인이 되는 힘이다.</p>
<p>플라톤, 헤겔, 프로이트, 라깁</p>	<p>스피노자, 니체, 들뢰즈와 가타리</p>

첫 번째 욕망론은 욕망을 ‘결핍’ 으로 해석하고, 이성에 의해 ‘제어’ 되어야 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이진우, 2004). 이러한 관점은 플라톤에서 시작하여 오랫동안 서양 철학의 흐름을 지배해 왔다. 이러한 이성 중심적 욕망담론은 데카르트, 칸트, 헤겔에까지 이어진다. 만약 우리가 욕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이를 부정적 상황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오랫동안 이성 중심적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어 프로이트는 의식에서 배제되었던 무의식을 해명함으로써 인간을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인간에게 수많은 욕망이 소용돌이 치고 있고, 사회문화적으로 용납되는 욕망은 의식으로, 용납되지 않는 욕망은 억압되어 무의식을 형성한다(전경갑, 1999: 106). 따라서 그의 욕망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이며 억압되어야 할 것이다. 무한정한 욕망의 충족은 자멸의 위험이 있으므로, 인간은 현실원칙에 따라 자타의 욕망을 조절하고 억압하는 방법 즉 문명, 문화를 고안해 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성적인 욕망을 억압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식으로 변형하여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진다(Laplanche et al., 2005: 허 경, 2010: 207 재인용). 프로이트는 비록 모든 욕망을 하나의 성적 욕망으로 귀착시켜 오

이디푸스적 욕망으로 환원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무의식이 의식보다 더 근원적인 것임을 밝혔다는 의의를 지닌다(이진우, 2004).

한편 19세기 니체로부터 이성 중심적 욕망담론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니체는 욕망을 이성의 관점 안에서 규정하려는 입장에서 벗어나 욕망 그 자체에 대하여 고찰하려 하였다. 이성에 의해 배제되어 있었던 권력, 몸, 욕망과 같은 주제를 철학적 사유의 중심으로 올려놓았다. 그리고 인간이 가진 가장 근원적이고 강한 욕망은 ‘힘에의 의지’라고 말한다. 힘에의 의지란 무엇인가가 무언가를 의욕 하는 행위이다. 모든 존재는 그것이 살아있다는 그 사실 자체로부터 무엇인가를 의욕할 수밖에 없다. 욕망이란 다름 아닌 그 존재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생겨나는 필연적 현상이다. 또한 욕망에 관한 단 하나의 ‘올바른’ 관점 혹은 해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도덕적 혹은 비도덕적 욕망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욕망에 대한 도덕적 해석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니체는 힘에의 의지를 긍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삶을 긍정하였고, 또한 욕망을 긍정하였다(이진우, 2004; 허 경, 2010).

이렇게 인간의 본성과 이성과 욕망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사고의 전환이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이 등장하였고 욕망론의 상이한 전통이 생겨날 수 있었다. 두 번째 욕망론은 욕망을 ‘생성’으로 해석하고, 생명의 근원을 향한 운동이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20세기 중반 이후 라깡, 푸코, 들뢰즈에 이르러 근대 이성 중심 관점에서 벗어난 탈근대의 욕망론이 본격화되었다. 욕망은 자기보존<sup>26)</sup>의 신체적 표현이자 생산이며, 의식 이전 무의식의 자연주의적이고 내재적인 흐름이다(연효숙, 2006; 조홍길, 2006). 다음 서술은 ‘생성의 욕망론’ 입장을

---

26) 들뢰즈의 욕망하는 기계 개념은 스피노자의 코나투스(conatus) 개념을 매개로 이해할 수 있다(서동욱, 2002: 168). 스피노자는 코나투스를 ‘자기 보존의 힘’이라고 규정하였다. 모든 존재는 자신을 제거하려는 힘에 저항하고, 존재를 보존하려는 코나투스를 가지며 이는 인간에게 있어서 강하게 나타난다.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 동시에 작용하는 코나투스를 욕망이라고 한다(전경갑, 1999: 46). 인간이 무엇인가를 욕망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행하고자 하는 인간 본질 자체인데, 자신의 외부에 놓인 초월적 원인을 상정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 욕구 즉, 신체적 활동 역능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이다(연효숙, 2006: 257-259).

잘 드러내 준다.

욕망은 아무것도 결여하고 있지 않다. 욕망은 자신의 대상을 결핍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욕망에 결핍되어 있는 것은 바로 고정된 주체이다. 탄압을 통해서만 고정된 주체가 생기는 법이니 말이다. ...욕망은 필요들에 기대고 있지 않으며, 역으로 필요들이 욕망에서 파생된다. ...욕망이란 생산하기, 현실에서 생산하기이다. ...사회적 생산은 특정 조건들에서 단지 욕망적 생산 자체이다(Deleuze & Guattari, 1972/2014: 61).

탈구조주의 욕망론의 대표적 철학자인 라캉과 들뢰즈는 욕망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도, 라캉의 사상을 터전으로 삼아 들뢰즈의 사상이 발현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라캉의 욕망론은 욕망을 결핍으로 해석한 전통의 끝자락에 닿아있다는 점에서 ‘결핍의 욕망론’에 가깝고, 들뢰즈의 욕망론은 기존의 욕망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욕망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생성의 욕망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

두 철학자가 펼쳐놓은 욕망담론 중 본 연구에 필요한 논의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욕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현실적인 개별적 존재자로서의 주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연구자는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사회에 대응하는 인간의 행위를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고자 한다.

라캉은 언어 구조가 인간 주체를 구성하며, 상징계의 질서가 무의식 속에서 주체의 욕망을 생산하기도 하고 억압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라캉은 욕망을 생리적 욕구와 언어적 요구 사이의 괴리로 인해 영원히 충족될 수 없는 ‘결핍’이라고 규정하였다. 라캉은 욕구와 요구, 욕망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욕구는 식욕과 같이 동물적·생리적 욕구를 말하며, 이것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 요구이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욕구는 언어 이면으로 억압되어 무의식의 욕망을 형성 한다<sup>27)</sup>. 이러한 구분을 통해 라캉

27) 아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요구를 표출하고 엄마는 아이의 욕구를 돌보게 된다. 하지



은 욕망이 문화적이고 상징적인 것임을 강조한다. 생리적 욕구가 언어를 통해 우회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 욕망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언어적으로 우회한다는 것은 언어처럼 구조화된 것이라는 의미이고, 내가 따라야 할, 나를 규제하는 사회문화적 규범(대타자)을 전제한다는 의미이다(전경갑, 1999: 142). 즉, 언어를 통해 주체의 무의식을 구성하며 주체가 욕망해야 할 것과 욕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시한다. 인간은 절대적 타자의 권위(이데올로기)에 종속되어 타자가 조장하는 것을 욕망하게 된다(황순향, 2014).

들뢰즈는 라캉이 욕망을 결핍으로 해석한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비판했다<sup>28)</sup>. 들뢰즈는 욕망을 결핍이나 대상의 획득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욕망을 억압이나 금지를 모르고 자유롭게 떠다니는 리비도와 같은 순수한 에너지로 파악하였다. 라캉이 욕망을 타자적 구조의 억압적 생산물로 인식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들뢰즈는 욕망을 ‘어떤 것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힘’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욕망의 일부분이 객관적 구조들(가족, 사회, 국가)에 의해 생산됨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욕망의 또 다른 일부는 사회적 억압의 힘인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 현실적인 것을 생산함을 강조했다. 욕망은 ‘product’ 이면서 ‘producing’ 을 하고 있는 형태를 취한다(황순향, 2014).

들뢰즈는 ‘욕망하는 기계’ 개념을 통해 욕망의 주체를 설명하려고 하였다. 욕망의 주체를 기계라고 표현한 것은 근대적, 의식적 주체 개념을 제거하기 위함이다<sup>29)</sup>. 의식적 주체가 목적을 향해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

만 욕구는 충족되지 몰라도 사랑의 요구(demand d' amour)는 그렇지 못하다. 욕구와 요구가 갈라지는 그 가장자리에서 라캉이 말하는 욕망이 그려지게 된다. 즉, 요구로 표명된 욕구가 충족된 이후에도 사랑의 요구는 충족되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되는데 이 잔여가 바로 욕망이다(윤성우, 2006).

28) 욕망이 현실적 대상의 결핍이라면, 욕망의 현실 자체는 환상된 대상을 생산하는 <결핍의 본질> 속에 있다. 이렇게 되면 욕망은 생산으로 파악되고 있으면서도 환상의 생산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중략>...클레망 로세는 다음과 같이 옳게 말하고 있다. 욕망의 대상을 정의하기 위해서 욕망이 결핍하고 있던 결핍을 강조하면 그 때마다 <세계는 ‘욕망에는 대상이 결핍되어 있다’>는 논법에 의거해 어떤 다른 종류의 세계와 자신이 이중화되는 것을 본다(Deleuze & Guattari, 1972: 60).

29) 이전의 욕망개념은 한 주체나 개인이 가진 내면의 심리적 경향성이었다. 항상 누구 누구의 욕망, 혹은 누구누구의 결핍이나 만족이라는 ‘누구’, ‘대상’ 을 전제하고 있었다.

욕망의 과정에서 자아가 생성되는 것이라고 본다. 욕망의 흐름은 인간의 의식과 무관하게 작동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욕망이란 ‘하고자함’ 이고, 그것은 굳이 인격화될 필요도, 어떤 대상에 제한될 이유도 없다. 펜을 보면 글씨를 쓰고자 하고, 키보드를 보면 두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의 의지나 욕망이라기보다, 펜과 내 손이 만나서 형성되는 욕망, 키보드와 내 신체가 접촉하여 작동되는 욕망이다(이진경, 2002: 130).

들뢰즈는 ‘참된’ 욕망의 주체를 사회 형식과 틀의 구속에서 벗어나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힘을 가진 것으로 바라본다. 들뢰즈의 주체는 사회의 질서를 내면화하고 규범에 맞추어 자신을 길들이는 주체가 아니다. 자유롭고, 상징적 표상 체계에 구속되지 않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사회 질서를 창조할 수 있는 생산과 저항의 힘을 지닌다. 더 이상의 금지도, 더 이상의 결핍도, 더 이상의 규율도 필요치 않는 무엇인가를 씌 없이 하게 하는 의지로서의 힘이다(윤성우, 2006; 전경갑, 1999).

이렇게 욕망의 발생과 관련하여, 또한 주체와 관련하여서도 라깡과 들뢰즈의 입장은 서로 다르다. 하지만 라깡과 들뢰즈는 욕망을 구조를 거스르는 원동력으로 간주한다는 유사점을 지닌다(양석원, 2001; 연효숙, 2009; 황순향, 2016). 욕망의 흐름을 구조로부터의 탈출을 가능하게 하는 주체의 생산력, 구조를 변혁할 수 있는 힘으로 간주한다. 라깡은 자신에게 강제된 구조의 틀을 넘어서는 주체의 능동성이 발휘되는 영역, 구조의 작용에 대응하는 주체의 반작용, 구조를 거스르고 탈주할 수 있는 힘의 영역을 상징한다. 이러한 영역을 ‘실재계’ 라고 지칭하였다. 들뢰즈는 생산하는 욕망이 기존의 틀을 변혁하는 뭔가를 지니고 있다고 기대했다. 욕망의 해방 그 자체가 곧 혁명이기 때문이다. 타자의 욕망이 생산적 욕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욕망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향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혁명일 것이다.

욕망이 억압되는 까닭은, 아무리 작은 욕망일지라도 일단 욕망이 있게 되면 사회의 기성 질서가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욕망이 비-사회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반대다. ...욕망은 본질적으로 혁명적이다. 어떤 사회가 참된 욕망의 정립을 허용하게 되면 그 착취, 예속, 위계의

구조가 반드시 위태로워진다. 그때는 욕망이 그 사회를 본질적으로 위협한다. 따라서 욕망을 억압하고 나아가 탄압보다 더 나은 것을 찾아내어 탄압, 위계, 착취, 예속이 그 자체로 욕망되도록 하는 것이 사회로서는 사활이 걸린 중대한 일이다. ...욕망은 그 자체로, 저도 모르게, 자신이 바라는 것을 바람으로써 혁명적이다(Deleuze & Guattari, 1972/2014: 208).

라캉과 들뢰즈의 욕망이론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개인의 행위를 이데올로기와 권력의 작용으로 바라보는 구조주의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구조주의에서 인간은 이성이라는 이름 하에서 금지를 제도화하고 개인을 사회화하며 주체의 욕망을 형성하는 구조의 작용에 의해 파악되었다. 물론 인간이 사회구조의 제도와 규범에 의해 구성되는 강력한 힘이 존재함을 부정하지는 않는다<sup>30)</sup>. 하지만 탈구조주의에서 인간은 주체의 욕망을 구성하는 구조라는 ‘타자성’을 넘어서는, 즉 구조를 거스르는 힘을 가진 주체로 파악된다. 또는 목적이나 원인이 없는 과정과 흐름으로서만 존재하는 분열적이고 다원적인 주체로 파악된다. 탈구조주의는 주체의 사고과정이 이성적 능력으로부터 기인한다고 여기는 관점에 대해 회의적이다.

이는 연구 참여자의 예비 직업사회화와 진로선택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기존의 이론적 틀에서 벗어남을 의미한다. 그들의 내러티브 안에서 발견되는 어떠한 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을 가진다거나 정해진 방향을 발견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그들의 경험 순간순간에 흘러가는 그들의 사고 과정에 주목했으며, 연구 참여자의 삶을 질서화하거나 합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오만을 부리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가 직업인으로 성장해 가는 전체 과정 중 연구자가 접속했던 그 일정한 기간 동안 그들이 생산해 내었던 모습은 통일적인 하나의 자아 알맹이가 아니며, 이후 연구 참여자들의 직업생활을 예측할 수 있는 경향성 역시 아니다.

---

30) 연구자는 내러티브 현상 속에서 구조의 억압과 탈구조적 개인의 모습을 함께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V장에서는 사회화의 구조적 조건과 개별적 사회화의 모습을 함께 제시하였다.

## 2) 직업정체성과 탈주의 개념

들뢰즈와 가타리의 논의를 바탕으로 욕망하는 개인이 사회에 대응하는 방식과 주체의 형성을 설명하였고, 욕망의 과정에서 자아가 생성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직업의 영역에서 욕망하는 과정을 통해 생성하는 자아와 주체의 가능성을 ‘직업정체성(vocational identity)’으로 개념화하였다.

들뢰즈와 가타리에게 욕망은 본질상 정착을 싫어하는 유목적 흐름(nomadic flow)이다. 주체의 의식과 무관하게 작동되는 무의식적이고 기계적인 흐름이다. 욕망은 자유롭게 작동하며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생산적 흐름이므로 고정된 표상체계에 구속될 수 없다. 그러나 사회체제는 이러한 욕망의 흐름을 적절히 통제하고자 한다. 욕망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향해 자유롭게 흐른다면, 욕망은 기존의 틀을 변혁하는 에너지를 지니게 되고, 그 에너지는 기존 사회질서를 와해하는 작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전경갑, 1999: 234). 라캉은 욕망의 흐름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과정을 ‘주체화, 타자화’라고 명명했고, 들뢰즈와 가타리는 ‘코드화, 영토화’<sup>31)</sup>라고 지칭하였다. ‘코드화’란 코드를 익히고 그 코드에 길드는 것이고, ‘영토화’란 어딘가에 끌어들이거나 귀속시키는 것이다(이진경, 2002: 217).

그러나 욕망은 본질적으로 탈주(flight/fuite)의 흐름을 지니고 있다. 욕망이란 본래 끊임없이 작동되는 생산적이고 무의식적인 리비도의 흐름이기 때문에 억압과 통제로부터 벗어나려는 생산적 힘이 있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이러한 욕망 특유의 분열적 흐름을 탈코드화(décodage) 혹은 탈영토화(déterritorialisation)라고 명명하였다. ‘탈코드화’는 각각 흐름의 코드가 이해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흐름의 상태가 그에 고유한 코드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 흐름 자체의 코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Deleuze & Guattari, 1980:

---

31) 들뢰즈와 가타리는 욕망을 통제하는 규칙이나 규범을 ‘코드’로, 통제가 이루어지는 환경이나 제도는 ‘영토’로 구별해 사용하였다(전경갑, 1999: 236).

861). 그리고 ‘탈영토화’란 귀속되거나 머물렀던 영토를 떠나는 운동이며, 습관과 정착성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외로부터, 주체화의 과정으로부터 도주한다는 것이다(Deleuze & Guattari, 1972: 162; Villani & Sasso, 2003: 158, 393). 모든 사물에 관련하여서는 이렇게 두 가지 기본적 운동 방식이 있다. 그 사물을 횡단하는 흐름을 포착하고 코드화하는 움직임, 어떤 항을 자기 안에 포섭하여 자신의 일부로 만드는 ‘영토화’의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 새로운 영토로 진입하는 ‘탈영토화’라는 움직임이 있다. 두 가지 운동을 통해 하나의 항이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이진경, 2002: 61).

**글을 써라, 리즘을 형성하라, 탈영토화를 통해 너의 영토를 넓혀라, 탈주선이 하나의 추상적인 기체가 되어 고른 판 전체를 덮을 때까지 늘려라(Deleuze & Guattari, 1980/2001: 28).**

사회는 이러한 탈주의 흐름을 포획하여 다시 억압하고 통제하는 메커니즘-재코드화(recodage), 재영토화(reterritorisation)<sup>32)</sup>-을 작동한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사회는 전통적인 가치와 규범에서 해방된 탈코드화된 사회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시장의 원리라는 철저한 자유경쟁의 규범에 따라 재코드화하고 교육 및 법률제도 등으로 재영토화 시킨다고 들뢰즈는 해석했다. 전제군주 사회에서의 억압은 물리적 폭력에 의존하였으나, 자본주의 사회의 억압은 가족, 직장, 학교 등의 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미디어에 의해 소비욕구를 조장하면서 욕망의 흐름을 해방시키면서 동시에 그 흐름을 포획하여 다시 자본주의의 원칙에 철저하게 예속시킨다(전경갑, 1999: 236, 241).

들뢰즈와 가타리는 탈주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 『천의 고원』에서 리즘(rhizome)적 체계를 제시한다<sup>33)</sup>. 리즘은 고정된 체계나 구조가 없고,

32) 재코드화는 다른 종류의 규칙에 길드는 것이고, 재영토화란 다른 영토에 다시 머물거나 귀속되는 것이다(이진경, 2002: 218).

33) 리즘적 체계와 대조되는 것이 수목형 체계이다. 수목형 체계는 위계적이며, 의미화와 주체화의 중심을 포함한다. 수목은 잔가지가 아무리 다양하고 미세하게 뻗어나간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의 상위 이웃으로만 연결되고, 그를 통해 오직 하나의 중심으로 귀결

중심이 없으며, 비위계적, 수평적이고 궁극적 근원에 환원될 수 없는 다원성이 그 특징이다<sup>34)</sup>. 무작위적이고 불규칙한 그물망 구조를 이루며 그 안에서는 다양한 연결과 접속이 가능하다(전경갑, 1999: 245). 한 지점이나 위치를 갖지 않으며 연결 접속된 관계를 통해 본성상의 변화를 겪는 ‘다양체(multiplicité)’ 라고 할 수 있다. 즉, 리즘은 기존의 코드화된 세계 위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증식하는 선, 즉 탈주선(line of flight/ligne de fuite)에 해당한다(Deleuze & Guattari, 1980: 13-20).

**땅 밑 줄기의 다른 말인 리즘은 뿌리나 수염뿌리와 완전히 다르다. ...지면을 따라 모든 방향으로 갈라지는 확장에서 구근과 덩이줄기로의 응고에 이르기까지, 리즘은 매우 잡다한 모습을 띠고 있다. 리즘은 어떤 지점이건 다른 어떤 지점과 연결 접속될 수 있고, 또 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하나의 점, 하나의 질서를 고정시키는 나무나 뿌리와는 전혀 다르다(Deleuze & Guattari, 1980/2001: 18).**

지금까지 살펴본 탈주의 개념은 본 연구에서 현상을 이해하는 핵심 개념이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자유로운 욕망의 열정과 흐름을 사회가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고 보았고, 구조적 제약에서 벗어나려는 욕망의 잠재적 에너지로 사회의 변혁을 기대한다. 즉, 욕망이 탈주하는 힘과 탈주를 통한 사회 변화 가능성을 주장했다. 연구자 역시 예비 직업사회화 현상을 이해할 때 욕망의 생산적, 역동적, 긍정적, 잠재적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청소년의 일상 속 행위가 자유로운 열정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며, 사회구조와 환경에 의해 제약을 받으나 그 잠재적 에너지는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흘러가는 에너지에 의해 일상 속에서 진로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자아는 정체성을 형성하며, 예비 직업사회화를 통해 형성되는 자아를 직업정체성이라고 해석했다.

---

되고 만다(이진경, 2002: 109-110).

34) 고정된 체계가 없다는 것의 의미는 ‘비(非)체계’가 아니라 비중심화 된 체계를 의미한다(이진경, 2002: 111).

###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 1. 연구 방법 : 내러티브 탐구

본 연구는 인간의 행위에 관심을 가지며 해석적 이해의 접근을 시도하려는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경험을 연구하는데 적합한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 방법을 사용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는 경험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주고 이야기를 통해서 화자가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조망하게 한다.

##### 1) 내러티브 탐구의 이해

내러티브란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 형태로 조직화하여 전체적인 이야기에 비추어 각각의 개별적인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일련의 사건들을 일어난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단순히 나열하는 연대기와는 구별된다.

내러티브는 개별적인 경험들이 전체의 삶을 이루는 부분들로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보여주면서 개별 경험의 의미를 드러낸다. 내러티브의 특정 주제는 인간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 행위와 사건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인간 행위와 사건들은 (이야기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 배열된다. 내러티브는 인간 실존의 시간적 차원에 민감하기 때문에 행위나 사건들이 일어난 시간적 순차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 내러티브는 서로 관련이 없는 개별 사건들을 전체 이야기 속에 모으는데 적합한 렌즈다 (Polkinghorne, 1998/2009: 36).

Clandinin과 Connelly(1988)는 이야기와 내러티브를 구분하여 사용한

다. 그들에 의하면 이야기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일화를 의미하며, 내러티브는 긴 시간 속에 걸쳐 일어나는 삶의 사건들을 뜻한다. 그들은 내러티브가 무질서하고 의미 없이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일련의 사건들 간에 존재하는 관련성을 드러냄으로써 불연속적인 경험 세계에 시간적 연속성(temporal continuity)을 제공하는 틀이라고 설명한다.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자신의 삶을 형성해 가며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해석한다. 이야기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 통하는 하나의 관문이며, 이러한 관문에 의해 세상에 대한 그들의 경험이 해석되고 개인적으로 경험의 의미가 만들어진다. 내러티브 탐구는 경험을 이야기로 탐구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경험에 대한 사고방식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 18).

내러티브 탐구는 화자가 직접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화자에 의해 재해석되고 재구성된 경험을 탐구하는 하나의 연구 방법이다. 연구자는 삶과 말하기의 한 가운데서 탐구를 정리해 가면서 사람들의 개인적·사회적인 삶 모두를 구성하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재생·재진술 한다(Clandinin & Connelly, 2000). 이것은 시간에 따라, 장소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연구자와 참여자 간에 이루어지는 공동의 작업이다. 즉,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지속성 속에서 살며 말하는 개인 삶의 시간성(temporality), 개인 삶의 위치성(place), 사회적인 맥락과 관계적인 개인 삶의 사회성(sociality)을 고려하는 가운데 참여자의 경험을 탐구한다는 의미이다(김병극, 2012).

Clandinin과 Connelly(2000)는 ‘은유적인 3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시간성’은 듀이의 경험의 연속성(continuity) 원리에서 유래한 것이다. 탐구하고자 하는 사건, 사람 그리고 사물들은 시간적인 변천 속에 있으므로 내러티브 탐구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맥락 속에서 그 대상을 묘사한다(Clandinin & Rosiek, 2007: 69). 두 번째로 ‘사회성’은 듀이의 상호작용(interaction)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사람들이 항상 어떤 경험 속에서 자신의 상황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Clandinin, 2007: 106). 사회성은 개인적인 조건과 사회적인 조건으로 나누어 기술할 수 있으며<sup>35)</sup>, 경험은 개인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맥락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Clandinin & Connelly, 2000). 세 번째로 ‘장소’는 듀이의 상황 (situation)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탐구와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의 구체적인, 세부적인, 물리적인, 그리고 위상적인 영역들로 이해할 수 있다 (Clandinin & Rosiek, 2007: 70).

Clandinin(2007)은 내러티브 탐구를 하나의 연구 방법이자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하기를 원했다. ‘삶이 곧 교육’이라는 듀이의 교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경험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lived) 인간 삶의 본성’에 대한 이론적인 생각을 ‘살아가는 교육적 경험’으로 이용하려는 실천적 노력이다(김병극, 2012: 2). 따라서 내러티브 탐구는 ‘이야기를 탐색하고 듣는 것’ 이상의 것이다. 삶을 살아있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노력 중의 하나이다(Clandinin, 2007: 156-157).

## 2) 본 연구와의 적합성

내러티브 탐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주제, 분석틀에 적합한 연구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내러티브 탐구는 본 연구자의 인식론과 방법론적 일치성을 갖는다. 연구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symbolic interactionism)의 인식론을 토대로 지니고 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Mead(1972: 9)는 인간이 의미 있는 상징이나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정신이 생기고, 인간이 자신을 반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긴다고 하였다. 인간은 대상이 주는 의미를 바탕으로 행동하며 ‘의미’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생겨나고 획득된다.

내러티브 탐구의 연구 대상은 시간(과거) 속의 세계가 아니라 ‘이야기 된 현상’이다. 직업 세계에 대한 화자의 경험 이야기는 실재가 아니라 ‘의미’이다. 이것은 연구 참여자의 주관 속에서 언어를 통해 구성된 것

---

35) 탐구자나 참여자의 개인적인 조건은 그들의 내적 조건으로서 감정, 희망, 욕구, 심미적인 반응 그리고 도덕적 판단 등을 의미한다. 사회적 조건은 그들의 외적 조건으로서 개인의 맥락을 형성하는 주변 요소들, 세력들, 그리고 그 밖의 것들을 의미한다 (Clandinin & Connelly, 2000).

이며,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생활 세계에서 관계 맺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겨난 것이다. 이는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의 관계맺음, 언어를 통한 공유로 인해 다시 한 번 더 창조된다. 즉, 대상을 향해 있는 인식과 주체의 의식을 통해 ‘구성된 의미’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내러티브 탐구 방법은 연구자의 인식론과 관점을 함께 한다.

둘째,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 현상의 문화와 변화의 과정을 그려내는 데 적합하다. 이는 저소득가정 청소년이 직업의 세계로 입문하는 사회화 과정을 살펴보려는 본 연구 주제에 부합한다. 연구 참여자는 내러티브 탐구 과정에서 자신의 기억과 경험을 조작하고, 의도와 목적을 담고, 자기에 대해 이해하는 방식을 형성해 갈 것이다. 따라서 직업의 세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구성해 가는 과정은 곧 연구 참여자의 직업적 자아가 형성되고 변화해 가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과 같다. 최근에는 진로상담 영역에서 내러티브 접근법으로 내담자의 진로결정과 진로발달을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진로 스토리를 통해 자신과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탐구할 수 있는 능동적인 접근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야기에 대한 이해는 개인이 처해 있는 맥락과 상황 속에서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Young, Valach, & Collin, 2002).

셋째, 내러티브 탐구는 예비 직업사회화를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선택한 VAS 메시지 분석 방법에 적합하다. VAS 메시지는 개인이 직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기대에 반응하는 방식이며, 자신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방식이다. 개인이 경험을 통해 전달받게 되며 특정한 맥락 속에서 전달자와 수용자가 만나서 형성되는 것으로서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VAS 메시지는 전달자가 어떠한 의도와 의미로 전달하였는지 보다 수용자가 메시지를 자신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구성하고 해석하였는지가 중요하다. 이는 내러티브의 3차원적 공간 중 ‘관계성’의 관점에서 내러티브를 분석하는 것과 같다. 연구 참여자가 만난 직업인에 대한 평가, 학교에서 진로교육 시간에 배운 것, 부모님의 직업생활에 대한 태도, 진로정보를 해석하는 방식 등 연구 참여자의 내러티브 속에서 VAS 메시지를 발견하고 분석하는 과정은 예비 직업사회화의 의미를 밝히는 핵심작업이 될 것이다.

### 3) 내러티브 탐구의 절차

내러티브 탐구는 독특한 절차가 존재하며, 가장 대표적인 내러티브 탐구 절차는 Clandinin과 Connelly(2000)의 절차로서 1단계 현장에 존재하기, 2단계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 이동, 3단계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4단계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 이동, 5단계 연구 텍스트 작성하기로 이루어진다.

질적 연구는 방법론적 개별주의에 따라 모든 연구가 동일한 절차를 거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각각의 연구 문제와 연구 대상, 연구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절차를 연구자가 만들어 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이에 정광순(2006)은 Creswell(2002)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6단계의 절차를 제시하였으며<sup>36)</sup>, 김동학(2013)은 7단계의 절차를 제시한 바 있다<sup>37)</sup>. 공통적으로 내러티브 탐구의 모든 절차에는 자료 수집과 분석, 해석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또한 각 단계는 고정적·선형적인 것이 아니며 순환적·반복적으로 상호관련을 맺으며 연구가 진행된다.

본 연구는 Clandinin과 Connelly(2000)의 절차를 기본적으로 따르며 선행연구의 연구 절차를 수정·보완하여 다음 <표 5>와 같은 절차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1단계 ‘연구 들어서기’는 문제의식의 시작과 연구의 목적 등 연구가 시작된 배경을 밝히고 연구자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단계이다. 2단계 ‘현장 이해하기’는 연구와 관련된 현상에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의 단계이다. 기존의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현상에 다가갈 수 있는 다각적 이해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며, 동시에 저소득가정 청소년들과 함께 살이<sup>38)</sup>를 통해 초점화된 연구 현장으로 들어서기 전 광범위

---

36) 1단계 현장 확인하기, 2단계 참가자 선정하기, 3단계 이야기하기, 4단계 다시 이야기하기, 5단계 쓰기, 6단계 확인하기

37) 1단계 연구의 발견, 2단계 현장 이해하기, 3단계 연구 참여자 선정하기, 4단계 이야기하기, 5단계 다시 이야기하기, 6단계 글로 이야기하기, 7단계 확인하기

38) 연구자는 지역구청에서 운영하는 저소득가정 청소년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자원봉사 교사로 참여하여 1박 2일 동안 함께 대화하며 여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학생들은 직접적인 연구 참여자는 아니지만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의 삶의 이야기, 진로에 대한 고민, 가족 이야기 등을 듣고,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의 행동, 습관, 관계 맺기 등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한 현상의 이해를 시도하였다.

<표 5> 내러티브 탐구의 절차

단계	절차	내용
1	연구 들어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의 배경</li> <li>• 연구자 내러티브</li> </ul>
2	현장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헌검토</li> <li>• 저소득가정 청소년과 ‘함께 살이’</li> </ul>
3	연구 참여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 마련, 모집</li> <li>• 연구에의 동의 및 래포 형성</li> </ul>
4	현장 텍스트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들어가기</li> <li>• 이야기 맵 구성</li> </ul>
5	연구 텍스트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차원적 내러티브 공간에서 분석하기</li> <li>• 주제 분석</li> </ul>
6	내러티브 텍스트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참여자와 공유 및 피드백 후 재구성</li> </ul>
7	마침표와 쉼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의 마무리</li> <li>• 새로운 연구의 시작</li> </ul>

3단계 ‘연구 참여자 선정’ 절차는 연구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목적적 샘플링(purposeful sampling)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참여자 선정 기준을 마련한 이후 참여자 모집 과정을 거쳤다. 연구 참여자 선정 후에는 래포(rapport) 형성과 연구 동의 절차를 함께 진행하였다. 4단계 ‘현장 텍스트 구성’ 절차에서는 본격적으로 초점화된 연구 현장에 들어가서 연구 참여자의 삶을 이해하고, 이야기 맵을 구성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5단계 ‘연구 텍스트 구성’ 단계에서는 현장 텍스트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연구 주제에 맞추어 내러티브를 구성한다. 6단계 ‘내러티브 텍스트 구성’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와 내러티브 텍스트를 공유하고 이들의 확인과 피드백을 받아 텍스트를 재구성한다. 마지막 7단계 ‘마침표와 쉼표’ 절차는 연구의 마무리임과 동시에 새로운 연구의 시작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내러티브 탐구는 삶의 이야기에 대한 연구

이기에 연구의 마침표는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지금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삶의 이야기가 또 다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며 연구의 계속을 위한 잠깐의 쉼을 의미한다.

## 2. 연구 참여자 선정

### 1) 선정 기준 및 연구 참여자 모집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으로 연령과 계층, 지역을 고려하였다. 1차 기준인 연령은 만 18~24세의 범위로 한정한다. Super(1980)는 15~24세에 해당하는 시기를 ‘탐색기’로 명명하였으며, 이 시기를 다시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의 하위 3단계로 구분하였다. 18~21세에 해당하는 ‘전환기’에는 개인이 취업을 하거나 취업에 필요한 훈련과 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자아개념을 실천하려고 함에 따라 현실적 요인을 중시하게 된다. 22~24세에 해당하는 ‘시행기’에는 자신에게 적합해 보이는 직업을 선택해서 최초로 직업을 가지게 된다. 대체적으로 18~24세에 해당하는 시기의 청소년들이 직업의 세계로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고민과 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내러티브 탐구의 특성 상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는 생생함을 갖추기 위해서 고등학교 졸업 직전의 학생과 갓 졸업 후의 청소년 즉, 직업의 세계로 진입하기 직전과 진입 직후 학생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2차 기준으로서 저소득가정 청소년으로 범위를 제한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경제적 독립의 전환 경로가 사회계층과 집단에 따라 그리고 개인에 따라 광범위한 차이를 보인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Lunt & Furnham, 1996). 따라서 계층에 따른 예비 직업사회화를 이해하기 위해 연구 대상 집단은 저소득가정 배경을 지닌 청소년으로 한정된다. 저소득가정의 여부는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인 소득분위를 근거로 검증하였다.

3차 기준으로서 연구 참여자 모집 지역을 비수도권, 비도시지역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계층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계층의 경제적 의미 뿐 만 아니라 정치·경제·문화·사회·심리적 차원의 의미를 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하여 비수도권, 비도시 지역의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상대적 박탈감이 크며 삶의 기회와 자본이 서울에의 접근성에 따라 차이가 난다. 지역 간 교육환경의 차이는 지역 간 학력 격차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희삼,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과 지방 광역 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청소년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 기준에 따라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다양한 방안으로 모집을 실시하였다. 지역구청의 사회복지 담당 부서와의 접촉, 사회복지 센터와의 접촉을 통해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추천받으려 하였다. 또한 일반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수능시험이 끝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연구 참여자 모집 설명서를 배부하였다(부록 1). 그리고 청소년들이 자주 방문하는 인터넷 카페, 직업교육기관의 온라인 홈페이지에 연구 참여자 모집 설명서를 게시하였다<sup>39)</sup>.

## 2) 선정 과정 및 연구 참여자 정보

연구 참여자 모집 설명서를 배부하였던 일반 고등학교 2개교에서 총 6명의 청소년들이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혔다. 1명은 남학생이며 대전 지역의 한 학교에서 참여하였다. 5명은 모두 여학생이며 충남 금산 지역의 같은 고등학교에서 참여하였다. 6명 모두 해당 학교의 교사가 추천하는 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교사의 추천과 학생의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바탕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연구 설계의 순환적 수정 작

---

39) 연구 참여자 모집 결과 온라인 경로를 통해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구청의 사회복지 담당 부서와 사회복지 센터에서는 저소득가정 자녀들이 심리적으로 상처받을 것을 우려하여 설명서 배부를 거절하였다. 또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도 모집 설명서 배부를 거절하였다. 대신 2명의 학생 면담을 각 1회씩 허락해 주었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과의 면담은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일반고와 특성화고 학생의 차이를 이해하는 등 연구 설계와 현장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었다.

업을 지속적으로 하였다<sup>40</sup>). 그 결과 연구 설계 방향이 비수도권, 비도시 지역 거주 청소년으로 초점화가 이루어졌고 대전지역 거주 남학생 1명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연구자는 같은 학교의 같은 성별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 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이 현상을 이해하는 데 더욱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판단한 첫 번째 이유는 성별이 사회화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젠더와 예비 직업사회화 논의는 하나의 연구 주제로서 더욱 심도 있고 복합적인 논의가 요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연구 참여자 간 친밀성이 현장 텍스트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텍스트 분석의 타당성 확보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같은 지역의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5명의 연구 참여자들은 오랜 기간의 경험을 공유하였으며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 심층면담과 대화 중 특정 연구 참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였고, 가까운 타인의 시선을 통해 구성된 특정 연구 참여자의 경험 이야기를 다시 들을 수 있었다. 또한 내러티브 공간에 대한 전체적이고 통합된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학교와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각기 다른 내러티브는 학교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을 보다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고, 동시에 각 연구 참여자가 학교의 서로 다른 측면을 어떠한 방식으로 부각 하는가를 포착하기 쉬웠다. 이러한 과정은 연구 이전에 접촉한 적 없는 연구자가 낯선 세계 속의 연구 참여자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최종적으로 충청남도 금산군 지역의 일반 고등학교 재학생인 4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선정 당시(2015년) 연구 참여자는 모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었으며 만 18세로서 연령 기준에 부합하였다. 이들은 수능시험을 치른 후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소득분위와 가족 구조 등을 고려한 저소득가정 기준을 모두 충족

---

40) 질적 연구의 연구 설계는 연구 전체 단계에 걸쳐 반성적(reflective)이다. 연구자는 연구 진행 과정에서 연구 설계를 재조정하거나 재구성하기도 한다. 각 부분이 계속적으로 분화하면서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조영달, 2015: 213).

하였다. 최초 심층면담은 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후 1명의 연구 참여자는 심층면담이 완료된 이후 연구 텍스트 구성 단계에서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소득분위가 4분위로 확인됨에 따라 저소득가정이라는 선정 기준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종 연구 텍스트 구성은 소득분위 1, 2분위에 속하는 4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참여자 정보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연구 참여자 정보(2015년 선정 당시)

	이름(가명)	나이	지역	특성	소득분위
1	한지민(여)	만 18세	금산	뷰티학원 수강, 자격증 준비 중	1분위
2	김서연(여)	만 18세	금산	전문대 물리치료학과 진학 예정 재혼 가정	1분위
3	강은진(여)	만 18세	금산	4년제 간호학과 진학 예정 한 부모 가정	2분위
4	김민서(여)	만 18세	금산	4년제 경영학부 진학 예정 한 부모 가정	1분위

금산 지역은 비수도권, 비도시지역이라는 지역 조건에도 부합하였다. 금산 지역은 충청남도의 최남단에 위치하며 동북쪽으로는 대전광역시와 남쪽으로는 전라북도와 인접한 지역이다. 면적은 576.66 km<sup>2</sup>로서 1개의 읍, 9개의 면으로 행정구역이 형성되어 있다. 금산 지역의 인구는 53,000~54,000여명 정도이며 매 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sup>41)</sup>. 이에 따라 금산 지역 내 고등학교는 일반고 2개교, 특성화고 2개교 총 4개교이다. 일반고 중 1개교는 남고이며, 1개교는 여고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학교에는 약 400여 명의 여학생이 재학 중이며, 교직원은 40여명이다.

41) 다음 <표 7>은 매 년도 10월 기준 금산 지역 인구를 조사한 것이다. 점차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금산군 인구 변화 (출처 : 금산군 홈페이지 재구성)

년도(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인구(명)	56,035	55,688	55,379	55,098	54,787	54,618	53,845



금산의 지역 경제는 특산물인 인삼재배와 관련된 산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인삼 외에는 들깨잎, 약초 등을 재배하는 농업이 주를 이룬다. 금산군청의 조직에 인삼약초과 부서가 따로 존재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인삼의 재배, 가공, 유통과 관련한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제조업 부문을 살펴보면, 금산 지역 내 3개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50여 개의 공장이 입주하여 있다.

### 3. 자료의 수집과 분석

#### 1) 자료의 수집

내러티브 탐구에서 주된 자료수집 방법은 심층면담이 차지하게 된다. 연구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진솔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연구자와 참여자 사이의 권력관계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 화자가 이야기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연구자는 면담의 초기에 래포 형성이 완전하지 않고 참여자들이 심층면담의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나의 인생 곡선 그리기’ 활동을 하였다. 이 활동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을 시작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차차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에 익숙해졌다. 이후 면담의 질문과 방향은 이전 면담에서 연구 참여자가 언급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따라서 개별 연구 참여자마다 면담의 질문과 주제, 순서, 방식이 정형화되지 않은 비구조적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의 진행에 있어서는 예비 직업사회화 경험이라는 연구의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매 회마다 면담질문지를 준비하였다.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하되, 이야기의 흐름이 끊겼을 때, 그리고 보다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활용하였다. ‘초기 면담 질문지’는 다음 <표 8>과 같이 선행 이론과 연구 검토를 기반으로 하여 구성하였고, 이후 매 회 면담마다 이전 면담정리표(부록 2)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면담질문지(부록 3)를 준비하였다.

<표 8> 초기 면담질문지

차원	범주	면담 질문
구조적 차원	사회적 문화적 맥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의 문화, 종교, 제도 등이 직업과 관련된 나의 삶에 미친 영향은?(한국의 경제 상황,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문제, 교육정책, 경제정책, 진학제도)</li> </ul>
사회적 차원	사회집단 및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는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가?(학교, 자격증 준비 학원, 공기업채용반, 구직 동호회 활동, 인턴십, 기업)</li> <li>• 내가 속한 집단의 특성은 어떠한가?</li> <li>• 나와 구성원들은 어떤 가치관을 공유하는가?</li> <li>• 내가 소속된 집단 내에서 지켜야 할 규범은 무엇인가?</li> </ul>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위 사람들은 일과 직업 관련하여 나에게 어떠한 기대를 하는가?</li> <li>• 나는 직업인(직업준비인)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li> </ul>
	업무에의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어떤 일에 참여했는가?</li> <li>• 그 일의 특성은 무엇이었는가?</li> <li>• 그 일에 참여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는가?</li> <li>• 그 일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li> </ul>
	일터의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관련 환경(학교, 기업, 학원 등)은 어떠한가?</li> <li>• 그 환경에서의 생활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li> </ul>
개인 심리적 차원	직업에 대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가?</li> <li>• 나에게 직업을 갖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li> <li>• 직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li> </ul>
	적성과 흥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어떤 직업(일)에 적합한가?</li> <li>• 나는 어떤 직업(일)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가?</li> </ul>
	사회적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교사, 또래, 동료 등이 나를 믿어주고 지지하는가?</li> </ul>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직업 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li> </ul>

자료의 수집은 IRB 승인 이후 약 9개월 동안(2015년 11월~2016년 7월) 이루어졌다<sup>42)</sup>. 연구 참여자 1인당 3~6회의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구체적 면담의 일정은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심층면담 일정

참여자 (익명코드)	면담 코드	날짜	초기/후기 구분	면담 시간(분)
한지민(A)	A1	2015.11.25	초기 면담	46
	A2	2015.12.02		75
	A3	2015.12.09		104
	A4	2015.12.18		79
	A5	2016.01.13		60
	A6	2016.06.14	후기 면담	74
김서연(D)	D1	2016.01.06	초기 면담	85
	D2	2016.02.17		95
	D3	2016.06.17	후기 면담	78
	D4	2017.07.08		83
강은진(C)	C1	2015.12.18	초기 면담	71
	C2	2015.12.21		101
	C3	2015.12.28		90
	C4	2016.07.09	후기 면담	90
김민서(E)	E1	2016.02.17	초기 면담	120
	E2	2016.02.25		93
	E3	2016.05.12	후기 면담	88

면담은 초기 면담(2015년 11월~2016년 2월)과 후기 면담(2016년 5월 이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초기 면담은 고등학교 졸업 직전까지의 생생한 경험을 듣기 위한 것이며, 진로선택과 관련된 내러티브까지 형성되었다. 후기 면담은 대학 또는 직업교육기관에서의 경험을 수집하기 위

42) 주된 면담 기간 이후에도 2017년 7월까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직업교육 경험과 관련한 면담이 이루어졌다. 또한 연구 참여자 이외에 서울시의 강남지역에 거주하는 고소득가정의 동갑내기 청소년과의 추가적 면담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추가적인 면담은 연구의 분석 대상은 아니었으나 현상의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한 것이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충분한 직업교육 경험을 하도록 6개월~1년 정도의 기간이 지난 뒤에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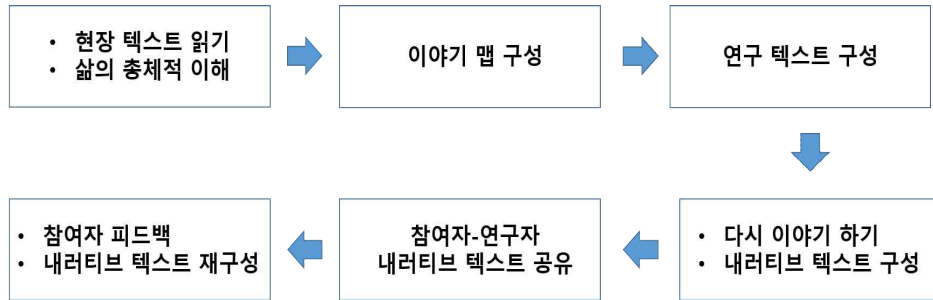
면담의 내용은 사전 동의 아래 녹음이 이루어졌으며 전사 작업은 깊이 있는 이해,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다. 면담 직후에는 한 시간 이내 면담 후기(부록 4)를 작성하여 면담에 대한 연구자의 생각과 의견을 기록하였다. 또한 연구의 전 과정 동안 내러티브 분석과 이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연구자 노트(부록 5)에 기록하였다. 이외에도 참여자의 삶과 체험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연구 참여자의 고등학교와 동아리 활동 공간 방문, 대학교 방문, 나의 인생 곡선 그리기 활동, 일기쓰기 활동(부록 6)을 하였으며 다양한 방법의 자료 수집을 시도하였다.

## 2)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분석 전략 중 주제 분석 전략을 사용하기로 한다. 주제는 핵심의 경험을 말하며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현상을 포착하고자 하는 일종의 형식이다. 주제를 통해 우리는 개념에 도달하게 되며, 형태가 없던 의식과 의미에 형태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어떤 텍스트나 체험의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그것들을 중요한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통찰력 있는 발명, 발견, 그리고 폭로의 과정이다. 주제를 포착하는 과정은 규칙에 얽매인 과정이 아니라 의미를 보는 ‘자유로운’ 행위이다. 인간 과학의 연구는 의미와 관련이 있다. 인간적이라는 것은 의미를 소망한다는 것이다. 이해하고자 하는 소망, 의미를 찾으려는 소망은 단순한 심리학적 상태가 아니라 존재의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는 경험을 분석하고자 할 때는 그 주제가 무엇인지 규정하고자 한다(Manen, 1990: 125).

주제 분석은 텍스트의 내용을 탐문하는 것으로서 어떻게 이야기되었는가 보다는 무엇이 말하여졌는가 중요하다. 연구 참여자가 알려주는 것보다 연구자가 들은 것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연구자가 되도록 많은 이야기를 수집하여 자료를 근거로 귀납적으로 개념의 틀을 만들어 낸다. 이는 전형적인 묘사 전략으로서 여러 사례에 걸친 공통적인

주제적 요소를 찾아 이론화하는 데에 유용하다(조영달, 2015: 295-296). 본 연구에서 주제 분석을 통해 내러티브를 구성해 가는 절차는 다음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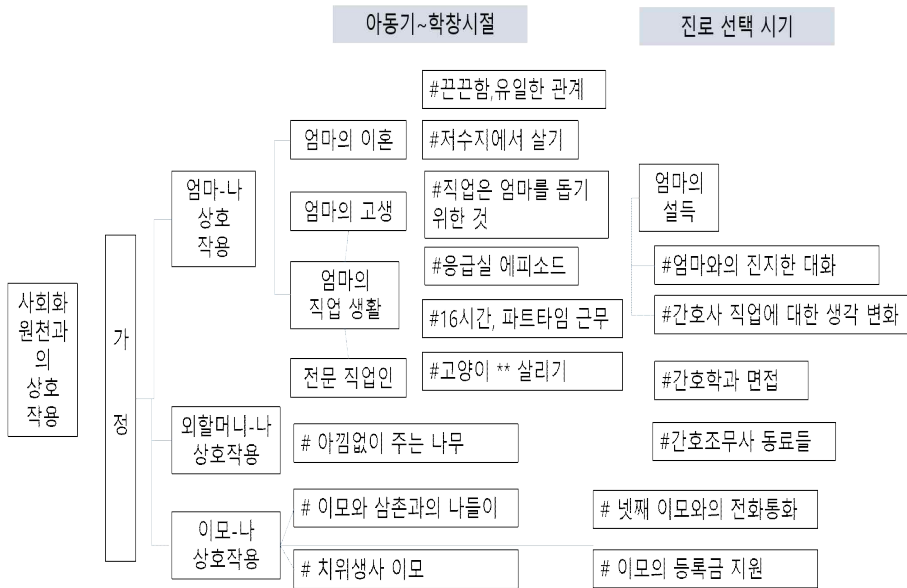


[그림 3] 주제 분석법을 이용한 내러티브 구성과정(박민정, 2007 재구성)

첫째, 녹음된 현장 텍스트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연구 참여자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한다. 둘째, 현장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야기 맵을 구성한다. 연구자는 전사 자료를 읽으면서 1차 개방 코딩을 하였고(부록 7), 이후 각 연구 참여자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한 후 이야기 맵을 구성하였다(부록 8). 셋째, 이야기 맵을 중심으로 시간적 순차와 논리적 연관성 및 통합가능성을 고려하여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을 묶으면서 재조직하여 연구 텍스트를 구성한다. 이 과정에서의 코딩과 연관성 분석은 방법론적 개별주의에 따라 연구자만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의미 있는 시간적 범주(아동기~학창시절, 진로선택 시기, 고등학교 졸업 후)를 구분하고<sup>43)</sup>, 내러티브에서 주로 등장하는 배경을 중심으로 공간적 범주화(가정, 학교, 지역사회, 인터넷, 아르바이트 일터)하였다. 또한 2차 개방 코딩을 하여 의미 있는 내러티브를 선택하였다(부록 9). 다음 [그림 4]와 같이 선택된 내러티브를 주제별로 위계화하고 관련성을 분석하여 배열하는 작업을

43)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에는 크게 세 가지 초점화된 시간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초점은 사회화 원천과의 상호작용과 이를 통해 직업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진로대안을 마련해 가는 과정이다. 두 번째 초점은 대학입시의 기간 동안 행위와 실천을 통해 진로선택을 하는 과정이다. 세 번째 초점은 대학 혹은 직업교육기관에 진입하여 직업관련 구체적인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하고 수행과 성취를 경험하며 직업인으로서 자아를 형성하는 단계이다.

하였다. 그 결과 하위 범주로는 참여자별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주제들이 도출되었다.



[그림 4] 위계화, 관련성 분석 작업의 예시

넷째, 연구자는 3인칭 시점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그들의 내러티브 텍스트를 구성한다. 다섯째, 연구자가 구성한 이야기를 연구 참여자와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는다. 연구 참여자의 피드백 절차는 직접 인쇄본을 전달하거나(1명), 전자메일을 통해(3명)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 중 1명은 내러티브에 등장하는 반려동물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하지 않았던 연구자의 실수를 지적하였다. 여섯째, 연구 참여자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내러티브 텍스트를 재구성한다.

## 4. 연구의 윤리와 신빙성

### 1) 연구의 윤리를 위한 노력

심층면담으로 이루어진 내러티브 탐구는 개인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생활이 드러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및 면담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해 힘써야 한다. 연구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 익명으로 처리하고 즉시 코드 전환하여 기록한다. 연구 참여자에게 과거 이야기 중 밝히고 싶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며, 연구자는 이 내용을 연구의 분석과 해석에만 참고할 뿐 보고서에 담지 않았다. 한 연구 참여자는 서로 친구 관계인 연구 참여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민감한 에피소드 중 일부분을 비공개 요청하였으며, 연구자와 참여자 간 개인적인 이야기로 들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연구 참여의 자발성을 중시하여 연구의 수행 중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연구 참여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였다. 또한 연구의 중간 텍스트를 공유하는 절차를 두어 참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이전 면담정리표를 보여주며 지난 시간 이야기 했던 부분을 확인하였다. 면담 장소 및 시간 선정에 있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연구 참여자의 저소득가정 배경과 경험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고, 친밀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장소, 거리 및 이동 시간을 고려한 장소를 연구 참여자의 요청대로 선정하였다.

### 2) 연구의 신빙성을 위한 노력

내러티브 탐구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적인 질적 연구의 판단 준거를 고려해야 한다. 해석적 전통의 질적 연구자들은 처한 관점과 틀 속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상황적 진실(situated truth)의 관점을 지니고 있으며, 실증주의에 기반한 타당도, 신뢰도의 개념과 고정된 기준을

거부한다. 양적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개념은 질적 연구와는 무관하며, 실증주의 연구의 동시적, 예측적, 수렴적 기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조영달, 2015: 340). Wolcot(1994)은 질적 연구자에게는 타당성의 용어보다 ‘이해(understanding)’ 라는 용어가 더욱 적합하다고 말한다. 좋은 질적 연구는 제대로 수행된 연구, 정확하고 믿을만한 연구이다. 독자가 읽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만큼 그럴듯한 이야기여야 한다<sup>44</sup>). ‘내가 겪지 않았지만 그러할 것으로 여겨진다.’ 고 신뢰할 수 있는 연구여야 한다(신경림·조명옥·양진향, 2004: 360). 따라서 존재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명확한 인식론과 그것을 인식하는 체계적인 틀을 갖추고, 신빙성과 진실성을 지니며, 구체적 실천과 검증의 과정을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질적 연구 전통 내에 위치하지만 내러티브 탐구는 고유의 독특성으로 인해 이에 적합한 용어와 검증의 기준이 필요하다. 내러티브 탐구는 개인의 이야기된 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점, 연구자와 참여자 관계성에 근거한 공동 작업이라는 점의 특징을 가진다. 그래서 Maanen(1988)은 연구 텍스트에서 현장의 인식 가능성을 강조였고, 분명함(apparency)과 있음직함(verisimilitude)의 준거를 제시하였다. Crites(1986)는 내러티브 탐구에서 사건을 시간적 순차에 따라 이야기할 때 나타나게 되는 인과관계의 환상(the illusion of causality)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Clandinin과 Connelly(2000)는 좋은 내러티브란 독자를 초대하며(invitational), 신빙성(authenticity)과 적절성(adequency), 그럴듯함(plausibility)의 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훌륭한 내러티브 탐구를 위해 연구 공동체 내에서 준거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연구 텍스트와 관련해서 사실과 허구의 구분

---

44) 부이텐디이크는 좋은 현상학적 기술이란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어떤 것, 즉 우리가 이미 겪은 적이 있거나 혹은 겪을 수도 있었던 그렇지만 겪지 못한 경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현상학적 끄덕임’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체험은 좋은 현상학적 기술을 불러 모으고, 좋은 현상학적 기술은 체험을 되살린다. 즉 체험은 좋은 현상학적 기술을 정당화하고, 좋은 현상학적 기술은 체험을 정당화한다(Manen, 1990: 59).



문제가 가장 빈번히 제기되는 쟁점이다. 하지만 Riessman(2008: 67)은 개인의 담화에 있어서 연대기적 진실여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현상과 해석이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서로를 구체화하듯이 현상은 해석과정의 산물이며, 화자의 가치관과 관심에 따라 동일 사건을 다른 방식으로 서술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문화적으로 적절한 이야기들은 역사에 근거하여 만들어지며, 개인들이 이론 커뮤니티와 사회구조 및 제도라는 틀 안에서 합의된다.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진실(trust)이 아닌 신빙성(trustworthiness)이 중요하다(Riessman, 1993: 68)45).

Riessman(2008)은 좋은 내러티브 탐구를 위해 네 가지 방법과 기준-설득성(persuasiveness), 대응성(correspondence), 일관성(coherence), 실용성(pragmatic use)-을 제시한 바 있다. 설득성이란 그럴듯함이라는 기준과 유사하며, 화자의 담화 상 증거를 통해 이론적인 주장을 뒷받침하고, 그 자료에 대한 대안적인 해석을 고려하였을 때 극대화된다. 따라서 연구자는 해석적 진술을 상세히 기록하고 독자를 연구로 초대하여 압도하고 자극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 텍스트를 해석하고 연구 텍스트를 구성할 때 지속적인 반성과 비판적 연구자로서 깨어있음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대응성이란 연구 결과물을 연구 참여자에게 제공하여 참여자들의 생각을 수렴하는 것을 의미한다. Lincoln과 Guba(1985)는 참여자 검토

---

45) Lewis(1961)의 『산체스네 아이들』은 전통적인 인류학 현지조사 방법으로 연구된 생애사 연구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소설과 논문의 중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만큼의 허구와 사실이 섞여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넘어 그가 제시한 ‘빈곤의 특수 문화’라는 개념은 설득력을 얻었다. 멕시코의 한 연구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판될 만큼 널리 읽히고 좋은 연구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내용에 등장하는 아이들 하나하나가 모두 일관성을 가진 살아있는 인물로서 떠오르기 때문이다. 또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 그치지 않고 그 뒤에 숨어있는 구조적 사회문제를 생각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독자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멀리 타역 멕시코 빈민들의 생활에 들어있는 이국적인 면모, 곧 문화들 사이의 차이와 다양성이라기보다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공동의 조건과 인간의 한계, 문화들 사이의 공통분모이다. 우리는 어디에나 있기 마련인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양식, 상위계층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게 마련인 하위계층 사람들의 특수한 문화가 민족이나 국가 사이의 경계까지 넘어서는 공통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Lewis, 1961: 752). 내러티브 탐구에서 허구와 사실의 문제제기를 하는 독자들, 일반화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하는 실증주의적 패러다임을 가진 독자들에게 이 연구는 ‘신빙성’의 의미를 설명하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member' s check) 절차를 통해 연구자의 재구성이 적합한 재현이라고 인정받으면 연구의 신빙성이 향상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참여자의 삶에 대한 연구자의 관점과 그들 자신의 관점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최종 분석에의 저술과 이에 대한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Riessman, 2008: 68-72).

좋은 내러티브 탐구는 총체적, 국지적, 주제적으로 일관되어야 한다. 화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얻고자 하는 전반적인 목표(총체적 일관성)와 내러티브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바(국지적 일관성), 여러 텍스트를 하나로 묶는 반복적인 주제(주제적 일관성)에 의거하여 내용이 이해 가능하다면 연구자의 해석은 힘을 얻게 된다(Agar & Hobbs, 1982: 29). 마지막으로 내러티브 탐구는 다른 연구의 토대가 되고 이에 기여해야 한다. 어떻게 해석을 도출하였는가를 서술하고, 작업을 시각화하며, 어떻게 일련의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다른 연구자에게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의 실용성을 확보한다면 그 연구는 보다 좋은 내러티브 연구로 인정받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질 제고 노력을 시도하였다. 첫째, 설득성 제고를 위해 풍부한 자료와 구체적 서술을 강조했다. 주된 자료 원천인 면담자료 이외에도 참여자의 삶을 풍성하게 보여줄 수 있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자료원을 수집하였다(부록 6). 또한 풍부한 진술을 위해 참여자의 표현과 삶의 언어를 있는 그대로 사용한다.

둘째, 연구자로서 개어있음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자 노트를 작성했다(부록 5). 연구자 노트에는 연구자의 과거 경험과 가정(assumption)<sup>46)</sup>, 면담 전후 연구자 생각의 변화, 자료 수집 과정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 자료의 해석 시 숙고의 과정을 상세하게 담았다<sup>47)</sup>. 이는 참여자의 삶과 연구자의 삶을 동시에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즉 일기와 같다<sup>48)</sup>. 또한

---

46) 연구자의 위치, 연구에 영향을 주는 어떤 편견이나 가정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연구의 초기부터 연구자의 편견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Merriam, 1998).

47)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대한 연구자의 즉시적인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생생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Spradley, 1979).

48) Lincoln과 Guba(1985)는 연구자 자신과 연구 방법에 대한 성찰적 일기쓰기(reflexive journal)를 제안한 바 있다.

연구자의 고민, 오류, 한계 등을 정직하게 기록했다. 특히 면담 직후 1시간 이내에 면담 후기(부록 4)를 작성하여 해석의 과정을 상세하게 담고자 노력하였으며, 연구를 진행하면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연구에 미친 영향을 자세히 밝혔다.

셋째, 대응성 확보를 위한 참여자 검토를 실시했다. 이는 대부분의 질적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법이며 연구결과와 해석의 신빙성에 대한 정보제공자의 검증을 받는 것이다(Lincoln & Guba, 1985; Merriam, 1998; Miles & Huberman, 1994). 특히 주제 분석의 내러티브 구성 절차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자와 참여자의 내러티브 텍스트 공유와 피드백의 반영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현장 텍스트, 연구 텍스트 결과를 정보제공자에게 보여주어 그들 이야기의 정확성을 확인하였으며, 부적절한 의미 부여를 막고, 언어와 시각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넷째, 동료 검토를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자는 항상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연구의 결과가 정확한가? 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이에 답하기 위해 숙고하는 과정을 거친다. 또한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공동체를 구성하여 검증을 받고자 한다(Denzin & Lincoln, 2000; Stake, 1995).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연구의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결정들에 대해 방심하지 않고 숙고하는 ‘깨어있음’ 이 강조된다. Clandinin 과 Connelly(2000)는 이를 위해 연구 공동체 안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연구자 역시 연구 텍스트로의 이행 과정에서 연구 동료들과 함께 2회의 검토 절차를 가졌다<sup>49)</sup>.

---

49) 1차 검토(2016.08.24)는 경제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내러티브를 발표하고 연구 분석의 조언을 듣고자 하였으며, 2차 검토(2017.02.23)는 경제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원 학생들, 선배 연구자들과 함께 개인적으로 세미나를 주최하였다. 동료 연구자들은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의 이행 때 기존 이론에 너무 매몰된 점을 지적하였고, 이는 연구 설계를 다시 재정비하는 계기가 되었다. 내러티브 탐구는 살아있는 경험 그리고 이야기 안에서 말해진 경험에서 탐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탐구 현상의 기반 이동이 이루어졌고, 현상 분석의 정체기에서 보다 깊이 있는 이해의 단계로 불안정한 움직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 IV. 내러티브

### : 직업인으로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

#### 1. 한지민의 이야기

##### 1) 아동기~학창시절

<표 10> 사회화 원천-한지민 상호작용과 VAS 메시지

사회화 원천	경험	VAS 메시지
가족구성원	가족의 위기	가족들은 나에게 의지한다.
	할머니와의 갈등	취업의 목적은 할머니 집에서 빨리 벗어나기
	부모님의 직업 생활	육체노동, 비정규직에 익숙하다. • 사무직은 ‘재미없고, 지루한 일’ 이다. • 언제든지 원하면 일할 수 있다.
교육기관	수업시간	공식적 제도 안에서는 인정받기 어렵다.
	연극부 동아리	돈은 못 벌어도 즐거우면 됐지.
	미용학원	숙련된 기술 습득은 나와 안 맞는다.
지역사회	금산의 의미	금산을 벗어나야 한다.
아르바이트	욕구의 충족	미용실은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일터
	노동착취	노동의 대가는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
인터넷	정보수집	인터넷은 진로결정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된다.
	전문학교 홈페이지	학점 관리만 잘하면 취업도 잘 되고, 유학도 가고, 스카이 대학 편입도 할 수 있다.

## (1) 가족구성원의 메시지

### ① 가족의 위기 : 가족들은 나에게 의지한다.

한지민의 기억은 가족의 위기에서 시작했다. 4~5살 무렵 부모님은 대전에서 구멍가게를 하다가 빚을 많이 졌다. 빚쟁이들은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고 집까지 찾아오곤 했다. 지금도 꿈에 가끔 나타난다는 그 기억은 한지민을 불안하게 하였다. 두 번째 가족의 위기는 동생의 교통사고였다. 한지민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이었다. 이 때 가족들은 모두 힘들었다. 부모님은 하던 일을 그만두고 병원에서 일 년 간 병간호에 매달렸고, 한지민은 할머니 집에 살면서 부모님의 빈자리를 메워야 했다. 막내 동생 유치원 보내기, 밥 먹이기 등 엄마 역할까지 해야 했다.

가족들은 한지민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한다. 부모님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항상 지민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힘든 일이 있을 경우 지민에게 짜증을 내고, 돈이 필요할 때도 엄마는 지민에게 돈을 빌린다. 한지민은 스무살이 되어 독립을 하더라도 가족에게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동생들 대학 등록금까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느낌이 든다. 한지민은 이러한 상황이 부담스럽지만,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가족의 위기에 대한 기억들로 인해 한지민은 하기 싫어도 가족구성원들에게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P: 제가 없으면 무슨 일을 못하세요. 뭐 할 때도 이거 어쩌냐 물어보고...힘들면요 저한테 짜증을 내세요...엄마가 일단. 무슨 일 있으면 저를 꼭 찾아요. 돈이 없다 그러면 돈 있냐 그러고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

R: 지민이는 그게 어때? 좋아? 부담스러워?

P: 네...부담스럽죠...<중략>...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나한테 기대하지 말라고

R: 부모님과 가족들이 지민이한테 의지하고 기대는 게 있어? 근데 그게 부담스럽지만은 않아?

P: 하기 싫죠...근데 해야 되는 일이죠...<중략>...맞아요...저희가 대전 살 때 저만 크잖아요. 아직 막내 태어나기 전이고. 둘째...간난 애기 때니까. 기억나는 게...저희는 항상 밥에 김치만 먹었어요. ...4살? 5살? 그것만 기억이

나요. 엄마 힘든 모습도 다 봤거든요. 제가. 빗쟁이들도 와가지고...돈 달라고 가게에서 행패치고 그런 거 되게 다 봤거든요. ...그...빛이 좀 많았어요. 아빠가. 지금도 갇는데...지금은 막 쫓아올 정도는 아닌데...어렸을 때는 진짜 많이 왔거든요. 그것만 기억이 나요.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가끔 꿈에도 그 장면만 나올 때도 있어요. [A2]<sup>50)</sup>

P: 좀...힘들어요...뭐지...기대는 게 느껴져요...옛날에는 안 그랬는데...지금은 느껴요...아빠가 저한테... “니가 큰 딸이잖아” 이러거든요. 큰 딸이라고 저만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진짜 부담스러워요...그러면 제가 “아빠 나한테 기대하지 마. 나 공부도 못하고... 막내한테나 기대해...” 그랬거든요. 재한테 해달라고 그래...나한테 기대하지 마...난 어차피 아빠가 좋아하는 길도 안가고...나한테 기대하지 마 그랬거든요. 보이잖아요. 그게...아까도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어디냐고...엄마 혼자 집에 쳐서서 심심하다고. [A3]

P: 막내 동생 대학 등록금까지 제가 내지 않을까 싶어요...제가 2년제잖아요. 그럼 둘째도 졸업을 해요 같이...근데 막내가 남았잖아요. 근데 개가 경찰대 가는 게 꿈이에요. 또...자식...공부도 못 하는 게...제가 봤을 때는 아마 개 등록금 제가 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요. 개만 보면. [A3]

## ② 할머니와의 갈등 : 취업의 목적은 할머니 집에서 빨리 벗어나기

한지민의 가족은 빚을 진 뒤 금산의 할머니 댁에 얹혀살게 되었다. 한지민은 할머니를 우리 가족을 ‘구박하는 집주인’ 이라고 표현하였으며 가족구성원으로 여기지 않았다. 동생들을 보살피는 일은 늘 한지민의 몫이었고, 할머니의 구박을 참고 견디는 일이 매우 힘들었다. 할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하여 자신이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지민이 전달받은 VAS 메시지는 ‘최대한 빨리 취업

50) 면담기록 [A2]의 의미는 연구 참여자 A의 2번째 심층면담을 지칭한다. 구체적인 일정과 시간은 <표 9>에서 제시하였다. 이후 면담기록의 출처는 이러한 방식으로 기재한다. P(participant)는 연구 참여자를 지칭하며, R(researcher)은 연구자를 지칭한다.

을 해서 할머니 집에서 벗어나야 한다.’ 였다. 한지민이 직업을 갖는 목적은 ‘할머니 집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고, 취업을 해서 집을 나가는 것, 금산을 떠나는 것이 매우 절실했다.

P: 별로 안 좋아해요. 저희가 여기 이사 올 때 좋게 이사 온 게 아니라 빗 때문에 다 넘기고 이사 온 거란 말예요. 할머니는 얼마나 안 좋게 보이겠어요. 할머니는 그랬죠. 며느리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자식 다 말아먹는다. 할머니가 저희 밥도 안 해주시고 뻥 하면 뭐라 그러셨거든요. ...어느 날 학교에 있는데. 그때는 토요일도 학교에 나갔잖아요. 초등학교 때 학교에 있는데...동생이 울면서 교실로 들어와요. 너 왜 여기 왔냐...그랬더니 집에 밥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대요. 애들이 1학년 때. 그래가지고...놀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말해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밥을 했어요. 제가 ^^ (웃음) 밥을 하고 밥 먹이고 열받아가지고 잤어요. [A2]

P: 제가 한창 너무 죽고 싶어서 그런 적도 있고 맞긴 맞아요...그냥...좀...뭐라고 해야 하지? 좀 그 때...집이 좀 힘들고 그랬어요...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제가 뭘 못했나? 그래서...한참동안 좀 우울했어요. ...<중략>...진로랑...저 혼자 슬퍼했던 거? 그런 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할머니랑 갈등이 좀 심했거든요...서로...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어요. 제가 하는 일마다 시비를 계속 거는 거예요. 제가 화를 내면 우산으로 콕콕 찌른다거나...그때 제 막내 동생이 한창 친구들이랑 놀 때였거든요. 집에서 밥을 먹고 급하게 나갔는데 밥통문을 열고 간 거예요. 할머니가 밥통문을 열고 갔다고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 내가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좀 달으라고...할머니가...어디서 와서 큰 소리냐고...집안을 뒤집어 봤는데... [A3]

P: 일단 금산을 떠나야 해요. 일단 그게 목표예요. 그냥...할머니랑 자꾸 싸우다 보니깐 자꾸 집을 나가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음...그리고...<중략>... 사회적 명예도 얻고 싶은데, 일단 근본적인 직업을 갖기 위한 목표는 ‘집에서 나와야돼서.’ [A5]

### ③ 부모님의 직업 생활 : 육체노동, 비정규직에 익숙하다.

(가) 사무직은 ‘재미없고, 지루한 일’이다.

한지민의 아버지는 ‘안정된 직업을 가져라, 공무원이 되어라, 대학에 가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며 직업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언어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한다. 또한 아버지는 한지민에게 육체노동이 아닌 사무직을 선호하는 VAS 메시지를 전달한다.

하지만 아버지가 실제로 보여주는 직업생활은 이와 반대이다. 한지민의 아버지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이다.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객지에 나가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 일거리가 불안정하여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다. 졸업 후 한지민의 직업교육을 위해 학원비를 내주기로 하였으나 아버지는 약속된 날짜까지 학원비를 마련하지 못하였고, 한지민은 졸업 후 한 달 동안 집에서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한지민은 아버지의 언어적 메시지를 거부한다. 첫 번째 이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안정된 직업, 공무원, 대학 진학, 자격증 따기 등은 공부를 해야 하는 일이다. 한지민은 몸으로 하는 일은 자신 있지만 머리를 쓰는 일은 하기 싫다. 현실 상황에 대한 고려와 구체적 방법이 결여된 직업 목표를 강요하는 아버지가 답답하고 밉다. 한지민은 안정적인 일, 사무직을 ‘재미없고, 지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P: 아빠가 저희 잘 때 나가시고 저희 잘 때 들어오셔요. 건축 일을 하시는데 별로 볼일이 없어요. ...<중략>...어디 객지 나갈 때만 전화해서 나 어디 어디 가니까 안 들어가. 이게 다예요. 가끔 사진을 보여준 적은 있어요. 아빠도 노는 줄 알았더니...일하는 구나...

R: 아빠는 자주 출장을 가셔?

P: 요새 금산에 일이 없어서...파주가고 전주가고 거제도 가고 그러거든요. 거제도는 한 일주일 이상 갔다 오고 전주는 하룻밤이나 이틀 밤 정도.

R: 그럼 며칠 좀 쉬셔?

P: 아니요. 바로 다음날 또 출근해요. 쉬는 날이 없어요. 그냥 다 나가셔요. 일이 없어도 그냥 사무실 가서 앉아계세요. 항상 그러셨어요. 일요일엔 쉬고... [A2]



P: 아빠가 그러는데 미용이 좀...기가 센 직업이래요. 너 그거 해서 결혼 할 수 있겠네요. 나 결혼 안 할 건데~그러거든요.

R: 그럼 어떤 직업을 선호하시지?

P: 공무원 공무원...오로지 공무원...

R: 그럼 막 공부하라고 그러셨어?

P: 공부하라고는 안 해요...그래서 저도 참 의문이에요...그래서 제가 아빠 나 공부도 못하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될까? 능협대를 들어가면 된대요...아빠 능협대를 들어가려면 최소 1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갈까? 그러면 너가 공부를 하면 된대요...^^(웃음) 그래서 아빠 나 공부를 안 한다니까...그럼 아무 말도 안하세요. [A4]

R: 왜 아빠가 미워?

P: 안 되는 일을 자꾸 저한테 하라고 그러니까. 저도 가고 싶으면 가면 좋죠. 간호학과든 사회복지학과든 가면 좋죠. 그런데 못 가는데 거길 자꾸 가라고 그러니까...내 이야기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가라고 하고.

R: 아빠는 거길 왜?

P: 고생을 안했으면 좋겠대요. 저희 아빠가 지금은 사장인데, 어렸을 적 막노동부터 다 했거든요 고생을. 엄마랑 둘이...그래도 엄마는 좀 편했어요. 회사 다녀서. 아빠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자기 자식들은 월급 딱딱딱 나오는 공무원을 했으면 좋겠대요. [A5]

P: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저한테 공무원 하라고 하면 제가 '공무원 싫어, 앉아서 컴퓨터질 못해' 라고 했거든요? 아빠가 꾸준히 이야기 했어요 저한테. 그런데 저는 꾸준히 싫다고 했어요. [A5]

(내) 언제든지 원하면 일할 수 있다.

한지민의 어머니는 다양한 일을 하였다. 금산에 와서 식당일을 하다가 분식집을 차렸다. 하지만 동생 교통사고로 인해 장사를 접어야 했다. 이후 간호학원을 다니며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땀고, 동네 병원에서 일하였다.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병원에서 해고를 당하였고 몇 달간 실업수당을

받았다. 이후 보험 설계 일을 다시 시작하였다. 부모뿐만 아니라 한지민의 주변인들은 자주 직업을 바꾸고, 그 때 그 때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한지민은 자꾸 바뀌는 엄마의 직업생활을 옆에서 지켜보며 ‘나이가 들어도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일할 수 있다’ 는 VAS 메시지를 전달받는다. 자신과 안 맞으면 직업은 바꿀 수 있고, 오랫동안 일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젊은 시절에는 ‘재미’ 있는 일을 하다가, 40~50대가 되면 식당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지민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일을 도우며 자연스럽게 식당일에 접하게 되었다. 자신도 나이가 들면 식당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언제든지 원하면 할 수 있는 일’ 이란 하위 일자리 층, 불안정 노동시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동의 특징은 대체적으로 저임금이며, 고용조건과 고용상태가 불안정하여 노동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 등이다. 또한 오랜 기간의 직업훈련이나 숙련된 기술을 요하지 않는다. 한지민의 내러티브 안에는 오랜 기간의 직업훈련을 거쳐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직업인이 별로 등장하지 않는다. 뒷집 아주머니는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 미용실을 한지민에게 소개해 주었고, 지금은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준비하여 어린이집 조리사로 일한다. 한지민의 내러티브에 등장하는 ‘금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은 인삼밭에서 일하기, 핸드폰 가게, 신발 가게, 화장품 가게에서 물건 팔기, 카페에서 일하기 등이었다.

P: 엄마는 원래 가게 하고 여기 와서 식당일을 하다가 김밥 집을 차렸거든요. ... 장사가 잘 됐거든요. 항상 끝나면 여고 언니들도 있었고 금고 오빠들도 있었고...금고 오빠들이 와서 돈가스 먹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한 2~3년 했나? 그러고 동생이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가게 1년 동안 문 닫고...다시 할라 그랬는데 그냥...다 넘겨주고 간호학원을 다니셨어요. 엄마는 좀 안정적으로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누구 권유로 친구 분인가 아는 분 권유로 간호학원 다니면서...그래서 지금도 병원에서 일하고 계세요. 간호조무사. 계속 카운터 보고 주사 놓고 원장님 꾸중 듣고 ^^ (웃음) [A2]

R: 오랫동안 일하고 싶어?

P: 아니요 별로 오래 일하고 싶진 않아요. 나중에 벌어 놓 걸 좀 잘 모아놓고 여행 같은 거 하거나 시골이나 섬 이런데 내려가서 살고 싶어요. 편~하게...한 50? 50이후에는 좀 편하게... [A4]

P: 제가 미용할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너는 미용을 오래할 것 같이 생기진 않았다고...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오래 할 것 같이 생기진 않았다고..

R: 여기 학교를 갔는데 이렇게 미용처럼 몸이 힘들고 그러면 어쩔 거야?

P: 대학까지 가서 이걸 했는데...제가...설마...때려 치진...않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좀 못 미덥스럽긴 한데? 몰라요...저도 무슨 일 하고 있을지 저도 참 궁금해요.

R: 걱정 안하는 스타일이라고 했지? 만약에 나중에 너랑 잘 안 맞으면?

P: 그럼 또 뭐가 바뀔까요... [A4]

R: 엄마가 그 일을 하시는 걸 보면 어때?

P: 좋긴 한데... 엄마가 일을 안 할 때는 항상 누워있거든요? 지금은 활동적이어서 좋긴 한데, 그래도 피곤해하셔요. 별이는 괜찮은 것 같아요.

R: 엄마가 이렇게 직업을 다양하게 갖는 걸 보면 어때?

P: 언젠가 내가 나이 먹어서 일을 하고 싶으면 일을 할 수도 있구나. [A6]

R: 그런 일은 몇 살까지 할 수 있어?

P: 한 40까지 밖에 못하죠.

R: 그럼 그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본 적 있어?

P: ...<중략>...어렸을 때부터 원래 그랬어요. 본 직장을 좀 퇴직할 때쯤이면 내가 식당을 하나 차리는 게 그게 원래 꿈이었어요. 좀 오래 됐는데...제가 요리를 처음 시작한 게 초등학교 3학년 때란 말예요. 밥이란 걸 처음 지어 봤어요. 압력밥솥에. 그때부터 계속 요리를 했어요. 주말에는 동생들 밥 차려주고. 그러면서 그때 엄마가 식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도 나이 먹으면 식당을 해야겠구나. [A1]

R: 그 아주머니는 미용실 같이 일했고...지금도 미용실에서 일하셔?

P: 아니요. 지금은 한식 조리사 자격증 준비하세요.^^(웃음)

R: 진짜? 주변에서 다들 열심히 일하시네?

P: 유치원 맘마 선생님 하세요. 뭘 일이 있어가지고. 미용실 그만두시고. [A4]

## (2) 교육기관의 메시지

### ① 수업시간의 경험 : 공식적 제도 안에서는 인정받기 어렵다.

한지민은 공부가 하기 싫고, 대학에 가기 싫었으나 일반고에 진학했다. 중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과 엄마의 바람 때문이었다. 수업시간은 재미가 없었고, 학업 측면에서 자신은 인정받기 어려웠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은 일반 고등학교에서 설 자리가 없었다. ‘취업할건데요.’ 라는 말만 하면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도 교과 선생님은 신경 쓰지 않았고, 담임 선생님은 진로상담을 하지 않았다. 전교생이 치르는 수능시험에 한지민은 응시하지 않았다. 일반고 안에서 대학에 가지 않는 학생인 한지민은 교육의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이러한 고등학교에서의 경험은 한지민에게 ‘나는 공식적 제도 안에서는 인정받기 어렵다’ 는 메시지를 주었다. 이에 따라 한지민은 교육제도, 대입제도 안에서 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보다는 ‘나만의 전략’ 을 세우게 된다. 수능시험 점수가 없어도 진학할 수 있는 전문학교를 알아보고, 공부를 하지 않아도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는 ‘몸으로 하는 일’ 을 선호하게 된다. 또한 ‘실력’ 의 의미를 재구성한다. 한지민에게 성적과 같이 ‘연필로 해서 뽑는 것’ 은 실력이 아니다. 자신은 ‘실력’ 이 있다고 생각한다.

#### <수업시간>

P: 학교가 싫은 게 아니라 공부가 싫을걸요, 저는? 정확히 말하면 공부가 싫어서 학교를 싫어하는 거 같아요. 그냥 별로 마음이 안 갔어요. 공부가. 수업시간만 아니면 학교는 재밌는 곳이에요. 그...답답해요. 허리가 안 좋아서 의자에 별로 앉아있지도 못해요. 불편해서 자세 바꾸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 계속 앉아있으라지 보지도 않는 책 자꾸 보라하지...수학문제 막 풀라고 하지..자

면 뭐라고 하지 좋아도 뭐라 하지 잔소리만 하고...백 하면 자꾸 나와서 물어 보라지...할 줄도 모르는데 모르는 거 자꾸 물어보라지(속사포처럼). [A2]

P: 사실 제가 지금 담임 선생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제가 진로상담도 안 했거든요. ^^ (웃음) 사실 제가 학원 안다니는데 방과 후랑 야자 하기 싫어서 학원 다닌다고 그러고 맨날 끝나고 그냥 가고 그랬거든요. 선생님이랑 깊은 얘기를 한건 한 10분 정도 되는데...선생님이 진로 어떻게 할 거냐. ^^ (웃음) 전 취업할거거든요. ^^ (웃음) 아 그러냐. 그게 다예요. 한 4월 달 5월 달? 다른 애들은 대학 상담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남아서 한 시간씩 했으니까. 저는 아침에 잠깐 가서 그런대요. 그게 다예요. [A2]

P: 막...저 취업할건데요. 그러면. 제가 수업시간에 자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너 대학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저 취업할건데요. 그러면 안 건드세요. ^^ (웃음) [A2]

#### <나만의 전략>

P: 근데 공부를 못해서 일단 대학을 못가잖아요. 제가 성적이 바닥이라서. 일단 4년제나 전문대는 못갈 것 같고 그냥 그쪽으로 막 찾은 거란 말예요. 전문학교 쪽으로. 그래서 거기를 알게 됐죠. [A1]

P: 옛날엔 졸업장만 있음 된다. 그런 거? 왜냐면 미용하는 애들 중에 졸업장 없는 애들이 많아요. 증졸 이런 애들이 많거든요. 졸업장만 있고 자격증만 있으면 땡 인거지... [A2]

P: 제가 공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친한 선생님들이 진짜 많아요. 선생님들이 약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찾아와서 “선생님 이거 문제 좀 알려주세요.” 그러는데 저는 “선생님 밥 드셨어요?” 그러는데 선생님 눈에 띄면 뭐라도 하나 얻어요. [A2]

P: 제가 잘하면 할 수 있겠죠. 열심히 하면 교수님들이 딱 보잖아요. 왜냐면 교수님들이 현장에서 뛰시면서 교수님 하시는 거니까 그 교수님 눈에 잘 띄면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눈에 뛰어야 해요. 일단. ^^ (웃음) 열심히 하고 교수님 눈에 보였다하면 어느 정도 이게(연결) 되겠죠. ^^ (웃음) [A2]

P: 제가 유리할 것 같은 건...애들은 뭐 시키면...아~이거 왜 해야 돼지? 그러  
잡아요. 근데 저는 뭐시키면 아...빨리 하고 집에 가야지 그런 게 있단 말에  
요...좀 긍정적인~^^(웃음) [A4]

## ② 연극부 동아리의 경험 : 돈은 못 벌어도 즐거우면 됐지.

연극부 동아리 활동은 학교생활의 유일한 낙이었다. 한지민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의 권유로 연극부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는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화장을 잘한다고 소문이 나있었기 때문에 연극부에서 분장을 맡았다. 2주에 한번 있는 동아리 시간에 한지민은 누구보다 빨리 뛰어가 동아리방 문을 열었다. 연극부는 매년 열리는 ○○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한지민은 분장을 담당했고, 무대 만들기와 소품 팀을 도왔다. 연극부에서 한지민은 선생님께 인정받았고, 자신을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 라고 말했다.

연극부의 경험은 한지민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었다. 수업까지 빠지면 서 무대를 만들었던 기억, 힘들게 만들었지만 완성된 후 느껴지는 뿌듯함, 연극부 선생님의 멋진 모습 등을 경험하고 앞으로 ‘무대연출가’ 라는 직업인이 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연극부 선생님은 국어국문학을 전공하였고 대학 때 연극부 활동과 학생운동을 하였던 경험이 있다. 지금도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선생님을 보면서 한지민은 ‘어떤 직업을 갖든 저렇게 열정을 쏟아 부어야겠다.’ 고 생각했다.

한지민은 연극부 활동 경험과 무대연출가 직업을 연결 지으면서 ‘돈은 못 벌어도 즐거우면 된다.’ 는 VAS 메시지를 형성하게 된다. 무대연출가가 취업이 쉽지 않고, 불안정한 직업이며, 돈을 많이 못 번다는 주변의 반응에 대해서, 한지민은 잡일/육체적으로 힘든 일도 ‘재미’ 가 있으면 경제적 어려움이나 불안정한 지위를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다.

P: 한 18년 동안 즐거웠는데...너무 일만 하기에 는 지루하지 않을까...인생이...지루하지 않을까...난 원래 이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방송 쪽 꿈을 갖고 있었는데...너무 돈을...돈 욕...약간 취업 이런 거를 걱정해서 너무 안전

한 길을 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약간 돈보다는 안정적인 것 보다는 내가 좀 더 상상력을 펼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도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낫지 않나...100분 동안 그런 생각을 했죠. [A1]

R: 지민이한테 중요했던 경험은 연극부 동아리의 경험이네?

P: 그죠. 제가! 원래는 연극 동아리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 때 약간 연예인 이만큼 있었고 미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중략>...

R: 그럼 거기서 어떤 일 했어?

P: 분장이요. 여러 가지 소품도 들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중략>...

R: 연극부에서의 경험은 지민이가 직업이나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준거 같아?

P: 좀 많이 준거 같아요. 옛날에는 아...내가 일하면서 좋으면 뭐하나 돈을 못 버는데...이거 하고 나서는 즐거우면 됐지...돈 못 벌어도 뭐...<중략>...근데 연극부 들어가서는 제가 생각...내가 먹고 살 정도만 벌면 되지. 뭐 하러 굳이 많이 벌어서 갖고 있으면 뭐하나 나중에 땅에 들어가서 막 갖고 들어갈 것도 아닌데...<중략>... 어떤 잡일을 해도 제가 기쁘게 생각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죠? ...<중략>... 어디 연극 극단에 들어가서 뭐 세트를 만들더라도 즐겁지 않을까요? 아직은...실무는 연극부 밖에 안 해봤으니깐 하게 되면 어디 연극 극단에 들어가는...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A1]

P: 힘들죠. 몸이 안 힘들겠어요? 근데 또 아 ..괜찮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바쁘게 움직이면 또 잊어버려요.

R: 몸이 힘들거나 박봉인거는 두려운 게 아냐?

P: 그럼요. 아프면 아픈 거고...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되죠. 그러면 주위에서 뭐라 하겠죠. 박봉이고 그러면은. 약간 그런데는 고집이 있어요. 좀...제가 하고 싶은 거는 꼭 해야 하는 성격이라... [A1]

R: 연극부에서 너는 어떤 존재였어?

P: 반짝거렸어요. 그때 분장하는 애들이 전문적으로 배운 애들이 아까 개하고 저밖에 없으니깐. 담당하는 애가 되게 못생겼어야 했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애 어디는 좀 더 그려주고 어디는 점을 찍어주고. 머리는 이렇게 해주고...선생님이 해달라는 거에 최대한 맞추고...선생님한테 검사 맡으러 가

면... “선생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선생님이 “더 부각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럼 또 부각시켜서 와요. 그럼 선생님이 어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넌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해. [A3]

### ③ 미용학원의 경험 : 숙련된 기술 습득은 나와 안 맞는다.

한지민이 경험한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은 직업훈련기관인 미용학원이었다.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미용계통의 일에 관심이 생겨 다니기 시작하였으나 1년이 지난 후 이를 포기하게 된다. 그 이유를 한지민은 미용학원의 분위기가 자신과 잘 안 맞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연구자는 미용학원에서 주된 활동인 훈련과 학습, 교육이 한지민에게 안 맞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한다. 미용학원은 일터가 아니라 직업훈련기관이다. 미용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반복된 기술 습득 교육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한지민은 자격증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

이러한 경험은 한지민에게 ‘숙련된 기술의 습득은 나와 잘 맞지 않는다.’는 VAS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한지민은 주어진 순서대로 하면 결과가 나오는 검색하기는 자신이 잘 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의 취향과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다양한 기술을 요하는 파악하기와 커트하기는 자신이 잘 할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졸업 이후 진로를 선택할 때도 아버지가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와 같은 직업을 강력하게 권유하였으나 한지민은 이 같은 종류의 일들이 자신과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한지민은 전문적인 지식을 학습하고, 숙련된 기술을 습득하고, 집중하여 교육받는 일에는 자신이 없다.

P: 알바보다 더 힘들어요. 일단 말할 사람이 없어요. 혼자 한 두 시간 동안 입을 앙 다물고. ^^ (웃음) 선생님 물어봐도 네. 이런 거만 하니깐. 그래서 말고. 시간 재고. 또 말고. 물리면은 다 못 말았으면 다시 풀고 혼자 다시 하고 또 다시하고 계속 그랬어요.

R: 일주일에 몇 일?

P: 5일 동안. 매일 갔어요. 버스타고...가면 한 시간...매일 세 시간씩...도착하면 6시 되니깐 9시까지...



R: 매일..일 년 동안? 그래서 많은 걸 배운 것 같아?

P: 많은걸 못 배운 거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제가 학원을 그만뒀어요. [A2]

P: 국가고시를 봐야 해요. 학원가서 연습하거나. 필기시험 실기시험 해가지고. 좀 힘들어요. 35분 안에 가발 머리를 다 말아놓고 커트 다 하고 핑거웨이브도 있거든요. 젤로 막 해서. 그것도 35분 안에 다 끝내야 하고. 신부화장도 있어요. 그것도 35분 안에. 모두 다 35분 안에 다 끝내서 60점 이상이면 통과. 시험 봤었는데, 저는 떨어졌어요. 제가 좀 커트 하다가 손도 잘리고. 잘못 잘라서 여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말아야 되는데. 눈치 보면서 다 집어넣어서 다 말았죠. 완성은 했어요. 35분 안에. 신부화장을 하는데. 학원에서 안 가르쳐 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시간이 15분 정도 남아서 혼자 멍뚱멍뚱 앉아 있었어요. [A3]

P: 좀 얘기하고 떠들고 이런 거는 맞는 것 같은데...염색 이런 거는 맞는 거 같은데 커트하고 파마 이런 거는 안 맞아요. 전 약간 깔끔한 게 좋은데 커트는 다양하잖아요. 보브 단발도 있고 샐기 컷도 있고. 파마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았다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고... 염색약은 딱 정해진 색깔이 있잖아요. 염색약은 짜서 바르면 이런 색깔이 나오는구나. 이런 게 있는데 커트하고 파마는 사람마다 다르게 하는 게, 개인에 따라 취향이 달라갖고...<중략>...염색만 하는 미용실이 있으면 거기 가서 일하겠는데 커트도 하고, 커트도 막 각도 재서 자르고 해야 되거든요. 이상하게 저는 각도가 안 잡혀요. [A3]

### (3) 아르바이트의 메시지

한지민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노동의 양면성을 경험하였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뒷집 아주머니의 소개로 미용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매일 10시간 씩 방학 내내 일하였으며, 학기 중에도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한지민의 내러티브에는 미용실 아르바이트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 고된 노동의 이야기였으나 한지민은 즐거웠고 행복한 경험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르바이트 노동은 한지민에게 욕구충족과 노동착취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다.

### ① 욕구의 충족 : 미용실은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일터

한지민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버는 즐거움과 타인에게 인정받는 즐거움을 경험한다. 우선 돈 버는 즐거움이 컸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 돈을 벌어 원하는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즐거웠다. 한지민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가족들이 외식을 했다. 또한 엄마가 한지민에게 돈을 빌리는 일도 종종 있었다. 한 달 내내 일해서 번 돈 100여 만 원은 고등학생에게는 꽤 큰돈이었고, 소비의 자유와 만족을 느낄 수 있었다. 돈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놀 때도 당당했고, 미용학원 등록도 부모님과 상의하지 않고 할 수 있었다. 가장 갖고 싶었던 노트북도 구입할 수 있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는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을 전제해야 한다. 또한 현대 소비사회에서는 육체적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 그리고 그 이상의 소비를 통해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한지민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10년이 넘게 부채가 있고, 주거비 지출을 할 수 없어 할머니 집에 살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 문화, 여가를 위한 소비나 생필품 이외의 소비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지민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가게 소득에서 기대할 수 있는 소비 그 이상의 소비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보상소비(compensatory consumption)를 통해 욕구가 충족될 수 있었고 만족감이 컸다.

P: 정말 매우 즐거웠어요. 아...진짜 그거 기억하면 정말 행복해요(눈이 초롱초롱하게 웃으며)...(매우 흥분한 목소리로) 처음에 미용실 갈 때 진짜 못했어요. 그때는 샴푸도 잘 못하고 손님들 옷 다 적시고 혼나면서 샴푸질을 해서...그래서 더 잘하려고 그랬거든요. 집에 가서 제 머리 감을 때도 연습해보고 제 머리 이렇게 감을 때도 연습해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첫 알바를 가서 돈을 받았는데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돈을 벌었다... 일단 행복했어요...행복했어요. 그때 제가 적금통장 들어놓은 게 있었어요... 거기다 넣어놓고 계속 이렇게 쳐다봤죠.^^(웃음)...<중략>...용돈 맨날 타다 눈치 보면서 타다 쓰다가...내 돈으로 막 읊고 다니고. [A2]

P: 방학 때는 일주일 단위로 돈을 받았는데 별 때 마다 20~30만원씩 돈을 받았어요. 그럼 갖고 가서 체크카드 통장에 다 넣어 와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받았단 말 안 해요. 계속 한 3주 4주 하니까 120만원이 된 거예요. 아...뭐 살까...이 돈으로 뭘 할까. [A2]

P: 헤퍼져요. 너무. 사람이. 돈 쥐고 있으면 너무 헤퍼져요. 지나가다 냄새만 나도 그거 사야 되고. 화장품 가게 지나가다 어...뭐가 필요한 거 같은데 그 면 갑자기 뭐가 필요해요. 거기 지나가면.

R: 고등학교 내내 돈에 어려움은 없었겠네?

P: 쪼들려 살진 않았어요. 애들이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제가 그냥 막 사주고 그런 편이었거든요. 제 돈으로다가.

R: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진 않았어?

P: 가끔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씩 주시는데. 어디 갈 때 아니면 어디 큰데 갈 때 아니면 제 돈쓰고, 서울 같은 데 놀러갈 때 제 돈쓰고 그랬거든요. [A1]

또한 미용실에서 원장님과 손님들에게 ‘일을 잘 한다’ 는 인정을 받았다. 인정 욕구(need for approval)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긍정적 태도와 반응을 보이기를 기대하며, 이에 부응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Marlowe, 1964).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은 모두가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기본적 욕구를 가지는데, 특히 청소년들은 외부환경의 영향에 많이 의존하여 자신의 개념을 형성하기 때문에, 사회적 환경의 주요 인물로부터의 인정과 수용, 거부와 멸시가 자아존중감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Rosenberg, 1989). 한지민은 그동안 학교 공간에서는 인정받는 학생이 아니었다. 배제되고 소외되는 학생이었다. 하지만 미용실에서는 인정 욕구가 충족되는 경험을 하였다.

R: 그래서 습진에 걸렸구나? 안 힘들었어? 즐거웠어?

P: 네 별로 안 힘들었어요. 허리가 안 좋아서 허리만 안 좋았지. 저는 재밌거든요. 집에만 있으면 제가 항상 TV만 보거든요. 제가. 혼자 있는 거 좋아해서. 말도 잘 안하고. 항상 TV만 봐요. 그러다가 밖에 나가면 기분 좋아지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밖에 나가서 처음엔 낯을 많이 가렸는데 손님들이 저를 알아봐 주시고 얼른 샴푸해 달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점점 더 재밌어졌거든요. [A1]

R: 잘했어? 인정받았어?

P: 네. 저 삼푸 잘해요. 저보고 저한테 삼푸 배달라고 하는 손님도 있었어요. [A1]

R: 미용실에서는?

P: 제 중심으로 돌아갔죠.^^(웃음)

R: 너가 굉장히 빛났구나?

P: 항상 저한테 지민아 너 오늘 점심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제가 뭐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가서 사오거나 주문시켜! 그리고. 배달시켜! 이거였거든요.

R: 왜 그 공간에서는 너가 중요한 존재였을까?

P: 다 바쁘잖아요. 다들. 삼푸가 없으면은 저만 노니까...청소 다하고도 원장님 옆에서 뭐 필요하세요. 디자이너 언니한테도 언니 뭐 필요하세요? 약 좀 더 갖다 드릴까요? 그리고. [A3]

이러한 욕구 충족과 만족감은 한지민에게 ‘미용실은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일터이다.’ 라는 VAS 메시지를 형성하게 된다. 이후 한지민은 미용계통의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미용학원을 등록하게 된다. 자신의 진로와 미래가 불안하고 불확실할 때도 ‘안 되면 미용실에서 일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였다. 진로장벽에 부딪혔을 때도 같은 미용계통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진로를 선택하였다. 미용실 아르바이트를 통한 VAS 메시지는 한지민의 이후 진로에 큰 영향을 주었다.

P: 익숙해서 그런가? 원래 제가 다니던 단골이었거든요. 원래 그 미용실 다녀서...지금도 가끔 가면 바쁘시면 제가 카운터도 봐주고 치워드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설거지 할 거...<중략>...제가 허리가 안 좋은데 허리가 아플 때 맨날 그만두고 싶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래 9시 출근인데 일찍 나와서 병원 들러서 물리치료 하고 알바를 갔어요.

R: 방학 때 매일?

P: 네. 매일. 허리가 좀 안 좋아요.

R: 그런데도 그만두지 않았어?

P: 네.^^(웃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마음이 가서 그런가. 그냥 굳이 말 안 해도 내가 거기 있어야 될 것 같고. 모르겠어요. [A3]

R: 만약 이 학교 졸업해서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해?

P: 어디 동네 미용실이라도 있겠죠. [A3]

## ② 노동착취 : 노동의 대가는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

한지민의 아르바이트 당시 연령은 만 16세였고, 근로기준법, 법률 제67조, 제69조, 제70조(2014)에 의해 보호받는 청소년 노동자였다<sup>51)</sup>. 방학 동안 1일 10시간(오전 9시~오후 7시) 동안 일하였고, 이는 1일 7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하는 것이었다. 1주일 동안에는 6일을 출근하였기 때문에 60시간 일하였고, 이는 1주일에 40시간, 최대 46시간까지로 제한하는 근로시간을 과도하게 초과한 것이었다. 학기 중에는 주말에 노동을 하였다. 한지민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당시 2014년 최저임금은 시급 5,210원, 일급 41,680원(8시간 기준)이었다. 10시간 노동에 4만원을 지급받은 한지민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감당하기에 육체적으로 고된 노동이었다. ‘미용실에서의 하루’ 라는 일기에는 고된 노동의 일과가 적혀있었다(부록 6). 하루 종일 서있어야 한다는 점, 점심시간에 제 때 식사를 하기 어려웠다는 점, 약품의 독성으로 인해 습진으로 고생했다는 점, 2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미용실 소음(드라이기 소리)으로 인해 청력이 나빠졌다는 점 등 육체적으로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한지민은 허리 통증으로 인해 매일 아침 출근 전 병원에 들러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다.

미용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지민은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아야 한다.’ 는 VAS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이러한 메시지는 시간이 흐를

---

51)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 ③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사용자는 임신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이가 있는 경우

수록 강력해지는데 고등학교 졸업 전 면담에서는 아르바이트의 즐거움을 강조한 반면, 졸업 이후 면담에서는 아르바이트의 노동착취 측면을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경제수업 시간에 가장 배우고 싶은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꼽았으며, 노동시간과 최저임금의 보장, 4대 보험의 가입 등이 중요함을 인식해 갔다.

P: 네...정말 아침 9시에 혼자 출근을 해서 문 열어놓고 청소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손님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럼 난로를 켜놓고 TV를 켜고 원장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시라고 하고...커피 이런 거...그날따라 손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계속 하는데도 제가 샴푸실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샴푸를 하느라 너무 바빠 가지고...계속 하다보니까 5시. 점심도 못 먹고 5시가. 원장님 우리 뭐 먹어야 되냐고. 점심시간도 지났다고. 근데 약 냄새를 너무 맡으면요 배가 안 고파요. 몰라요 배고픈걸. 일단 밥을 시켰죠.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을 시켜놓고도 못해가지고 6시에 먹었어요. 퇴근하기 1시간 전에...기억나는 제일 힘든 날. [A3]

P: 샴푸만 했죠. 여기 숨진 걸리고 막. 계속...평일엔 안 나가고. 방학 때는 전부 나가고. 학교 가는 날은 토요일만. 일요일은 쉬는 날이었거든요. 하루에 10시간씩. 샴푸만 계속하고. [A1]

R: 하루에 얼마나 벌었어? 10시간 일하고?

P: 하루에 4만 원요. 방학 때 하면 한 달에 한 100만원 넘게 버니까. 고등학교 때. [A1]

P: 밥을...시간 때 잘 못 먹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점심을 2~3시 쯤 먹어요. 못 먹으면 퇴근하고 어디 식당 가서 밥을 사주시기는 하는데. [A3]

P: 제가 허리가 안 좋은데 허리가 아플 때 맨날 그만두고 싶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원래 9시 출근인데 일찍 나와서 병원 들러서 물리치료 하고 알바를 갔어요.

R: 방학 때 매일?

P: 네...매일. 허리가 좀 안 좋아요. [A3]

P: 직업 자체는 너무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헤어 디자이너. 막 가위 돌려가면서 헤어쇼 하고...^^(웃음)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뒤로 가면 정말 힘들어요. 중화제가 과산화수소잖아요. 근데 그걸 다 맨손으로 다 만져요. 그땐 습진 걸린 데다 거기에 부어 놓으면 따갑고...중화독이 올라요. 빨개지고 각질처럼 막 일어나요. 저도..밤마다 바셀린 손에 듬뿍 바르고. 비닐장갑 끼고 자고...막 장갑 팩이 있거든요. 손 팩. 그거 써가면서 하고. 근데 그것도 어차피 잠깐이에요. 다음 날 가면 또 어차피 중화만지고 삼푸하면 다 씻겨나가니까. 틴틴이 핸드크림만 바르고. 익숙해지면 안 올라와요. 습진이랑 중화독이...여기 까지 올라와요 중화독이(팔뚝까지). [A3]

P: 안 들린 건 아닌데 청력이 떨어졌다 그래야 되나? 한 2년 했으니까...원장님도 크게 말해야 해요. 되게.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하고 드라이기 두 세대씩 한꺼번에 돌리면 하나도 안 들려요. 못 느꼈는데 어느 순간 느꼈어요. 애들이 작게 말하면 안 들려요. 얼마 전에 물리쌤이 집에서 해보는 간이 청력검사라고 그걸 해줬는데 제가 60, 50 때부터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애들은 막 시끄럽다 그러는데 나는 들렸어? 무슨 소리가 나? 그랬어요. [A4]

R: 경제에 관련된 거는? 노동자도 되고...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기도 하고...은행에 가기도 하고...학교에서 가르쳐 주면 좋겠다...배우고 싶은 거 있어?

P: 노동법...근로기준 이런 거? 그런 거 여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확실히 알고 가면 내가 가서 너 ~~이래 그러면 내가 근로기준법~~이래요. 얼마 더 주셔야 돼요. 그리고. [A4]

P: 알바는 하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만큼 많이 일했는데, 돈 주는 건 적으니까. 알바를 12시간 시켜놓고, 돈은 3만원 주고. 그런데 취업해서 일을 하면, 어느 정도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주고, 노동시간도 정해져있고, 4대 보험이 된대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힘든 정도는 똑같아도, 새롭지 않을까요? 제가 나름의 일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니까?

R: 그런 느낌일 것 같아? 네가 예전에는 그것도 너무 좋았다고 그랬어. 12시간 일하고 4만원 받지만, 너무 좋아서 힘들었지만 진짜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했어.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네?

P: 네. 일을 한 대가는 보상받아야한다고 생각해요. [A6]

## 2) 진로선택 시기

### (1) 대학의 의미 : 대학 가는 애들 그리고 나

평소에 한지민은 ‘대학 진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지민에게 대학 진학은 학업의 연속이고, 계속 공부만 하는 인생은 즐겁지 못하다. ‘대학 졸업자’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주변인 중 대학 졸업 후 취업한 사례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자인 친척언니의 취업 사례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대학 졸업자들은 전공에 따라 취업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그들이 취업을 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다.

한지민은 자신의 진로선택에 있어서 대학 진학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미용계통의 직업영역에서는 대학 졸업 여부에 따라 작업의 질이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취업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또한 자신의 학업성적과 가정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대학 진학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대학 진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대학 진학이 당연시되는 사회적 맥락 사이에서 혼란과 고민의 시간이 있었으나, 한지민은 자신의 상황에 대한 주체적인 해석에 따라 의사결정을 했다. 대부분의 또래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 주변인들이 모두 대학 진학을 권유하는 상황, 학력에 따라 차별대우를 받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도 한지민은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한지민은 대학에 진학하는 친구들과 자신은 다르다고 생각했다. 대학에 가려는 친구들은 꿈이 없다. 그들은 성적에 맞춰서 대학에 가는 것이고, 성적은 실력이 아니다. 한지민에게 ‘연필로 하는 것’은 실력이 아니며, ‘실제 경험’을 실력이라고 여긴다. 남들은 평범한 길을 걷지만, 자신은 ‘돌이 많은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며, 그 길은 힘들지만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에 간 친구들과 다르게 자신은 일찍 사회생활의 경험을 쌓을 수 있다.



P: 저는 솔직히 초등학교 때부터 왜 대학을 가야하나...대학만 가고...학업의 연속이고 계속 공부만 하잖아요. 그럼 뭐 인생이 즐겁겠어요...제가 좋아하는 일 하는 게 즐겁죠. [A1]

P: 한국이란 나라가...요새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힘든 사뭇데...대학까지 안 나오고 고졸이란 딱지를 붙이고 어디 가서 취업을 시켜줄 리도 없고...그냥 스펙 쌓으러 가는 거죠. [A5]

P: 주위에 취준생(취업준비생)들이 없거든요. 제 주변에...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위로는 자꾸 나이가 높아지고 밑으로는 없으니깐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기는 힘들죠. 요즘에는 스펙 많이 보고 그러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스펙을 쌓으면 좋은 거죠... 좋은 건데...막...돈 줘서 막 뽑고 웃돈 줘서 막 뽑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A2]

R: 주변에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혹시 있어?

P: 친척 언니가 있는데...별로 안 좋아해요.

R: 그 언니 취업 하는 과정 옆에서 봤어?

P: 아니요(시니컬하게). 취업 하고 나서 봤어요. 그 언니가 큰 아빠가 백이 있어서 능협에 들어갔거든요. 백으로 들어가 가지고. 비싸게 등록금대고 대학가가지고 딱 짓거리 하고. 유아교육과 갔거든요. 근데(어이없어 함) 뜬금 없이 아빠 백으로 능협 가가지고. 동전 받고.

R: 부럽지 않아?

P: 안 부러워요(단호하게). 네. 백이 있다더라도 굳이.

R: 너도 백이 있고 그러면 네가 하는 일에서 기회도 많이 얻고.

P: 기회는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거 싫어요. 새치기 하는 거 싫어요. [A3]

P: 솔직히 대학이라는 게, 고등학교 때 대학에 간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성적 맞춰서 갈 수 있는 과를 그냥 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대학 졸업한 사람들 중에, 그 학과 나와서 관련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A6]

R: 왜 지민이는 대학을 안 가고 싶어?

P: 그냥...집에 돈이 없잖아요? 동생들도 대학을 다 가야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애네들이 다 갈 건데 내가 굳이...삼남매가 굳이 다 대학을 가야하나...누구 한명만 잘... [A5]

P: 일단 내가 4년제를 갈 수 있을까도...정확히 말하면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내가 대학가서 잘 할 수 있을까? 대학을 나온다고 해도 취업이 될까...'

R: 대학을 안 나와도 취업이...

P: 왜요.

R: 대학을 안 나와도 취업이 잘 돼? 그러면...대학 나오면 더 잘될 거 아니야?

P: 그렇겠죠. 그런데 청담동 샵을 가나, 경기도 샵을 가나...잡일부터 하는 건 똑같아요. 어디든. 무슨 대학을 나오든. [A6]

P: 재는...재미없어 보여요. 그리고 고3 애들 보면 (조용하게)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저희보다 선택의 폭이 넓잖아요. 근데 막상 꿈이 없어요. 걔네들. 그냥 성적 맞춰서 써서. 대학가고 거기 맞는 취업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R: 그게 매력적으로 보인 않구나? 너는?

P: 네. 공부 잘하면 저도 좋죠. 넓게 골라서 가고. ^^ (웃음) 노래 못해도 이렇게 성적 맞춰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전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실력을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 연필로 해서 그냥 뽑아간 거잖아요. [A2]

P: 남들이 평범한 길을 간다고 한다면, 저는 돌 많은 길을 간다고 생각해요.

R: 그 길은 어때? 좋은 길 같아, 어떤 길 같아?

P: 돌이 많으니깐, 맨발로 걸을 때 지압도 할 수 있어요.

R: 힘들지만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

P: 지금처럼 무언가를 깨닫고, 생각을 많이 바꾸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A6]

P: 4년제를 나온 애들은 대학을 다니고 있을 거고, 2년제 나온 애들은 그 때 한창 취업을 할 것이고, 저는 3년 지난 거잖아요? 21살에 취업을 하면,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고, 대우를 받으면서 돈도 어느 정도 벌 것이고. 그러니까 좀.

R: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지민이네?

P: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벌 수 있는 만큼 벌고, 제가 쓰는 거니까. 대학 간 애들은 그 시간 동안 경력을 쌓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만큼 경력을 쌓고, 일을 하고 사회에서 살아남는 법? 이런 것도 배우고. [A6]

## (2) 예술실용전문학교의 선택 : 몸으로 부딪치는 일

한지민은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예술실용전문학교<sup>52)</sup> 진학을 결정한다. 고등학교 3학년 6월 즈음 서울의 한 예술실용전문학교에 면접을 보게 된다. 이 기관은 입학 요건으로 학업성적을 요구하지 않으며, 실무 중심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한지민은 방송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에 첫 번째는 실용음악학과 면접을 보았으나 불합격하였고, 두 번째는 무대연출학과에 지원해서 합격하였다. 면접을 보기 위해 하루 전날 고속 버스를 타고 의정부의 이모 집에 가서 하룻밤을 묵었고, 그 다음날 면접을 보러갔다. 2주에 걸쳐 두 번의 면접을 보았다. 차비와 면접비용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용돈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 무대연출학과 합격 통지를 받은 이후 한지민은 진학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 한지민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었고, 수능원서비가 아까워 수능시험도 치르지 않았다. 예술실용전문학교 연출학과 진학과 무대연출가 직업이라는 한지민의 진로는 다른 또래에 비해 일찍 정해졌다.

한지민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학업 성적이 아닌 다른 의미로 재구성하였다. 한지민이 생각하는 자신의 능력은 ‘몸으로 부딪치는 일’을 잘한다는 것이다. 한지민은 학교에서의 평가나 미용기술 자격증 시험과 같은 공식적인 제도를 통해서 인정받지 못했으나, 미용실 아르바이트 그리고 연극부 동아리 활동과 같이 실제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쳐서 하는 일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경험이 있었다. 미용실에서 한지민은 심부름과 잡일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적극적인 태도로 일을 했고, 육체적으로 고된 일도 끝까지 해내었다. 일터 현장에서 한지민은 손님들과 원장님의 인정을 받았다. 연극부에서도 한지민은 동아리 선생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잘 해내었다. 한지민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 직업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실력

---

52) 실용전문학교는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직업교육기관이다. 예전 직업전문학교의 명칭을 2014년 이후 실용전문학교의 명칭으로 변경하였으며 현재는 혼용하여 사용된다. 예술실용전문학교는 전문예술인을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실용전문학교이다. 방송영상, 연극예술, 공연예술, 실용음악, 패션예술, 뷰티예술, 애완동물 계열 등 실용적 전공분야의 실무기술을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 기관의 경우 학점은행계 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하다(출처 : 네이버사전, 위키백과사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재구성).

과 능력이 있다고 여겼으며, 직업훈련과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예술실용전문학교>

P: 내가 이 가수는 못해도 다른 일 쪽으로 방송국에서 일을 하면 되지 않나...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공부를 못해서 일단 대학을 못가잖아요. 제가 성적이 바닥이라서...일단 4년제나 전문대는 못갈 것 같고 그냥 그쪽으로 막 찾은 거란 말예요. 전문학교 쪽으로. 그래서 거기를 알게 됐죠. [A1]

R: 거기 학교에 가서 가장 기대하는 건 뭐야?

P: 일단 여기 학교가 실무가 되게 많대요. 일단 그 실무를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무대설계도를 컴퓨터를 짜거나 어디 콘서트장에 가서 스템으로 일하는 게 있대요. 그게 지금 굉장히 기대 돼요. 이 학교를 가서 실제 경험을 쌓고 싶은 게. [A2]

< '실력' 의 의미 >

R: 스스로 실력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P: 네! ^^ (웃음) 전 쓸데없는 자신감이 넘 많은데. 누가 앞에 나가서 춤춰라 그러면 그래~ 그리고 나가서 춤추고 누가 뭐해달라고 하면 그거 해주고. 다른 애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행동이 있으면 재 왜 저래. 재 진짜 별로다. 그러는데 그냥 내비 뒤. 재가 원래 저렇게 큰 거잖아. 다른 사람을 다른 성격을 인정해주는. [A2]

R: 일을 할 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잘 할 수 있다 그런 거 있어?

P: 심부름. 초반에 가면 심부름 잘하는 애가 짱이에요^^ (웃음) 무대 설치나 이런 거? 제가 시야를 넓게 보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다 보이거든요. 딱 봤을 때 시야가 넓으니까 잘 고쳐내고. [A2]

R: 지민이는 그 학교를 나오면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아?

P: 제가 잘하면 할 수 있겠죠. 열심히 하면 교수님들이 딱 보잖아요. 왜냐면 교수님들이 현장에서 뛰시면서 교수님 하시는 거니까 그 교수님 눈에 잘 띄면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눈에 띄어야 해요 일단.^^ (웃음) 열심히 하고 교수님 눈에 보였다하면 어느 정도 이게(연결) 되겠죠.^^ (웃음) [A2]

P: 그 언니는 옆에서 핸드폰만 하잖아요...그럼 비교가 되잖아요. 저는 손님들한테 뭘 좀 드릴까요? 이거 해드릴까요? 하는데 그 언니는 그냥 돈 받고 가는 거잖아요.

R: 왜 그 공간에서는 너가 중요한 존재였을까?

P: 다 바쁘잖아요. 다들. 샴푸가 없으면 저만 노니까...청소 다하고도 원장님 옆에서 뭘 필요하세요. 디자이너 언니한테도 언니 뭘 필요하세요? 약 좀 더 갖다 드릴까요? 그러고. [A3]

### (3) 진로장벽<sup>53)</sup> : 아빠의 반대와 경제적 어려움

한지민은 예술실용전문학교에 입학하기 한 달 전 아빠의 급작스러운 반대로 진학을 포기하게 된다. 어느 날 아빠는 지인으로부터 ‘그 학교는 대학이 아니라 비싼 학원일 뿐’ 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동안 아빠는 한지민의 진학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직업학교와 대학교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등록금을 내야 할 때가 되자 대학이 아님을 인식하게 된다. 그동안 말없이 따르기만 하던 엄마도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였고, 한지민도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는 집안의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진학포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아버지와 한지민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었다. 아버지는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원을 강하게 권유하였고, 한지민은 미용학원을 스스로 알아보았다. 결국 미용학과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겠다는 거짓말로 아버지를 설득하였고, 헤어가 아닌 메이크업을 배우는 미용학원에 등록하게 된다. 헤어 미용학원은 고등학교 때 이미 다닌 적이

---

53) 진로장벽(career barrier)이란 진로이론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초기에는 진로발달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방해조건(thwarting conditions)으로 기술하였고, 이후 여성의 능력과 성취 사이의 간격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지각된 진로장벽’을 개인의 진로선택과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맥락적 요인에 포함시켰다(Lent et al., 2000). 국내의 손은령(2004)은 ‘진로와 관련된 여러 경험들(취업, 진학, 승진, 직업의 지속, 가사와 직장생활의 병행, 직무행동 등)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선택, 목표, 포부, 동기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역할 행동들을 방해할 것으로 지각되는 여러 부정적인 사건이나 사태’로 정의하고 있다.

있었고, 자격증 취득에 실패하였으며, 미용실 아르바이트를 통해 자신의 적성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대신 연극부 동아리 활동에서 관심을 가지게 된 분장사의 일을 할 수 있는 메이크업 기술을 배우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3개월 뒤 학원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P: 아빠가...갑자기 누가 그랬나 봐요. 아는 지인이. 거긴 학원 아니냐고. 무슨 학원을 400만원씩 주고 다니냐고. 한 학기에. 그래가지고.

R: 그동안 아빠는 그 학교에 대해서 잘 안 알아보셨어?

P: 아니 알려줬어요. 엄마랑 저랑, 여기는 학교가 아니라 직업전문학교라고. 그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놓고 자기가. 흘려 놓고...아빠가 한 번 생각을 다시 했으면 좋겠대요.

R: 아빠는 왜 그러셨지?

P: 학교가 아니고. 일단 졸업장이 교육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 그게 싫은 거예요. 맘에 안 드는, 무슨 대학교 같지도 않은 것이. 졸업장도 교육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그 날, 엄마한테 들었어요. 아빠가 난리를 쳤다고. 그게 무슨 학교냐고 난리를 쳤다고. 아빠는 그 학교 안 갔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너는 어떻게 생각 하냐고. 엄마도 거길 안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등록금이.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건 좋은데...거긴 너무 비싸다고. 졸업장도 안 나오는 것이. 그러냐고...생각을 하고...환불신청하고. [A5]

P: 사실 몇 주 전부터 계속...이 학교를 가야되나 말아야 되나...등록금도 너무 비싸고...기숙사도 떨어지면 자취할 것도 너무 걱정되고 거기 학교 나왔는데 취업도 못하고...그냥 뭐 학교에다 돈만...봉사하는 격이 되 버리면 제가 멀리 서울까지 올라온 보람이 없잖아요.

R: 선생님이랑 얘기할 때도 그런 고민 했었어?

P: 얘기는 신나서 얘기했었는데...긴가 민가 했었어요. [A5]

P: 학원 때문에 아빠랑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아빠는 간호학원을 가라. 저는 싫다 미용학원을 가겠다. 아빠를 설득하려면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미용학원에 가서 상담을 들었어요.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물어봤는데... 거기 선생님이 일단은 아빠한테 4년제를 목표로 잡고 있고. 4년제를 나오면 미용 임용고시라고 있대요. 그걸 본다고 해라. 그래서 선생님을 한다고 해라. 그러면 어느 정도 설득이 될 거라고. 일단 목표는 그거예요. 4년제를 들어가서 임용을 보는 거요. 건양대나... 충남대나... 미용학과가 있어요. 거기 나오면은 미용고 선생님. 임용고시를 보면은. [A5]

한지민의 진로선택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 진로장벽은 부모의 무지와 무관심 그리고 대학 진학에 대한 고집이다. 아버지는 비현실적 진로목표를 강요하였고, 어머니는 무조건적 지지만 하였다. 예술실용전문학교에 진학하겠다고 결정하고, 면접을 보러 서울에 두 번 다녀오고, 수능시험을 치르지 않았으나 부모님은 그 과정에서 깊이 있게 관여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한지민의 성적과 대학 진학 가능성 등 현실적인 상황과 자녀의 의견은 무시한 채 무조건 대학에 가라고 강요하였으며, 대학입시제도에 대해 무지했다.

#### <부모의 무지와 무관심>

R: 거기 학교 갈 때 수능 안본다고 했었잖아. 그 때도 아무 말 안하셨어?

P: 수능 볼 때요? 수능 보지 말라고 했어요. 합격했는데 뭐 하러 수능 보냐고 했어요. 그 때는 계속 말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 학교에 대해서... <중략>...

P: 저는 수능 본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뭐 하러 보냐고... 돈 아깝게 뭐 하러 보네요. 합격했는데.

R: 수능 보는데 돈이 들어?

P: 네... 과목별로 다른데 세과목이면 3만 2천원... 거의 다섯 과목이면 5만원 들어요. [A5]

P: 아빠는 간호학원이나 사회복지사 그런 거 하라는데... 제가 그랬죠. 수시나 정시로 거길 가려면은 나 평생 재수해야 한다고. 거길 내가 어떻게 가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간호학과를 내가 못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자꾸 거기를 가라고. 많이 싸웠어요. 아빠랑. 간호학원을 가서 국가고시를 따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4년제 간호학과를 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간호조무사 보다는 간호사가 월급이 많잖아요. 간호사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안정

적인 공무원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R: 수능을 봐서 4년제나 전문대를 가서 간호학과를 가길 원하시는 거야?

P: 네.

R: 수능을 안 봤잖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그랬더니 아빠가 뭐라써?

P: 그래도 계속 가래요. 저희 아빠가 약간 초딩끼가 있어서 계속 가라고 찢러요. 접수랑 이런 거랑 안 따지고. [A5]

두 번째 진로장벽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다. 부모님이 예술실용전문학교 진학을 반대한 주된 이유는 비싼 등록금 때문이었다. 한지민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서의 주거비, 생활비 등은 자신이 충당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는 등록금은 부모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가정 형편 상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가까스로 아버지를 설득하여 다닌 뷰티학원도 학원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중단되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나 돈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한 달 동안 방안에서 나오지 않았고, 억울하였으며, 자신은 ‘세상 포기자’ 였다고 이야기했다.

<경제적 어려움>

P: 지금은...생활비는 뭐..알바 할 자리 많잖아요. 알바로 어떻게 해보겠는데...등록금은...너무 비싸요. 도저히 우리 집 형편으로는 그걸 내줄 형편이 안 되는 걸 제가 알아요...장학금 제도가...되게 많아요...못하더라도 어떻게...공부머리가 안되더라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죠. 어차피 제가 택한 길이요 직업이 될 길인데 공부를 해서 어떻게 성적 장학금을 받으면은...전액 장학금이거든요...그걸 받아야죠. [A1]

R: 그 전에 다녔던 ‘☆☆ 학원(뷰티학원)’은 처음부터 등록금을 내고 등록한 게 아니었어?

P: 그...보증금이라고 해야 하나, 계약금처럼 얼마를 내고.

R: 나중에 내기로 했는데, 못 냈구나? 그 때 기분은 어땠어?

P: 좀... 울기도 많이 울었고

R: 왜 울었어, 씩씩한 지민이가 왜?



P: 돈 때문에 쪼들려서 못 하니까. 아무데도 안 나가고 방에만 있었어요.

R: 며칠 동안?

P: 한 달인가? 아무데도 안 나갔어요, 집에서 잠만 잤어요. ...<중략>...

P: 아빠가 돈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못해준 거니까. 원망스러운 걸 어떻게 해... 아빠가. ...<중략>... ‘세상 포기자’. 진짜 누가 툭 건들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R: 그 눈물의 의미는 뭐였을까?

P: 억울한 거죠.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왜 방에 쳐박혀 있는지도 모르겠고. [A6]

### 3) 고등학교 졸업 후

#### (1) 다시 시작된 직업의 길 : 취업지원제도

한지민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나 아무 일도 못하고 집에만 있었다. 당시 엄마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해고를 당하여 실업급여를 타고 있었다. 마침 고용센터를 알게 되었고 딸에게 함께 가보자는 권유를 하였다. 한지민은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 라는 제도의 1유형(저소득층 전액 지원 대상자)으로 선정되어 4주간 적성검사 및 진로교육을 받고, 학원비와 교통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고용센터와 연계된 뷰티학원에 등록하여 메이크업 기술을 배우며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다. 한지민은 일 년 정도 취업준비를 한 이후 백화점이나 로드샵에 취업할 미래 계획을 하고 있다. 자격증을 못 딸까봐, 취업을 못 할까봐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자신을 ‘이제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잡초’ 라고 표현한다.

#### <취업지원제도>

P: 한 달 동안 집밖에 안 나가고...학원을 안 나가게 돼서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엄마가 전화해서 칼국수를 먹으러 가세요. 칼국수 집에 갔는데, 엄마가 ‘고용센터에 가볼래?’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 왜? 왜 가야

돼?’ 이랬더니, ‘국비로 할 수 있으면 하라’ 고 하셨어요. 그럴까? 하고 그 날 바로 대전으로 가서 신청하고... [A6]

P: ...<중략>...차상위 계층이라는 증거랑 건강보험료를 냈다는 거 팩스로 빨리 보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심사기간이 2주정도 걸리고.

R: 그리고 결과를 받는 거야? 그거 선정이 되었어?

P: 네. 선정이 되면 이제, 1주일에 한 번씩, 고용센터에 가서 무슨 활동 같은 걸 해요, 적성검사도 하고, 자기소개서 쓰는 법도 따로 배우기도 하고.

R: 교육을 받는 거야?

P: 네. 4주 동안 교육을 받아요.

R: 그걸 해야지 카드가 나와요. 그 카드가 나와야 학원에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R: 연계된 학원에 등록을 하게 된 거구나? [A6]

P: (취업지원제도의) 장점은 메이크업이나 미용 같은 건 학원비 부담이 크니까, 부담스러운 애한테는 좋은데, (이 제도가) 대중적으로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몇 살부터인지. 저는 몰랐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열아홉 살 생일 지나면 할 수 있더라고요. 진짜 알았다면 열아홉 살 때 해서 혜택을 받았을 텐데.

R: 아~ 주변에 그걸 하는 애들이 없었어? 전혀 몰랐어?

P: 네. 다 자기들 돈으로, 부모님이 돈 대주고. [A6]

<자격증 준비>

P: 일단 이번 주 금요일 날 필기접수를 하러 피시방에 가야해요. 왜냐하면 아티스트들도 같이 보거든요, 이번 시험을 왜냐하면 국가 자격증 메이크업 1기기 때문에, 아티스트들이랑 같이 봐야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필기부터 합격해야... [A6]

R: 그런 다음에, 자격증을 따면 어떻게 할 거야?

P: 한 번에 붙으면, 중국어 공부를 하고, 내년에 취업할 생각이예요.

R: 일 년 정도를 준비기간으로 생각하는구나?

P: 네.

R: 취업하면? 어떤 데를 생각하고 있어?

P: 백화점에 들어가거나, 로드샵을 들어갈 거예요. [A6]

P: 자격증 시험에 못 붙으면 취업을 못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불안한가 봐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못 따면 딸 때까지 하거나, 취업을 해야 되는데, 요즘 추세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취업이 잘 돼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로드샵 같은 데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들어가서 일할 수 있었는데, 요새는 있는 사람들을 더 선호한대요.

R: 많으니까...그럼 꼭 따야겠네?

P: 네.

R: 자격증은 너한테 어떤 의미야?

P: 꼭 따야 되고, 붙잡고 싶은... [A6]

R: 만약에 이렇게 학원비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면, 지민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P: 핸드폰 가게나 신발 가게에 취업했을걸요.

R: 그러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지민이는?

P: 아무도 없을 때 욕하고,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살고 있었을 거예요.

R: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은? 지금 지민이 마음은 어때? 저번에 네가 “저는 지금 갈대밭의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너의 마음은 어때?

P: 비유를 하자면, ‘이제 막 싹이 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잡초’ ?

R: 나무도 아니고, 잡초야?

P: 나무는 부러지면, 부러지는데, 잡초는 꺾꽂이 있잖아요. [A6]

## (2) 직업인 의식의 형성

한지민은 직업인으로서 자신이 다른 또래 친구들과 다르다고 인식한다. 자신은 대학가는 애들, 부모님의 말을 따르는 애들, 현실적인 것에 연연하는 애들과 다르다고 말한다. 자신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에 용기 있게 도전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남들과 다른 직업의 길을 걷고 있으며, 자신이 걷는 길은 ‘돌이 많은 길’ 이지만 장점이 있다고 말한다. 그 길은 경력을 쌓고 사회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길이다.

P: 애들이 좀...뭘 도전하는 걸 무서워해요. 애들이 저한테 그러거든요. “넌 진짜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이 짤어~” 그러거든요. 근데 “나는 너 근자감이 부러워” 그러거든요. ○○도 원래 간호사가 꿈이 아니었어요. 근데 엄마가 고쪽으로 가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항상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근자감이 짤는데 그게 부럽대요. [A3]

P: 남들이 평범한 길을 간다고 한다면, 저는 돌 많은 길을 간다고 생각해요.

R: 그 길은 어때? 좋은 길 같아, 어떤 길 같아?

P: 돌이 많으니까, 맨발로 걸을 때 지압도 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무언가를 깨닫고, 생각을 많이 바꾸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A6]

P: 4년제를 나온 애들은 대학을 다니고 있을 거고, 2년제 나온 애들은 그 때 한창 취업을 할 것이고, 저는 3년 지난 거잖아요? 21살에 취업을 하면,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고, 대우를 받으면서 돈도 어느 정도 벌 것이고. 그러니까 좀.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벌 수 있는 만큼 벌고, 제가 쓰는 거니까. 대학 간 애들은 그 시간 동안 경력을 쌓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만큼 경력을 쌓고, 일을 하고 사회에서 살아남는 법? 이런 것도 배우고. [A6]

한지민은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과 적합하지 않은 직업을 구별해 왔다. 한지민은 직업의 안정성과 고소득을 기대하지 않는다. 안정성이 강조되는 직업은 숙련된 기술을 요구한다. 그러나 숙련된 기술을 습득할 자신이 없고, 또한 오랜 기간 직업교육에 투자할 비용과 시간도 없다. 따라서 한지민은 ‘연필로 하는 것’, 앉아서 하는 ‘컴퓨터 질’은 안 맞는다고 이야기한다. 즉, 학습과 교육, 숙련된 기술 습득, 복잡한 일, 사무직 등은 적합하지 않다고 여긴다. 40대까지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재미있는 일을 한 이후 중년 이후에는 식당일을 하겠다는 계획을 지니고 있다. 돈은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된다는 태도를 형성한다.

P: 네...지금도 그래요. 약간 너무...여기에 치여서 흐르듯 취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데를 만약 가고 싶은 데를 면접을 봤는데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준비해서 그쪽 면접을 보면 되는 거구. 그냥 물 흐르듯 취업

하고 물 흐르듯 월급 받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즐거워야 해요. 하면서. [A1]

P: 너무 돈을...돈 욕...약간 취업 이런 거를 걱정해서 너무 안전한 길을 택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약간 돈보다는 안정적인 것보다는 내가 좀 더 상상력을 펼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도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낫지 않나. [A1]

P: 근데 연극부 들어가서는 제가 생각. 내가 먹고 살 정도만 벌면 되지. 뭐 하러 굳이 많이 벌어서 갖고 있으면 뭐하나 나중에 땅에 들어가서 막 갖고 들어갈 것도 아닌데. [A1]

P: 제가 만약 아빠 말을 들어서 공무원을 했으면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안정적이어도 재미가 없지 않을까요? [A4]

한지민은 직업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만의 전략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잡일이나 심부름을 시켜도 꺼리지 않는 것이 자신의 장점이라고 여긴다. 몸으로 하는 일, 활동적인 일에 자신 있다. 박봉도 괜찮고, 몸이 힘든 일, 피곤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즉, 육체노동을 지향하는 직업태도를 형성하였다.

P: 제가 유리할 것 같은 건...애들은 뭐 시키면...아~이거 왜 해야 돼지?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뭐시키면 아...빨리 하고 집에 가야지 그런 게 있단 말예요...좀 긍정적인~^^(웃음) [A4]

P: 어떤 잡일을 해도 제가 기쁘게 생각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죠? 어디 연극 극단에 들어가서 뭐 세트를 만들더라도 즐겁지 않을까요? 아직은...실무는 연극부 밖에 안 해봤으니까 하게 되면 어디 연극 극단에 들어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A1]

P: 저도 좋죠.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데서 일하면 좋죠. 편하게 앉아서 컴퓨터

만 들여다보고 있고 그러면 좋은데... 싫어요. 더 활동적인 일을 하고 싶어요. [A5]

P: 힘들죠. 몸이 안 힘들겠어요? 근데 또 아...괜찮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바쁘게 움직이면 또 잊어버려요.

R: 몸이 힘들거나 박봉인거는 두려운 게 아냐?

P: 그럼요. 아프면 아픈 거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되죠. 그러면 주 위에서 뭐라 하겠죠. 박봉이고 그러면은. 약간 그런데는 고집이 있어요. 좀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꼭 해야 하는 성격이라. [A1]

한지민은 내러티브에서 직업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첫째, 차차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직업생활을 고려하기 시작한다. 미용사, 분장사와 같은 미용계통의 일을 추구하면서 초기에는 자신의 삶과 동떨어진 서울, 방송국, 청담동 샵 등의 공간과 연결 지어 생각하는 등 막연하게 ‘화려하고, 있어 보이는 직업’ 이라고 인식했다. 하지만 점차 자신의 일상생활과 연결 지어 갔으며, 주변에서 다양한 미용인들의 삶을 발견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직업생활을 고려하게 되었다.

P: 저는 무조건 있어 보이고, 유명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동네 카페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게 내 직업인데, 내 직업을 자랑스럽게 가지는 게... [A6]

P: 그 때는 그냥 서울이라는 곳에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떤 변명을 하고 서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아서 서울이라는 곳을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 <중략>... 졸업하기 전에는 철이 없었다고 해야 하나? 무조건 서울이라는 곳이 좋아보여서 서울로 가고 싶고. 대전도 좀잖아요? 대전을 무시하는 거죠, 다른 데랑 비교해서, 서울이랑 비교했을 때. ‘여기는 이거 없어서 안 되고, 여기는 이게 없어서 안 되고, 그러니까 나는 서울로 가야 돼!’ 지금은 여기도 괜찮은 것 같고. 괜찮아 보여요.

R: 무엇 때문에 괜찮게 보였을까?

P: 현실을 자각을 했나? 지나다니면서 화장품 가게 많이 보잖아요? 거기 있는 직원들 보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괜찮아 보이고, ‘할 만하겠다.’ 는

생각도 들고.

R: 옛날에는?

P: 옛날에는 ‘저런 데서 왜 일하는 거야? 일할 곳 없어서 저런 데서 일하  
나?’ 이랬는데, 지금은 저기도 괜찮아 보이고, 여기도 괜찮아 보이고 그래요.

R: 왜 그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어?

P: 옛날에는 ‘샵, 연예인’ 이랬다면, 지금은 주변을 보는 거죠. 옛날에는, ‘연  
예인, 샵, 청담동, 서울’ 이랬는데, 주변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A6]

P: 성년의 날에 엄마가 화장품을 사준다고, 갤러리아에 갔어요. 거기서 테스트  
트를 받는데, 그 언니가 재미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 언니가 제 얼굴을 해  
주는 게. ‘이 제품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러는 게. 그 언니가 판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브랜드의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거예요...<중략>...  
네. 메이크업 아티스트인데 판매도 같이 할 수 있는. 저도化妆품을 좋아하  
니까, 제가 써본 건 ‘이런 거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러면서 사람들 화장도 해주고. 그런 것도 괜찮겠다. 싶은 거죠. [A6]

P: 음...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헤어샵, 토탈샵 들어가야지’ 했  
는데.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메이크업. 백화점 브랜드 들어가서, 메  
이크업 아티스트 해도 되고, 아니면 로드샵 같은 곳 들어가서 해도 되고,  
샵 들어가도 되고, 웨딩샵 들어가도 되고, 토탈샵도 있고, 혹은 프리랜서로  
도 뛰어도 되고. [A6]

둘째, 점차 직업의 경제적 의미를 깨달아 갔다. 졸업 전 내러티브에서는  
소득과 생계유지와 관련한 생각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졸업 후 내  
러티브에서는 한 달 소득과 생활비 등을 따져보며 생계유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졸업 전>

P: 현실적인 거를 고려 안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현실적인 거를 들어가면 일  
단 좀 재미없어요. 인생이 지루해요. 피곤하고 힘들어요. ...<중략>...

R: 직업은 돈에 대해서는 별로 얽매이진 않네?

P: 돈이 걸려있으면 신경이 별떡 서요. [A4]

P: 그게 방송국 이런데 가게 되면 샴은 모르겠는데,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벌어요.

R: 진짜? 그러면 어떻게 살아?

P: 뭐 알아서 잘 살겠죠.

R: 그런 직업을 지민이는 괜찮아?

P: 힘들 거 같긴 한데. 제가 일을 하면요 일단 돈 생각은 안 해요. 일단 일을 하면. [A5]

<졸업 후>

P: 만약에 백화점, 로드샵 이런 데면, 120에서 130 언저리 정도 받고, 샴 들어가면 90만원.

R: 그러면 그 정도의 보수는 지민이가 생각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해?

P: 화장품 가게는 괜찮은데, 샴은...너무 적어요.

R: 너무 적은 것 같아?

P: 요즘에는 많이 주는 거라고 하지만, 너무 적어요.

R: 그러면 어떡해?

P: 솔직히 지금 한 달에 버스비만 25만원 들거든요. 90만원 가지고 식비 내고, 만약에 자취를 하게 되면 못 쓰죠. ...<중략>...지금도 생각은 똑같은데. 현실적인 것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요.

R: 그런데, 지금 달라진 게 있다면?

P: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중략>...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월급이라든가 그런 걸 자꾸 생각하고, 자꾸 현실적인 것들을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파요. [A6]

셋째, 점차 노동자의 지위에 대해 깨달아 갔다. 졸업 전 내러티브에서는 아르바이트와 직업의 차이가 없다고 말하였으나, 졸업 후 둘 간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했다. 초기 면담에서 한지민은 아르바이트와 직업은 돈을 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며,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업인이나 하는 업무가 같기 때문에 이 둘은 차이가 없다고 여겼다. 그러나 졸업 후 면담에서는 직업과 아르바이트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했다. 자격증, 전문성, 채용과정, 노동권, 노동 환경, 노동자의 태도 측면에서 다르다는 인식을 하였다.



<졸업 전>

R: 소득은? 어떤 의미야?

P: 알바랑 별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돈이 내 통장에 들어와서 통장 열 때마다 행복한 거?

R: 돈을 번다는 것과 직업을 갖는 거랑은 같아? 달라?

P: 둘이 같은 것 같아요. 일을 해서 나오는 게 돈이잖아요. 내가 이만큼 일을 하면 이만큼 돈이 들어오고... 이만큼 못하면 못 한만큼 들어올 거잖아요... 그니깐... 연결고리 같은 거? [A2]

R: 걱정이야 되겠지만 없으면 어쩔고 있으면 어때요...

R: 만약 이 학교 졸업해서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해?

P: 어디 동네 미용실이라도 있겠죠. [A3]

R: 알바랑 직업이랑은 달라? 같아?

P: 모든 일이 경력이 있어도, 어디 들어가면 막내부터 다 시작한단 말이에요, 알바건 뭐건... 막내부터 들어가면 일단 힘들어요. 선배들이 '너 이거 그려봐라, 여기 와서 분장 좀 해봐라' 이 때 부터 재미있는 거거든요? 그 단계가 되기까지가 힘든 거지.

R: 그러면 알바나 직업이나 똑같다고 생각해?

P: 네. 처음에 알바 들어가도 잡일만 시키잖아요? 뭐 쓸어라, 뭐 버리고 와라, 이것 좀 해라, 설거지해라 시키잖아요. [A5]

<졸업 후>

P: 알바는 그야말로 그냥 알바인 거고, 최저임금도 못 받고. 하다 못 해, 무슨 교육이 있다고 할 때, 따라가면 안 돼요. 누가 데려가요, 알바생은 한날 알바생이지. 그런데 취업을 하면, 직원이고, 그래서 어디 본사에서 내려오는 교육 같은 거 같이 들으러 가고. [A6]

P: 알바를 하면요, 알바는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윗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직업으로 하면,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자격증을 따고, 이런 학과나 학교를 나와서 면접을 보고 그러잖아요? 인턴을 거쳐서. 그런데 알바는 면접보고 뽑히면 알바인거고. [A6]

P: 알바는 하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만큼 많이 일했는데, 돈 주는 건 적으니까. 알바를 12시간 시켜놓고, 돈은 3만원 주고... 그런데 취업해서 일을 하면, 어느 정도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주고, 노동시간도 정해져있고, 4대 보험이 된다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힘든 정도는 똑같아도, 새롭지 않을까요? 제가 나름의 일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니까? [A6]

### (3) 미용인 정체성 형성

한지민은 학창시절부터 졸업 이후까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미용인 정체성을 형성해 갔다. 중학교 시절 미용에 대한 관심, 미용실 아르바이트, 원장님과의 상호작용, 미용학원, 연극부 동아리 활동, 예술실용전문학교 진학 좌절과 뷰티학원의 등록, 메이크업 아티스트 자격증 준비 등 일련의 경험 속에서 공통적인 진로의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단순히 미용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와 실천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지속적으로 시도했다.

한지민은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미용인의 삶, 미용계통 직업의 장단점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 또한 미용실 일터를 익숙하게 느낀다. 이를 직업으로 실현하기 위해 시외버스를 타고 낮선 도시의 미용학원을 찾아 헤매었고, 1년간 미용기술을 훈련했다. 진로와 관련한 아버지와 의 갈등 속에서도 간호학원, 사회복지사 학원을 거부하고 미용학원을 찾아다니며 상담을 받았다.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 지원을 받게 된 이후 뷰티학원을 선택했으며, 현재는 자격증 취득을 준비 중이다. 미용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탐색 중이고, 미용인 직업을 기반으로 한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P: 계속 생각했어요...미용학원은 취업이나 대학입시위주고...뭔가 해본일이 더 낫다고, 미용을 제가 한다고 하긴 했는데...

R: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한 경험이 되게 영향이 있었던 거야?

P: 그런 것 같아요.

R: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안했으면, 네 인생이 어떻게 돼 있을까?

P: 대학을 안가고 어디 은행등에서 신발을 팔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신발가게에서 신발팔고 그럴지도 몰라요. [A5]

R: 디자이너가 된다는 거는 어떤 의미야?

P: 처음에 삼푸만 하는 사람이 스텝이에요. 스텝은 삼푸하고 뒤에 치우고 염색약 타오고 그런 거면, 디자이너는 진짜 해야 할 시술을 하는 사람이 디자이너예요.

R: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P: 샵 같은 경우는 승급시험을 봐요. 스텝 애들 다 모아놓고, 승급시험을 봐요. 거기서 합격이 되면 디자이너를 따게 되는데, 여기 동네 미용실에서는 그냥 원장님이 너 커트를 해도 되겠다. 그러면은 초보 디자이너를 딴 거예요. 일단.

R: 그건 미용실마다 원장님이 해 주는 거야?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한 게 아니라?

P: 디자이너는 헤어 자격증만 있으면 돼요. 일단은...<중략>...기술자. 기술자격증. 근데 요즘은 자격증 없어도 디자이너 한하는데 그게 월급이 달라요. 만약에 200정도 받으면 자격증 없으면 한 150정도? 그래서 자격증 없는 디자이너들이 학원 가서 배우고 자격증 따가요. [A3]

P: 너무 힘들어요. 그...동네 미용실이다 보니까 단골이 엄청 많아서 원장님 번호를 다 아세요. ...그러면 원장님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원장님 주무시고 계시는데 깨우시거든요. 언제 오냐 왜 안 오냐. 디자이너 분이 한 분 더 계셨거든요. 그분이 실수를 했는데 원장님한테 전화해서 따진다거나...<중략>...직업 자체는 너무 멋있어요. 멋있잖아요. 헤어 디자이너. 막 가위 돌려가면서 헤어쇼 하고.^^(웃음)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뒤로 가면 정말 힘들어요. 중화제가 과산화수소잖아요. 근데 그걸 다 맨손으로 다 만져요. 그러면 습진 걸린 데다 거기에 부어 놓으면 따갑고. 중화독이 올라요. 빨개지고 각질처럼 막 일어나요. [A3]

P: 고민 안했어요. 고1 겨울방학 때 정말 추웠어요. 길을 잃어 버렸어요. 대전에 내렸는데...그 계속...미용학원 가야되는데...(알바하면서) 계속 그러다가 돈이 좀 있으니깐 간 거예요. 학교 끝나고...버스타고 부사동에 내려서

거기서 또 급행 2번을 타고 은행동에 내려서 길을 잃어버려서 대전역까지 헤맸어요. [A4]

P: 학원 때문에 아빠랑 진짜 많이 싸웠거든요. 아빠는 간호학원을 가라. 저는 싫다 미용학원을 가겠다. 아빠를 설득하려면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미용학원에 가서 상담을 들었어요. [A5]

P: 아빠랑 계속 싸우면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학원을 계속 알아보고 어디가 좋은지 계속 비교해보고. 은행동에 있는 학원들은 애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긴 제외하고 둔산동이랑 이쪽 계속 알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 ☆학원(뷰티학원)이 제일 좋다고 나온 거예요. 치과 온 김에 엄마랑 같이 상담 받고 아빠한테 얘기하고 그 다음 주에 나 등록할거라고 얘기하고 등록하고 아빠한테 돈만 달라고 했어요. [A5]

P: 백화점에 들어가면, 그 브랜드의 담당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는 거고, 샵에 들어가면, 만약에 메이크업 아티스트까지 등극을 했으면, 제 필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 애들을 부리면서, 제 메이크업을 하거나, 아니면 경력이 많아지면, 방송국 들어가서 분장 일을 해도 되고. [A6]

P: 너무 못하는 것 같아서 자신감이 떨어지긴 했는데, 계속 열심히 해야죠. 선생님이 말하기를, 잘하는 척도 해가면서 완성도를 높이면 된대요, 순서에 상관없이. 잘 하는 척은 진짜 잘하거든요.

R: 그런 다음에, 자격증을 따면 어떻게 할 거야?

P: 한 번에 붙으면, 중국어 공부를 하고, 내년에 취업할 생각이예요. 백화점에 들어가거나, 로드샵을 들어갈 거예요. [A6]

## 2. 김서연의 이야기

### 1) 아동기~학창시절

<표 11> 사회화 원천-김서연 상호작용과 VAS 메시지

사회화 원천	경험	VAS 메시지
가족구성원	부모님의 직업생활	그 쪽 일(농사, 육체노동)은 안하겠다.
	부모님의 고생	이유 없는 죄책감을 느낀다.
	부모님과 오빠의 갈등	부모님은 나의 취업을 기다려줄 수 없다.
교육기관	역사교과, 역사동아리, 역사책	역사학자가 되고 싶다.
지역사회	단절된 주거지	나는 방구석의 아이, 우물 안의 개구리
	1차 산업 환경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경제생활
인터넷	통신 환경 열악함	인터넷을 잘 하지 않는다.

#### (1) 가족구성원의 메시지

##### ① 부모님의 직업생활 : 그 쪽 일(농사, 육체노동)은 안하겠다.

김서연의 부모님은 깻잎 농사를 짓는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서연의 주변인들은 대부분 농사일을 한다. 아빠는 농업 관련 대학을 권유하신 적이 있으나, 김서연은 ‘그 쪽 일’ 을 하고 싶지 않다.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을 도운 적은 있으나 농사일을 도운 적은 별로 없다. 농사일에 대해 관심

도 없다. 서연은 부모님이 육체적으로 힘들게 일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아 왔기 때문에 농사일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서연에게 ‘그 쪽 일’은 농사일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힘든 일, 농촌의 삶을 의미한다.

P: 엄마는...힘들겠다...나중에...그쪽(농사) 직업을 하고 싶진 않아요. 아빠가 안 그래도 이번에 농업 관련된 대학이 있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거기 안 간다고...그 쪽 관련된 거 하고 싶지 않아...저는 관심도 없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R: 엄마 아빠 일하는 거 보면서 그 쪽 일은 하고 싶지 않았구나...

P: 매일 요즘 허리도 아프시고 하니까...

R: 엄마 아빠는 항상 똑같은 일을 하셨네? 항상 농사일을 하시는 것만 봤네...다른 직업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P: 가까이 본 적은 없고 얘기만 들었는데 고모가 치과 의사분이고....딱히 자세히는...지역도 멀고 하니까...경상도 분이시니까...저희 집 쪽에는 아무래도...주변사람들이 다...농사일을...

R: 집 주변에도 다 농사일을 하시니까...농사일은 잘 알아?

P: 제가 딱히...초등학교 때는 엄마 깻잎 따는 거 조금 도와주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오고는 늦게 끝나고 하니까...고등학교 때는 특히 더 그러니까 별로 그쪽 관련된 거는...

R: 엄마 아빠 일은 별로 안 도와드려?

P: 네. 방학 때 이제 도와드려야 되는데 ^^ (웃음) 집안일은 제가 맨날 해요. 설거지 빨래하고 밥하고. 방학 때부터. 가끔씩 짬짬이 빨래랑 설거지는 계속 하고. [D1]

P: 아빠는 뭔가 맨날 회장 같은 거 하려고 하시고, 무언가를 많이 하세요. 대학교도 다니시고 그러셨거든요. 아빠 댁에는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일에 개입하고, 알아보려고 하진 않고.

R: 아빠가 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

P: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R: 엄마 일에도 관심이 없고?

P: 네. 그렇게... [D2]

## ② 부모님의 고생 : 이유 없는 죄책감을 느낀다.

김서연은 부모님에게 이유 없는 죄책감과 미안한 감정을 지니고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님의 고된 육체노동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허리를 구부려 일하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있고 힘들어 하시지만, 김서연은 풀 알레르기가 있어서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와드리지 못한다. 아버지는 위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부모님은 또래의 부모님보다 나이가 많다. 두 분이 각각 자식이 있는 상황에서 재혼을 한 이후 서연을 낳았다. 언니, 오빠들과는 나이 차이가 많고 친밀하지 않다. 경제적으로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 이러한 여러 상황 속에서 김서연은 부모님에게 미안한 마음을 지니게 되었고, 자신의 욕구나 요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 본 적이 거의 없다.

P: 돈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많이 신경 쓰는 건 아니지만,,엄마 아빠 힘들게 일하는 거 보니까 제가 혼자 미안해하고 혼자 죄책감 느끼고...갯잎하시고 맨날 허리 아프시고 하니까...나이라도 아무래도 많이 드시고 하니까 지금은...다른 사람들은 인삼 조금 하고 많이 쉬거든요. 근데 갯잎 같은 거는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겨울에 잠깐 조금 쉬시고,,그렇게 많이 쉬지도 못하시고. [D1]

P: 그렇게 부담 느끼는 걸 저한테 표현은 안하지만 제가 미안해가지고...몇 년 동안 공부하는 게 저는 좋지만 엄마 아빠는 그걸 뒷바라지 해줘야 하는데. 나이가 많으세요. 58, 57 정도.

R: 60이 가까우시니까 빨리 독립해야겠다는 생각이 있구나.

P: 아빠가 옛날에 위암 있으셔가지고. 치료를 초기에 잡아가지고 치료를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일하시잖아요. 허리도 많이 아프시고. [D1]

P: 아무래도 구부려 일하시니까 허리도 많이 아프고 디스크도 있고 그러시거든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는데 제가 피부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풀 알레르기...그래서 제가 못 도와드려요. 도와드리고 싶는데도 못 도와드리고...전 집안일 같은 것 도와드리고...도와드리고 싶는데 알레르기 때문에...도와드

리면 일이 좀 더 수월하잖아요. 근데 제가 못 도와드리니까 집안일이라도 해야겠다. 지금은...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해 드리고 싶다. [D4]

P: 그런데 혼자서 그걸 한다는 게 좀 그랬어요. 제 주변 애들은 학원 다니고 뭐하고 하던데. 저는 혼자 공부하고.

R: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수도 있는 거였는데, 그런 걸 하려는 시도는 안 해봤어?

P: 강의를 많이 들긴 했었어요.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기초가 달려가지고, 과외 같은 걸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았는데.

R: ‘엄마한테, 저도 영어 과외 받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해본 적 있었어?

P: 기숙사를 살면, 돈이 좀 많이 나가잖아요? 미안해서 제가 말을 못했어요. [D2]

### ③ 부모님과 오빠의 갈등 : 부모님은 나의 취업을 기다려줄 수 없다.

김서연은 졸업을 하자마자 빨리 취업을 해야 한다는 VAS 메시지를 형성한다. 부모님은 자신의 취업을 기다려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나이가 많고, 경제적 여유가 없으며, 고된 농사일을 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생각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또한 이복남매인 언니, 오빠들의 취업과정을 어린 시절에 지켜보면서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취업이 어려웠던 오빠는 부모님과 경제적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김서연은 ‘부모님에게 기댈 수 없다’ 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김서연은 자신이 또래 친구들보다 취업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젊은 나이에 취업이 더 잘되는 길을 찾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P: 오빠도 스무 살 초반까지 한 때,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R: 취업이 잘 안 돼서?

P: 네. 그래서 돈 문제 때문에 엄마랑 싸운 것도 제가 살짝 봤고.

R: 취업이 안 되니까, 오빠가 돈을 달라고 그랬어?

P: 제가 그 때 초등학생이라 잘 모르겠지만, 취업이 잘 안되고 그랬나 봐요.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돈 보내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돈 없다



고 말씀하시고...<중략>...그런 것도 봐오고, 엄마, 아빠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제가 언제까지 빌붙어서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벌고 살아야지...막 기대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D2]

P: 다른 곳에 비해 보건 쪽이 취업이 잘 되니까, 보건 쪽으로 왔고. 보건 쪽은 대부분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일을 못해서, 금방금방 빠지잖아요. 젊은 나이에 취업이 잘 된다. 이런 생각으로 넣었죠. ...<중략>...다른 애들은 ‘나중에 대학 공부를 어떻게 할까?’ 라는 고민인데, 저는 ‘취업을 어디로 갈까’ 이런 고민이죠.

R: 다른 친구들 보다는 더 직업에 가까이 서 있는 것 같아?

P: 네. 애들이랑 이야기할 때, 제가 취업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대학 그거 할 때. 그랬더니 애들이 그건 나중 일 아니냐고...

R: 아~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 너는 그런데 나중 일이 아니야, 당장 나랑 가깝게 느껴져?

P: 느껴지긴 해요, 시간이 금방 지나갈 것 같으니까. [D2]

## (2) 교육기관의 메시지

### ① 역사교과, 역사동아리, 역사책 : 역사학자가 되고 싶다.

김서연은 학창시절 내내 역사학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키워왔다. 학교에서는 또래친구들에게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 역사학과에 진학할 친구’로 인식되었다<sup>54)</sup>. 김서연은 막연하게 자신이 사학과에 진학하게 될 것이라고 여겼다. 다른 친구들이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도 김서연은 명확한 관심사와 진로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김서연이 ‘역사학자가 되고 싶다.’는 VAS 메시지를 형성하게 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54)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들의 첫 만남이 있던 날 친구들은 김서연을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 역사학자가 될 친구, 역사과에 진학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서연이 처음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6학년 어느 날 책장에 꽂힌 역사책을 우연히 읽게 되면서였다. 김서연은 깎깎 농사를 하는 부모님과 함께 금산 지역 내에서도 도심과 떨어진 농촌 마을에서 자랐다. 동네에는 또래가 없었고 놀 거리가 없어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등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김서연은 중학생 때도 다른 교과 수업보다 사회와 역사교과 시간이 재미있었다. 사회 선생님은 김서연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다. 한국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역사를 처음 배우면서 세계사에도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고등학생 때는 수업시간 외에도 역사동아리 활동을 활발하게 하였다. 금산 주변의 유적지와 독도를 탐방하는 활동을 하였다.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역사탐방 계획을 짜고 수행하는 경험이 뿌듯했다고 말한다.

김서연은 다른 친구들보다 역사책을 많이 읽는 학생이었다. 선생님이 제시해준 독서목록에서 역사와 관련된 책을 골라 읽었다. 인상 깊게 읽은 책으로는 사도세자와 관련된 내용의 책이다. 특히 조선시대와 일제 강점기 근대사에 관심이 있다. 역사책을 읽다보면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다른 다양한 관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신은 역사 왜곡을 바로잡거나 기존과는 다른 관점에서 역사를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P: 초등학교 때 역사책보고 재밌어가지고 중학교 때도 재밌고...고등학교 때 더 배우니까 재밌어 가지고 역사 쪽 갈 마음이...

R: 어렸을 때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네?

P: 세계 2차 대전 초등학교 때 그거 읽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세계 2차 대전 관련된 책이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꽂아 있어가지고 그냥 딱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중학교 올라와서 사회쌤이 1학년 때 쌤이 진짜 재밌었거든요. 착하시고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2학년 때도 선생님이 쪽지시험 같은 거 내시면서 했는데 동아시아를 배웠는데...그때 원래 한국사만 관심 있었는데 동아시아를 배운다고 하니깐 좀 솔직히 조금 무서웠어요. 이런 외국역사도 배워야 되나 했는데 배우니까..엄청 긴 이름도 많고 신기하다 싶고 배우니까 별게 다 있더라고요 외국에서도. 그래서 그때 많이 흥미 느꼈고... [D1]

R: 다른 수업보다 그랬어?

P: 네...다른 수업보다 재밌었어요. 저는 사건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에피소드 들으면은 아...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하면서 흥미가 생겼어요.

R: 사회 쌤이 영향을 많이 미쳤네?

P: 네...많이 미쳤어요. 관심 이어가다가...고등학교 올라와서. 역사 동아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 역사동아리 들어야겠다. 바로 들어간다 해가지고 독도탐방이나 금산 지역에서 탐방 많이 했거든요. [D1]

R: 현대사에 관심 있다고 썼었지?

P: 아니...저는 조선시대 쪽 관심 있어요...초 중...둘 다...뭔가 왕들 관련된 사건들이 다 재밌는 것 같고...근대사도 좀 재밌어 해요...일제시대 보편은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그때. [D1]

P: 책 많이 봐요. 가끔씩. 고등학교 때 많이 봤어요. 사도세자랑 관련된 거. 제목이...아..권력과 인간이라는 책이 있는데 사도세자랑 관련된 책이거든요. 제가 그쪽에 역사 배우면서 재밌어 했는데...어떻게 자기 아들을 뒤주에 넣어서 죽일 수 있나...그래서 보니까는...그쪽 얘기...정조나...<중략>...

R: 이런 책들은 누가 추천해줬어?

P: 제가 다 그냥 찾아보게 됐어요. ‘권력과 인간’ 같은 경우엔 제가 1학년 때 수행평가에서 책 나열해서 여기서 찾아보고 독후감을 써라...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목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마침 사도세자 얘기라서 읽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D1]

P: 역사책을 보다보면 다른 관점이 많더라고요.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그런 거 보면...나도 이렇게...우리 역사에서 혹시 왜곡된 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알아보고 싶고...다른 관점에서 뭔가 느끼고 싶다...이런 생각 했어요. [D1]

P: 재밌으니까...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 재밌겠구나 하고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R: 역사학자가 되고 싶었어?

P: 그런 생각 솔직히 있었어요. 고 1때 막연하게...

R: 역사학자가 되려면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알아?

P: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막연하게 그냥 그때는...재밌다... [D1]

### (3) 지역사회의 메시지

#### ① 단절된 주거지의 경험 : 나는 방구석의 아이, 우물 안의 개구리

김서연의 주거지는 교통과 통신의 네트워크가 빈약하다. 금산 시내에서 버스를 한 번 더 타고 들어가야 하는 외딴 시골마을이다. 동네에는 슈퍼, 상점, 동네 주민이 거의 없다. 하루에 버스가 3~4번 밖에 들어오지 않으며,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겨울에는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해야 했다. 평소에는 버스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과 경험의 제약도 컸다. 친구들과 늦게 까지 놀 수 없고, 학원을 다닐 수도 없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없다. 또한 인터넷이 빠르지 않아서 집에서는 노트북을 거의 하지 않는 등 통신의 제약도 있었다.

김서연은 인적 네트워크가 빈약하다. 동네 주민의 수가 적으며, 종교 활동을 하지 않고, 부모님의 사회적 활동도 활발하지 않다. 그 와중에 주변 인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며 다양한 직업인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다. 김서연의 유일한 인적 자본은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선생님뿐이다. 하지만 몇몇 또래 친구들을 제외하고 깊이 있게 상호작용하거나 자신의 진로와 관련한 롤모델이 되어 줄 사람은 거의 없다.

김서연은 이러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자신을 ‘방구석의 아이’, ‘우물 안의 개구리’ 라고 표현하였다. 김서연은 자신의 주거환경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했다. 김서연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진짜 뒀가 다르다.’ 고 말한다. 주거환경이 자신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었고, 보고 듣는 것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적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으며, 단절감을 느끼고 있었다.

P: 네...혼자 있어요. 그냥 TV 보고...어렸을 때는 TV 많이 봤어요.  
 R: 아...그래서 집이 시골에 있구나? 엄마 아빠가 농사일을 하셔야 하니까...  
 P: 저울 때 눈이 많이 오면은 차가 안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저울에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고 1때. 2~3월 달에 날씨 풀리고 하니까 돈도 좀 들고 하니까...고 2때는 9월 달 11월 달 정도에 들어가서 고 3 여름방학 전 까지 있었어요. 성적이랑 거리 보는데 제가 거리 좀 멀기도 하고...  
 R: 집에 있으면 심심하고...친구들도 주변에 없고...슈퍼라던가...  
 P: 거의 없어요. 할 것도 없어요. 버스 탈 때 저는 늦게까지 못 놀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부러웠어요. 알바도 못하고... [D1]

P: 금산은 아무래도 부모님들 직업도 다 비슷하잖아요. 사촌언니네만 가도... 거기 언니들이 대충 얘기하시는데...의사도 있고...거기는 직업이 많으니까...도시이다 보니까...아...저런 것도 하시는구나...

R: 주변에 직업이 다 비슷비슷해?

P: 네...아무래도...

R: 다른 직업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P: 가까이 본 적은 없고 얘기만 들었는데 고모가 치과 의사분이고...딱히 자세히는...지역도 멀고 하니까...경상도 분이시니까...저희 집 쪽에는 아무래도...주변사람들이 다...농사일을... [D1]

R: 주변에 대학을 다니거나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없었어?

P: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고 3때 언니들이 자기 학교 설명하러 오거든요. 그때 조금 질문하고...

R: 교회를 다녀?

P: 아니요 ^^(웃음)

R: 특별하게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 외에는 만나는 사람이 없겠네?

P: 네 ^^ (웃음) 동네에도 딱히 제 또래가 없어요.

R: 서연이의 인간관계는 엄마아빠는 거의 일하시고...오빠 언니들 이랑도 거의 왕래 안하고 학교에 와야지 사람을 만나는 구나?

P: 선생님이랑 친구들...^^(웃음) 기숙사 살 때 친해졌던 언니 한명 있긴 한데 대학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 나누진...그 언니네 학교 제가 넣거든요. 떨어지긴 했는데...그 전에 면접 볼 때도 그냥 오라고 그런 얘기밖에...우리 학교 오라고 ^^ (웃음) 면접 같은 거 홈페이지에서 봐라...이런 얘기... [D1]

R: 그러면 인터넷 환경은?

P: 좀 느려요. 예전에 고치시는 분이 왔는데, 이게 좀...대역망이 느리다고 했었나? 시골이라서 좀 느린 것 같아요.

R: 그러면 통신이나 컴퓨터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어?

P: 집에서 좀 느려요.

R: 그래서 잘 안 하는 편이야?

P: 노트북으론 잘 안 해요. [D2]

P: 시골이라 아무래도 혼자 나가서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꼭 버스를 타야하니까, 그게 번거롭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이 아무래도 농사일 하시는 분들이고, 그런 게 다른 것 같고. 다들 뭔가 농촌에서 일어나는 일만 많이 봐왔고, 이야기하는 것도, 다른 애들은 과외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많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걸 안 하니까, 듣지도 않고...

R: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제한이 있어? 많이?

P: 네. 그런 것 같아요. ...<중략>...(잠시 침묵) 밖에 안 나가는, ‘방구석에 있는 아이’ 같은? [D2]

R: 지금 네가 살고 있는 환경이 네 인생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

P: 미친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R: 어떻게?

P: 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보는 환경이. 보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음...

R: 사실 금산도 도시가 아니잖아?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고,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똑같이 보냈잖아?

P: 그렇죠... ‘진짜 뭔가 달라요.’ (잠시 침묵) 어떤 식으로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중략>...많이 못 누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친구가 대전 쪽에 학원 다니는데...많은 정보를 얻더라고요...근데 저는 ‘우물 안 개구리’ 같아요. [D1]

## ② 1차 산업 환경 :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경제생활

김서연의 가족은 자연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생산하는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인간의 생산방식은 경제활동에 대한 개념과 라이프 스타일에 영향을 준다. 부모님의 경제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김서연이 둘러싸여 있는 경제활동 환경의 특색을 살펴볼 수 있다. 육체노동이 많은 부모님은 자녀의 교육성취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반면, 건강을 더욱 중요시한다. 부모님에게 생산 혹은 투자란 좋은 종자를 심고, 질 좋은 농산물을 수확하는 것이다. 저축은 금융기관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계’와 같은 전통적 방식을 따른다. 또한 소비의 기회가 거의 없다. 김서연은 상점, 시장, 도시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생활하기 때문에 생필품 이외의 소비를 거의 하지 않으며, 문화생활이나 소비 욕구가 크지 않다. 동네 주민들이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고 집성촌의 특징을 보이는 등 김서연은 또래보다 전통적 생산방식과 삶의 방식에 더욱 가까운 삶을 살고 있었다.

P: 그런 것도 있고, 공부 쪽은 옛날부터 관심이 없으셨어요. ‘너는 잘하는 게 아니니까, 보통만 하라’ 이 정도.

R: 원래 언니오빠들한테도 그러셨나?

P: 딱히 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R: 엄마, 아빠는 무엇에 제일 관심이 많으셔?

P: 그냥 제 건강? 건강하게 잘 사는 것...<중략>...성공에 대한 특별한 기대는 없는 것 같아요. [D2]

P: 아빠가 연구소? 그런 곳에서 새로운 종이나 종자가 나왔다고 하면, 저희 집에서 땅을 좀 마련해서 실험 같은 것도 하시고, 만약에 그게 성공하시면 그걸 쓰시고. 지금도 뭐가 좋다고 하면, 씨 같은 걸 새로 구입해서서 이번 년도에 한다고 대충 제가 들었거든요. 아빠가 그런 걸 많이 하세요.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R: 엄마, 아빠한테 돈을 좀 더 번다는 것은, 좀 더 좋은 종자의 식물을 키운다는 거야? 경쟁이라든가 이런 건?

P: 남들보다 더 좋은 질의 깻잎으로 승부를 하시죠. [D2]

R: 소비의 기회를 접하는 것은?

P: 저는 버스를 한 번 타고, 두 번 타서 대전을 가잖아요? 애들은 한 번만 타면 되잖아요? 그러다보니 저보다 자주 대전에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친구들이) 소비기회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R: 너는 물건에 대한 욕심이 있어?

P: 딱히 없어요. 기숙사 살 때는 야식을 많이 먹으니까, 그 때는 많이 썼는데, 그 외에 기숙사 나온 이후에는 버스비밖에...<중략>...

R: 그러면 너는 먹는 것, 버스비 이런 교통비 빼고는 별로 쓰는 게 없겠네. 취미생활도 없어?

P: 가끔씩 영화 보는 거? [D2]

P: 거의 다 가족이에요. 알고 보면 몇 촌 몇 촌 다 이어져 있고. 그리고 외지 사람 들어오면 경계하는 것 있는 것 같아요. 좁긴 좁아요. 남의 일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가족이라서...관심도 많고... [D4]

## 2) 진로선택 시기

### (1) 전공 선택의 고민 : 사학과와 물리치료학과

#### ① 붙어도 갈 수 없었던 사학과

김서연은 대학입시에서 사학과와 물리치료학과에 지원하였다. 김서연은 아동기부터 학창시절 내내 꿈꾸어 왔던 역사학자가 되기 위해 사학과를 지원하였으며, 혹시라도 불합격할 것을 걱정하여 물리치료학과를 한군데 지원하였다. 금산의 여고생들은 관습적으로 사회복지, 치위생학과, 간호학과 등 보건계통의 전공을 선호하였고, 선생님들도 이를 권유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최종적으로 사학과 두 군데와 물리치료학과에 합격하였다.

원하는 전공학과에 합격하였으나 이 때 부터 김서연의 고민이 시작되었다. 전혀 다른 전공 선택의 갈림길에서 ‘취업가능성’이라는 심리적 장



벽에 부딪치게 된다. 그동안 흥미와 적성에 대한 일관된 확신을 지니고 있었고, 역사학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흔들림이 없었지만, 막상 사학과 진학을 앞두고 ‘졸업 이후 취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에 흔들렸다. 사학과를 졸업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고, 주변에 사학과를 졸업해서 직업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주변인들과 인터넷 상에서 본 글들은 사학과의 취업가능성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였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막막함으로 인해 김서연은 사학과에 합격했으나 차마 진학할 수 없었다.

P: 근데...원래 사학과 쪽 생각하고 있었거든요...그래서 가기 싫은 게 좀 있어요...사학과 2개 붙긴 했는데...부산에 D대(사학과 합격 대학)랑 M대(사학과 합격 대학) 하나 붙었어요...성적 맞춰 갔구. 그냥.^^(웃음)

R: 3개를 다 합격 해놓고 고민을 시작한 거야?

P: 원래 추합(추가합격)이 된 거예요...M대가 나중에...근데 원래 D대랑 S대(물리치료학과 합격 대학)랑 고민했는데 S대가 좀 안 좋잖아요...그래가지고 가기 싫은데 사학과가 너무 취업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D1]

P: 엄마는 그냥...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학과 가고 싶긴 한데 그러면 취업이 또 걱정되니까 못 가겠고...친구들이랑 특히 얘기 많이 했는데 친구들은 S대가 너무 별로니까 나라면은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그냥 사학과 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저도 그러고 싶긴 한데 너무 걱정이니까 나중일이...그렇게 대학이 좋은 것도 아니고...좋으면은 가겠는데...계속 고민하다가 저 혼자 솔직히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이틀 찾아보고...쌤이랑도 얘기했는데 쌤도 그래도 아무래도 사학과보다는 물리치료학과가 낫지 않겠냐 그러시고...<중략>...그리고 선배들 입장에서 들어봤는데...가끔씩 학교에서 와요...그 언니들이..사학과 언니가 있어가지고 사학과 취업 요즘 어떻게 제가 물어봤는데 확실히 힘들긴 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그렇구나...옛날 동아리 언니데 별로 안 친한데...강연을 했어요. 언니가, 대학소개를 하러 오셨거든요. 근데 질문하는 타임에 질문을 했거든요 제가. [D1]

P: 친구들도 잘 모르죠...정보를 많이 못 얻었어요. 인터넷에서 봤는데...카페 같은 데 있거든요...다음(Daum)쪽에 학생들 많은 카페 있어요. 그런데 사학과 있냐고 물어보고...거기 다니시는 분들한테 사학과 취업 어떻냐고 물어보면 진짜 다 별로라고.... [D1]

R: 붙었는데도 안 갔잖아? 그건 왜 그랬어?

P: 앞길이 너무 막막할 것 같아서요.

R: 그런데 뭐 하러 썼어?

P: 넣을 당시에는 사학과를 갈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제 수준보다 사학과는 조금 높게 썼거든요? 그래서 ‘붙으면 가야지~’ 했는데. 막상 결정할 때 보니까, 나중에... 미래에...솔직히 대학은 솔직히 취업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 때, ‘사학과 너무 답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D3]

## ② 물리치료학과 선택 : 체념과 후회

김서연은 평소에 물리치료사의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물리치료학과 전공을 선택한 이후 김서연은 ‘체념’의 상태였다. 어떤 일을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으며, 그냥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뿐이다. 관심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은 그 길을 가야한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 김서연은 자신이 우유부단하여 전공 선택을 잘 못한 것 같고, 대학입시 원서를 쓸 때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후회했다. 진로에 대해 미리 고민의 시간을 많이 가졌다면 자신의 성향이나 수준에 적합한 전공을 찾아보거나, 물리치료학과에 대해 좀 더 많이 알아보고 전략적으로 입시에 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후회’했다.

P: 그냥...물리치료사 해야겠다...그 생각...

R: 물리치료사가 나의 직업인 것 같은 생각은 들어?

P: 해야겠다는 생각...

R: 가까이 안 느껴져? 결정한지는 얼마나 됐어?

P: 10월 달 정도에 결정했으니까...한 두 달...

R: 한 두 달 사이에 마음의 변화는 크게 있지 않았어?

P: 그냥...체념했어요...(힘없이) 가서 잘해야지... [D1]

P: 그렇게 제가 솔직히 관심이 없어가지고...별로 가고 싶지 않다 이 생각 많  
아가지고...가긴 가야죠.^^(감정을 가리기 위한 웃음)

R: 물리치료사가 되겠다고 했지만 내거 같진 않고...구체적으로 와 달지도 않  
고...

P: 맞아요. ^^ (감정을 가리기 위한 웃음) 공부해보고 맞다 싶으면 계속 하는  
데... 반수해야 하나...이 생각도 솔직히 있고... 좋은 대학에 넣어야 하나..  
아...저도 아직 모르겠어요...지금...너무...지금...(눈물 글썽)

R: 아직 마음의 결정은 안 나왔구나...왜 그런 것 같아?

P: 제가 너무 결정을 못해가지고...우유부단 해가지고...결정을 잘한 거 같기  
도 하고 후회도 되고...근데 어떻게 했든지 후회는 했을 것 같아요... [D1]

P: 좀 더 제가 과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했는데, 지금 와서 바뀌었잖  
아요, 예치금 넣을 때. 그래서 '그 때 결정을 더 잘 할 걸.' 그러면... 사  
학과 말고 물리치료를 더 넣었을 텐데, 사학과를 더 많이 넣고...<중략>...  
사학과는 포기는 못하니까, 한 두 개 정도 넣고, 물리치료는 네 개 정도 넣  
고, 대학도 좀 더 제 수준이나 성향 같은 걸 더 알아보고 더 맞는 데를 넣  
었을 것 같아요. [D2]

## (2) 대학의 의미 : 취업을 위한 곳, 차별받지 않기 위한 곳

김서연은 대학의 여러 가지 기능과 관련하여 혼란스럽다. 김서연이 생  
각하기에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학문을 배우는 곳이어야 한다. 김서  
연은 대학에 가서 자신이 좋아하던 역사학을 배우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  
은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직업훈련기관이다. 대학에서는 취업을 위한 기  
술을 배우고, 졸업 후 바로 취업이 가능한 자격증을 준비해야 한다.

취업을 위한 대학을 선택하였으나 이에도 역시 혼란이 있다. 같은 전공  
이라도 전문대인지, 4년제 대학인지에 따라 취업에 있어서 차별을 받으

며, 전문대라도 대학 서열에 따라 사회적 인식이 다르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4년제 대학을 꼭 가야한다고 이야기 했고, 사촌 언니는 전문대에 갔다가 임금에서 차별을 받고 다시 4년제 대학을 다니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서연은 ‘4년제 대학을 가야 차별받지 않는다.’는 VAS 메시지를 형성한다. 김서연은 취업을 위해 전문대를 선택하였지만 사람들에게 차별받을까봐 두려우며, 자신이 너무 낮은 위치로 떨어진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한다.

P: ‘공부하러 가야된다.’ 이 생각이 있긴 해요, 저는. ‘사학과가 솔직히 그렇게 가야한다.’ 이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요즘 대학교는 취업과 연관돼 있잖아요?

R: 너한테는 대학교가 어떤 의미야?

P: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런데... 사회적 분위기가 너무 취업이랑 연결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R: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받아들인 거야?

P: 그러니까 물리치료과를 일부러 간 것이기도 하고. [D2]

P: 아무래도...대학교는...우리나라 제도가 잘못된 거 같아요. 대학교는 학풍이...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취업이랑 관련되어 있으니까...현실이. 역사학과 가서 공부하고 취업하고 싶은데...너무 취업이...그 과에서 취업해야 된다 그래서...등록금 같은 돈 문제도 있고... [D1]

P: 네...엄마가 옛날부터 4년제는 가라...말을 하셨거든요. 엄마가 주변에서 들은 게 있나 봐요. 아무래도 고졸보다는 대졸이...그리고 사촌언니께서 전문대가 4년제가...대학이 별로 좋은 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회사 다닐 때 월급이 다른 거예요. 대학교 4년제랑 그 언니랑. 너는 꼭 4년제 가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지금 대학을 다시 다니거든요...

R: 대학을 안가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런 생각은 없었어?

P: 전 대졸은 하고 싶어가지고...고졸은 뭐 좀...요즘 사회에서는 다 대졸인데...차별 받을 것 같아요. [D1]

P: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저도 뭔가 대학은 꼭 가야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한테도 예전에 ‘4년제 가라, 전문대 가지 말고, 4년제 가라’ 이 소리도 많이 들었고.

R: 지금 학교는 4년제야, 전문대야?

P: 전문대요.

R: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전문대여서?

P: 전문대라서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평도 안 좋고. [D2]

P: 고졸이 딱히 취업을 해봤자, 정규직도 잘 안 되고, 연봉도 다르고, 인식도 그렇고. [D2]

P: 대학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학과는 여기가 취업이 잘 되니까, 가진 가야할 것 같은데, 대학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R: 대학이 왜 마음에 안 들어?

P: S대가 애들 평으로는, ‘그냥 돈만 내면 다 간다.’ 이런 평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구하거나 이럴 때, 대학교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대학이라고 이야기하면, 저를 깎아내릴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상고나 어느 학교 이야기를 들으면, 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개를 낮게 평가하게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될까봐, 무섭고 그런 거예요, 나중에. [D3]

R: 너는 취업을 위해서 대학을 가는 건데, 취업이 잘 되는 대학교 가면 잘 간 거 아니야?

P: 음...아 그런데,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 말고, 4년제를 많이 뽑는 데요. 저는 전문대를 갔잖아요? 저는 대학병원을 생각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4년제를 더 가야한다. 4년제 물리치료학과를 가야한다. [D3]

P: 좋은 대학이라는 게 사람들의 인식으로 만든 것 같은 것 같아요.

R: 사람들의 인식인 것 같아?

P: 네. 성적을 잘 세워서...모아놓은 것 같아요.

R: 일렬로 세워놓고, 성적대로 모아놓은 게 대학인 것 같아?

P: 아무래도 다...네.

R: 그런데 그렇게 해 놓은 대학 중에서 네가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이

유는 뭐야?

P: 인식?

R: 사람들의 인식이 신경이 쓰여?

P: 네. 그것도 있고.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자존심이 상했고...내 성적은 여기 인 것 같은데. 이렇게 왔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내려와야 하나.’ [D3]

### (3) 진로장벽 : 소극적 교육지원, 경제적·사회적 자본 부족

김서연은 부모님의 낮은 기대, 소극적 교육 지원을 진로장벽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님은 자신이 역사에 흥미를 가지고 직업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학업 및 진로에 적극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 김서연은 엄마가 자신을 방치하였다고 이야기했다. 엄마의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는 말은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김서연은 그 말을 ‘책임을 지고 싶지 않으며, 개입하지 않는다.’ 는 의미로 해석했다.

#### <부모님의 낮은 기대>

R: 주변에서는 너의 이런 관심에 대해서 눈 여겨 보고 그런 분 없었어?

P: 별로 없었어요. 엄마는 역사 좋아하는 것만 아시고 딱히 제가 그렇다는 생각은 못하시는 거...별로 말 안하기도 했고...엄마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이런 주의시거든요. 엄마가 지금 개입 하시면은 그게 나중에 제가 싫어 하면은 그게 엄마 책임이 되는 거잖아요. 엄마는 그런 거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D1]

P: 지금 삶이요? 뭐 할 때도, 돈 때문에 고민하게 되고, 대학 같은 것도 제가 엄마가 학원 같은 데를 더 보내줬으면 더 잘 갈 수 있었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고... 후회되는 것도 많고.

R: 어떤 게 후회가 돼?

P: 공부 안 한 거요. 제가 너무 아는 것도 없고, 엄마도 저한테 하라고 재촉 안 하고, 너무 방치하고 그런 것에 서운한 감정도 있고.

R: 엄마가 너무 놔둔 것 같아?

P: 남들은 엄마가 ‘뭐해라, 뭐해라~’ 강요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R: 그게 서운해?

P: 네. [D2]

또한 김서연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진로장벽으로 인식했다. 김서연은 사학과 선택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였다. 대학등록금과 같은 직접비용보다는 교육기간 동안 취업 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취업을 유예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인 간접비용이 크다고 인식했다. 김서연은 자신이 사학과를 선택하였을 경우 취업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일반적으로 고소득 전문직 혹은 숙련기술 습득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교육과 직업훈련기간을 필요로 하고, 취업 전까지 더 큰 기회비용을 지낸다.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상황, 부모님의 나이와 건강상태, 가정의 재정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간접비용은 더욱 확대되어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의 경제적 자원은 진로결정에 있어서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는 정서적 자원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 <경제적 여건>

P: 빨리빨리 해야 하는 건 아닌데...사학과를 가면은 대학원 같은 거를 가야 하는데 가고는 싫어요. 근데 그러면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제가. 계속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집안 형편이 좋은 게 아니니까 그뎨 차라리 물리치료 가는 게 낫겠다. 싫어가지고...

R: 등록금 부담은 어떠셔?

P: 그렇게 부담 느끼는 걸 저한테 표현은 안하지만 제가 미안해가지고...몇 년 동안 공부하는 게 저는 좋지만 엄마아빠는 그걸 뿔바라지 해줘야 하는데...나이가 많으세요. 58, 57 정도...

R: 60이 가까우시니까 빨리 독립해야 겠다는 생각이 있구나...

P: 아빠가 옛날에 위암 있으셔가지고...치료를 초기에 잡아가지고 치료를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일하시잖아요....허리도 많이 아프시고... [D1]

R: 대학제도가 문제다? 취업과 공부를 함께 해야 해서 문제다...?

P: 대학원 가고 뭐하고 하시면 그동안 저는 공부만 하고 그러면 어떡해요...  
(울먹울먹)

R: 두 개 다 병행할 수가 없으니까...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니까..?

P: 돈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많이 신경 쓰는 건 아니지만,,엄마 아빠 힘들게 일하는 거 보니까 제가 혼자 미안해하고 혼자 죄책감 느끼고...갯잎 하시고 맨날 허리 아프시고 하니까...나이라도 아무래도 많이 드시고 하니까 지금은...다른 사람들은 인삼 조금 하고 많이 쉬거든요. 근데 갯잎 같은 거는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겨울에 잠깐 조금 쉬시고...그렇게 많이 쉬지도 못하시고... [D1]

김서연의 진로선택 과정에서 경제적 자본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자본의 부족이 삶의 전반에 걸쳐 드러났다. 단절된 거주지에서 생활하면서 교통과 통신의 제약,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의 활발하지 못한 사회적 활동, 다양하지 못한 인적 교류, 농촌 학교의 빈약한 사회자본 등 여러 가지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가족 내적으로 김서연은 부모와 깊이 있는 상호작용을 하거나 부모가 자녀의 진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 부모로부터 물질적·정서적 지지를 얻기보다 부모님의 고생을 지켜보며 죄책감과 불안감을 형성하였다. 가족 외적으로도 김서연은 외딴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기 어려웠고, 직업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가 없었다.

### 3) 고등학교 졸업 후

#### (1) 부정적 자아의 회복 : 진로 자기효능감의 형성

김서연은 진로선택 과정에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많았다. 자신은 충동적이고, 생각이 진중하지 못하며, 계획을 세우지 않고, 현명한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다. 대학생살이나 직업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고 자신감도 없었다.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은 상태였음을 보여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이 성공적으로 진로를 결정하여 직장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가지는 자신감의 수준’을 의미한다(Talyor & Betz, 1983). 여러 연구에 의하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직업적 흥미, 직업 결정, 직업 성과 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Lent et al., 2008).

하지만 대학 진학 이후 서서히 부정적 자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사회인지 진로이론에 따르면 진로선택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인지적 측면과 환경적 맥락의 영향을 받게 된다(Lent et al., 2000). 성취의 경험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상승하며, 주변인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사회적 지지<sup>55)</sup>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서연은 대학의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새로운 전문지식을 알아가는 것에 흥미를 느꼈으며, 몇몇 강의에서 우수한 평가결과를 얻고, 마사지 등 실습훈련을 통해서도 능력을 인정받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부모님은 몸이 아프셔서 물리치료를 자주 받는데 물리치료사의 전망이 좋고 취업이 잘 될 거라고 기대하신다. 친척들이 모인 명절날 모두들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 <부정적 자아 인식>

P: 물리치료학과도 솔직히 충동적으로 넣었잖아요, 애들 말 듣고 나서...<중략>...대부분? 행동이? 성격 말고 행동이라고 해야 하나?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진중하게 뭔가를 고민하고 그러진 않으니깐...<중략>...

P: 계획 잘 안 세워요. 머리 아파서. 닥치면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긴 한데. 스트레스 받아 해요. 미리 고민하면. 불안함 때문에. 미리 고민해봤자 해결되는 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민만 하다가 결정을 잘 못 내리거

---

55)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란 인간관계로부터 제공받는 물질적, 정보적, 정서적 도움 혹은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적 관계망을 의미한다(Cohen & Syme, 1985). 이에 박지원(1985)은 사회적 지지를 4가지 하위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존경, 애정, 신뢰, 관심 등의 정서적 지지, 둘째 개인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등 이용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 셋째 일을 대신 해주거나 돈, 물건 등을 제공하는 등 문제해결에 필요한 방식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는 물질적 지지, 넷째 자신의 행위를 칭찬해주거나 인정, 부정하는 등 자기평가를 전달하는 평가적 지지 등이다.

든요, 결국에는. [D2]

P: 저에 대한 자신이 없긴 해요.

R: 네 결정에 대해서?

P: 네. 고민을 하고서는 결국은 후회하고 하는 경험이 있으니까...<중략>...  
고민을 하다가, ‘들 다 좋은 것 같은데, 들 다 별로인 것 같은데.’ 비교  
를 세세하게 안 하고, ‘들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떡하지.’ 딱 마음에  
들면, ‘오~ 이거 괜찮네~’ 하면서, 뭔가 안사면 계속 후회할 것 같고 그  
래서... 그런데 딱 사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하지만 마음에  
들면... 그래서 증동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D2]

R: 지금 제일 걱정인 게 뭐야?

P: 물리치료학과 보니까 재활학이나 그런 거 배우더라고요, 제가 문과다 보니  
까 그런데 관심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공부 어려울 것 같다 이 생각하고  
있어요. [D1]

<대학 진학 이후>

P: 보니까 확실히 영역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 가서도 병원에  
계신 높으신 물리치료사 분이 이야기해주시는데, ‘너희가 지금 본 건, 덜  
본 것이고, 더 많다. 넓게 봐라’ 고 하셨어요.

R: 가기 전과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

P: 물리치료에 관한 이미지는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R: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했어?

P: 네. 과 생각이...

R: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인 것  
같아?

P: 긍정적이예요. [D3]

P: ‘스포츠 마사지 치료’ 라고 있거든요? 저희가 실습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데,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받은 애들은 시원하다고, 좋다고 그  
러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때는 아  
무 생각 없이 너무 부정적이었어요.

R: 그 때는 왜 부정적이었을까?

P: 애초에 생각도 안하고 원하지 않았던 거라서. 지금은 경험을 해보니까, 흥미도 생기고.

R: 경험을 해보니까 흥미가 생겼구나? 흥미가 생기니까 뭐가 생겼어?

P: 자신감?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기분? [D3]

<진로 자기효능감 형성>

P: 마사지 잘 하는 것 같아요...동기들보다...네...교수님 해드렸는데...어~ 너 이쪽 가라 그러고...

R: 좀 재능이 있어?

P: 못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웃음) 실습...열심히 하려고 해요...여자애들 확실히 더 떠들고 그러는 것 많더라구요...전 수업 앞에서 열심히 듣고...열심히 배우려고 해요...안 자고...

R: 다른 친구들보다 더? 어떤 계기로?

P: 남들보다 더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어떤 시험이었지? 해부학인가? 1등인가? 3등인가? 그 때 한번 해보고...오~ 서연~~~다르더라고요. 아 잘하면은 기분이 많이 좋고...남들보다 뭔가 음...뿌듯하고...뿌듯한 기분이 생겨가지고...

R: 이런 기분이 처음이었어?

P: 고등학교 때는 역사 쪽... 지금은 몇 과목은 진짜 열심히 해서 그래도 좀 위에 있거든요. 제가 딱 공부하면서 재미있고 뭔가 흥미...교수님도 수업 재밌게 하시는 분들은...그런 과목들은 열심히 해서...못하는 애는 아닌 것 같아요. [D4]

<주변인의 긍정적 반응>

P: 엄마, 아빠는 그런데 좋게 생각해요. 제가 물리치료학과니까 취업도 잘 될 거고, 어디에서 뭐 들으신 것 같은데, 많은 걸 다 아시더라고요. 제가 편입한다, 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그런데 우선 가고 나서 이야기해.’. 엄마, 아빠는... 그냥

R: 엄마, 아빠는 긍정적인 편이셔?

P: 그런 쪽은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D2]

P: 네. 설날에도 이번에 저희가, 한 언니가 재수를 하러갔는데,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 이렇게 다 보건 쪽으로 간 거예요. ‘잘 갔다, 잘

갔다.’ 그러니까, ‘이게 잘 간 건가? 잘 갔나?’ 묘하게... ‘잘 갔다 잘 갔다’ 계속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수긍했다고 해야 하나? 엄마, 아빠도 만족스러워하시고. [D2]

## (2) 물리치료사 정체성 형성

김서연은 물리치료사 직업을 자신의 직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대학에서의 경험으로 ‘직업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 실습과 관찰을 통해 물리치료사 업무와 관련된 지식을 상세하게 습득하면서, 직업의 장단점을 이해하였다. 물리치료센터 견학을 통해 물리치료사 업무에도 다양한 전문 분야가 있음을 알게 된다. 대학병원에서의 해부학 실습을 통해 자신이 물리치료사 직업인이 되어간다는 인식이 생겼다. 이 쪽 일을 하게 되리라는 생각과 학과에 소속되어 있다는 안정감을 가지게 된다.

김서연은 물리치료사 직업을 통해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는 생각을 구체화해 나갔다. 김서연은 나이 많은 엄마가 밤에도 일하고, 땀벌에서 일하고, 육체노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는 강한 VAS 메시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김서연이 물리치료학과를 처음 진학할 당시 물리치료사의 업무가 육체노동이며 ‘돈을 번다는 것은 육체가 소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물리치료 약품이나 기계를 제조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근로 장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제생활 및 직업생활에 대한 이해를 넓혀 갔다. 금산의 고등학생 때는 거의 하지 않았던 소비경험을 하게 되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돈으로 적금을 들고,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 아르바이트 일터를 선택할 때는 한의원, 정형외과 등 병원을 중심으로 신청하면서 미래의 일터에 대한 경험을 쌓으려고 한다. 현장에서 선배 직업인들이 일하는 모습, 환자를 대하는 모습 등을 관찰하거나 그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미래 직업생활의 계획을 세웠다. 김서연은 졸업과 자격증 취득 후 초봉은 140만 원 정도의 병원에 취업할 예

정이며, 적금과 대출을 통해 집을 구하고, 지속적 직업교육을 통해 연봉을 높여갈 계획이다.

<직업에 대한 인식>

P: 그걸 배우고 나서, 그 쪽 직업에 대한 인식이 더 생겼다고 해야 하나?

R: 더 관심이 생겼다는 거야?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P: 그 쪽 직업에 아무래도 더 관심이 생겼어요.

R: 관심이 생겼다는 거야 아니면 뭐가 생겼다는 거지?

P: 뭐라고 해야 하지? 인식?

R: 그 직업인이 됐다는 인식?

P: 네. 그 쪽으로 간다는 인식?

R: '내 길이다.' 라는 확신?

P: 그런 쪽. '이 쪽으로 가는구나.' 나쁘진 않아요. 나름 긍정적인 것 같아요. [D3]

P: 근육 같은 거 더 상세하게 보고...저번에 대학병원 가서 해부실습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두 번 갔거든요. 매년 가는데... 상태는 별로 안 좋은데.. 근육 같은 거 볼 수 있거든요. 책보다는 실물로 보니까... 더 머릿속에 기억에 남고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D4]

P: 지금은...물리치료사란 직업 괜찮게 생각하고...좋고...남들 치료해주는 거 같아요. 그런 거에 뿌듯함을 느낄 것 같고...공부하면서도 몸 같은 거 알아볼 때 어~이렇구나~ 새로운 걸 알게 되니까 재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중략>...단점은...아무래도 외국 같은 경우에는 6년 공부하고 의사 급으로 대우받는데...한국은 아니잖아요. 의사 아래 급으로 생각하고...개원도 못하고... [D4]

<육체노동에 대한 생각의 변화>

P: 부족하지 않을 만큼 벌고 싶은데... 그런데 제가 그만큼 많이 번다는 말은 제가 그만큼 치료를 한다는 거잖아요? 몸이 솔직히 망가지잖아요? 어쩔 수 없이... 몸이 힘드니까...<중략>...단점... 사람을 치료한 만큼 몸이 상할 거니까.

R: 몸이 힘들 것 같아?

P: 그렇죠. 몸으로 하는 건 힘들 것 같아요.

R: 너 해봤잖아? 어때?

P: 한 사람당 30~40분하거든요. 그거 하고나면, 몸에 땀이 나있어요. [D3]

P: 엄마가 생활비...엄마가 껌일 따시는 걸로 다 되는 거잖아요. 아빠는 껌일 아예 안 따시거든요.

R: 엄마가 주로 노동하시는구나? 엄마처럼 살고 싶지는 않구나?

P: 되게 힘들고...몸이...그리고 다 보면은 제 걱정이나 아빠 걱정 하고...자기 몸도 힘드신데...자식도 중요하고 남편도 중요한데...저는 저가 먼저이고 싶어요.

P: 그래서 농업 쪽은 안 가야겠다...<중략>...물리치료사는 그래도 퇴근시간도 정해져 있고 문화 활동도 할 수 있고 육체적으로 맹벌에서 힘들게 일하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병원에서...그냥...[D4]

P: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다...이거는 네...거의...근데 또 어떤 교수님은 왜 물리치료과 와서 물리치료사만 하려고 하나요 약품 같은 거 어디 회사 같은 것도 있고, 너희 미국가면은 더 대우받고 하는데 영어공부해서 가면은 얼마나 좋냐...미국은 좀 아니고...회사 같은 거는 어 괜찮겠다.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기계 만드는 쪽? [D4]

#### <경제생활의 변화>

P: 우선은 놀 데가 보면은 학교 앞에 문화센터 있잖아요. 딱히 돈 쓸 때가 없었는데 여기는 놀 거 많기도 하고 다 돈 써야 하는 거잖아요? 소비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돈을 더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중략>... 제가 원래는 돈을 받든... 아빠가 웬만하면 카드를 주시거든요. 그럼 생각 없이 써요. 어떻게 쓸까...돈이 있으면 이 생각부터 했는데. 지금은 제가 근로 장학생도 하고 돈 좀 많이 벌 것 같잖아요? 적금 들었거든요? 혼자 막 쓰면 안 되겠다. 좀 아껴둬야겠다. 저번에 근로 장학금 꽤 했거든요. 장학생을 그 때 한 200만원인가 벌었어요. 근데 그걸 두 세 달 만에 다 쓴 거예요. 그때는 자취를 처음해서 많이 쓰기도 했는데...또 이렇게 막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축을 해야겠다. ...<중략>...우선 내년에는...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할 거구, 졸업하면은 바로 취업을 할지 시간을 두고 할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D4]

P: 취업하면 돈 벌고 적금해서 집사고...돈 많이 벌면 부모님도...돈 해드리고...희망적이에요^^(웃음) 돈은 남들보다 먼저 취직하고 돈을 벌거니까... 근데 물리치료사는 특강 같은 거를 많이 다니거든요. 그럼 몇 백 만원 씩 써요. 그럼 또 월급이 다 걸로 나간대요...그런 것도 좀...[D4]

<근로 장학생 아르바이트>

P: 아...저도 고민하기도 했는데...그래도 경험 쌓고 하면 좋겠다. 저도 물론 힘든 건 싫는데. 남들보다 뭔가 좀 더 알고 싶고...욕심...^^(웃음) 잘하고 싶죠. 그래도 맨날 6시에 일어나고...그리고 저 한의원에서도 일하거든요. 국가장학생으로는. 거기서는 거기서도 물리치료 쪽 일해요. 그거는 제가 병원이 있길래, 마침. 국가기관 중에 병원이 있는 거예요. 마침. 그래서 병원으로 웬만하면 신청했어요.

R: 아...국가장학생으로 일할 수 있는 내가 일할 수 있는 여러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병원으로 신청한 거야?

P: 환자 대할 때도 뭔가 설명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처음에는 엄청 미숙했거든요. 지금은 피티사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고 그거 따라하거든요. 그래도 남들보다는 뭔가 능숙하지 않을까요? [D4]

P: 좀 물리치료사 쪽이 발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맨날 핫 팩 같은 것만 하면 발전 없이 그냥 월급이 맨날 똑같은 거구. 나중에 내가 발전해서 그 피티사...그러면서 좀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만 열심히 한다면...저 마음가짐에 달린 것 같아요. 하는 만큼 버는 것 같아요. ...<중략>...여기 저랑 같이 하시는 분이 2년차시래요. 2년차인데 지금 교육받으러 다니시거든요. 실장님이 그러시는데 2년차에 이렇게 교육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없대요. 한 4~6년 돼야지 한다고 여자들은. 근데 저분처럼 저렇게 열심히... [D4]

### 3. 강은진의 이야기

#### 1) 아동기~학창시절

<표 12> 사회화 원천-강은진 상호작용과 VAS 메시지

사회화 원천	경험	VAS 메시지
가족 구성원	외로웠던 아동기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엄마의 직업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엄마는 멋있고 자랑스러운 직업인이다.</li> <li>• 간호사 직업은 장단점이 있다.</li> </ul>
	엄마의 고생	최대한 빨리,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
교육기관	낮은 성적	심리상담가, 의사 직업을 포기한 것은 내 탓이다.
	수업, 진로교육	수업, 진로체험과 진로상담은 큰 의미가 없다.
지역사회	도시의 대학병원	간호사 직업의 가능성을 보다.
인터넷	세상과의 소통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가장 덧붙임 없이 들을 수 있는 공간이다.
	메르스 의료인들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도 장점과 단점이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실무경험보다 제도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싶다.

#### (1) 가족구성원의 메시지

##### ① 외로웠던 아동기 :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강은진의 어머니는 첫 번째 이혼 후 낚시터를 하는 새 아빠와 재혼을 하였다. 강은진은 산으로 둘러싸인 외딴 저수지에서 새 아빠의 눈치를 보



며 외로운 아동을 보냈다. 친구가 없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없었던 그 때를 매우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이 경험으로 인해 강은진은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직업, 남을 도울 수 있는 직업, 성취감을 주는 직업, 사회봉사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VAS 메시지를 형성하게 된다. 예를 들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심리상담가나,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주었던 동물들을 도울 수 있는 수의사가 되고 싶었다.

P: 중학교 때는 전 상담 쪽 일을 하고 싶었어요. 심리상담가나...왜냐하면 제가 좀...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외롭게 보냈어요. 집이 뉴시터다 보니까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솔직히 좀 눈치를 많이 보는 가정환경이었고...엄마를...원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원망스러웠던 건 맞는데...엄마를 이해 못하는 거는 아니었어요. 엄마가 이혼을 하고 어쨌든 오빠랑 저가 아주 많이 어렸었어요. 5살이었으니깐...엄마는 막막했을 테니까 자기가 같이 조금 아이들을 키워줄 그런 사람이 필요했을 테니까...근데 저한테는 조금 힘든 기억일 텐데...많이 외롭고...제가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집에서 들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바쁘고 오빠도...혼자 자기 인생 헤쳐 나가기 바쁘...아직 어리지만...그럴 때였고...엄마도...집에 굉장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C1]

P: 그래서 중학교 때 되니까...그 때 외로웠고...작은 거 하나 누군가한테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생각이 나면서 나도 커서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심리상담가나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그 꿈을 좀 많이 꿰어요. 간호사란 직업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 게 어쨌든 불편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거는 똑같잖아요. 어쨌든 상담가란 꿈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더... [C1]

P: 원래는 예전에는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나 스스로도 되게 좋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면서 사회봉사도 할 수 있는 이런 직업을 선호했어요. [C1]

P: 마당에서 제가 굉장히 외롭다고 했었잖아요? 집에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혼자 그림 그리다가 답답해서 나오면 강아지들이 있으니깐, 강아지들이랑 놀고 했었던 말이에요. 뛰어다니고 동네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보니까 강아지를 내가 키우는 동물이라고 여기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계속 같이 자라오다 보니까, ‘얘는 내 친구야, 얘는 나에게 동물 그 이상이야.’ 라고. [C2]

P: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점점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서, ‘동물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하고 싶다.’ 고 생각했었어요. [C2]

## ② 엄마의 직업생활

### 가) 엄마는 멋있고 자랑스러운 직업인이다.

강은진의 엄마는 두 번째 이혼 후 고향인 금산에 정착하였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동네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였다. 강은진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직업생활 이야기를 상세히 보고 듣고 자랐다. 엄마는 간호사로서 멋진 직업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강은진이 아프면 엄마가 직접 주사를 놓았다. 동물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애완동물이 위독했던 때 엄마가 치료해 주던 모습은 가장 기억에 남는다. 강은진의 눈에 엄마는 능숙하고 친절하며 자랑스러운 직업인이었다.

#### <멋진 직업인의 모습>

P: 엄마가 감기 걸렸다고 하면 병원에서 링거 가져와서 집에서 놓아 주셨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엄마가 굉장히 자랑스럽고, ‘남들이 병원 가서 불편한 침대에서 맞는 링거를 나는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맞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고, ...<중략>...애를 동물병원까지 데려갈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링거랑 주사바늘을 들고 오더니 ‘엄마가 꽃겠다.’ 고... 저는 말렸죠, ‘그러지마 제발... 엄마 위험해, ○○(고양이) 위험해’ 라고 말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쿨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혈관은 똑같고, 고로 엄마 손

끝에 느껴지는 건 똑같은 거야’ 라고... ○○(고양이)발을 딱 잡더니,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더니, 주사바늘을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서 처음으로 엄마가 정말 제일 멋져보였어요. [C2]

P: 엄마가 술 취한 아저씨들과 싸움을 하거나, 굉장히 힘든 일을 겪는 건 눈앞에서 본적은 없고, 이야기로만 들었지만, 제 눈앞에서 엄마는 굉장히 능숙하고, 친절한 간호사였어요. [C2]

### 나) 간호사 직업은 장단점이 있다.

강은진은 간호사 직업에 대한 거부감과 부담감이 있었다. 엄마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었고, 육체적으로 피곤했기 때문에 가족들과 대화할 기회도 갖기 어려웠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외로웠던 강은진은 ‘간호사라는 직업은 가족관계를 소홀하게 하는 직업’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술 취한 사람들의 행패, 환자 보호자와의 실랑이, 파트 타임 근무의 피곤함, 응급실에서의 사망 목격 등 간호사의 실제 직업생활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안다. 간호사 직업생활을 옆에서 지켜보며 강은진은 간호사 직업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어떤 직업이든 장점과 단점을 지니며, 힘들지 않은 직업은 없다’는 VAS 메시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진로와 직업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 <간호사 직업에 대한 거부감>

P: 제가 동물에 관련된 직업을 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엄마는 이게 영 맘에 안 들어 하시니까 엄마가 원하는 간호사란 직업을 저한테 계속 말하시는 거예요. 계속 부담감이 들고 거부감이 들면서 그냥 엄마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엄마가 원하는 거잖아. 아예 제가 그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 빼버렸어요. 간호사란 직업을. 반항심이었나 봐요. 조금. [C1]

P: 간호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 외로움이 간호사라는 직업에 있어서 안 좋은 역할이었어요. 간호사라는 직업은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간호사시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저와 같이 있던 시간이 적었었어요. 집에 오면 피곤하니까 바로 씻고 주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엄마에게서 어떻게 보면, 조금 엄마랑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가끔 속을 터놓고 얘기할 시간도 마땅치 않으니깐, 얘기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간호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시간을 많이 뺏어먹고,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구나.’ 라고... ‘나중에 내가 간호사가 되면 내 가족에게 소홀하게 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C2]

#### <간호사 직업의 장단점>

P: 아무래도 그 일에 대해 환상만을 갖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엄마가 매번 야근하고 오거나, 간호사 일을 하면서 엄마가 항상 그래요, 몸이 굉장히 힘들다고. 내 시간 패턴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을 거라고, 아무래도 파트 타임 이니까. 이런 현실적인 단점을 이야기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환상만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환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서 환상만, 단점보다 장점만 더 부각해서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엄마가 계속 이야기해줘요. 왜냐하면 엄마는 항상 퇴근하고 오시면, ‘에휴~ 오늘 술 취한 사람들이 와서~’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랑 실랑이를 하게 되면 엄마는 자기보다 어리니까 다 동생같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나서게 된대요. 한번은 술 취한 아저씨랑 싸우다가 쓰러지셨대요. 의식을 잃고...그래서 되게...(울먹울먹)

R: 그렇구나...엄마가 간호사 일을 하면서 힘든 걸 보면서...이 일을 선택했어?

P: 힘들지 않은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그나마 괜찮아요. 어떻게 될 하든 다 힘든 건 있다고 생각해요. [C1]

P: 간호사 일에 대해서 엄마가 말한 것처럼 피곤하고, 사람들이랑 많이 부딪히고 하는 게 단점이겠지만, 또 그만큼 나한테 돌아오는 성취감은 장점이고... 그런 걸 다 따져보다 보니까, 진로를 선택할 때에도, ‘될 하든 다 장점과 단점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때. [C2]

### ③ 엄마의 고생 : 최대한 빨리,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

몸을 혹사시키며 일하는 엄마를 지켜보는 강은진은 마음이 아프다. 강은진이 12살 때부터 엄마는 홀로 두 남매를 키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병원 응급실은 8시간씩 삼교대 파트 타임으로 운영되는데, 돈을 더 벌기 위해 엄마는 16시간을 일하거나 야근을 하는 일이 많다. 강은진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대학 등록금이 걱정된 엄마는 인삼밭 일도 추가로 하였다. 응급실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엄마는 언제 일을 그만둘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몸을 돌보지 않고 일한다.

강은진에게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나와 엄마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엄마의 고생하는 삶을 옆에서 지켜보며 강은진은 ‘최대한 빨리 직업을 가져서 엄마의 짐을 덜어드리고 엄마를 책임져야 한다.’는 VAS 메시지를 형성한다. 자신이 직업을 가져서 소득이 있어야 엄마는 자기 몸을 돌보고 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직업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엄마는 비정규직이고, 나이가 제일 많아서 언제 병원 일을 그만두게 될지 모른다. 엄마는 두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할 정도의 자금이 장만되기 전까지 불안해서 쉴 수가 없다. 엄마는 불안하고, 강은진은 ‘최대한 빨리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

#### <엄마의 고생>

P: 엄마가 지금은 인삼밭 일도 하시면서 응급실에서도 일 하신단 말이에요. 응급실도 인력이 부족해서 원래는 8시간 파트 타임인데...이브닝, 나이트, 데이 해가지고 파트 타임이에요. 근데 이제 투 타임을 뛰면은 16시간을 일하는 대신에 돈을 더 받을 수 있고, 야근을 하면은 돈을 더 벌 수 있어요. 엄마는 혼자 두 명을 키워야 하니까 오빠랑 저랑...투타임을 뛰거나 야근을 하는 시간이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되게...되게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울먹)...근데 요즘에는 저 대학갈 때 되니까 이제 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인삼밭 일을 배워서 인삼밭 일을 또 한다고, 거기 가서 밭일을 또 하고... (울면서) 그니깐 엄마의 문제가 몸 생각을 안 하면서 해요. [C1]

<직업의 의미>

P: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빨리 직업을 가져서 엄마 편하게 해야겠다... 일단 그래야 자기 몸 생각하면서 쉴 것 같아가지고...

P: 직업을 갖는 다기 보다는 직업을 가져서 나 자신하고 엄마한테 무얼 해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뭘 해주고 나한테도 뭘 해주고 엄마한테도 뭘 해 줄 수 있느냐...

R: 왜...엄마한테 뭘 해줘야 하지?

P: 음...엄마가 너무 힘들게 저를 키워가지고...(눈물) 그냥 되게 해주고 싶어요...(눈물). [C1]

P: 뭐라고 해야 돼지? 엄마를 책임져야 되는 존재. 엄마를 좀 빨리 편하게 쉬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R: 엄마의 짐을 빨리 덜어줘야겠다고 생각하는구나.

P: 최대한 빨리...그리고 완벽하게. [C1]

<직업의 안정성>

P: 엄마는 너네가 대학교를 가서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기 전에는 엄마는 불안해서라도 계속 일을 할 거라고. 저한테 그래요. 엄마는 그래요. 너네가 결혼할 돈을 벌어두고 일을 그만둬야 하지 않겠냐고. 계속 그렇게 말하거든요. 엄마는 계속 불안한가 봐요. 자기가 혼자니깐 우리가 안정적이고 기만을 잡기 전까지는 자기는 쉬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도 굳이 그렇게 엄마 몸을 혹사시키면서까지 일을 하지 마라. 발일이라도 그만둬라. 엄마가 지금 병원에서 가장 나이가 많대요. 엄마도 지금 그렇게 안정적인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그만두면 또 발일을 해야 되니까...여기 발일에도 매달리고 병원에도 일하고... [C1]

(2) 교육기관의 메시지

① 낮은 성적 : 심리상담가, 수의사 직업을 포기한 것은 내 탓이다.

강은진은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곧잘 하는 모범생이었다. 하지만 고등

학생이 되면서 공부가 갑자기 어려워졌고 성적이 떨어졌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학원이나 과외수업을 받기도 하였으나, 강은진은 끝까지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하며 혼자 공부했다. 성적이 오르지 않았고 중학교 때까지 지니고 있던 심리상담가, 수의사와 같은 직업은 포기하게 되었다. 성적이 떨어지고 목표하는 직업군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강은진은 모두 자기 탓이라고 받아들였다. 자신에 대해 ‘노력을 하지 않았다. 쉬운 길을 걷고 싶었다. 목표가 있어도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지 못한다. 집중력이 낮다.’는 평가를 하였다.

P: 고등학교 때 처음 수학 A반에 들어갔는데 성적순으로 배정...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그 때부터 조금 수포자(수학포기자)의 길로 들어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공부가 중학교 때랑 너무 난이도 차이가 나니까...못 따라갔었어요...그러다보니까 성적도 떨어지고...어쨌든 제 탓이죠.^ [C1]

P: 수의사라는 꿈도 있었거든요. 동물 관련된 꿈 중에 제일 먼저 꿰던 게 그건데...그건 1등급이잖아요. 근데 나는 높아봐야 4등급인데...그 벽이 좀 높게 느껴졌고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조금 포기의 길로 접어든 것 같아요. [C1]

P: 말로만 상담가가 되고 싶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에 대해서 큰 노력을 하진 않았어요. 그 꿈을 오래 꾸고 그 꿈을 하고 싶어서 대학교까지 알아보는 것 까진 했는데 성적을 보고 그냥 포기를 해 버렸어요. 왜 그랬는지는 기억이 안나요. 그때는 그냥 쉬운 길을 걷고 싶었나 봐요. [C1]

P: 예를 들면, 심리상담가 그 일을 제가 성적이 안 된다는 걸 느꼈었잖아요? 그 때 되니까 성적을 올릴 자신이 없고, 그 당시에는 공부도 하기 싫고 그러니까 그냥 그걸 포기해버린 거죠. [C3]

P: 저는 주위 시선도 많이 의식하고, 주변 의견에도 많이 흔들리고... 어떤 목표가 딱 생겨도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해도 막 추진력 있게 밀고나가지 못해요.

P: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악착같이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쉽게 포기하고... 더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C3]

P: 집중력이 한번 딱 하면 해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습관 때문인 것 같아요, 무언가 하나를 지긋이 오랫동안 하려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흥미를 갖고 있어야하는데, 공부에 흥미가 없으니까, 한번 ‘공부해라, 공부해라’ 옆에서 붙잡으면 한 시간 동안은 공부를 열심히 해요. 한 시간이 지나고 한번 어디다 딱 눈 돌리면 집중력이 안 돌아와요. [C3]

## ② 수업, 진로체험과 진로상담은 큰 의미가 없다.

강은진은 학교에서 기억에 남는 수업이나 선생님은 없다고 말했다. 경제수업도 받은 기억이 없다. 또한 학교에서의 진로상담과 진로체험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진로상담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교사가 희망대학과 지망학과를 물어보고 자료를 제공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진행되었다. 학교에서 성격검사, 적성검사와 같은 진로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였으나 진로선택 때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자기 스스로 고민했던 시간과 엄마와의 상호작용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진로체험은 특정 직업과 관련한 행위를 따라하는 방식이었다. 사회복지사 직업체험에서 휠체어 운전법을 배우는 식이었다. 진로강연 강사들은 실제 그 분야에 종사하는 직업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다. 직업선택에 도움이 되는 그 분야의 종사자가 말해주는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 <진로상담>

P: 1차 때는 한번 상담을 해주시고, 애들한테 종이를 주시면 희망대학 있고, 지망학과, 전형 이렇게 표로된 종이를 주세요. 거기다가 제가 일단 학교를 알아봐서 쓴 다음, 쌤한테 ‘선생님 저 선생님이란 상담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선생님이 시간을 짜셔서 상담을 해주신단 말이에요...<중략>...

P: 그냥 간단히 물어보셨어요. ‘왜 하고 싶어?’ 라고 물으시면, 저는 당연히 ‘어떤 점 때문이다. 엄마랑 이야기 나눴는데,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러



면 쌤은 거의 다 ‘아~ 그렇구나.’ 하시면서 순응해주셨어요. 원서를 쓰기 전에 자기들도 마음에 들어야하니까. 그러면 쌤도 그냥 다른 애들도 쌤한테 먼저 가서 ‘선생님 이 학과랑 이 학과 자료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선생님 은 학교별로 등급 나온 자료들 다 뽑아주시고... [C2]

#### <진로검사>

P: 그 때 보기는 중요하게 봤죠. 근데 검사를 1년에 2번씩은 했으니까 여섯 번은 했는데 항상 비슷하게 나오니 성격 파악에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중략>...

P: 아니요. 결국 직업선택 함에 있어서 그런 검사들보다는 그냥 계속 고민하고 엄마랑 함께 얘기하고 이런 게 더 영향을 끼쳤으니까. 만약 어떤 검사를 더 해줬다고 해도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C4]

#### <진로체험>

P: 고등학교 때 직업체험 사회복지사, 응급 구조 이런 거 들었는데, 응급 구조에서는 심폐소생술하고 끝나고, 사회복지에서는 휠체어 운전하는 법 가르쳐주고 끝나고 하니까 그렇게 크게 내 직업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거죠. 정말 만약에 후배들한테 어떤 활동을 해준다면 정말 현실적으로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되는, 그 분야, 업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그냥 강사 분들이 아닌, 간호사라면 병동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직업들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P: 응급구조 체험했다고 했잖아요. 소방서에서 구급대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닌, 그 학과를 나오신 분들이니까 직접적인 현장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없잖아요. 정작 우리가 종사하는 곳은 현장인데.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C4]

### (3) 지역사회와의 메시지

#### ① 도시의 대학병원 : 간호사 직업의 가능성을 보다.

강은진의 엄마가 수술을 하고 서울의 큰 대학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다. 강은진은 일주일 정도 병원에서 지내면서 큰 병원 간호사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기회를 가졌다. 그곳의 간호사들은 힘들어 보이기도 했으나, 헌신적이고, 친절했고, 멋있어 보였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며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간호사는 인내심, 침착함, 성실함, 책임감을 갖추어야 한다. ‘불편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직업이 의미 있다.’ 는 VAS 메시지를 형성한다.

또한 간호사라는 직업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강은진은 간호사가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사실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간호사는 완벽해야 하고,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여겼고, 환자들에게 실수를 하는 것이 두렵고 자신이 없었다. 그런데 대학병원의 경력 있는 간호사들도 계속 실수를 하면서 배워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간호사 직업에 대한 부담감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마음이 움직였던 계기가 되었다.

#### <간호사의 자질>

P: 처음에 우리 엄마가 하는 일?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엄마가 한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거기 제가 간병인으로 따라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간호사 언니들 보니까 되게 헌신적이었어요. 친절하고...<중략>...습관적으로 손세정제로 손세정을 하고 들어오고 엄마한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간병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그걸 하는데 되게 멋있어 보인다고 해야 하나?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되게 힘들겠다. 하고 생각하는 와중에도 되게 굉장히 의미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중략>...

P: 그 언니는 그걸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하는데 그걸 계속 대답해주느라 집에 못가는 거예요. 저는 그 때 그냥 보호자 침대에 커튼 치고 소리만 듣는데 ‘저 일을 하려면은 인내심도 필요하고 침착함도 필요하고 성실함도 있고 책임감도 있어야 하는데 저렇게 해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보호자들이 조금 마음이 편해진다면 되게 의미 있는 일이겠구나... [C1]

#### <간호사의 실수>

P: 엄마랑 의견 충돌이 있을 때였는데 완전 귀를 막고 있을 때였는데...난 주

사 놓고 그런 거 무서워,...난 환자들한테 실수할까봐 그런 거 못해...그랬는데... 거기 있는 언니들도 계속 실수를 해요. ...<중략>...막 진통제 왜 안 갖다 주냐고 언니한테 화를 내는데...그걸 보고도 ‘이렇게 큰 병원에서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들이고 꽤 경력이 있는 간호사들이면서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구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간호사라는 게 완벽해야 한다. 빈틈이 없어야 된다. 이런 줄 알았는데 그냥 저렇게 실수를 하면서 배워가는구나 좀 다른 눈으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조금 친절하고 세심하게 챙겨주는 모습들에 조금 마음이 동했던 것 같아요. [C1]

#### <간호사 직업의 가능성>

P: 그것도 있고 엄마가 아픈 모습 보니까 내가 차라리 보건 계통에서 일을 하면은 엄마가 큰 수술을 받기 전에 먼저 검진도 제대로 받고 그렇게 할 수 있진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C1]

## 2) 진로선택 시기

### (1) 전공 선택의 과정 : 받아들임과 거리두기

#### ① 엄마의 지속적 설득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엄마는 간호사 직업을 권유했고, 강은진을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수능시험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입시원서를 쓸 즈음 엄마와 강은진은 진지한 대화를 나누게 된다. 엄마는 응급실에서 일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보람 있는 일이라는 것을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통해 이야기하였다. 단순히 취업가능성, 안정성 등 현실적인 문제를 이유로 권유한 것이 아니며, 강은진이 중시하는 생명을 아끼는 마음,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은진은 엄마와의 대화 이후 결정적으로 마음이 움직였고, 이전과는 다르게 간호사 직업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느껴졌다.

### <엄마의 설득>

P: 원래 제가 막 원하던 꿈은 아니었어요. 엄마가 원하셨죠...엄마한테 설득을 당했죠. ...<중략>...돈도 많이 못 벌고 취업도 안 되고 하니까 계속 저도 아니까 저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계속 엄마가 간호학과 가라고 설득을 해서 엄마한테 설득 당했죠. 근데 지금은 만족스러워요... [C1]

P: 예를 들면 엄마는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되게 몸은 힘든데 마음은 되게 뿌듯하고...솔직히 응급에 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많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이렇게 해드리면서 속으로 좋은 곳 가시라고 인사도 해드리고 엄마가 저랑 같은 또래 아이들 만나면 되게 따뜻하게 해준대요. ...<중략>...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뿌듯하다고...나는 너가 생명을 되게 아끼는 마음 알아서 동물에 관련된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엄마가 아니까...나는 너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C1]

P: 그것 때문에 어쨌든 결정적으로 마음이 움직였긴 했어요. 엄마의 그 직접 응급실에서 일을 하시면서 겪었던 많은 사람들과의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마음이 움직였어요. ...<중략>...그렇게 구체적으로 딱 들으니까, 내가 이 직업을 내가 생각하던 것과는 많이 다르게 이 직업이 굉장히 의미 있고,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가치 있게. [C2]

R: 반대로 엄마가 간호사 일을 하시지 않으셨다면, 은진이가 이 진로를 선택 했을까?

P: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R: 그러면 무슨 일을 선택했을까?

P: 아무래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것 같아요. [C2]

## ② 받아들임과 거리두기 : 선택의 주체되기

간호사 직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강은진이 간호학과 전공을 선택하게 되기까지는 ‘받아들임’의 과정이 필요했다. 또한 엄마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음을 확인하는 ‘거리두기’의 과정이 있었다. 처음에는 ‘엄마가 원하

셨다, 설득을 당했다’ 고 이야기했으나, 점차 ‘간호사 직업이 가치 있고 소중하게 느껴졌으며 좋아하게 되었다’ 고 이야기했다. 이 중간 과정에서 강은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대상화하고 엄마의 행위가 지닌 의미, 자신의 행위가 지닌 의미를 해석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받아들임과 거리두기’ 의 과정은 수동적인 주체에서 자율적인 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작업이었다. 엄마의 권유와 설득을 의문 없이 수용하는 것과 자신의 행위에 대해 회의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거친 후 수용하는 것은 서로 다른 행위이다. 겉으로는 이 둘의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엄마가 설득하여 간호사 직업을 선택했다.’ 라고 서술하는 것은 현상을 깊이 있게 보여주지 못한다. 엄마가 설득하는 행위와 강은진이 간호사 직업을 선택하는 행위 사이에는 ‘받아들임과 거리두기’ 의 치열한 과정이 존재했다.

첫 번째 단계는 간호사 직업의 장점을 근거로 들어 합리적 선택이라고 인식하는 과정이었다. 직업은 생계유지의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집안 형편상 취업이 잘 되고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어느 지역이나 병원이 있기 때문에 간호사 직업은 다양한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보수도 적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중요시하는 직업 선택의 조건인 ‘성취감’ 과, ‘사회봉사’ 의 요소에도 부합한다.

두 번째 단계는 엄마의 설득 행위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이었다. 강은진은 다른 사람들이 엄마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 인식했다. 다른 사람들은 엄마가 자녀에게 간호사 직업을 선택하도록 ‘주입’ 했고, 엄마가 원하는 진로를 자녀에게 강요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강은진은 다른 사람들이 엄마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싫고,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강은진은 엄마가 간호사 직업을 권유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해석한다. 엄마는 다양한 직업을 가져보았는데, 그 중 간호사 직업에 정착한 데는 그만큼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간호학과를 지원한 학생들 중에는 부모가 보건계통에 종사하는 사례가 많다. 부모가 자신의 직업을 자녀에게 권유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세 번째 단계는 이러한 전공 선택이 최종적으로 엄마의 설득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였음을 표현하는 과정이다. 자신은 엄마와 상의는 하지만 엄

마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는 것은 아니다. 엄마의 의견이 괜찮은 것 같다는 스스로의 판단을 했을 때 따르는 것이다. 엄마의 설득 때문만이 아니라 대학병원에서의 경험을 계기로 간호사 직업이 좋아졌다. 자신의 개인적 특성들을 간호사 직업생활에 적합한 것으로 해석한다.

#### <전공 선택의 근거>

P: 일단 취업이 잘 되니까...그리고 안정적이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가 막 돈 많고 그런 집이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다 시켰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일단 취업을 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제일 취업이 잘 되는 학과하고 지역 어디든 가도 병원은 있으니까... [C1]

P: 내가 생각을 해도 너무 조금 철없게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하고...어떻게 보면 직업이란 게 먹고살고 이런 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내가 너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혼자서 깊게 하면서 선택을 바꿀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뭐... 좀 제가 보수 적은 일을 하더라도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으면서 살아갈 형편이 아니니까 엄마 힘들게 일하시는데 제가 엄마 호강도 시켜드리고 싶은데...그런 직업을 가져서 과연 엄마한테 잘 해드릴 수 있고 나도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C1]

P: 안정적이고 기회도 많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도 넓잖아요. 간호학과라는데 하나를 나오면은 학교랑 연결된 병원으로도 갈 수 있는 거구. 보건 선생님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나갈 수 있대요. 방향도 더 많고 취업도 잘되는 편이고... 보수도... 간호사란 직업이 일단 그 기술을 배워놓으면 보수도 적은 편이 아니래요.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좋더라고요. [C1]

P: 성취감은 어렸을 때부터 중요하게 생각했던 제가 가져왔던 거구...보수나 안정성은 엄마 얘기를 듣고 엄마랑 같이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함께 가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요소로 났으니까...지금은. 웬만하면 3개 다...그래서 제가 간호학과를 선택한 이유도 간호사란 직업이...엄마의 얘기에 따르면 보수나 안정성으로도 괜찮고 그리고 너의 성취감도 따라올

거다. 그래서 간호학과를 선택한 것도 있어요. 그 세 개를 다 챙길 수 있으니까. [C1]

<설득 행위의 긍정적 해석>

P: ‘엄마 나는... 친구들이 애들한테 말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엄마한테 설득을 해서 간호학과에 진학했다, 원래는 이게 되고 싶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엄마를 굉장히 저를... 꼭 쥐고 안 놔주시는 그런 엄마로 보는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이 엄마를 그렇게 보는 게 싫단 말이에요. 엄마니까... 안 그러시거든요, 저를 완전 놓고 키우시거든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중략>...그렇게 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엄마가 계속 안정적인 직업,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저한테 주입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날 활용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친구들도 그렇고. 그게 저는 속상하니까, 우리 엄마 그렇게 안 봐줬으면 좋겠는데... [C3]

P: 그런데 간호학과 지원하는 애들 보면, 엄마 아빠 중 한명은 보건 쪽에 종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건 쪽이 조금...자녀들도 많이 오고 하더라고요. 면접을 보는데, ‘어머니가 간호사셔서, 보건소에서 일하셔서, 어머니가 뭐, 어머니가 뭐~’ ...<중략>...그만큼 그분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내 자식도 이런 걸 시키고 싶다.’ 라고 하실 정도로 많이 장점이 많은 거 아닐까요? 그리고 또 개네도 엄마, 아빠... 아무래도 저처럼 계속 엄마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익숙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야기를 듣는 거니까. [C3]

P: 그 전에 많은 직업을 했었어요. 제약회사 직원도 해보시고, 보험회사 직원도 해보시고, 식당도 운영해보셨고, 정말 많은 직업을 해보셨는데, 결국 정착하게 된 건 간호사 일이잖아요? 엄마는 그만큼의 간호사라는 직업이 메리트가 있고, 자신한테 도움이 되고 좋으니까 그 직업에 정착을 하신 거예요. 이걸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 내가 많이 경험해보고, 내가 정말 좋다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본 거니까 아무래도 더 믿음이 가셨나 봐요. 간호사라는 직업이. [C3]

<선택의 주체되기>

P: 엄마한테 물어봤다고 해도 다 엄마 말을 따르는 건 아니에요. 엄마와 저의 의견충돌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말을 듣고, '이건 엄마가 나보다 더 많이 살아본 사람으로서의 조언이니까, 이 방식이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엄마의 말을 한번 따라 봐요. 그런데 엄마 말을 따르면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건 거의 없더라고요, 신기하게. [C3]

P: 그냥 지금 다 놓고 생각해 보면, 너무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직업을 가져도 먹고 살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모든 걸 다 뛰어넘을 정도로 간호사라는 직업이 더 좋아졌어요, 지금은. [C2]

P: 조금 뭐라고 해야 하지? 글 쓰는 것도 조금 잘하고요, 말도 막...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닌데, 말을 단어 같은걸 조리 있게? 정리를 잘해요. 말이나 글이나. ...<중략>...아무래도 의사소통에서, 같은 질병의 환자의 상태를 전달하더라도, 조금 더 요약적으로 깔끔하게, 정확하게 딱... [C3]

## (2) 대학입시와 간호학과 합격

### ① 간호학과 면접 준비 : 간호사 집단의 가치관 습득

간호학과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은진은 의료법 개정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지위 관련 기사를 접하였다<sup>56)</sup>. 이를 통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지위, 자격조건 등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엄마가 간호조무사였기 때문에 간호조무사 집단의 관점에서 현상을 바라보았다. 간호조무사도 병원에서 간호사가 하는 업무(주사 처치, 치료행위 등)를 할 수 있으며, 2년 동안 전공 관련 이론 공부를 하는 것보다, 오랜

56) 보건복지부는 2015년 의료법 개정을 통한 간호인력 개편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현행 간호 인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구분되는 2단계 형태다. 향후 간호지원사 체도를 도입해 간호사, 1급 간호지원사, 2급 간호지원사 등 3단계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수준, 업무범위에 따라 간호지원사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1급 간호지원사는 복지부장관 '면허' 를, 2급 간호지원사는 복지부장관 '자격' 을 부여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2015).



기간 동안 실무 경험을 쌓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강은진은 관련 법제정을 둘러싼 논쟁문제를 접하면서 간호사 집단이 지지하는 주장과 근거들을 내면화하고 그들의 관점을 취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간호조무사의 지위와 업무범위는 한계가 있어야 하며, 제도적으로 면허증과 자격증의 차이는 보장되어야 하며, 4년 동안의 대학교육이 전문성의 조건임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는 간호사 집단의 규범과 가치관을 습득하는 과정이었다.

####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집단의 차이 인식>

P: 예를 들어 간호사랑 간호조무사에 대한 관계에 대한 법제정이 최근 있었던 말이에요? ...<중략>...저는 간호사랑 간호조무사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중략>...간호조무사는 조금 더 저렴하게 고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엄마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일을 같이 해요. 주사도 놓고, 링거도 꽂고 간단한 진찰도 하고 그러는데, 대학병원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요. 간호조무사는 혈액 샘플 같은 거 갖다 주고, 시트정리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중략>... ‘아니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6년 동안 했다고 해서 주사도 놓고, 차트를 정리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쓴 글들을 보면서, ‘내가 되게 내 관점에서 이 문제를 생각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간호 면허, 4년 동안 고생을 해서 간호 면허증을 딴 사람들 입장에선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C2]

P: 왜냐하면 그래서 더 읽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간호조무사는 그냥 저희 엄마도 그랬듯이 인터넷 강의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기초적인 것만 배우는 건데, 간호사 면허를 따려면 4년 동안 대학에서 아까 그 병리학, 아니면 ‘별에 별 거 다 배워야하는데,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 시간을 보상 받으려면 이건 부당한 대우이다.’ 라는 글들이 되게 많아서, 그냥 이렇게 간호조무사 말고, 온전히 4년 동안 대학에서 고생해서 나온 간호사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변하는 계기가 됐어요. [C2]

<간호사 집단의 가치관 지지>

P: 원서를 넣을 때까지는, '전문대 간호학과만 붙어서 자격증만 따도 괜찮은 거지, 오히려 2년 동안 공부하는 것보다는 경험을 더 많이 하니깐 좋다' 고 생각했었어요.

R: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어?

P: 네. 면접 준비 하면서, '아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격증과 면허증의 차이가 큰 문제구나~' 왜냐하면 대학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는 주사도 못 놓는 그런 처치를 못한다고 하니깐... [C2]

P: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2년 동안 대충 기초를 배운 사람들, 4년 동안 정말 파고파고 또 파서 전문적으로 지식을 쌓게 된 그런 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그냥 어느 것 하나, '이게 더 낫다' 라고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중략>...이왕이면 전문적인 간호사가 되고 싶죠. [C2]

## ② 간호학과 합격 : 간호사 직업은 특별하고, 나는 자격이 있다.

강은진은 간호학과에 합격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학입시 전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엄마의 정보와 조언도 큰 도움이 되었다. 성적이 낮은 강은진은 내신점수나 수능점수보다 면접점수의 비중이 높은 타 지역의 지방대학에 지원하였다. 간호조무사 엄마의 직업생활을 지켜보아 왔던 강은진은 면접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

<면접시험과 엄마의 조언>

R: 면접 전형이란 게 뭐야?

P: 학생부 전형이 수시중에 애들이 생활기록부나 성적 보고 뽑는 데는 면접을 봐도 비중이 적어요. 10% 정도? 면접 전형이면 비중이 40%로 늘어나요.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붙을 수가 있어요. 면접 잘 보면은.

R: 면접을 잘 본거야?

P: 조금 잘 본 케이스예요^^(쓱스러워하며). [C1]

P: 엄마한테 면접 볼 때도, 예상 질문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간호사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엄마가 ‘칭결’ 이라고... 대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손 칭결이나 이런 거래요. 간호학과 그게... 그래서 그런 것도 도움이 됐고. [C3]

간호학과에 합격한 이후 강은진은 대학 진학과 간호사 직업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강은진에게 대학은 간호사 직업을 얻기 위해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받고,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한 기관이다. 간호사는 충분한 교육이 필요한 직업이고, 대학 진학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4년 동안의 대학 교육 이후에는 능력과 태도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4년제 간호학과 졸업생이 간호사가 된다는 것은 ‘그냥 직장을 얻는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고 VAS 메시지를 형성한다.

P: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제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간호사라는 직업을 딱 정하고, 대학교도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학까지 붙게 되고, 간호사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나니까, 어쩌면 간호사라는 하나의 딱 집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파니까, 이렇게 좋아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 사람들 속에서 그냥, 이 사람은 어쩔다, 이 사람은 어쩔다 보면,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고 마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 놓고 계속 이 사람의 좋은 점만 보려고 하고 그러다보면 점점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C2]

<대학의 의미>

P: 솔직히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간호사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대학 진학이 중요하죠. 이것은 좀...어떤 장래희망을 갖고, 어떤 직업을 가지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애들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것 같아요, 대학 진학이라는 것은.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먼저 경험을 쌓아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애들한테는 대학 진학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닐 텐데, 일단 충분한 교육이 필요한 학과 같은 경우는 대학 진학이 아주 중요한 거죠. [C2]

P: 아무래도 4년 동안 제가 열심히 배워서 더 많은 지식이 있으면, 그만큼 또 저에게 치료를 받는 환자들도 편할 테고, 그 직업에 대해서 갖는 마인드도 달라질 것 같아요. ...<중략>...예를 들면, 2년 동안 자격증을 따서 병원에 취업을 하려고 과정을 이수하고 딱 나온다면, 그냥 직장을 얻는다는 기분일 텐데, 4년 동안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더 전문적인 걸 갖춰서 4년 동안 노력했던 경험들을 갖고서 취업이 되고, 환자들을 돌보게 된다면 그냥 내가 고생했던 시간만큼이나 마음가짐의 무게도 달라질 것 같아요. ...<중략>... 조금 더 책임감이 있어지고, 내가 지내온 시간에 대한...무엇이라고 해야 하지? 어...시간에 대한...책임감. [C2]

강은진은 간호사 직업과 대학 진학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동시에, 자신이 그러한 자격이 있음을 이야기했다. 특히 수능시험에서 성적은 낮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음, 야간 자율학습에 마지막까지 참여함, 끈기 있고 노력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의사나 간호사 직업은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직업이며, 이러한 전공 선택에 있어서 수능시험 최저등급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면접점수의 비중이 40%인 면접전형을 통해 합격하였으나, 수능 최저등급 학력 기준을 충족한 자신은 그냥 면접만 잘 본 아이들, 수준이 안 갖춰진 아이들, 끈기 없는 아이들과는 다르다고 자기를 해석했다.

#### <수능시험의 의미>

P: 정말 끈덕지게 붙어 있는 애들이 그만큼의 결과를 받게 되는 게 수능이라고 생각해요. ...<중략>...그냥 계속 끈덕지게 야자 계속 나가고, 솔직히 야자 5명이었어요, 마지막 때. 그래도 마지막 야자까지 계속 남아있고, 끝까지 준비했어요, 수능도. 굉장히 ‘아 나는 여유롭게 맞출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안 될 것 같아서...불안하니까 계속 끈덕지게 붙잡고 있었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된 거잖아요? 어쨌든 수능이라는 제도가 결국에는 끝까지 노력하는 애들한테, 그만큼의 결과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C3]

P: 네. 또 중요한 직업을 준비하는 학과일수록, 최저등급이 꼭 있어요. 의사나, 간호사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직업. 돈을 많이 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는 최저가 왜 있냐면,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일이니까, 전문적이어야 하니까, 최저가 꼭 있는데, ...<중략>...최저까지 없으면, 애들은 그냥 면접보고 들어가는 거고. 정말 제대로 수준이 안 갖춰져 있고, 끈기 없는 애들 올라가면 안 되는 거니까. [C3]

### (3) 사회적 지지: 간호조무사 엄마는 풍부한 사회자본

사회인지적 진로이론의 관점에서 강은진의 진로선택 과정을 살펴보면, 진로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풍부한 사회적 자원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회인지적 진로이론에서 직업 선택은 직업에 대한 흥미, 목표설정, 직업교육기관으로의 진입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유의미한 요인은 개인의 능력에 대한 인지적 요소와 환경에 대한 인식이다. 강은진은 낮은 성적, 한 부모 가정, 저소득가정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엄마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간호사 직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아졌다. 학교 교과 성적이 낮은 강은진은 처음에는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자신의 능력을 낮게 평가했다. 자신은 집중력이 낮고, 쉽게 포기하며, 노력을 하지 않으며, 목표를 이루기 위한 추진력이 약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은진은 자신을 ‘끝까지 노력한 사람, 끈기 있는 사람, 간호사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재평가하고 있다.

둘째,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자원을 지니고 있었다. 우선 가정에서 엄마와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였고, 부모-자녀 간 신뢰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신뢰는 Coleman(1988)이 주장하는 사회 자본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청소년에게 가족의 사회적 자본은 부모-자녀 관계, 학습 및 성장을 위한 부모의 노력, 시간, 관심, 개입 등의 총체를 말한다. 한 부모 가정이라는 환경 맥락이 부정적인 의미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강은진의

경우 한 부모인 엄마는 세상에 하나뿐인 유일한 존재이며, 이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 <엄마-자녀 간 신뢰>

P: 모든 걸 공유하게 되어있고, 엄마가 그냥 더 소중해요... 왜냐하면 단 한명 이니까, 한명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P: 왜냐하면 굉장히...소중한 물건이 두 개가 있어요, 같은 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애가 두 개가 있을 때는 두 개를 좋아하고, 만약 하나를 잃어버려도 하나가 남아있으니까 그나마 위안을 얻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애를 정말 아끼는 거예요. 애가 애까지 잃어버리면 저는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P: 또 엄마가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 엄마가 티를 안 내는 거지 굉장히 많이 알아보시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평소에 얘기를 안 하시는 거거든요. 거의 엄마 말 듣다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C3]

또한 간호조무사인 엄마는 간호사 직업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을 지니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아빠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외갓집 식구들의 지원이 있었다. 친척들은 물질적·심리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었다. Bourdieu(1986)에 따르면 특정 행위자가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크기는 자신이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규모와 그 연결망에 포함된 각 개인들이 소유한 자본의 크기에 달려있다 즉, 사회적 자본이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자원을 얻기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동원할 수 있는 직간접적 인맥의 총합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은 가정 외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양한 네트워크>

P: 엄마랑 어쨌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막막해서 정말 혼자 헤쳐 나가는 기분이 들고, 혼자 해결해 나가야하는 기분이 들고 막막할 때, 아무도 옆에서 조언을 해주지 않는 것보다는 일단 나는 엄마랑 같은 일을 하는 거니까, 엄마한테서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C3]

P: 엄마랑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저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신다고 해요. ‘레포트 같은 것도 쓸 때, 자료 부족하면 이야기하라’고... ‘언니 대학 다닐 때, 쓰던 거 아직 안 삭제하고 그대로 갖고 있으니깐...’ 이런 면에서도...어쩌면 엄마랑 같은 직업에 종사하면 얻는 게 되게 많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언도 그렇고 자료도 그렇고... [C3]

P: 이모 세 분에 삼촌 한 분인데 거의 넷째 이모랑 막내 이모가 도움을 많이 주세요. 넷째 이모는 지금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세요. 선생님이로서도 그렇고 그냥 이모로서도 엄마의 동생으로서도 그렇고 저나 사촌언니들이나 오빠한테도 굉장히 평소에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 ...<중략>...이모랑 삼촌이 저랑 오빠를 굉장히 데리고 다녔어요. 많이 봐주시고. 유치원 때도 그렇고...놀이공원 같은데도 엄마랑 간 기억은 없는데 이모들이 다 데리고 다니셨어요. ...<중략>...막내이모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모부랑 데이트할 때 사촌언니랑 저랑 데리고 박물관 놀러가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다 편하고...대전에 살아요. 자주 오시고...되게 많이 봐요. [C1]

P: 둘째 이모가 치위생사였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많이 듣고... 엄마도 제가 조그만 걸 잘 만든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너는 조그만 거 잘 만지고, 시력도 좋으니까 아마 치위생학과가 더 나은 것 같다.’고 말을 해서, 치위생학과에 넣었거든요. 아마도 그게 영향이 있던 것 같고. 간호학과도 손재주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C2]

P: 처음에 ○○대학교 붙었을 때, 전화를 주신 거예요. 이모가 너무 기쁘다고 하시면서, 예치금이 얼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때 제가 0 하나를 잘못 봐서, ‘20만원인가 200만원일까 그럴걸?’라고 그랬어요. 그 때 이모가 ‘이모가 200만원 모아놨다고, 200만원 통장에 부쳐주겠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이모가 200만원을 부쳐 주냐고...’ [C3]

### 3) 고등학교 졸업 후

#### (1) 간호사 직업정체성의 형성

##### ① 간호사 집단에의 소속감

강은진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점차 간호사 집단에 소속감을 형성해 갔다. 인터넷 기사를 통해 접한 의료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서 공감을 하고, 간호사 직업이 결정되었다고 생각했으며, 간호사의 미래 직업생활을 상상한다. 대학 입학 이후에는 소속감을 더욱 강하게 느낀다.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으로 환자들을 웃게 해 줄 수 있는 간호사가 될 수 있고, 의료인인 간호사는 위계질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간호학과 동기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직업목표 달성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간호사 관련 뉴스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엄마의 직업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며, 간호사 직업을 위한 맞춤교육, 완벽한 직업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대학 진학 직전>

P: 메르스를 겪으면서 의료진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는 것에 대한 기사를 봤어요. ...<중략>...그 분들이 그 일을, 그 직업을 갖고 그 환자를 돌보면서 그 분들의 가족들까지도 주변사람들에 의해 배척을 당했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같은 병원에 있어도 메르스 환자들이 몇 명이 있는지 안 알려 준대요. 그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병원 내에서도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스트레스가 있고. 그렇다보니까 메르스가 다 지나간 지금에도, 메르스를 겪은 의료진들은 정신적인 피해가 남아있대요. 그걸 보면서, '이런 것까지 감수하면서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마음가짐일까?' 라는 생각을 깊게 해보면서, 뭔가 마음이... 막... 공감도 됐고 막 벅찼어요.

R: 그 전에 기사를 봤으면 어땠을까? 간호사라는 직업을 결정하기 전에...

P: 간호사를 결정하기 전에는 그 기사를 볼 생각도 안 했었고, 만약 봤더라도



‘그냥 대단하다~’ 라고 끝냈을 일이었는데, 그 기사를 막상 보고 ‘내가 나중에 그런 일을 겪게 될 수도 있다.’ 고 생각하니까, 그냥 뭔가 마음이... [C2]

P: 기준이 늘어났다는 건 제가 간호사라는 직업을 딱 확정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간호사란 직업 안에서 계속 이 직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알아보고, 뭔가 더 느끼고 하다보니까 가치관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C2]

P: 간호사가 된 건 아닌데, 종종 제가 간호사가 되었을 때의 상상을 하곤 해요. 환자들한테... 조그맣게 라도 친절하게 대하고 싶고, 그냥 되게 뭐라고 해야 하지? 조금... 바쁘게 움직이는 간호사가 제가 상상했을 때의 제 모습 이에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고 싶나 봐요. 그냥 내 마음이 움직여서 더 바쁘게 움직이고, 더 많이 생각하고 그런 간호사가 되고 싶나 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많이 상상해요. [C3]

R: 그래도 간호사라는 직업에 소속감을 느껴? 집단에?

P: 네. 일단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소속감이라기보다는 빨리 소속되고 싶은 마음이지요. 아직 몸으로 느껴지는 틀이 없으니까...대학에 들어가서 같이 몸 부대끼면서 공부하고, 실습하고 이러다보면, 대학 들어가자마자 바로 들 것 같아요. [C3]

<대학 진학 직후>

P: 처음에는 간호사랑 맞지 않다고 해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도 그런 거거든요. 진득하지 않고 꼼꼼하지 않고. 그런데 맞춰서 얘기 해주시니까, 내 방식대로 잘 하면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간호사로서 해야 할 업무는 내 성격에 맞지 않더라도 잘 해야 하는 거고, 난 내 방식대로 환자분들 웃게 해드리고 이런 간호사가 되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C4]

P: 그런데 이 직업을 갖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런데 또...사람을 대하는 직업인데, 그만큼 위계질서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의사들도 위계질서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거의...쓸데없이 술 먹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환자를 위해서고, 자신들의 커리어를 위해서라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의사는...간호사도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C4]

P: 간호학과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실습도 가고, 국가고시도 준비해야 하고. 간호학과 안에 들어가니까 그 동안의 고민이 저 혼자 것이었는데 동기 73명이 같은 상황이고 지지고 묶고 같이 올라갈 생각하니 덜 외롭겠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C4]

P: (간호사 집단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관련된 뉴스라든지, 일이라든지 그런 게 들리면 귀가 기본적으로 열리고 내 일 같고. 저것도 내가 곧 겪을 일이지 이런 생각이 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간호사들 보면 괜히 저기 안에 들어간 것 같고, 실습가면 더 느껴질 것 같아요. ...<중략>...심지어 가운데 입고 다니시고 손톱정리하고 다니고 하니까 와, 되게 진짜 간호사 같다.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그 전에 보면 간호대 학생이니까 당연한 거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나도 저거 하겠지 그런 생각하고 엄마의 얘기를 들어도 남의 얘기 같았는데 지금은 뭐라도 하나 더 배우려고 하고 소속감이 어디서 느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남의 일 같지는 않아요. 확실히. [C4]

P: 왜냐하면 간호학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직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중략>...이론도 배우고 실습 하는 것도 보고 하니 정말 딱 고등학교 때는 여러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라면,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는 거라면 대학은 딱 이 직업, 직업만을 위한 교육을 받는 거니까 맞춤형 교육 받는 기분? ...<중략>...간호사가 될 것이라는 의지가 더 커지고 다짐을 계속 다지게 되는 것 같아요. 수업도 더 열심히 듣고 정말 완벽한 그 직업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이제 비로소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C4]

## ② 어렵고 복잡해진 직업의 의미

대학에서 직업교육을 경험하며 간호사 직업에 대한 의미가 복잡해지고 구체화되었다. 이전에 중시했던 직업의 가치인 사회봉사의 의미는 약화되고, 직업의 조건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보수, 작업 환경 및 복지혜택, 일터의 규모 등이 중요해졌다. 또한 이전에 고려하지 못한 일터 내 인간관계와 같은 요건들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강은진은 ‘직업이 보다 어려워졌다.’고 말한다.

P: 음, 직업은 뭔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상하관계가 생기고. 예전에는 뭔가 봉사하는 것, 꿈을 이루는 것 이런 생각이 강했다면 지금 현재로는 꿈을 이루는 것도 큰데 안정적인 돈 버는 것. ...<중략>... 일단 간호학과 들어왔으니까 꿈은 어느 정도 이룬 것 같아요 벌써. 간호학과 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일단 간호사가 된다는 것은 꿈은 이룬거네? 이런 생각이 들고 예전에는 진학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고 찾아보게 됐는데 지금은 취업 관련 그런 게 오고 병원은 특히나 등급이라고 해야 하나 큰 병원, 작은 병원 딱딱 나눠지다 보니까 내가 어느 병원 가느냐에 따라 나에게 오는 복지도 다르고, 내가 버는 돈도 다르고, 내가 하게 되는 경험도 다르고 이 생각을 하니깐 자연스럽게 꿈을 이룬다, 다른 사람 위해 봉사한다. 이런 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C4]

P: 고등학교 때는 환자들 낮게 해주고 내가 뿌듯하고 이게 장점인데 막상 직업으로 들어오니까 물질적인 장점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정성 빼고는 물질적인 장점은 없는 것 같아요. 고작 1학년이니까 이 생각이 큰 것 같아요. 되게 어려워졌어요. 직업이라는 게...<중략>...예전에 고등학교 때 중시했던 성취감, 봉사하는 것,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서 현실적인 보수라든가 나에게 병원이 해줄 수 있는 복지 이런 것들이 섞이고 있어요. [C4]

## (2) 경제생활의 시작 : 본격적 소비행위의 시작

강은진은 대학 진학 이후 비로소 경제생활을 시작했다고 이야기한다. 고등학교 때까지 강은진은 소비를 거의 하지 않았다. 용돈을 받지 않았으며, 받아도 쓰지 않았고, 은행에 가본 적도 없었다. 카드를 쓰는 것은 어색하고 무서웠다. 대학에 진학하여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강은진은 한 달에 일정액의 용돈을 받고 그 범위 내에서 생활을 한다. 본격적으로 소비를 경험하고 경제주체로서 행위를 하기 시작했다. 소득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위를 한다는 것은 돈을 쓴다는 것’의 의미

를 지님을 알았다. 동시에 경제적 압박과 불안감을 느낀다. 국가장학금을 못 받게 되거나 기숙사에 못 들어가게 된다면 자신이 겪게 될 경제적 어려움이 두렵고 불안하다.

#### <대학 진학 이전>

P: 평소 금산에 있을 때는 그냥 거의 그렇게 돈을 써가지고, 너무 안 받아간 다 싶으면 엄마가 그냥 식탁에 돈을 놔주세요. 거의 엄마한테는 돈을 달라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냥 못하겠더라고요. ...<중략>...그 전 엄마가 카드를 준다고 했었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카드, 은행 업무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카드도 쓰다 버릇들은 사람만 잘 쓰는 거잖아요? 이걸 처음 쓰려고 하면 어색하고 무서워요, 카드라는 걸 안 쓰다 보니까... 엄마가 카드를 줘도 7월 달에 줬는데, 10월 달까지 그냥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한 번도 안 쓰고...지갑에 넣고 다니다가, 한번 컵라면이 먹고 싶어서 편의점에서 딱 한번 그 때 써봤어요. [C2]

P: 아니요. 그냥 소비에 대한 경험이, 소비를 애들이랑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거나, 놀러가거나, 영화 보러가거나 이런 때는 많이 쓰는데, 옷 같은 걸 사거나, 내 용품을 사거나 이런 것은 엄마랑도 잘 안가고, 친구들이랑도 잘 안가고 그냥 그런 것 자체를 잘 안사요 또래 애들보다. [C2]

#### <대학 진학 이후>

P: 옷도 사야하고 화장품도 사야하고 모임도 있고 그러다보니 굉장히 제가 다 관리를 해야 하더라고요. 뭐가 필요하고 이게 얼마고 다 사기에는 돈이 부족하고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 것만 사고 그러다보니 뭔가 내가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다 이런 건 있는데 사면서 손이 떨리는 거죠. 날짜마다 용돈을 받으려면 며칠이 남았는데 지금 얼마가 남았구나. 틈틈이 어플에 들어가서 계좌 조회해서 체크하게 돼요. 또 카드를 쓰다 보니 카드가 진짜 무섭더라고요. 현금은 쓰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체감이 되는데 카드는 기숙사 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게 왜 이러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야 내가 경제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중략>...지금은 엄마가 돈을 주지만 막상 내가 직업을 얻어서 내가 진짜 다 벌어서 생활비, 문화비 이런 거 내가 다 할 생각을 하면 막막한데 진짜 한 편으로는 돈이 진짜 많이 버는 게 좋기도 하구나 생각이 들긴 해요. [C4]

P: 엄마 용돈 받을 때는 못 느꼈는데 30만원을 제가 그 안에서 쓰다 보니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동안은 돈이라는 게 제 인생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주면 쓰는 거, 아낄수록 좋은 거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생각이. 막 복잡해요. [C4]

P: 그런데 대학 들어오니 내가 학점이 떨어졌을 때 생각을 하면 국가 장학금을 못 받고, 기숙사도 못 들어가고 취업도 안 되고, 이건 뭐 거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길인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시험 성적이 조금 안 나와도 다음에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대학원서 낼 때 후회해도 대학 갈 곳은 있구나. 안도감이 들었는데, 대학 오니 저희 집 돈도 없는데 학점 떨어져서 국장(국가장학금) 못 받으면 되게 막막한 거예요. [C4]

## 4. 김민서의 이야기

### 1) 아동기~학창시절

<표 13> 사회화 원천-김민서 상호작용과 VAS 메시지

사회화 원천	경험	VAS 메시지
가족 구성원	부모님의 이혼	아빠는 ‘원래 없는 존재’ 이다.
	엄마의 직업생활	부정적이고 관심이 없다.
교육기관	학교	학교는 해주는 게 없다.
	학원	신분상승을 하려면 의사가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금산의 의미	금산은 나와 수준이 안 맞는 곳이다.
아르바이트	소시지 공장	머리 쓰는 일을 하고 싶다.
인터넷	정보수집	인터넷은 세상과 통하는 유일한 통로이다.
	직업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랏일은 안 한다. 나만 잘 살면 된다.</li> <li>• 사회봉사적인 직업은 선호하지 않는다.</li> <li>• 정당한 보상이 중요하다.</li> </ul>
	세상 엿보기	잘 사는 사람들의 삶을 갈망한다.

#### (1) 가족구성원의 메시지

##### ① 부모님의 이혼 : 아빠는 ‘원래 없는 존재’ 이다.

김민서가 4살 때부터 부모님은 서울과 금산에서 별거생활을 했다. 아버지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다녔다. 김민서는 그 때의 아빠를 돈도 많이 버는 안정된 직장인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사가 부도나고 아버지는 직업을 잃었다. 이후 여러 번 사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아동기 때는 3개월에 한 번씩 서울에 가기도 하였으나 차차 아버지와 왕래가 없어졌고 지금은 연락을 하지 않는다. 김민서는 아버지와 함께 한 기억이 없으며, 아버지는 부모 역할을 한 적이 없고, ‘원래 없는 존재’ 라고 말했다. 김민서는 18세 때 한 부모 가정의 지원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여 어머니에게 법적으로 이혼하기를 권하였다.

P: 아니요, 아빠랑은 4살까지밖에 안 살았어요. ...<중략>...이혼은 제가 18살 때 이혼하셨어요. ...<중략>...사업이 망하고, 집이 기울어졌는데...엄마는 계속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아빠가 그때부터 막 거짓말 많이 하고, 되게 믿음을 많이 못줬어요. 그래서 저랑 동생한테도 아빠가 지금 신용을 많이 잃었고, 엄마도 지치고 질렸나 봐요 그런 생활 하는 게. 그래서 제가 먼저 ‘이혼 하는 게 더 낫지 않아?’ 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한 부모 가정이라고 해서 지원받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혼할거면 빨리 이혼해서 지원도 많이 받자고 했더니... [E1]

P: 아빠는 좀 귀찮아요. ...<중략>...연락 안했으면 좋겠는데...오늘 아침에도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거든요. 짜증나서 그냥 꺼버렸어요, 핸드폰.

R: 왜 연락 안했으면 좋겠어?

P: 귀찮아요. 사실 저는 아빠의 사랑? 그런 거 받아본 적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없는 존재인데, 계속 연락하면 짜증나요.

R: 없는 존재야 아빠는? 네 인생에서 어떠한 역할도 한 적이 없어?

P: 그렇죠. 그냥...없었어요. 역할한 적 없었어요. [E2]

## ② 엄마의 직업생활 : 부정적이고 관심이 없다.

김민서는 엄마의 직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현한다. 김민서는 엄마의 직업을 ‘재미없고, 힘든 일, 중요하지 않은 일’ 이라고 여긴다. 엄마는 아버지와 별거 이후 고향인 금산에 내려왔고, 김민서가 중학생 때부터 직업생활을 시작하였다. 엄마는 사이버대학 강좌를 통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어린이집에서 일한다. 김민서는 엄마가 자격증을 ‘쉽게’ 땀

고, 어린이집에서 ‘자잘 자잘한 업무’ 를 한다고 말했다. 엄마의 일터에 가본 적도 있으나 아이들이 싫어서 원장실에 들어가 컴퓨터만 했다. 김민서는 엄마의 직업생활에 대해 안정적이고 나쁘지는 않지만 ‘재미가 없는 삶’ 이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다.

김민서는 엄마의 직업생활에 대해 관심이 없다. 엄마가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아이들이 귀엽다며 사진을 보여줄 때도 있지만 호응을 하지 않는다. 김민서는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귀찮고 힘든 일’ 이라고 생각한다.

직업과 관련하여 엄마와 대화를 자주 하지 않으며, 진로에 관하여 엄마의 영향을 강하게 받지 않는다.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혼자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여긴다. 엄마의 노후를 보장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지 않고, 엄마가 앞으로 10년은 더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나 부담감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다.

P: 그런데.. 이게 말이 유치원 선생님이지 약간 보육교사?란 말이에요. 이게 엄마 하는 것 보니까 의외로 쉽게 따더라고요. 네 그냥. 사이버대학교였나? 그런 거 4년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되게 금방 따신 것 같은데 기억이 안나요. ...<중략>...유치원에서 회계일 이었나? 짜잘 짜잘한 업무를 하시면서, 보육교사를 따셨어요. [E1]

P: 그래서 엄마 직업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재미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아서...그냥 맨날 어린이집 가서 애기들... 힘들잖아요? 그런 걸 돌봐야하고. 그래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제가 애기들을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아마 엄마가 애기를 돌봐서 재미없다고 생각했나? 그건 모르겠어요. [E1]

P: 네 관심 없어요.

R: 엄마가 별로 이야기를 안 하셔?

P: 그건 또 아닌데, 그냥 제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진짜 그런 쪽으로는 관심이 없어서...



R: 가서 본적도 없고?

P: 본적은 있는데, 제가 애기들 진짜 싫어서, 엄마 일하는데 말고 다른 데에서 컴퓨터 했어요. 원장실 들어가서 컴퓨터 했어요. [E1]

## (2) 교육기관의 메시지

### ① 학교에서의 경험 : 학교는 해주는 게 없다.

김민서는 학교에서 재미없게 살았다. 학교에서는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계속 공부만 했다. ‘필요 있는’ 교과 시간에는 수업을 듣고, 주로 받아적는 활동을 했다. ‘필요 없는’ 교과 시간에는 혼자 책을 읽고, 다른 과목의 공부를 했다. 동아리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김민서는 고등학교가 중요하지 않았으며, 학교에 있는 시간이 아깝고, 자신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말했다. 고등학교는 의무니까 가는 곳, 졸업장을 받기 위해 가는 곳이었다. 김민서에게 고등학교는 대입을 준비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자퇴를 하고 학원을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보는 것이 대입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진로교육과 관련하여서도 학교에서 해 준 것이 없다. 학교의 진로시간에는 MBTI 검사를 했고, 진로상담 시간에는 담임교사와 성적과 입시 준비 계획에 관련된 질문을 짧게 주고받았을 뿐이다. 대학탐방과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으나 김민서가 관심 있는 분야와 주제는 없었다. 김민서에게 학교에서 해주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진로상담은 상담이 아니었다, 직업체험은 쓸데없는 것이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평가했다.

#### <고등학교 생활>

P: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학교에서 되게 재미없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이 있으면 공부하고, 인강(인터넷강의) 보고 시험기간 되면, 학교에서도 집에서 계속 공부하다보니까, 애들도 친한 애들이랑만 말 하고 그렇게만 놀

았지, 동아리도 딱히...동아리 활동을 했긴 했는데, 그걸 관심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재미있어 보여서 아무거나 들은 거라서...적극적으로 안 했어요. [E1]

P: 수업중간에 애들이랑 장난도 치고. 필요 없는 수업은...한문이나 음악 같은 거는 저 혼자 책 읽고 다른 공부하고, 점심시간 되면 애들이랑 밥 먹고... <중략>...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학교 수업 시간 거의 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게 내신이잖아요? 국어, 수학, 영어? 수학은 재미있어서 들었고, 국어, 영어, 사회? 사회과목 과학과목은 들었던 거 같아요. [E1]

P: 의무니까 가는 거지...처음에는 시간 아깝고 그래서 자퇴할 생각도 한 적 있어요. 그 고 1 끝나고 저울방학인가? 저울방학 때쯤에 자퇴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보고, 재수학원 같은 데를 들어가서 대학 더 잘 가고...그러기도 하고. 또 시골학교다보니까 수준도 되게 떨어지고 그래서, 자퇴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R: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학교를 다닌 건 왜 다닌 거야?

P: 아무래도...제가 졸업을 안 하고 졸업장을 못 받는 게 엄마는 별로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E2]

#### <진로상담과 진로체험>

R: ‘아 그래도 학교에서 나한테 뭔가 의미 있는 걸 제공해줬구나.’ 라는 경험이나 체험이 있었어?

P: (침묵). 아니요.

R: 그런 건 하나도 없었어?

P: 학교에서 해주는 거 자체도 없었는데 그런 직업적으로는 몇 개 있었긴 했는데, 그게 딱히 저한테 도움이 되거나 좋았던 경험은 아니었어요. [E2]

P: 그런데 저희 학교에서는 진로시간이 있긴 했는데, 그런데서 MBI 검사?(MBTI 검사) 이런 검사만 몇 번 했지, 학교에서 해주는 건 솔직히 없었어요, 진로에 대해서는.

R: 진로와 관련된 상담은 했을 거 아니야, 고 3때?

P: 상담...저희는 상담을 한 게 아니라, 성적에 맞춰서 ‘대학교하고 과 어디 가고 싶냐고’ 그런 것만 했지. 진로상담은... [E2]

P: 학기 초에는 한 10분 정도 했는데, 제가 막 선생님이 꼽이 뭐냐고 그런 ‘란’ 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의사랑 한의사 썼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저한테 수시 안 쓸 거냐고 했을 때, 저는 학기 초에는 모의고사가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 한의대 같은데 갈 수 있겠다 싶어서 수시 안 쓴다고 선생님한테 하니깐, 선생님이 고개만 끄덕이고 알겠다고 하고, 저는 다시 야자 하러가고 그게 끝이었어요. [E2]

P: 대학탐방...대학탐방? 아 그거 대학탐방이 이런 거였어요. 무슨 무슨 대학교 의대 보는 거랑, PD? PD체험? PD 그런 과 가서 하는 건데, 진짜... 그런데 그것도 4개인가 5개? 되게 조금만 보는 거여서, 관심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어가지고, 그냥 ‘의사’ 있는 쪽으로만 가봤지, 나머지는 기억도 안나요. 그게 뭐였는지, 정말 쓸데없는 그런 거여서...<중략>...아. 그리고 학교에서 직업체험 같은 것도 했는데, 그것도 애들이 하고 싶은 거 다 수결로 하다보니까, 하고 싶은 건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E2]

## ② 학원에서의 경험 : 신분상승을 하려면 의사가 되어야 한다.

김민서는 인생에서 대전에 있는 학원을 가게 된 것이 가장 잘 한 일이었다고 이야기했다. 학원에서 ‘대전 애들’ 을 만나게 된 것은 김민서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대전 애들’ 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지켜보게 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우선 진로 및 직업포부가 다르다. ‘금산 애들’ 은 근처 도시의 국립대학 진학을 최고 목표로 삼으나, ‘대전 애들’ 은 전국적인 규모로 생각한다. 그리고 경제생활의 수준이 다르다. ‘대전 애들’ 은 부모님의 카드를 거리낌 없이 쓰고, 자신의 욕구대로 소비를 하고, 취미와 여가생활을 즐긴다. 김민서는 그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허탈감을 느꼈다. 자신은 ‘금산 애들’ 에 속해있으나, ‘대전 애들’ 에 속하고 싶다.

김민서는 학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멘토 선생님)을 보면서 의대에 가고 싶다는 직업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멘토 선생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신이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길은 의사, 변호사가 되거나 명문대에 가서 대기업에 취직하는 길밖에 없다는 VAS 메시지를 형성한다.

<대전 애들>

P: 거기는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다가, ‘어디 가고 싶어?’ 이러면 애들이, ‘서강대, 연세대, SKY’ 이렇게 가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저희 지역에서는 총대만 가도 되게 잘 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물 안 개구리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학교에서는 공부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거기서는 한 번도 못하면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지, 잘한다는 소리도 못 들었고... 되게... [E1]

P: 거기 애들은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잘 사는 거예요. 엄마 카드 그냥 긁고, 저는 미안해서 좀 싼 거 먹고 그런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개네들은 카드도 딱 들고, ‘오늘 뭐 먹고 싶어, 거기 갈래?’ 하면서 다 긁고 오는 거예요. 자기 사고 싶은 것도 뜬금없이 갑자기 ‘저거 예쁘다’ 하면서 사고. 그래서 개네랑 더 놀고 싶어도 그런 금전적인 것 때문에 못 논 적도 되게 많고...<중략>...경제적인 삶도 그렇고, 애들이 잘사니까 저랑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금산에서 재수하면 ‘완전 못된 것’ 이고, ‘죄를 지은 것’ 인 줄 알았는데, 대전에서는 재수한다고 하면 ‘아~ 재수하네.’ 완전 평범하게 생각하니까, 주위의 혼한 일이고...그런 생각들도 다르고, 애들이 여행도 많이 갔다 오니까 부럽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E1]

P: 실제로는 여기 금산 애들한테 속해있긴 하는데, 제 ‘이상’ 은 그거죠. [E1]

P: 금산에선 없었는데, 대전애들이랑 놀다보니까 ‘다르다’ 라는 것보다는 허탈감을 느끼는 거죠. ...<중략>...진짜 취미도 아예 다른 부류인 거예요. 저는 그냥 취미라고 하면 ‘아이돌 노래 가수 듣거나, 게임하는 정도’ 인데, 제가 노래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이상한 외국사람 이름 대면서, 자기는 이 노래 좋아한다고 하면서 들어봤냐고 묻는데, 저는 처음 듣는 사람이고 아예 노래도 개는 클래식 같은 거 듣는데 저는 완전 취향도 다르고. 운동하는 것도 테니

스한다고 그러고, 해외여행 가왔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가본 적 없거든요. 진짜...이게 ‘같은 나이인데도’ 흔히 금수저, 흙수저 그러잖아요, ‘금수저는 아예 그런 차원 자체가 다르구나...’ 좀 약간 허탈감을 느꼈죠. [E2]

<계층의식과 신분상승>

R: 그러면 구체적인 꿈이랑 공부랑 연관 지은 것은 언제부터야?

P: 그 학원 다닌 후부터요.

R: 고 3 초부터 내 꿈을 생각하기 시작했구나?

P: 그 전에는 생각 안 했어요. ...<중략>...네. 거길 갔는데, 대학생 멘토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때까지만 해도, 가게 되면 총대나 가야지. 경영학과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다니봤는데 애들도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고, 한명은 이대 의예과가 문과도 몇 명 뽑거든요? 거기 문과에서 가고 싶다는 애도 있었고, 멘토 선생님들이 다 남자였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 분이 ○○대(의과대학) 근처여가지고. 제가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니까, 의대는 문과에서 그나마 가기 쉬운? ○○대를 그래서 가고 싶었죠. [E1]

P: 3수하고, 재수도 해서 의대를 간 것도 부러웠는데, 그분들이 잘생겼는데도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서 부러웠어요. 집에 원래 돈도 많고. 다 갖추고 있어서 ‘엄친아가 저런 거구나. ...<중략>...속상하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그냥 운이잖아요? 나도 저렇게 되면 되지~라는 생각만 했지... [E1]

P: 네. 공부를 해서 괜찮은 그런 데를 가는 게, 신분상승을 하기 제일.. 그 길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신분상승을 하려면 의사나 변호사가 되거나 아니면 스카이 나와서 엄청 좋은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 아닌 이상은, 어렵죠. 다른 길로 신분상승을 하는 것은. 거의 유일한 길이죠. [E2]

### (3) 지역사회의 메시지

#### ① 금산의 의미 : 금산은 나와 수준이 안 맞는 곳이다.

김민서는 금산 지역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금산의 고등학교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지 않으며, 교육의 질도 낮다. 다른 지역 출신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등학교 때 발표 수업, 토론 수업 등을 하였고, 학교에서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교육활동의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김민서는 고등학교 때 다양한 교육활동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김민서는 고등학교 때 거의 인터넷 강의를 통해 공부를 했다. 학원을 다니고 싶어도 적당한 곳이 없고, 방학을 이용하여 대전의 학원을 다녀보았지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시외버스를 타고 대전에 도착한 후 학원 버스를 갈아타고 다녔다. 밤 11시에 마쳐서 또 학원버스, 시외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면 씻고 새벽 3시까지 숙제를 했다.

김민서에게 금산은 수준이 낮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답답한 공간이다. 금산 친구들은 진로포부가 낮아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 지역이 좁기 때문에 금산 사람들은 남의 일에 관심이 많고, 행동의 자유가 없다. 금산 지역은 문화생활의 기회가 거의 없어서 삶이 재미가 없다. 여러 가지 이유로 금산 지역은 김민서에게 벗어나고 싶은 곳이고, 금산의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며, 금산에서의 삶은 불만족스럽다.

#### <금산의 고등학교>

P: 저는 그런 걸 고등학생 때도 안 해봤단 말이에요. 피피티 만드는 것도 여기 와서 처음 만들어보고, 토론자체도 처음해보고, 피피티도 처음 해봤는데 제가 발표했단 말이에요. 발표도 처음 해서, 토론을 제가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피피티를 만들고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R: 신기했어?

P: 신기하고...네...학회 신입생 애들 중에 저만 시골에 왔단 말이에요. ...<중략>...진짜 달라요. 제 친구는 소논문대회를 학교에서 해서 거기서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나는 뭔가...'

P: 하긴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3년 생활을 하면서 토론대회를 하는 걸 한번

봤고. 되게 안 해요. 딱히 하는 게 없어요. 글짓기 그런 것도 맨날 하라곤 하는데, 맨날 주는 애들만 상을 주고...

P: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이긴 했는데, 흔히 말하는 '클라스'가 다른 대회인 것 같아요.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서...

P: 규모? 규모의 차이도 그렇고 지원을 못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산이 막 고등학교 평가하는 시험 있잖아요? 충청남도가 공부를 제일 못한다고요. 그 충청남도 중에서도 저희가 제일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많이. 금산이 제일 못한다고요. 그 중에서도 □□□고가 제일 못한다고요. 그래서 지원을 못 받는 것도 있는 것 같고. [E3]

P: 네 고등학교 때. '나는 뭘 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P: 나는 고등학교 때 왜...고등학교가 아니라 진짜 시골에 잘못 살았구나. 그 생각도 해보고... [E3]

<금산에서 학원 다니기>

P: 네. 좋은 학원도 별로 없고...인강(인터넷 강의) 보는 애들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공부 한다는 애들은 저처럼 수학만 듣는다든지, 탐구 하나만 듣는다든지 다 그런 식이어가지고. [E1]

P: 11시까지 원래 자습인데, 차량 운전사 아저씨가 저 막차 태우려고 부사동까지 와서 저는 그렇게 집에서 갔어요.

R: 매일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차를 타고 왔어?

P: 6시에 일어나서 갔던 것 같아요.

P: 저 그 때 엄청 힘들었거든요? 11시에 와서도 씻고 새벽 3시까지 맨날 공부하다가.

P: 맞다 숙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중략>...힘들었는데, 멘토 쌤 중에 좋아했던 분이 제셔서 그걸로 참으면서 맨날 공부했던 거 같아요. [E1]

<금산 사람들>

P: 아니, 그런데 저는 딱히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다 공무원 해야지~ 아니면 총대 정도 가서 대전에 취직해야지~ 그런 생각이어 가지고, 저도 '나도 그래야지~' 라고...<중략>...제 금산 친구들이랑 솔직히 저랑 수준이 다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또 대전에 있는 애들은 저보다

수준이 더 높거든요? 개네한테 제 말을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해서, 개네들한테만 말을 하지. 금산에 있는 애들한테는...

R: 이야기해봤자...

P: 잘 몰라요. 대화가 안 돼요.

R: 금산에 있는 학교도, 엄마도, 친구들도 별로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야?

P: 네. 딱히 중요하진 않죠.

R: 빨리 벗어나고 싶어, 여기틀?

P: 네. [E1]

P: 살기 좋은 건 아니고 공기만 좋은 정도? 여기 살기도 별로인 게, 하도 좁아가지고, 엄마가 인맥 넓은 사람은 금산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는 데 앞에, △△(아파트 명) 앞에 파riba게트가 있거든요? 거기 시장이 제가 어느 대학교에 갔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금산 너무 좁다고... 너무 별로인 것 같아요.

R: 너무 별로인 거 같아, 너무 좁아?

P: 학교에서도 어떤 애가 누구랑 싸웠다 하면 소문 다 나고, 애들 연애하는 것도 '돌려가면서 연애 한다' 는 말이 너무 별로고. 너무 좁아요. 진짜 별로인 것 같아요. [E1]

#### <금산의 문화생활>

P: 제가 금산에 살다가 대전에 가서 더 눈을 떠었잖아요? 그래서 큰물에서 노는 것도 있고...한 방향으로만 뭐라고 해야 하지...그런데 지금 사는 건 확실히 아니에요.

P: 네. 너무 재미없게 사는 것 같아요 진짜. 삶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진짜. 저는 문화라고 해봤자 영화? 영화보고...이런 게 다 인 것 같아요. ...<중략>...그런데 카페 같은 데나 다른 커뮤니티를 가보면, 집에서 가까우니까 콘서트도 막 가고, 대학로 가서 연극도 자주보고 좋은 대학교 가면 넓잖아요? 넓은 대학교는 잔디밭 같은 데서 관현악단이 와서 하고...그런 것도 되게 많던데...여긴 없더라고요. [E1]

P: 우리나라에서 문화를 누리는 정도? 그걸 봤는데, 확실하게 서울 애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서울 애들이 훨씬 많고 그 다음 부산. 그리고 대전도 봤는데, 대전은 문화생활 누리는 게 되게 적은 거예요. 저는 오페라 같은 거 보



는 거 좋아하고, 전시회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그런 건 비싸고. 대전은 공간도 없어요. 그런 거 보려면 다 서울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R: 문화적인 삶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컸구나?

P: 네. 그리고 저는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게 제일 좀 그런 것 같아요. [E2]

#### (4) 아르바이트의 메시지

##### ① 소시지 공장 아르바이트 : 머리 쓰는 일을 하고 싶다.

김민서는 두 세 번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 고깃집, 만두가게, 소시지 공장에서 일했으나 작업의 질이 낮고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었다. 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단기 아르바이트는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시급이 낮은 일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아르바이트는 보람을 느끼거나 일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못한다. 소시지 공장에서 하루 8시간 반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단순노동을 경험한 이후 김민서는 화가 나고 우울했다.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머리 쓰는 일과 육체적 일은 차원이 다르다는 VAS 메시지를 형성한다. 좋은 대학에 가서 과외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고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

P: 그 때 시급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육천 얼마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 시간에 육천 얼마 하기에는 계속 서 있어야하고, 막 뭐라 뭐라 하는데, 사람 하도 많으니까 들리지도 않고, 제가 처음 하는 거라서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되게 짜증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앉아서 하는 직업 선호하잖아요? 그걸 그때 좀 알았어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서 그 이후로 고깃집은 진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R: 보람되거나 이러진 않았어?

P: 전혀 보람되지 않았어요.

R: 억울했어?

P: 네. 왜냐하면 하는 건 많은데, 달랑 육천 원만 주고... 일본 보니까 만원주고 그러던데, 저는 육천 원밖에 안 주고. 육천 원으로 어디 가서 밥 사먹기도 애매하잖아요? 요새 보니까 제일 싼 게 오천 원 정도인데. 그 때 짜증났어요, 돈 받긴 받았어도. [E2]

P: 소시지...하...(한숨). 친구랑 일본가자고 약속을 해서, 단기알바를 찾던 중에...<중략>...친구랑 그 일을 하고 밥을 먹었는데, 친구랑 ‘아 진짜 이게 내가 멍 때리고 하니까 무슨 내가 로봇된 것 같다.’ 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장이 말이 단순 노동이지, 사람 미치게 한다.’ 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다시 또 하는데, 계속 똑같은 것만 하니까 재미도 없고 질리는데, 오뎅 냄새랑 소시지 냄새가 자꾸 나는 거예요. 느끼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친구랑 김치 어디 있냐고, 김치 찾다가...

R: 하루 몇 시간 했었는데?

P: 하루예요? 8시 반부터 시작해서...12시 반에 밥을 먹고, 8시간 반? [E2]

P: 제 친구랑 이야기했던 게, 좀 더 좋은 대학을 갔으면 과외 했었을 거라고...과외요. 과외 했었을 것 같아요. ...<중략>...소시지 공장은...또 머리 쓰는 거랑 육체적인 일을 하는 건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 생각해요. 육체적인 일이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또 소시지 공장은 심지어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R: 단순한 일이 반복되고 하니까?

P: 네.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그 때. 정말 정신병자 될 것 같았고. 둘 다 짜증나고...돈을 이것보다 더 받아야할 것 같은데, 이만큼밖에 안주고. [E2]

## (5) 인터넷 공간의 메시지

### ① 직업에 대한 태도 : 나랏일 그리고 정당한 보상

엄마는 김민서가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지만 김민서는 ‘나랏일’ 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초등학교 때부터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김민서

는 또래 친구들보다 먼저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였다. 인터넷 상의 글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인, 국가에 기여하는 일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복지 및 교육 서비스가 좋지 않으며, 정치인들은 하는 일 없이 세금을 허비한다. 국가에 기여하거나 사회봉사적인 직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김민서는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으며, 힘들게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김민서는 나랏일을 하고 싶지 않다, 오로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VAS 메시지를 형성한다.

P: 안정적인 거. 선생님이나...

R: 그런데 민서는 그걸 원하지 않는구나?

P: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R: 왜?

P: 이젠 제 신념 같은 건데, 나랏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E1]

P: 초등학생 때부터 인터넷 사이트 같은 곳도 신기한 사이트 많이 알고 그랬어요. 그 중에 커뮤니티 같은 데도 가입을 많이 해냈고. 인터넷을 통해 세상을 넓게 보게 됐는데...<중략>...인터넷에서 보니까 국회의원들 별로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돈은 많이 받고. 저는.. 좀 별로 가난한 환경이니까, 중학교 때 안 좋게 살았던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하는 것도 없는데, 돈 겁나 많이 받고. 우리는 세금 내는 거 다 내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있고...’ 별로 해주는 것도 없어서 별로 안 들어 했어요. 그 때부터 저는 여기에 신물? 신물 나서 나랏일 하는 거, 나라와 관련 있는 것들을 하기 싫었어요. [E1]

P: 이렇게 말하면 웃긴데, 저는 우리나라를 좋게 바라보는 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여기가 아니면 다른 나라를 가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의대 공부를...이민이 아니고 그냥 가서. 그래서...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복지나 교육도 별로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윗분 자체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어렸을 때부터 원래 마음에 안 들었어요. [E1]

P: 중학교 때 실망을 많이 해서,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써요. 나만 잘 되면 되니까, 이제는.

R: 그래서 기업에 들어가거나 의사가 되는 것도 나 잘 사려고...

P: 네. 저 잘 사려고 하는 거지.

R: 국가에 기여하고 싶은 게 없구나.

P: 그런 거 한 개도 없어요. [E1]

P: 우리나라에서 경찰이랑 소방관 진짜 별로라고 생각하는 게, 소방관들 보니까 쳐우도 되게 안 좋더라고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장갑 같은 것도, 다른 나라는 장갑 같은 거 막 주는데, 우리나라는 소방관들이 직접 사야한대요. 그런 것도 그렇고... 경찰들도 보니까 윗사람들이 시키면 가서, 의자 놓는 일을 하고, 별 잡심부름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 좋다고 생각은 안 해요. 경찰이랑...

R: 그러면 돈 말고, 사회에 봉사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선 별로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

P: 좋다고 생각 안 하는데, 굳이 왜 그런 걸 하지, 힘들게?...<중략>...제가 카페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 카페 제목이 잘 생각 안 나는데 약간 찰럼 같은 거였어요. '다른 나라랑 비교하고 우리나라 소방관이 얼마나 안 좋은가' ...저는 솔직히 대충 읽어서 잘 생각 안 나는데, 불쌍했어요. 소방관을 보면, 다음에도 이 직업을 할 거냐고 물어면 그 그래프 있었는데, 반 이상이 절대 안한다고 그랬어요. [E2]

김민서는 직업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당한 보상' 이라는 VAS 메시지를 형성한다. 김민서는 회사원이라는 직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에는 회사원들이 힘들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온다. 게시판 글에 따르면 특히 중소기업은 야근을 많이 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 대기업의 경우는 그나마 보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일한만큼 보상을 받는 것 같다. 하지만 사회초년생일수록 자신이 일한만큼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P: 음... 일반 회사 가게 되면, 퇴근을 늦게 하든가, 빨리 출근을 하든가 그런 것은 상관은 없는데, 제가 일한 만큼은 (보수를) 받는? 그런.. 생활을 기대하고 있어요.

R: 일한만큼 받는?

P: 그런데 일한만큼 받는 게 쉽지 않은 게, 일반 중소기업 가면, 늦게 끝내주고 야근도 되게 많이 하는데, 돈 얼마 안 주잖아요? 그런데 대기업은 돈 많이 주고, 보너스도 많이 주고. 명절 되면 보너스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애들 보니까...저는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현실은 아닌 거...<중략>...

P: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저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터넷에 보면 좀 불쌍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R: 어떤 거?

P: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도 돈은 많이 받으니까,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힘들어도. 그렇게 중간에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계속 다니다가 잘리거나, 승진을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대기업 아니고서는, 일찍 출근하고 늦게 끝나는데 진짜.. 백오십? 백오십도 못 받는 사람 되게 많고... 저는 경제적 보... 제가 한 만큼만 받으면 좋다는 거지. 막 돈 많이 벌고 싶다 그런 건 아니에요.

R: 정당한 보상?

P: 네 정당한 보상. 저는 불쌍하게 일하고 돈을 조금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R: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다...민서는 혹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접한 적 있어?

P: 여기 말고 다른 사이트도 많이 하는데, 거기 보면 회사원 게시판이라든가 잡담하는 데가 있어요. 꼭 하루에 한번쯤은 힘들다고.. 하면서 회사원 한분씩 올리는데 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너무 힘든데, 돈은 너무 조금 받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중략>...

P: 네. 또 사회초년생일수록 그런 현상이 더 심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정당한 보상이 중요한 것 같아요.

R: 민서는 무슨 일을 하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는 직업이 중요한 거구나?

P: 그렇죠. [E1]

## ② 인터넷 공간의 의미 : 세상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

김민서는 진로계획을 세우고 의사결정하기 위한 대부분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얻었다. 김민서는 어린 시절부터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활발히 하였고, 매일 1시간 이상 인터넷 검색을 하였다. 자신은 다른 친구들보다 경험은 적지만 인터넷 정보는 가장 빨리 습득한다고 이야기했다. 거의 모든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의사결정 한다. 친구나 엄마와 상의하지 않으며,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했다.

P: 그런데 제가 좀 더 많이 알고 그런 것 같아요.

R: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P: 저는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하고 그래서, 정보 같은 것도 제가 빨리 알고 그랬거든요.

R: 남들보다 정보가 빨라?

P: 네. 정보를 빨리 아는 편인 것 같아요. 요새는 공부하느라 시간 없어서 그런데... 진짜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제가 더 정보도 빠르고, 아는 것도... [E1]

P: 많이 미친 거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딱히 그런 (구체적인) 일들은 생각이 안 나는데, 많이 미쳤던 거 같아요. 확실히.

R: 그러면 민서는 경험보다는, 경험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지?

P: 네 경험이 많은 건 아니죠.

R: 경험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정보를 통해 경험을 해보고 싶은 거구나?

P: 경험을 해보고 싶죠. [E1]

P: 요즘에는 안하긴 하는데, 최소 1시간은 하는 것 같아요.

R: 매일 매일?

P: 네.

R: 주로 한 시간 동안 뭐부터 시작해?

P: 카페 들어가서 다른 사람은 오늘 뭘 사... 산거? 오늘 산 것도 구경하고, 여행 간 데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나? 오늘은 뭐 했나 그런 거? [E1]

P: 그런 글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데니까.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얻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얻었어요.

R: 인터넷을 통해서?

P: 네 진짜 자연스럽게...<중략>...

R: 다 네가 스스로?

P: 다 제가 스스로 했죠.

R: 어려운 건 있어? 외롭다거나 혼자 이렇게 결정하고 이런 게 되게 부담스럽다거나.

P: 아니요. 그게 제가 편해요. 부담스러운 건 아니고 제가 편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E1]

P: 직업이요?

R: 응 직업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게 된.

P: 저는 인터넷. 저는 거의 다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서 얻은 것 같아요. 사람한테 얻은 게 아니고. [E2]

김민서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으나, 주변에 의사가 없고, 의사라는 직업의 길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대학교 휴학을 하고 고시원에 가서 수능시험 준비를 다시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는 독일에 유학을 가서 의사가 될 수 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독일어과를 선택하겠다는 계획을 이야기했다. 이러한 계획들은 모두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게 된 익명의 글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김민서는 인터넷 공간을 수준이 높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 여겼다.

P: 제가 길게 잡은 게, 이번 년도에는 반수를 해서 더 나은 대학교를 가고, 그 대학교에서 2학년 때까지 계속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2학년 끝나고 휴학계를 내서 금산에 다시 오거나 서울에 있는 고시원 가서 수능공부를 다시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R: 알바하면서 2학년 때까지 다니고 틈틈이 공부를 하고, 2학년 끝나고 휴학 후에 다시 공부를 한다고? 의대준비를 한다고? 왜 그렇게 생각했어? 주변에 그런 케이스가 있어? 아니면 어디서 이런 조언을 들어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거야?

P: ‘수만취(수능만점을 휘날리며/인터넷 카페명)’ 봤다가... [E1]

P: 인터넷에 저런...거...제가 따로 찾아본 건 아닌데, 막연하게 저런 생각했을 때, 인터넷에 저런 글이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R: 아까 말한 ‘수만취’ 리고 하는데?

P: 그런 데서도 그렇고. 막 제가 이렇게 찾아서 안 게 아니고,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본 거라서, 저 사람...또 꽤 많아요, 한 두 명이 아니고. 유학 가서 의사된 경우도 많아서 저도 뭘 할 수 있을 것 같고... [E1]

P: 네 의외로 그런 데가 저런.. 카페 안에서의 익명게시판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별 글이 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독일에 가서 의사가 된 것도, ‘수만취’ 에서 어느 남자가 그래서 의사가 됐고, ‘쪽빵카페(인터넷 카페명)’ 에서도 어떤 여자가 그렇게 의사가 된... 시험 봐서 될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거길 가는구나...’ ...<중략>... 금산은 너무 좁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E1]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김민서는 인터넷 공간이 ‘취기 위한 도피처’ 였다고 재해석했다. 김민서는 대학에 진학한 이후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고등학생 때 김민서는 다른 친구들보다 경험이 적었고,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다. 김민서는 특히 학교에서도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혼자 공부하는 일들을 주로 하였고, 자신은 ‘금산 애들’ 과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하였으며, 또래 친구들이나 부모님 등 사람들과 소통이 활발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던 김민서는 인터넷 공간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인터넷 상의 정보가 한계가 있으며, 사람들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P: 고등학교 때는...지금이 더 시간이 없다고 느끼는 게, 그때는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이거 하고 핸드폰 해야지~ 공부하고 핸드폰 해야지’ 애들하고 말할 때도 다 스마트폰 보면서 이야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스마트폰 만지면서 이야기도 많이 안 하고. 중간 중간 쉴 시간이 있으면 계속 사



람들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터넷을 안 들어가게 되고. 고등학생 때는 ‘쉬기 위한 도피처’ 였다면, 지금은...

R: 지금은 사람을 찾아다니고?

P: 네 사람을 찾아다니죠. [D3]

P: 제가 가진 생각을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게, 직접적으로 하는 게 좋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토론을 하고나서...<중략>...저는 형식적으로 인터넷에 있는 말을 짜깁기를 해서 토론에서 말했거든요, 제 생각이랑. 다른 사람들이랑 선배들 토론하는 걸 듣고, 또 저희 조에 새내기가 들어 있었던 말이에요. 제 친구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 인터넷하고는 다르게 바로 듣고, 바로 이야기하고, 솔직히 인터넷에서는 댓글 달면 한 줄, 두 줄? 많아봐야 그 정도 쓰잖아요? 그런데 말로 10분, 20분 말을 하는데, 재미있었어요.

R: 사람들의 말을 바로 들으니까 재미있었어? 인터넷을 통해서는 그냥 읽고 끝나는 건데? 이렇게 만나서 하니까, 내 말을 저 사람이 대답해주고...

P: 네. 그렇게 해주니까.

R: 말 그대로 토론을 하니까 달랐어?

P: 네. 신기했어요. [D3]

## 2) 진로선택 시기

### (1) 대학의 의미 : 명문대와 의대 그리고 직업

김민서는 진로선택 과정에서 미래 직업을 고려하기 보다는 대학의 서열이 중요했다. 김민서는 명문대에 가고 싶다. 남들에게 멋있어 보이고 부러움과 인정을 받고 싶다. 대학과 마찬가지로 직업도 남들이 자신을 ‘우러러 볼 수 있게 하는 수단’ 이다. 명문대에 간다는 것, 의대에 간다는 것, 대기업에 취직한다는 것,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갖는 것 등은 모두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기 위한 ‘옷과 액세서리’ 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다. 돈을 잘 버는 일을 하

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인정을 해준다. 김민서는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힘들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

P: 네 명문대를 가고 싶어요. ...<중략>...명문대 가면 정시로 많이 오고,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학교를 가면 저처럼 수능 공부를 다시 하는 사람들이 명문대에서는 그 비율이 더 많대요. 공대 같은 데 가면 더 많이 물어볼 수도 있고. 그 환경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요. ...<중략>...저는 어디 가서 끌리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저 혼자서 엄청 잘 했으면 하는...

R: 최고가 되고 싶어?

P: 네 저는 진짜. [E1]

P: 남들이 가니까? 이왕 남들이 다 갈 거면, 대학 자체를 남들이 개나 소나 다 가는 데잖아요, 전문대이든 일반 대학이든. 이왕 가는 거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을 가는 게...뭐라고 해야 하지? 부러워하는 그런...말 정리를 못하겠어요. [E1]

P: 의대는 못가지만 남들이 딱 봤을 때, ‘재 좋은 대학 나왔다~’ 이 소리...의대를 실패하면, ‘저 사람 괜찮은 데 다닌다.’ 이 소리는 듣고 싶으니까 반수를 하는 거죠. [E1]

P: 의대를 가면 제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텐데, 못 가면 ‘개나 소나 다 가는 대학일지라도, 저는 좋은 대학을 가서 남들이 우러러 볼 수 있게 하는 수단?’ ...<중략>... 좋아 보이고, 부러움 받고 싶은... 그런 수단이 되는... 물론 좋은 대학을 간다면. [E1]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

P: 평범하게 일반 □□□(도시지역)에 있는 일반 회사를 가면, 그냥 ‘돈 버는 곳’ 이고, 괜찮은 대기업 가면, 대기업도 남들이 우러러 보잖아요? 이런 느낌? ‘웃하고 악세서리 같은 느낌?’ [E1]

R: 그럼 네가 지금 의대를 가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이런 욕구는 자유롭고 싶어서 그런 건가?

P: 아니요, 그냥 남들이 부러워할 것 같으니까.

R: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싶구나. 남들이 못하는 걸 하고 싶고?

P: 네. 또 많이 아는 거?

R: 많이 아는 거. 전문적인 걸 하고 싶고.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

P: 그냥 많이 아는 건 또 부럽고. 의사라는 게 자유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것 자체로 멋있는, 남들이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저도 멋있어 보이고. [E1]

#### <돈과 신분상승>

P: ‘하고 싶은 거?’ 아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직업 할 때 중요한건 일단 ‘돈’ 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잘 버는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부러움도 오고 인정을 받아요. ...<중략>...돈은 공통적인 거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멋있는 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R: 그러니까 왜 멋있어 보여? 그 특징이 뭐야?

P: 그 사람들밖에 할 수 없는 거라서. [E2]

P: 네. 그리고 저는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게 제일 좀 그런 것 같아요.

R: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거 같아?

P: 하고 싶은 걸 하려면 모든 게 다 돈이에요.

R: 모든 게 다 돈이야? 열정도 아니고, 기회도 아니고 돈이야?

P: 돈이 있어야 기회도 잡는 거죠. ...<중략>...그런데 제가 아무리 티케팅을 성공했어요, 기회를 잡았는데도...돈이 없으면, 기회를 잡았다가 놓치는 거 잦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있어야지 오는 기회도 잡는 거고... [E2]

P: 네. 공부를 해서 괜찮은 그런 데를 가는 게, 신분상승을 하기 제일...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신분상승을 하려면 의사나 변호사가 되거나 아니면 스카이 나와서 엄청 좋은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 아닌 이상은, 어렵죠. 다른 길로 신분상승을 하는 것은. [E2]

## (2) 낮은 자기효능감

김민서는 직업인으로서 낮은 자기효능감을 표현하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김민서는 고등학교에서 내신 1~2등급, 전교 4등을 하는 등 학업 성적이 높은 학생이었다. 자신이 학업성적은 높지만 ‘대전 애들’에 비하면 수준이 낮다, 남들보다 아주 조금 잘 할 뿐이라고 말했다. 손재주와 운동신경이 좋지만 남들보다 조금 잘 하는 것은 애매한 재능이라고 말한다. 직업인으로서 자신을 표현할 때 남들이 많이 하는 회사원, 앉아서 컴퓨터 두드리는 재미없는 일, 평범하고 무난한 일, 재미없고 따분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 남들과 함께 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하며, 회사에서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적성, 특기, 재능>

R: 네가 나온 적성의 특징이 무엇인 것 같아? 혼자 하는 것. 또?

P: 재미없는 것. ...<중략>...누가 많이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중략>...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회사원도 대부분...일 하는 사람 대부분이 회사원이잖아요? 앉아서 컴퓨터 두드리고...재미없는...

R: 평범한 것?

P: 네 되게 평범한 것.

R: 그게 네 적성이라고 나왔어?

P: 네 그런 게 나왔어요.

R: 네가 생각하는 네 적성이 뭐야?

P: 사실 저도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R: 그럼 네 적성에 대해 너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P: 부정적인 건 아닌데...재미없고...따분하고...시간 안 가고...<중략>...솔직히 사무직하는 게 그냥...제일 맞을 것 같긴 해요.

R: 왜? 사무직의 어떤 특성이 너한테 맞을 것 같아?

P: 남들이 다 하는 것, 남들이 다 무난하게 하는 것? 제일 평범하다는 점? 누구나 하고... [E2]

P: 저는 그게 다 애매한 게. 손재주 있다고 하기 좀 그런 게, 저보다 잘난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재능?

R: 네가 잘하는 게 뭐야? 네 특기는. 남들보다 잘하는 것.

P: 남들보다 잘 하는 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제가 운동신경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남들보다 이만큼 좀 더 좋아서, 이만큼 더 빨리 습득을 하는 거지, 진짜 운동선수랑 비교해보면 저는...<중략>...네. 그런데 아직 잘 못 찾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저는 진짜 공부만 해가지고, 초등학교 이후로. 공부 이외에 한 게 운동이라 하면 체육시간에 운동? 음악시간에 그거? 미술시간에 그림 그리는 것. 그런 거 밖에 없어서.. 제가 못 찾은 것 일수도 있긴 한데...남들보다 다 이만큼 나은 거지... 그런 건 없어요. 특기, 흥미 이런 건 없어요. [E2]

P: 남들보다... 지금까지 보면 나왔던 적이 없어서...

R: 너 공부도 남들보다 잘한다며?

P: 그것도 엄청 잘하는 게 아니고 이만큼 잘하는 거라서. [E2]

<장점이자 단점>

P: 저는...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조별모임이 있는데, 애들이 다 꺼리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걸 다 하는 편인 게, 차라리 제가 하면 빨리 라도 끝내지...안 하고 싶어 하는 애가 하면, 늦게 끝나고 또 짜증나거든요, 결과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그런 것...? 그냥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걸 내가 하는 것’? 그런 것?

R: 같이 하지는 않아?

P: 네. 귀찮아져요 같이 하면.

R: 내가 혼자 하는 게 낫다?...<중략>...

P: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 안 해요. 장점보다는 단점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R: 단점에 가까운 것 같아?

P: 왜냐하면 그냥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걸 제가 옆고 가는 거잖아요? 남들이 편하지, 저는 힘들잖아요. 회사일 하면, 제가 다 할 것 같긴 한데...(침묵) [E2]

### 3) 고등학교 졸업 후

#### (1) 새로운 경험과 자기이해의 변화

김민서는 지방도시의 국립대 경영학과에 진학하게 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sup>57)</sup>. 또한 대학생활을 하면서 환경과 자신의 생각이 변화했다고 느꼈다. 첫째, 금산을 벗어나 도시생활, 대학생활을 하는 것이 만족스럽다. 환경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도 많아졌다. 문화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혼자 있는 시간보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겁다. 직업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이전에는 ‘나 혼자만 잘 살기 위해서, 신분상승을 하기 위해서’ 라고 말했으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대학의 강의는 주입식이 아니고 다양한 학문적 관점을 접할 수 있어서 재미있다.

#### <문화생활>

P: 제가 좋았던 게 뭐냐면, 금산에는 영화관이 없었는데, 여기는 한 20분만 걸어가면 ○○○(지역명) CGV가 있어서 영화 보고 싶음 가서 보고. 또 어제 다이내믹 듀오가 학교축제에 온 것처럼, 저희도 ◇◇대학교(금산 근처 대학)에 오긴 하는데, 솔직히 떨잖아요, 버스도 일찍 끊기고...여기는 ‘누구 보고 싶어!’ 하면 가고. 아프리카 TV 비제이 벤쯔라고 있거든요, 먹방. 어떤 언니가 여기서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당일 날 수업하고 막 가고. ‘영화 볼래?’ 라고 하면 ‘그래 보자.’ 하는 것도 신기하고...신기한 경험...문화생활? 같은 걸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E3]

---

57) 김민서는 서울의 4년제 대학 2개와 지방의 국립대학 1개에 지원했다. 서울의 대학에는 합격하지 못했으며, 최종적으로 지방의 국립대학에 합격했다. 전공은 무역학과, 컴퓨터공학과, 경영학과를 지원했다. 컴퓨터공학과는 인문계를 따로 뽑아서 지원했으나 입학이 반대하였고, ‘취직을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잘 되고, 수학과 조금 하고, 인터넷에서 보니까 자신과 맞는 것 같아서 [E1]’ 경영학과를 선택했다.

<생각의 변화>

P: 그걸 하는 사람이 적잖아요. 적고...특히 외과의사가 없대요. 되는 사람이. 그런 걸 해가지고, 내 지식이 다른 사람한테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제가 막 착한 사람은 아닌데, 저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제가 해주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그런 게 되게 힘들고 비싸잖아요? 제가 그걸 하면 비용적인 부분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고...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적 신분이 높아져서 좋다!’ 이르기 보다는 제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R: 생각이 많이 달라졌네?

P: 많이 달라졌어요. 뭔가 되게...그나마 큰 데로 오면서...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E3]

<대학의 강의>

P: 완전 신기했던 게 뭐였나면, 사회학 어떤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건강, 종교 막 그런 분야들로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학교였나? 그런 주제의 페이지였는데...마르크스가 그랬나 누가 그랬나 생각은 확실히 안 나는데, 학교라는 데가...그게 어떻게 해서 나왔나면요 공장에서 노동자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어요. 그 노동자들이 몇 시간은 일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옛날에 몇 시간을 일하고, 얼마 쉬고 다시 일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알고 보니까 학교에서 저희가 45분 수업을 듣고, 10분을 쉬고 이런 걸 학교에서 미리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자가 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라는 곳이 사람들이 노동시키기 위한 약간 중간 지역이라고 어떤 사회학자가 그런 거예요. 아~ 너무 재미있다. 이게 약간...어떤 걸 다 사회학적 관점으로 보는데, 너무 재미있고 신기해서...

R: 새로운 관점들을 보는 게 재미있고 신기했어?

P: 그게 진짜 재미있어서, 다른 애들한테 추천하고 다녀요. [E3]

둘째, 집단에 소속감을 느끼며, 자신을 구성원들과 동일시하는 동시에 다른 대학생들과 차별화를 하면서 만족감을 느낀다. 김민서는 대학의 통계학회라는 집단에 소속되고 학회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했다. 그들은 ‘사회 의식 있는 대학생’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대기업에 취업한 선배들도 많다. 김민서는 통계학회 구성원이 되어서 만족스럽다. 자

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고, 말이 잘 통한다. 학회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사회문제나 정치 이야기를 하고, ‘금산 애들’과는 수준이 다르다. 아직 완전히 동화되지는 못했지만 학회 친구들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들과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신기하다.

P: 솔직히 여기 학교 좋은 학교는 아니니까, 취직도 잘 안 될 거란 생각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잘하는 거예요. 대기업도 막 가고. 삼성, 엘지 그런데 가고. 제가 또 학회를 다니는데, 윗 선배들 중에서도 거의 다 대기업 다니는 사람도 되게 많고...그래서 그냥 ‘E대(대학)에 남아 있는 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R: 학교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네?

P: 완전 바뀌었죠. 선배들 말도 들어보니까...<중략>... 여기 와보니까 취직도 괜찮게 잘 되고, □□□지역에서는 괜찮은 학교니까, 등록금도 싸고 하니까. 미련 없이 다닌다고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중략>...지금은 그냥 아직 목표만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죠. 지금은 여기에 남을지 다른 대학에 가서 취직을 할지...를 모르겠어요. [E3]

P: 이거는 제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학회라는 단체에 소속돼있으니까, 조금 더 특별하게 느끼고...어쨌든 되게 달라요. ...<중략>... ‘나는 이 학회 사람이다.’ 라는 자부심이 되게 많아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경제학회도 그렇고, 무역학회도 그렇고 ‘나는 학회사람이다.’ 라는 자부심이 엄청나요. 한 그룹에 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이 되게 크고. ‘나는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는, 의식 있는 대학생’. 그런 자부심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중략>...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번씩 사회문제에 대해 토론도 하고, 피피티 만들면서 발표를 하니까. [E3]

P: 지금은 나름 저랑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말이 잘 통하는 애들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옥시 문제’가 났잖아요. 여기는 일단 애들이 그걸 잘 모르기도 하고 관심이 없어요. 저희도 어떻게 하다가 어떤 애가 ‘아 옷에 얼룩 안 지워진다. 옥시시킨 사서 해야겠다.’ 고 하면 애들이 옥시 쓰면 안 된다고 애들이 그런 말도 하고. 달라요 말을 하는 것도 다르고...



R: 말도 잘 통하고, 사회문제에 더 관심이 많고?

P: 네 있는 애들이 확실히 많더라고요. [E3]

P: 미래...뭐라고 해야 하지...애들 수준이 달라요. 확실히...진짜 수준이 다르다고 느낀 게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남자애들하고 여자애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뭐하냐’ 고 이야기했었는데, 애들끼리 토론을 하는 거예요. ‘애네는 왜 이러냐’ 하고 듣다가 가버린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은 밤에 ‘아 확실히 금산하고 다르구나...’ 그런 생각도 한 적 있고. 뭔가 되게 달라요. [E3]

P: 그런데 아직 그런 건...제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인간관계는 넓은 편인데, 그것 하나하나의 수준을 다 맞출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에 비해 이 대학교에 괜찮은 애들이 더 많이 온 것 같다는 생각은 하긴 했어요. 아직 지금도 말을 할 때, 갑자기 ‘사형제’ 나오고, 애들이 토론을 하면, 듣고만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건 적응을 아직 못한 것 같아요.

P: ...<중략>...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금산에서만 그랬어요. 지금은 ‘ 쌤 ’ 도 안돼요. [E3]

P: 헤드헌터? 그게 되고 싶다는 애도 있긴 했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R: 왜 신기했어?

P: ‘저런 걸 어떻게 알지?’

R: 아~ 그 전에 네가 알 수 없었던 그런 것들?

P: ‘재네는 신기하네.. 뭐 저렇게 사나’ 특징 일은 괜찮은데, 유학 가서 거기서 찾는다는 애도 있는데 개는 뭔가...

R: 신기해? 이런 애는 본 적 없어서?

P: 네. [E3]

## (2) 회사원 직업에 대한 가능성

김민서는 다른 연구 참여자들과 달리 구체적인 직업 선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다른 연구 참여자들이 직업 선택과 직결되는 전공을 선택한

것과 달리, 여러 가능성을 지닌 4년제 경영학부에 진학했기 때문이다.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면담 초기 전공 선택과 대학 진학 결정 이후에도 직업이나 전공에 대한 생각을 깊이 있게 하지는 않았다. 직업, 취업, 일터 등 사회생활에 대한 일은 막연하고 먼 미래 이야기라고 느낀다. 아직까지 대학의 이름, 서열, 수능시험, 재수 등 학생으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막연하게 경영대를 졸업하고 회사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특히 대학 진학 이후 선배들과 만나고 대화를 통해 기업에 입사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R: 대학 졸업 이후는 생각해본 적 없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뭐야? 네 머릿속에 제일 커다란 것들.

P: 공부. 대학교. 아직 취업 걱정이거나 취업 생각은 아직 없어요.

P: 네. 대학 이름이 중요한 거지, 아직 취직, 취업은... [E1]

P: 네. 진짜 아무 생각 없어요.

R: 대학을 진학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머릿속의 생각은 뭐야?

P: 아무 생각 없어요.

R: 아무 생각 없어? 과에 대한, 전공에 대한?

P: 네 진짜 없어요. ...<중략>...물론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긴 한데, 그게 너무 막연한 그런 거라서. 아직 생각이 없어요. [E2]

P: 직업자체에 대한 것은 확실히 회사원에 더 가깝죠.

R: 그래? 왜? 이게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아?

P: 가장 크죠, 제가 될 가능성이.

P: 그래서 잘된 선배들 오셨는데, 한 분은 매번 오신대요. 왜냐하면 그 분이 □□□(도시지역)에서 하시는 회사 대표신데, 되게 잘된대요. 약간 연줄로 해서, 작년에 졸업한 선배도 거기 회사에 들어가시고, 또 삼성이나 엘지, 증권회사 같은 곳에 들어가서 자기자랑 하러 자기는 어떻게 공부를 해서 여기를 왔는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런 걸 듣고 직업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되고... [E3]

R: 40대 때는 어떤 경제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아?

P: 제가 만약에 하고 싶어서 의사가 됐으면, 제가.. 여자는 의사로서의 여자는 진입장벽이...계속 승진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을 많이 안했거든요? 만약에 회사 일을 하면, 제가 결혼을 안 한 40대여도 솔직히 많이는...회사 내 위치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많이 벌면,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400~500? 400도 못 벌려나? 모르겠다. ...<중략>...제가 40대되면 직업은 그냥... '사람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일' 일 것 같아요. 너무 나쁜 쪽이라고 보기보다는, 긍정적인 쪽? 일 것 같아요. [E3]

## V. 내러티브의 이해 : 청소년의 탈주적 직업정체성

### 1. 사회화 원천과의 상호작용 이해

#### 1) 가족구성원과의 상호작용

##### (1) 사회화의 구조적 조건

구조적 관점에서 가족사회화 연구는 물질 자본에서 비물질적 조건들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초기에는 부모의 직업과 경제적 조건을 강조하였다. 이후에는 부모의 직장 내 경험<sup>58)</sup>, 가족 내 의사소통 방식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결정하고 자녀를 특정한 방식으로 사회화한다고 생각했다(Bernstein, 1990; Kohn, 1977). 오늘날에는 지역, 나이, 부모의 사회 연결망, 가족 내 감정적 관계 등 부모의 사회적 능력이 자녀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Bourdieu, 1986; Coleman & Hoffer, 1987). Bourdieu(1986)는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조건들이 지속적으로 일상생활 경험에 작용하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장기간의 관행은 쉽게 변하거나 잊혀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 ① 가족의 위기, 가족 구조의 변형

연구 참여자들의 가정을 둘러싼 공통된 맥락은 가족의 위기와 가족 구조의 변형이다. 이에 따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자본이 풍부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했다. 한지민의 부모

---

58) Kohn(1977)은 2차 산업이 주를 이루었던 70년대 직업심리학자로서 부모가 육체 노동자일 경우 수동적 입장을, 비(非) 육체노동자일 경우 능동적인 입장을 지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러 연구들은 2, 3차 산업의 직업상황에서 노동자의 주관적 입장을 고려한 직업경험을 연구하는 데 주목하게 되었다(황석규, 2004).

는 대전에서 문방구를 하다가 큰 빚을 졌고 현재까지도 가게부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금산의 할머니 집에 얹혀살면서 한지민은 조부모와 갈등을 겪고 있었다. 또한 둘째 동생의 교통사고로 한동안 집을 비운 부모님을 대신하여 한지민은 막내 동생을 보살피야 하는 심리적인 가정의 역할을 했다. 김서연은 재혼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이다. 엄마와 아빠가 이전 가정에서 각자 데리고 온 나이 많은 오빠, 언니들이 있었으나 서로 왕래하지 않으며, 친척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김서연 가족의 사회적 관계는 매우 협소했다. 강은진의 엄마는 두 번의 이혼을 겪었다. 첫 번째 이혼 후 만난 새 아빠는 낚시터를 운영했고, 강은진은 어린 시절 외딴 저수지에서 외로움과 구박을 견뎌야 했다. 이후 금산 외 할머니 집에 와서 살면서도 일하는 엄마를 기다리며 외로운 시간을 보냈다. 김민서의 경우 아버지의 실직과 여러 번의 사업실패, 부모의 별거, 이혼을 경험했다. 아버지의 실직 전 도시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움을 경험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적으로 어려워져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한다. 이렇게 가정의 위기는 가정의 재정 악화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다양한 상황조건을 형성하였고, 심리적 불안, 사회·문화적 자본의 부족으로 이어져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 ② 부모의 직업생활

두 번째 구조적 맥락은 연구 참여자 부모의 직업생활로 인해 형성되었다. 부모들은 주로 비정규직,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한지민의 아버지는 건설 일용직, 어머니는 식당일, 간호조무사직에 종사하였고 가게소득이 안정적이지 못했다. 김서연의 부모는 깻잎 농사를 하였고, 김서연은 부모가 육체노동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보아 왔다. 강은진의 어머니는 간호조무사로 동네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였다. 비정규직이고 나이가 많아 고용불안감이 컸고, 추가근무, 야근, 인삼 밭일 부업 등 육체적으로 고된 직업생활을 하였다. 김민서의 어머니는 동네 어린이집에서 비정규직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Krumboltz(1996)의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자녀는 부모의 직업생활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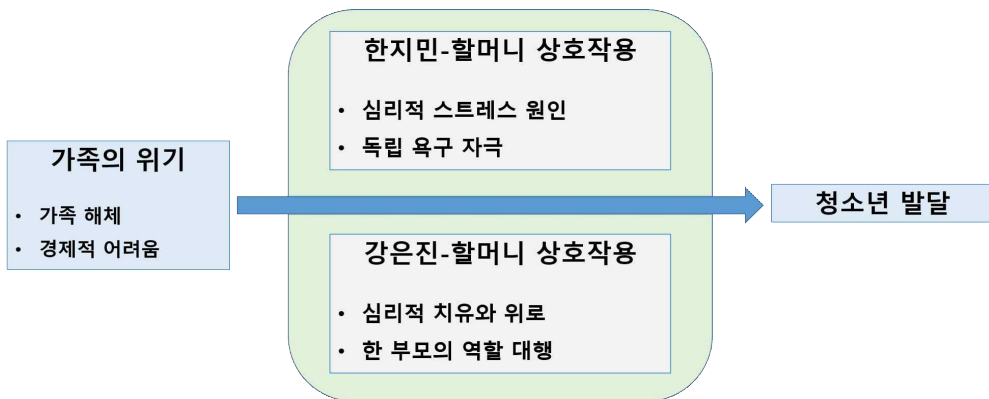
관찰함으로써 특정 직업에 대한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개인은 학습경험에 따라 진로·직업 영역에 대해 ‘좋다 또는 싫다’의 경향을 가지게 된다. 과거의 학습경험은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나 인지적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고(도구적 학습경험), 혹은 중립적인 자극이 특정 자극과 짝지어 경험되면서 긍정적·부정적 자극의 성격을 띠게 될 수 있다(연합적 학습경험). 고전적 조건화와 관찰, 대리경험과 간접경험이 이에 해당한다. 즉, 자녀는 부모의 직업생활을 대리경험하며, 그 경험이 어떠하였는가는 자녀의 직업태도 내용에 영향을 준다.

연구 참여자들도 부모의 직업생활을 지켜보며 특정 직업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였다. 한지민은 사무직은 지루하다, 앉아서 컴퓨터 짚은 못한다, 몸이 고된 일, 잡일이라도 상관없다, 일은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여겼다. 또한 어렸을 때 엄마의 식당일을 도우며 자연스럽게 자신도 식당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서연은 부모의 농사일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강하게 드러냈다. 특히 엄마의 고된 육체노동을 관찰하였고, 알레르기 때문에 엄마를 도울 수 없는 자신의 상황과 미안한 감정이 연합하여 농사일/육체노동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지니게 된다. 강은진은 엄마로부터 간호조무사 직업의 고된 이야기를 들어왔고, 간호사 직업에 대한 반감과 부담감을 지니고 있었다. 김민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엄마의 직업생활을 지켜보며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 (2) 사회화의 개별적 의미

가족사회화의 공통된 구조적 맥락이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주었으나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내용은 각각 달랐다. 첫째, 각 가족구성원과의 상호작용 의미는 개별적으로 형성되었다. 가족의 위기가 가족구조의 해체,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상황을 낳았고, 이것이 청소년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가족구성원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는지는 예측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한지민과 강은진의 가족구성원은 가족의 위기로 인해 고향으로 돌아왔고, 조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는 맥락이 공통된다. 하지만 [그림 5]와

같이 조부모와 상호작용하는 양상은 달랐다. 한지민-할머니 상호작용은 ‘갈등’의 양상이었고, 이는 취업을 통해 빨리 독립하고자 하는 VAS 메시지를 형성했다. 반면, 강은진-할머니 상호작용은 ‘치유와 위로’의 양상이었고, 할머니는 강은진 가정의 재기를 돕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상호작용 양상의 차이는 <표 14>의 면담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가족구성원과의 개별적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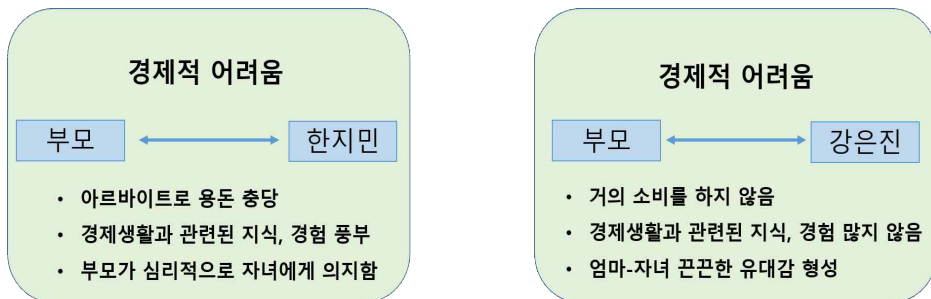
<표 14> 연구 참여자-할머니 상호작용 양상

참여자	면담 내용
한지민	R: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는 한 번도 안하더라? P: 별로 안 좋아해요. 저희가 여기 이사 올 때 좋게 이사 온 게 아니라 빗 때문에 다 넘기고 이사 온 거란 말예요...<중략>... R: 같이 살지만 도움을 주지는 않으셔? P: 없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집주인이니까...어디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산다는 얘기도 별로 안 해요. 말을 막하세요. 저희랑 뒷집이랑 되게 가까워서...뒷집 마당에서 하는 얘기가 다 들려요. 부엌에 있으면..부엌에 있는데...할머니가 저 씨발 것들 때문에 집에 돈이 안 들어온다 그러세요. 할머니데...영향을 줬다면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줬겠죠. [A2]
강은진	P: 할머니랑 12살 때부터 중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같이 지냈는데...

할머니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 스타일이신 거예요. 되게 잘 보듬어 주시고 엄마한테 할 수 없는 얘기도 할머니한테 많이 했고...이제 할머니네 집에서 나와서 저쪽 \*\*쪽(동네명)으로 이사를 갔을 때는 친구들이랑 굉장히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C1]

P: 그런데 할머니가 저를 걱정하신다는 말에, ‘왜 굳이 나를 그렇게 걱정하셔?’ 라고 했어요. 엄마가 ‘할머니가 너 외롭다고 걱정하신다.’ 고... 처음으로 감사하기도 하면서, ‘내가 그렇게 외로웠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C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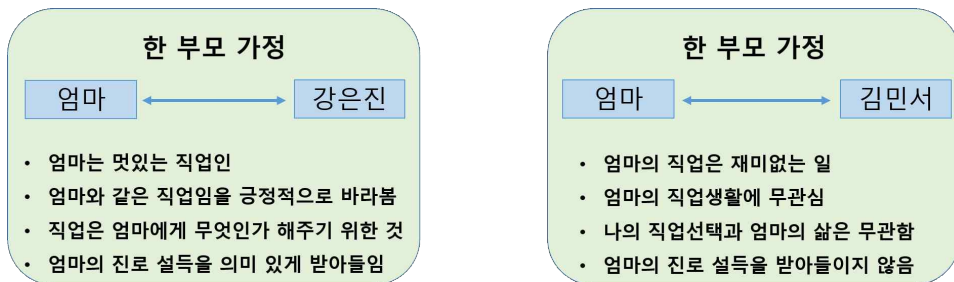
둘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실천 양상이 달랐다. 저소득 가정 맥락 안에서 한지민은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용돈을 충당하고, 경제생활에 빨리 입문하게 된다. 한지민은 부모의 일을 돕거나 동생들을 돌보고, 부모는 한지민에게 심리적으로 의지하는 방식으로 부모-자녀 간 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진로·직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한지민이 주도하고 부모는 이에 따르는 방식으로 행위 하였다. 반면, 강은진의 부모는 오히려 자녀에게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하였고, 강은진은 소비를 거의 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였다. 그 결과 강은진은 경제생활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많지 않다. 또한 한 부모 가정 속에서 강은진과 엄마는 유일한 관계로서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였다.



[그림 6] 경제적 어려움 속 개별적 상호작용



셋째, 가족 구조의 변형 속에서 부모-자녀의 관계는 서로 다른 의미로 형성되었다. 한 부모 가정 배경이 부모-자녀 관계 형성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할지는 예측할 수 없었다. 강은진과 김민서의 어머니는 공통적으로 이혼과 별거 후 생계를 책임졌다. 강은진은 어머니를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 끈끈한 관계로 설명하는 등 자신의 삶과 어머니의 삶을 밀접하게 연결 지어 인식했다. 반면, 김민서는 어머니와 자신의 삶을 독립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어머니의 직업생활을 바라보는 태도, 어머니의 진로 조언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영향을 주었다. 강은진은 어머니의 직업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대리경험 하는 반면, 김민서는 어머니의 직업생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관심이 없었다. 강은진은 직업을 빨리 갖고자 하는 이유가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한 반면, 김민서는 어머니가 앞으로 10년은 더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강은진은 어머니의 간호사 직업에 관한 설득을 받아들이고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반면, 김민서는 교육대학 진학을 설득하는 어머니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그림 7] 한 부모 가정 속 개별적 상호작용

넷째, 부모의 직업생활이 자녀에게 전달하는 VAS 메시지 또한 개별적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의 직업생활을 관찰해 오면서 서로 다른 직업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비정규직인 부모의 직업생활을 지켜보면서 한지민은 ‘직업은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것’ 이라고 인식하였고, ‘오래 일하고 싶지 않다.’ 고 말하는 등 직업의 안정성을 중요하

게 고려하지 않았다. 반면, 강은진은 비정규직인 어머니의 불안정한 직업 생활을 지켜보면서 직업의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김서연의 경우 농사라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육체노동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되었고, 피부 알레르기 때문에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유 없는 죄책감’을 형성하게 된다. 김민서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직업생활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혹은 무관심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듯 부모의 직업생활 관찰을 통한 학습경험은 단순히 선호와 비선호로 표현할 수 없다. 부모의 육체노동을 지켜보면서 이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는가 하면(김서연), 반대로 사무직은 재미없고 지루한 일이라고 인식하며 육체노동에 익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한지민). 어머니가 사이버대학 강좌를 통해 취득한 간호조무사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인정하는가 하면(강은진), 쉽게 딸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잘 자잘한 업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김민서).

가족의 위기, 가족 구조의 변형, 경제적 어려움 등 구조화된 사회화 조건이 가족구성원과의 상호작용에 어떠한 맥락으로 작용할지는 일관되게 설명할 수 없다. 또한 부모의 직업생활이 자녀에게 어떠한 사회화 메시지를 전달할지도 예측할 수 없다. 그 안의 상호작용 과정과 내용을 들여다보아야 개별적 사회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다. 가족구성원과의 상호작용과 그 경험을 통해 형성된 VAS 메시지의 개별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5> 가족구성원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VAS 메시지

참여자	상호작용	VAS 메시지
한지민	가족의 위기	• 가족들은 나에게 의지한다.
	할머니와의 갈등	• 취업의 목적은 할머니 집에서 빨리 벗어나기
	부모님의 직업생활	• 육체노동, 비정규직에 익숙하다. -사무직은 ‘재미없고, 지루한 일’이다. -언제든지 원하면 일할 수 있다.
김서연	부모님의 직업생활	• 그 쪽 일(농사, 육체노동)은 안하겠다.

	부모님의 고생	• 이유 없는 죄책감을 느낀다.
	부모님과 오빠의 갈등	• 부모님은 나의 취업을 기다려줄 수 없다.
장은진	외로웠던 아동기	•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엄마의 직업생활	• 엄마는 멋있고 자랑스러운 직업인이다. • 간호사 직업은 장단점이 있다.
	엄마의 고생	• 최대한 빨리,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
김민서	부모님의 이혼	• 아빠는 ‘원래 없는 존재’ 이다.
	엄마의 직업생활	• 부정적이고 관심이 없다. -보육교사 자격증, 쉽게 따다, 자잘자잘한 업무

## 2) 학교와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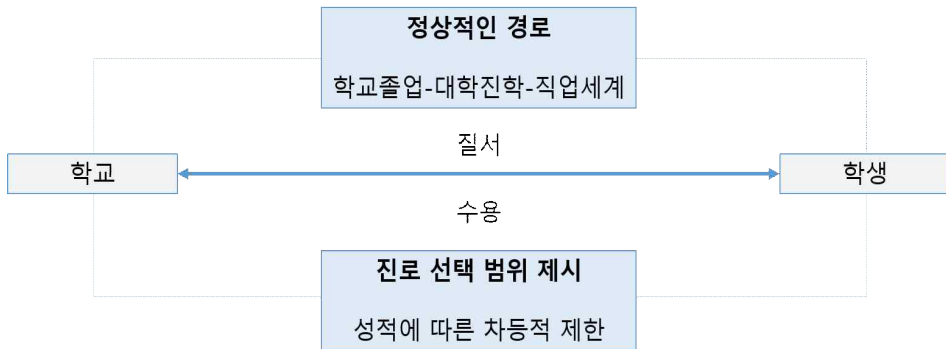
### (1) 사회화의 구조적 조건

#### ① 정상적 직업 경로, 진로선택 범위 제한

첫째, 학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고등학교 졸업-대학 진학-일의 세계 입문’ 이라는 ‘정상적인’ 직업 경로를 제시해 주고 있었다. 사회구성원들과 청소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 진학을 통해 직업교육을 받는 것을 정상적인 것, 일의 세계로의 순조로운 이행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경로를 벗어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개인 심리적으로 저항이 크다. 청소년들에게는 학교라는 관문을 잘 통과해야 대학 진학을 통한 직업교육기관 진입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가 제시한 질서를 따르고자 하였으며,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방식대로’ 직업인이 되고자 하였다.

둘째, 학교는 성적과 대학입시 제도를 통해 진로선택 범위를 제한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에서 부여받은 성적에 따라 진

로선택의 범위를 줄어나갔으며, 이러한 과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학교와 교육제도가 부여하는 성적이다. 학교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진로선택을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실질적 선택의 자유’도 차등적으로 주어진다. 연구 참여자들은 저소득가정, 부모에 대한 부담 등 다양한 제약 조건을 고려해야 했고, 선택의 범위는 매우 협소해졌다. 하지만 이를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자신의 탓이라고 여겼다. 예를 들어, 강은진은 성적이 떨어지자 자신의 집중력이 낮아서 혹은 끈기가 없어서 심리상담가나 수의사는 될 수 없다고 스스로 포기했다. 이처럼 저소득가정 배경을 지닌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의 소극적 교육지원 등 높은 학업성취를 할 수 없는 구조 속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성적과 이를 근거로 학교에서 제시하는 진로선택의 범위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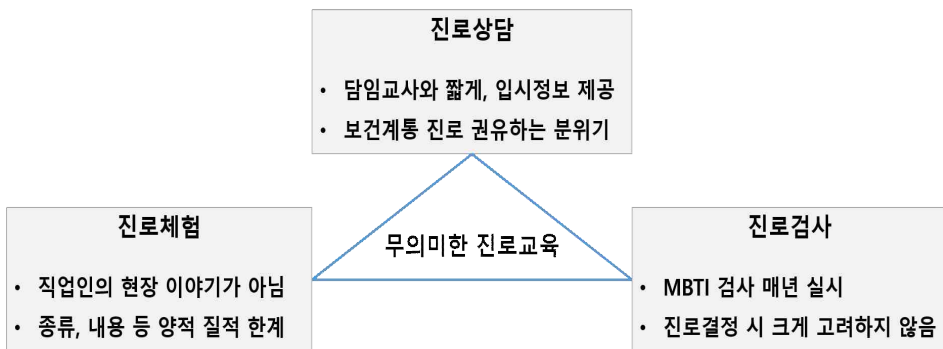


[그림 8] 학교 사회화의 구조

## ② 무의미한 진로교육, 경제수업의 부재

첫째, 학교의 ‘무의미한 진로교육’ 구조 속에서 구체적인 VAS 메시지는 형성되지 않았다. 학교의 진로교육 내러티브는 진로상담, 진로체험, 진로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담임교사와의 진로상담은 고등학교 3학년 학

기 초와 입시원서를 쓸 때 즈음 간단하게 이루어진다. 학생의 지망 학과와 대학을 확인하고, 관련 입시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교사는 진로의 사결정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자 고등학교라는 특성, 취업률, 졸업생들의 진학 전통을 고려하여 보건계통(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물리치료학과)의 진로를 권유하는 학교 분위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매년 실시하는 MBTI 진로검사는 진로선택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성격유형에 부합하는 직업 환경을 제시해 주는 프로그램이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진로의사결정 시 이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학교에서 진로강연,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니었다, 실제 직업 종사자의 현장 이야기가 아니었다, 관심분야의 진로체험 활동이 없어서 선택의 범위가 좁았다, 직업체험이 아니라 직업관련 행위를 따라하는 방식이었다.’ 등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 현상은 존재하나, 이러한 구조 속에서 VAS 메시지의 내용이 형성되기는 어려웠다.



[그림 9] 무의미한 진로교육의 구조

<표 16> 진로교육 관련 내러티브

참여자	면담 내용
한지민	R: 만약에 진로상담을 학교에서 받는다면 누구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p>P: 지금 이 일을 하는 사람. 그 ...얼마 전에 학교에 전직 승무원일 하셨던 교수님이 와서 자기가 했던 일을 짝 펼쳤는데 아...정말 재미있었거든요. ...&lt;중략&gt;...그니깐 김제동이 와서 강호동 얘기하는 거랑 같아요. 김제동이 왔는데 강호동 얘기만 해요. 김제동이 자기 얘기를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 얘기만 해요. [A4]</p>
<p>김서연</p>	<p>P: 보건 쪽은 아무래도...남들 보면 보건 쪽이 취업...그러게요...선생님들도 그러신 건 같아요. 보건 쪽이 취업 잘된다. 보건 쪽으로 우선 한 개씩 써봐라...분위기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애들끼리 입시 이야기할 때도...&lt;중략&gt;...선생님들도 많이 보신 것 아닐까요? 잘 모르겠어요. [D4]</p> <p>P: 관심 없고...그냥 탐방 가길래 따라 가보자...해가지고.^^(웃음)...&lt;중략&gt;...호텔관광학과에서는 음료수 같은 거 만들고 샌드위치 만들고...경영학과에서는 무슨 수업을 듣더라고요 진짜 재미없어가지고 좀 졸았던 것으로 기억해요.^^(웃음) 뭔가 샤랄라 하고 뭔가 재밌을 것 같았는데 가니까...거기 카페가 있었거든요. 근데 언니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아 저렇구나. 대학가면은... [D1]</p>
<p>강은진</p>	<p>P: 아니요. 결국 직업 선택함에 있어서 그런 검사들보다는 그냥 계속 고민하고 엄마랑 함께 얘기하고 이런 게 더 영향을 끼쳤으니까. 만약 어떤 검사를 더 해줬다고 해도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lt;중략&gt;...고등학교 때 직업체험 사회복지사, 응급 구조 이런 거 들었는데. 응급 구조에서는 심폐소생술하고 끝나고 사회복지에서는 휠체어 운전하는 법 가르쳐주고 끝나고 하니까 그렇게 크게 내 직업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거죠.</p> <p>P: 정말 만약에 후배들한테 어떤 활동을 해준다면 정말 현실적으로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되는, 그 분야, 업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그냥 강사분들이 아닌, 간호사라면 병동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했으면 좋겠어요. ...&lt;중략&gt;...응급구조 체험했다고 했잖아요. 소방서에서 구급대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닌, 그 학과를 나오신 분들이니까 직접적인 현장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없잖아요. 정작 우리가 종사하는 곳은 현장인데.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C4]</p>
<p>김민서</p>	<p>P: 그런데 저희 학교에서는 진로시간이 있긴 했는데, 그런데서</p>

	<p>MBI 검사?(MBTI 검사) 이런 검사만 몇 번 했지, 학교에서 해주는 건 솔직히 없었어요, 진로에 대해서는.</p> <p>R: 진로와 관련된 상담은 했을 거 아니야, 고3때?</p> <p>P: 상담...저희는 상담을 한 게 아니라, 성적에 맞춰서 ‘대학교 하고 과 어디 가고 싶냐고’ 그런 것만 했지. 진로상담은... [E2]</p> <p>R: ‘아 그래도 학교에서 나한테 뭔가 의미 있는 걸 제공해줬구나.’ 라는 경험이나 체험이 있었어?</p> <p>P: (침묵). 아니요.</p> <p>R: 그런 건 하나도 없었어?</p> <p>P: 학교에서 해주는 거 자체도 없었는데 그런 직업적으로는 몇 개 있었긴 했는데, 그게 딱히 저한테 도움이 되거나 좋았던 경험은 아니었어요. [E2]</p>
--	--

둘째, 학교 안에서 ‘경제수업이 부재’ 하였고, 경제수업을 통한 예비 직업사회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사회시간에 경제 단원을 배워본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실제 경제수업이 존재 하였는 지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 안에서 의미 있는 경험이 형성 되었는지의 문제이다. 중학교 때 사회시간 경제수업에서 의미 있는 상호 작용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고등학교 때는 선택과목으로 경제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 경제수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음을 의미한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한지민은 경제수업 시간에 노동법, 노동권 과 관련한 내용을 배우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김민서는 자신이 필요에 의 해 한국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표 17> 경제수업의 부재 관련 내러티브

참여자	면담 내용
한지민	<p>R: 사회나 경제를 배워본 적 있어?</p> <p>P: 중학교 땐가...사회랑 법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사? 그냥 부록처럼 끼있는 경제 있잖아요. 그건 배웠어요.</p> <p>R: 기억나는 건 하나도 없어?</p>

	<p>P: 네. [A3]</p> <p>R: 학교에서 가르쳐 주면 좋겠다...배우고 싶은 거 있어?</p> <p>P: 노동법...근로기준 이런 거? 그런 거 여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확실히 알고 가면 내가 가서 너 ~~이래 그러면 내가 근로기준법~~이래이래요. 얼마 더 주셔야 돼요...그리고... [A4]</p>
김서연	<p>R: 너 혹시 경제수업을 받아본 적이 있니?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p> <p>P: 아니요 한 번도 없었어요.</p> <p>R: 한 번도 없었어? 경제단원도 없었어? 소비, 소득...</p> <p>P: 사회? 중학교 1학년 때 사회 시간에.</p> <p>R: 뭐 배웠는지 기억나?</p> <p>P: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대충... [D2]</p>
강은진	<p>R: ...쌤들은 다 좋아했는데 딱 영향을 주신 분들은 없었어요.</p> <p>P: 경제수업을 들어봤어?</p> <p>R: 경제...? 경제 과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없었어요. [C1]</p>
김민서	<p>R: 경제수업 받은 적 있어?</p> <p>P: 없었어요.</p> <p>R: 중학교 때는?</p> <p>P: 없었어요.</p> <p>R: 경제단원도? 경제소비, 소비곡선... 공급곡선...</p> <p>P: 저 그런 거 배운 적 한 번도 없어요.</p> <p>R: 한 번도 없어? 그래? 고등학교 때는...</p> <p>P: 고등학교 때도 없어요.</p> <p>R: 선택도 안 했으니까... 선택한 애는 있니?</p> <p>P: 아니요. 과목이 없어요. 저희는 선생님이 별로 없어서, 지정된 것만 배우느라...</p> <p>R: 경제관련 수업을 한 번도 받은 적 없어?</p> <p>P: 학교에서는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국은행이었나? 거기서 동영상 같은 걸로 해준 게 있더라고요. 입시준비도 해야 하고 그래서 한 두 번 본 것 같아요. [E1]</p>



## (2) 사회화의 개별적 의미

학교는 각 연구 참여자들에게 동일한 하나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발생된 여러 사회적 사건들의 장소가 될 수 있다. 학교는 두 개의 세계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공식적인 구조로서 제도의 세계이고, 성인에 의해 통제 받는 형식적 학교 세계이다. 반면, 학교에는 사회 네트워크와 또래 집단 문화와 같은 비공식적 세계가 존재한다(Valentine, 2001: 185). Willis(1981) 역시 학교 공간이 제도적이고 사회 유지적인 질서가 존재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질서에 저항하는 대안적 공간구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노동자 계급의 청소년들은 학교가 전달하고자 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저항 없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학교 질서에서 일탈하는 공간 구조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연구 참여자들 역시 학교의 제도적 권위와 질서를 받아들였으나, 학교의 의미를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행위 한 것은 아니다. 자신의 상황과 해석에 따라 학교 안에서의 실천은 상이했다. 한지민은 공식적인 교육제도 안에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인식하고, 학교 밖에서 의미를 찾고자 했다. 강은진은 학교의 권위를 인정하되 인간관계를 배우는 곳, 끈기를 배우는 곳 등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민서는 학교 안 교육활동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 행정적 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학교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표 18> 학교의 의미와 개별적 행위

참여자	면담 내용
한지민	R: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었어? P: 아니요~~전혀.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정말 답답해 보였어요. ...<중략>... 그리고 고3 애들 보면 (조용하게)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저희보다 선택의 폭이 넓잖아요. 근데 막상 꿈이 없어요. 개네들...그냥 성적 맞춰서.. 써서.. 대학가고 거기 맞는 취업하고...그것밖에 없어요. [A2] R: 학교를 졸업한다는 건 어떤 의미야? P: 옛날엔 졸업장만 있음 된다. 그런 거? 왜냐면 미용하는 애들 중

	<p>에 졸업장 없는 애들이 많아요. 중졸 이런 애들이 많거든요. 졸업장만 있고 자격증만 있으면 땡 인거지... [A2]</p> <p>P: 제가 공부 못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친한 선생님들이 진짜 많아요. 선생님들이 약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찾아와서 “선생님 이거 문제 좀 알려주세요.” 그러는데 저는 “선생님 밥 드셨어요?” 그러는데 선생님 눈에 띄면 뭐라도 하나 얻어요. [A2]</p> <p>P: 제가 유리할 것 같은 건...애들은 뭐 시키면...아~이거 왜 해야 되지?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뭐시키면 아...빨리 하고 집에 가야지 그런 게 있단 말예요...좀 긍정적인~^^ (웃음) [A4]</p>
강은진	<p>P: 이왕이면 학교에서 늦게 까지 야자를 하는 거면 이왕이면 학교에 잘 붙어있는 주의였어요. 야자를 잘 빼지도 않고...이때까지 시간을 딱 정해서 이때까지 학교에 있어라...그러면 아. 예. 있죠 뭐~~이러고 있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공부는 안 해도..^^(웃음) 학교에 꼭 붙어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웃음)</p> <p>R: 학교에 붙어 있으면 뭐가 좋은데?</p> <p>P: 좋은 건 없었어요. 그냥 ...야자시간이고 이때 끝나는 게 맞고...내가 집에 가거나,,다른 곳에 가야할 마땅한 일이 없으니까...굳이 뺄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C3]</p> <p>P: 학교가 되게 학교에서 공부 이런 것보다는 인간관계를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lt;중략&gt;...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C3]</p>
김민서	<p>P: 의무니까 가는 거지...처음에는 시간 아깝고 그래서 자퇴할 생각도 한 적 있어요. 그 고1 끝나고 겨울방학인가? 겨울방학 때쯤에 자퇴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 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보고, 재수학원 같은 데를 들어가서 대학 더 잘 가고...그러기도 하고. 또 시골학교다보니까 수준도 되게 떨어지고 그래서, 자퇴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p> <p>R: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학교를 다닌 건 왜 다닌 거야?</p> <p>P: 아무래도...제가 졸업을 안 하고 졸업장을 못 받는 게 엄마는 별로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E2]</p> <p>P: 제가...한 부모 지원을 받게 되면, 급식이 점심 급식이 무료라는 걸 엄마가 알고 있어서, 엄마가 그걸 행정실에 물어봤고, 또 시간 며칠 지나니까, 보건 선생님...행정실 그 사람이 저를 찾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우유 공짜로 지원해주니까 먹으라고 그래서... [E2]</p>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 한지민은 학교가 제시하는 틀 안에서 인정받을 수 없었다. 학교는 공식적인 질서를 따르지 않는 한지민을 소외시키고 배제한다. 취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한지민이 누워있어도 교과교사는 관여하지 않았고, 담임교사는 진로상담을 하지 않았다. 한지민의 생활과 전혀 관련이 없는 수업시간은 앉아있기도 고통스러웠다. 예술실용전문학교 진학 결정을 독자적으로 하였으며, 원서비가 아까워 수능시험을 보지 않는다는 결정에 대하여 아무도 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지민은 학교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았다. 한지민은 학교의 공식적 제도 안으로 들어가고자 노력하거나 학교가 제시하는 가치, 대학진학이라는 공동의 목적에 순순히 동의하지 않는다. 스스로 대안적 목적과 공간을 형성하고자 하였으며, 학교를 평가하고 이용하는 주체였고, 학교 밖의 공간에서 의미를 찾는 데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다. 학교가 제시하는 ‘정상적인 직업 경로’가 아닌 자신만의 직업 경로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한지민은 수업시간 대신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이었고,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대신 대전의 미용학원을 다녔으며,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대신 예술실용전문학교의 면접에 참여했다. 또한 공부를 못하는 대신 선생님 눈에 띄기, 심부름 잘하기 등의 전략을 썼다.

김민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학교의 질서에 저항하였다. 김민서는 반에서 1~2등, 전교에서 3~4등을 할 만큼 성적이 좋았으나, 학교의 권력을 받아들이는 학생은 아니었다. 김민서는 학교가 자신의 신분상승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만의 전략을 추구했다. 학교에서는 인터넷 강의를 듣고, 문제집을 풀고, 내신점수를 위해 ‘필요 있는 수업’을 골라듣고, 동아리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한 부모 가정 자녀에게 학교에서 제공하는 행정적 지원을 이용하는 등 학교를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민서는 인터넷을 통해 상류층 사람들의 생활을 끊임없이 엿보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역할과 기대에 적당히 타협하거나 수용하지 않았다.

### 3)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 (1) 사회화의 구조적 조건

Bourdieu(1991)는 장소를 점유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했다<sup>59)</sup>. 비수도권, 비도시지역인 금산이라는 지역에 거주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득을 얻게 하고 혹은 포기하게 하는 구조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했다.

##### ① 한계와 제약의 구조

금산 지역은 부모와 자녀에게 서로 다른 조건으로 작용했다. 첫째, 금산 지역은 연구 참여자의 부모에게 ‘치유와 재기’의 공간이었다. 부모들이 금산 지역에 거주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면, 가족의 위기를 경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고향으로 오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한지민의 부모는 도시에서 문방구를 하다가 큰 빚을 져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금산 할머니 집으로 이주해 아직도 그 빚을 갚고 있다. 강은진의 어머니는 다른 지역에서 두 번의 이혼을 겪고 홀로 남매를 데리고 고향인 금산에 왔다. 외할머니 집에서 지내면서 강은진은 외롭고 상처받았던 심리를 치유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강은진의 어머니는 금산에서 경제적 자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김민서의 어머니도 서울에서 살다가 아버지의 실직 이후 고향인 금산에 내려왔고, 직업생활을 시작하는 등 새로운 삶을 도모했다.

둘째, 금산 지역은 자녀인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한계와 제약’의 공간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이들은 문화, 소비, 교육 경험을 하기 위해서 시

---

59) Bourdieu(1991)는 공간이득을 다양한 형식으로 구분했다. 상황이득은 특정 공간을 점유함으로써 원하는 환경, 사건, 사람에게 불편함 없이 빨리 다가가고, 원치 않는 접촉은 차단시켜주는 이득을 말한다. 위치이득은 타인의 공간과 시간을 점령하는 데 얼마나 신속한 권한을 가지는지를 의미한다. 나쁜 장소는 위치이득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기회 감소를 의미한다. 공간 확보 이득은 공간에 대한 처분력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이다. 확보한 공간이 크면 클수록 사회적으로 결합할 수 없는 존재를 멀리 밀어낼 수 있다(Schroer, 2006: 103).

외버스를 타고 근처 도시로 나가야 했다. 한지민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가고 싶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도할 수 없었다. 금산에서는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주춤거리게 된다고 말한다. 가장 외진 곳에 살았던 김서연은 친구들과처럼 아르바이트도 하고 싶고, 놀고 싶지만 버스가 일찍 끊기면 집에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참아야 했다. 자신을 ‘우물 안의 개구리’, ‘방구석의 아이’ 라고 표현하였다. 김민서는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가 컸으나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금산에 산다는 것은 행동과 생각의 제약까지 가져온다.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식이 쉽게 퍼지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다. 김민서는 금산에서 (입시)재수를 한다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 못된 짓’ 이고 ‘죄를 짓는 짓’ 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금산에서는 사람들의 진로가 다양하지 않고 ‘충대(근처 도시 국립대) 가서 공무원 해야지’ 정도의 생각의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 ② 부딪침과 수용의 구조

한계와 제약의 공간 속에서 연구 참여자의 일상생활에는 상황을 참고 받아들이는 경험이 반복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농촌지역의 제약과 반복된 부딪침은 심리적 위축과 수용하는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한지민은 어린 시절 할머니와의 갈등과 부모를 대신하는 역할을 참아야 했다. 예술실용전문학교 진학을 포기하면서 ‘인연이 아닌가보다, 운명인가보다’ 라고 체념을 했다. 졸업 후 학원비가 없어서 한 달 동안 집안에서 지낼 때도 아빠를 원망하였으나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은 이후에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한다. 예전에는 하고 싶은 일이 많았으나 ‘계속 움츠러드니까 흥미를 잃었다.’ 고 말한다.

특히 김서연은 거주지의 제약을 많이 경험하고 자랐다. 부모님이 깻잎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버스가 다니지 않아 학교에 갈 수 없었다. 또래는 별로 없고 슈퍼 하나, 새마을 금고가 하나 있는 동네에서는 TV시청, 독서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교통과 통신 환경이 불편하고, 소비시장이 크게 형성되지 않은 거주지에서 김서연은 하고 싶은 것이 많지 않았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많았다. 김서연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사학과에 합격했는데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계획에 없던 물리치료학과를 선택한 이후에도 ‘그냥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체념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강은진은 어린 시절 새 아빠의 구박을 견뎌야 했고, 금산에서도 일하러 나간 어머니를 기다리며 외로움과 무서움을 참아야 했다. 지금 삶에도 만족하며, 아주 조금만 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삶을 산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한다. 어린 시절부터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가정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포기하고,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체념한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며, 낮은 성적 때문에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진로에 대해서도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며 수용한다. 진로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최종적으로는 엄마의 설득을 수용하여 간호학과를 지원하게 된다. 경제생활에 있어서도 소비 욕구가 강하지 않으며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는다.

## (2) 사회화의 개별적 의미 : 금산 지역 벗어나기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금산 지역을 벗어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금산 벗어나기’를 ‘직업’과 연결 지어 생각했다. 그리고 단순히 금산 지역을 떠난다는 물리적인 의미도 있었으나, 현재의 삶과 계층을 벗어난다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한지민은 물리적으로 금산 지역을 빨리 떠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다. 취업을 통해 금산을 벗어나고자 하였으며, 고등학생 때부터 다양한 시도를 했다. 첫 번째 시도는 대전으로 미용학원 다니기였다. 두 번째 시도는 서울의 예술실용전문학교 진학하기였다. 금산을 벗어나 서울의 방송국에서 일하기 위해 무대연출학과를 지원하게 된다. 세 번째 시도는 대전의 뷰티학원 등록하기였다. 졸업 후 아빠의 반대로 예술실용전문학교 진학이 무산되자 서울의 방송국에 취직이 잘 된다는 대전의 뷰티학원을 찾아 등

록한다. 네 번째 시도는 대전의 고용센터 찾아가기였다. 학원비를 낼 수 없어 뷰티학원을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자 절망의 시간을 보냈으나, 결국 다시 방법을 찾게 되었고, 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게 된다.

<표 19> 한지민의 금산 지역 벗어나기

상호작용	면담 내용
취업의 목적	<p>P: 일단 금산을 떠야 해요. 일단 그게 목표예요. 그냥...할머니랑 자꾸 싸우다 보니까 자꾸 집을 나가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음...그리고...</p> <p>P: 사회적 명예도 얻고 싶은데, 일단 근본적인 직업을 갖기 위한 목표는 ‘집에서 나와야돼서.’</p> <p>R: 솔직히 말하면, 집에서 빨리 나오고 싶어서 직업을 갖고 싶구나? P: 네. [A5]</p>
한지민 대전 미용학원 등록하기	<p>P: 고민 안했어요. 고1 겨울방학 때 정말 추웠어요. 길을 잃어 버렸어요. 대전에 내렸는데...그 계속...미용학원 가야되는데...(알바하면서) 계속 그러다가 돈이 좀 있으니깐 간 거예요. 학교 끝나고...버스타고 부사동에 내려서 거기서 또 급행 2번을 타고 은행동에 내려서 길을 잃어버려서 대전역까지 헤맸어요. ...&lt;중략&gt;...다 그런 건 아닌데 꿈이 있는 애들만...금산에도 미용학원이 있긴 하는데 거긴 하나 밖에 안 가르쳐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애들이 다 대전으로 나가서 배우거든요. [A4]</p>
대전 미용학원 다니기	<p>P: 알바보다 더 힘들어요. 일단 말할 사람이 없어요. 혼자 한 두 시간 동안 입을 앙 다물고...^^(웃음)선생님 물어봐도 네. 이런 거만 하니깐. 그래서 말고...시간재고...또 말고...물리면은 다 못 말았으면 다시 풀고 혼자 다시하고 또 다시하고 계속 그랬어요.</p> <p>R: 일주일에 며칠?</p> <p>P: 5일 동안. 매일 갔어요. 버스타고...가면 한 시간...매일 세 시간씩...도착하면 6시 되니까 9시까지... [A2]</p>
예술실용 전문학교	<p>P: 처음에 이모가 의정부에 살아서 금요일 날 학교를 끝나고 의정부로 올라가서 자고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씻</p>

면접보기	<p>고...떨어가지고 8시에 지하철을 타고 한 두 시간 타고 가서...&lt;중략&gt;....그래서 떨어졌어요. 1차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준비해서 2차를 다시 보러 간 거예요. [A2]</p> <p>P: 좀...절실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공부를 못했잖아요.^^ (웃음) 근데 할 줄 아는 게 춤추고 노는 것 밖에 없으니까... [A2]</p>
대전 뷰티학원 등록하기	<p>R: 서울 가야겠네?</p> <p>P: 가야 되죠. 학원에 선생님들이 연예인 스타일리스트 하는 분도 있고...저희 학원이 방송국이랑 SBS랑 연계돼 있거든요. 거기 학원에 인턴십 그런 것도 있어요. 프로그램이. 그런 거 잘 들으면 취업도 시켜준대요. [A5]</p>
대전의 고용센터 찾아가기	<p>P: 한 달 동안 집밖에 안 나가고.. 학원을 안 나가게 돼서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엄마가 전화해서 칼국수를 먹으러 가세요. 칼국수 집에 갔는데, 엄마가 ‘고용센터에 가볼래?’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 왜? 왜 가야돼?’ 이랬더니, ‘국비로 할 수 있으면 하라’ 고 하셨어요. 그럴까? 하고 그 날 바로 대전으로 가서 신청하고... [A6]</p>

김민서에게 금산을 벗어나는 것은 단순히 지역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계층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명문대 진학을 통해 금산을 벗어나고 신분상승을 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김민서는 친구들과과는 다른 방식으로 행위 했다. 인터넷 강의 활용하기, 방학 기간 동안 대전의 학원 다니기 등 나름의 전략적 실천을 하였다. 중학교 때부터 학원을 다니지 않고 인터넷 강의를 통해 스스로 공부하며 상위권을 유지했다. 고등학교 3학년 두 번의 방학 때는 대전의 입시학원을 다니기도 했다. 금산 지역에서 대전의 입시학원에 다니는 또래는 거의 없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올리기 위해 선택한 행위이다. 김민서는 심리적으로 금산 지역의 소속을 거부했다. ‘금산 애들’, ‘대전 애들’로 나누어 이야기하였으며, ‘금산 애들’은 자신과 수준이 맞지 않고, 대화가 통하지 않으며,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자신은 실제 금산에 속해 있지만 이상은 ‘대전 애들’에 속하는 것이다.



<표 20> 김민서의 금산 지역 벗어나기

상호작용	면담 내용
인터넷 강의	<p>P: 네. 좋은 학원도 별로 없고...인강 보는 애들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공부 한다는 애들은 저처럼 수학만 듣는다든지, 탐구 하나만 듣는다든지 다 그런 식이어가지고. [E1]</p>
대전 학원 다니기	<p>R: 그런 애들이 금산에 많아?                      P: 거의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저밖에 없었던 걸로 알아요.                      R: 대전에 있는 학원에 다니는 애들이? 왜?                      P: 일단 멀기도 하고, 금산에서 둔산동까지 가기에 돈도 많이 들고...&lt;중략&gt;...11시까지 원래 자습인데, 차량 운전자 아저씨가 저 막차 태우려고 부사동까지 와서 저는 그렇게 집에서 잤어요...&lt;중략&gt;...저 그 때 엄청 힘들었거든요? 11시에 와서도 씻고 새벽 3시까지 맨날 공부하다가. [E1]</p>
김민서  금산 부정하기	<p>P: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제 금산 친구들이랑 솔직히 저랑 수준이 다른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또 대전에 있는 애들은 저보다 수준이 더 높거든요? 개네한테 제 말을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해서, 개네들한테만 말을 하지. 금산에 있는 애들한테는...                      R: 이야기해봤자.                      P: 잘 몰라요.                      R: 대화가 안 되고...                      P: 대화가 안 돼요.                      P: 실제로는 여기 금산 애들한테 속해있긴 하는데, 제 ‘이상’은 그거죠. [E1]</p>

#### 4) 인터넷과의 상호작용

##### (1) 사회화의 구조적 조건

###### ① 인터넷 사회화의 가능성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매개하고 있는 미디어는 20세기 이후 현대 사회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사회화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Giddens, 1992). 특히 인터넷은 현대 사회인에게 새로운 일상적 삶의 공간이 되었으며 개인의 사회화 과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의 문화를 즐기며, 이 과정에서의 경험이 사회화를 촉진 한다<sup>60)</sup>. 새로운 디지털 문화는 젊은 층이 세계로 가는 통로이며 사회화가 일어나는 맥락을 제공한다.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 공간의 삶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요즘의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의 영향과 그 범위는 매우 복잡하고 강력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진로·직업 정보를 얻고 직업 관련 가치관을 습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를 매우 신뢰하고 있었다. 한지민은 진로의사결정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이 인터넷이라고 말했고, 강은진은 인터넷 공간이 청소년들에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가장 덧붙임 없이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어떤 압력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한 진실만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신뢰했다. 김민서는 하루 한 시간 이상씩 인터넷을 하였으며, 거의 모든 정보를 사람이 아닌 인터넷을 통해 얻는다고 말했다.

---

60) 민경배(2002)는 인터넷 공간의 사회적 역할을 사회화의 주된 내용과 관련해 ‘지식정보의 습득, 의사표현의 방식 체득, 인간관계의 구축, 규범 및 문화의 내면화’로 구분하였다.

<표 21> 사회화 원천으로서 인터넷

참여자	면담 내용
한지민	<p>R: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혼란을 겪고 새로운 결정을 하기 까지 영향을 미친 사람이나, 도움이 됐던 뭔가 있어?</p> <p>P: 인터넷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p> <p>R: 인터넷이 제일 도움이 됐어, 네 인생에? 사람보다?</p> <p>P: 스마트폰을 정말 누가 개발했는지.. 찾아보면 고민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지식인 같은데... 그런 비슷한 글을 찾아보면 사람들 댓글이 ‘굳이 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나중에 후회한다고...나중에 부모님 탓 하지 말고 차라리 너를 탓하라고...&lt;중략&gt;... 얼굴이 안보이니까 속마음을 다 쓰거든요? 그래서...학원 정보를 그렇게 잘 줘요. 학원이...사기 치는 데도 되게 많대요. 미용 학원은...얼마 안하는데 다른 학원가면 백 얼마주면 배울 것을 다른 학원에서는 이백얼마주고 배워야하는 그런 데가 있는데. 찾아보면 여기는 어디가 좋고, 여기는 어디가 좋고... 다녀보니까 여긴 어떻게더라...이런 것도 올라오거든요? [A5]</p>
강은진	<p>P: 요즘 세대의 애들한테는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가장 덧붙임 없이 얻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공중과 뉴스나 이런 데에서는 정작 우리가 알아야할 내용들이 안담긴대요. 예를 들어 광화문에서 시위하시는 어르신들이 물대포를 맞는다거나 이런 게 있고. 그 이면에는 또 그분들의 시위로 인해서 다치신 경찰들도 있고.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린 분명 페이스북에서 접하고 있는데, 공중과 뉴스에서는 단 한 장면도 안 나갔대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우리가.. 되게 덧붙임 없고, 어떤 압력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한 진실만을 볼 수 있는 그런 매체도 어찌면 SNS 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 있어요.</p> <p>R: 그럼 은진이는 세상과 소통하는 데 있어 SNS가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p> <p>P: 아무래도 거기서는 제가 뉴스를 보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진실된 팩트를 받을 수 있고. [C2]</p>
김민서	<p>R: 응 직업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게 된?</p> <p>P: 저는 인터넷. 저는 거의 다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서 얻은 것 같아요. 사람한테 얻은 게 아니고. [E2]</p>

<p>P: 요즘에는 안하긴 하는데, 최소 1시간은 하는 것 같아요.</p> <p>R: 매일 매일? 주로 한 시간 동안 뭐부터 시작해?</p> <p>P: 카페 들어가서 다른 사람은 오늘 뭘 사...산거? 오늘 산 것도 구경하고, 여행간 데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나? 오늘은 뭐 했나 그런 거? [E1]</p> <p>P: 인터넷에 저런...거...제가 따로 찾아본 건 아닌데, 막연하게 저런 생각했을 때, 인터넷에 저런 글이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p> <p>R: 아까 말한 ‘수만화’ 리고 하는데?</p> <p>P: 그런 데서도 그렇고. 막 제가 이렇게 찾아서 안 게 아니고,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본 거라서, 저 사람...또 꽤 많아요, 한 두 명이 아니고. 유학 가서 의사된 경우도 많아서 저도 웬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E1]</p>
---

청소년과 인터넷의 상호작용은 주어진 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보완해주는 대안적 사회화 원천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농촌지역 저소득가정 배경의 연구 참여자들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자본의 부족<sup>61)</sup>으로 인해 직업인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불리할 수 있는 구조에 놓여있었으나 이를 인터넷 활용으로 극복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제공해 주지 못하는 진로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정보의 불평등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주변에서 만날 수 없었던 직업집단과의 만남, 시공간의 제약으로 경험할 수 없었던 체험들의 간접체험, 심리적 위안과 격려, 인터넷 강의를 통한 교육서비스의 분배, 제도와 기회의 공개와 접근가능성의 증가, 댓글 문화를 통한 다양한 가치관의 체득 등 수많은 가능성이 내재된 공간임이 내러티브 곳곳에서 드러났다.

61) 연구 참여자의 가정은 한 부모 가정이거나 부모가 농업에 종사하는 등 사회적 관계가 협소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교육·직업적 기대가 크지 않으며, 생업에 바빠서 경험과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해 주지 못한다. 금산 지역은 경제규모가 작고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가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이 다양하지 못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주변에 다양한 직업인의 사례를 관찰할 기회가 적었다.

## ② 인터넷 사회화의 한계

하지만 대안적 사회화 원천인 인터넷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첫째, 인터넷으로의 접근성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식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김서연의 경우 가장 외진 거주지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단절감과 이로 인한 공간 불이익이 가장 컸다. 이는 통신 여건의 열악함으로 이어져 인터넷 공간으로의 접근성 또한 방해받았다. 진로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진로의사결정을 하였고 전략적이지 못한 대입 과정을 후회하였다. 김서연은 인터넷의 공간에서 능동적이거나 활발하게 활동하는 행동 성향이 없었다. 인터넷 공간으로의 접근성 차이, 인터넷 공간에서 행위 하는 방식의 차이 등이 정보화 사회에서 또 다른 중요 자본이 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이 신뢰하고 있는 인터넷 공간은 그들이 믿는 바대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은 아니었다. 편향된 정보, 상업적 정보, 과장되거나 왜곡된, 선택된 정보들이 구부러지고 짜깁기 되어 펼쳐지는 공간이었다. 한지민은 예술실용전문학교 홈페이지의 홍보와 상업적 정보를 바탕으로 ‘학점 관리를 잘하면 유학도 갈 수 있다, 편입을 하면 스카이 대학도 들어갈 수 있다, 취업은 무조건 잘 된다’ 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결과 비싼 등록금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술실용전문학교 진학을 선택한다. 김민서는 인터넷 카페 속 익명의 글들, 편향된 글들을 읽으면서 직업 관련 가치관을 형성했다. 어린 시절부터 국가와 정치를 비판하는 글들을 읽으면서 우리 사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또한 인터넷 카페 익명의 회원들이 직업생활의 힘든 점을 토로한 글들을 읽으면서 ‘회사원들은 불쌍하게 일하고 돈을 조금 받는다.’ 는 생각을 하게 된다. 출처가 불분명하고 편향된 글을 비판적 과정 없이 수용하여 균형적인 시각을 갖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sup>62)</sup>.

---

62) Arnett(1995)은 미디어와 사회화를 논할 때 이미 기존 세대의 사회화 과정에 존재했던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의 원리가 적용되기 어려움을 지적한 바 있다.

<표 22> 인터넷 사회화의 한계

참여자	면담 내용
한지민	<p>P: 전문학교 그런 쪽으로 검색을 하다보니까 여기가 나온 거예요. 여기가 전통도 있고 학점관리만 잘해주면 미국 유학도 보내주고...그리고 일단 취업이 잘된대요. 그래서 이거 보고 다음 주에 바로 원서를 썼어요. [A1]</p> <p>P: 그게...학년...언제든 그런 의지가 있으면...하더...하던데요...학점 관리를 해서 다른 학교로 편입을 한다던지...아니면 아예 1학년 때부터 취업을 한다던지...학교에 홈페이지 들어가면 취업공고문이 따로 나와요. 찾아봐서 거기로 취업을 한다거나...저는 학교 2년 동안 다닐건데...공부 더 하고 싶으면 편입을 할까 생각중이에요...학점 관리 잘하면...어디 좀...스카이 중 하나인데...스카이 중 하나로 편입을 한다던데? 연출과...모르겠어요... [A4]</p>
김민서	<p>P: 인터넷에서 보니까 국회의원들 별로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돈은 많이 받고. 저는.. 좀 별로 가난한 환경이니까, 중학교 때 안 좋게 살았던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하는 것도 없는데, 돈 겁나 많이 받고. 우리는 세금 내는 거 다 내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있고...’ ...&lt;중략&gt;...그 때부터 저는 여기에 신물? 신물 나서 나랏일 하는 거, 나라와 관련 있는 것들을 하기 싫었어요.</p> <p>R: 이 사회에 대해서 실망을 했구나?</p> <p>P: 네 진짜.. 아닌 거 같아요. [E1]</p> <p>P: 여기 말고 다른 사이트도 많이 하는데, 거기 보면 회사원 게시 판이라든가 잡담하는 데가 있어요. 꼭 하루에 한번쯤은 힘들다고...하면서 회사원 한분씩 올리는데 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너무 힘든데, 돈은 너무 조금 받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lt;중략&gt;...그런데 솔직히 대기업 아니고서는, 일찍 출근하고 늦게 끝나는데 진짜.. 백오십? 백오십도 못 받는 사람 되게 많고... 저는 경제적 보...제가 한 만큼만 받으면 좋다는 거지. 막 돈 많이 벌고 싶다 그런 건 아니에요.</p> <p>R: 정당한 보상?</p> <p>P: 네 정당한 보상. 저는 불쌍하게 일하고 돈을 조금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E1]</p>

	P: 인터넷에서 봤죠.
	R: 인터넷에서 무슨 글을 봤는데?
	P: 제가 카페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 카페 제목이 잘 생각 안 나는데 약간 칼럼 같은 거였어요. ‘다른 나라랑 비교하고 우리나라 소방관이 얼마나 안 좋은가’ ...저는 솔직히 대중 읽어서 잘 생각 안 나는데, 불쌍했어요. 소방관을 보면, 다음에도 이 직업을 할 거냐고 물으면 그 그래프 있었는데, 반 이상이 절대 안한다고 그랬어요. 칼럼 같은 거였어요.
	R: 어디서 봤어?
	P: ‘쪽빵카페’ 요...
	R: ‘쪽빵카페’ ...출처가 뭐야?
	P: 그것까진 생각이 안나요. [E2]

셋째, 인터넷 공간의 약한 네트워크는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 자본을 보완하기에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의 부모는 진로정보에 대해 무지하거나, 이혼, 별거, 재혼 등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 형성이 다양하지 못하였다. 일차 산업에 종사함으로써 지역사회 네트워크에서 떨어져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에게 풍부한 사회적 자본을 제공하지 못하였다<sup>63)</sup>. 인터넷 공간에서의 네트워크는 사회 자본의 형성과 축적의 가능성을 지닌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낮은 비용으로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점차 신뢰와 상호관계가 강화되면 사회 자본의 형성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Lin, Cook, & Burt, 2001). 하지만 인터넷 공간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접촉이 곧바로 사회적 자본의 형성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 연구 참여자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단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개방적 네트워크<sup>64)</sup> 즉, 약한 연대를 형성하는 데 그쳤다. 연구 참여자들의

63) 선행연구들은 지역의 경제적 여건이 사회 자본 형성의 차이를 가져오며, 농어촌 지역의 청소년들은 도시 지역 청소년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하고 삶의 만족도가 낮으며 사회 자본을 형성하기 어려운 조건임을 보여준다(김경준·오해섭·김진모, 2006; 김미숙·신어진, 2009; 이두휴, 2011; 전신현, 2003).

64) 인터넷 공간에서의 네트워크는 폐쇄적 네트워크(강한 연대)와 개방적 네트워크(약한 연대)가 혼재되어 있다. 개방적 네트워크는 관심사나 정보에 대한 공유를 통해 형성된다.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인간적인 감정을 나누고, 강한 결속을 형성해 감으로써

인터넷 공간 활용을 살펴보면 단순한 정보 보기, 댓글 쓰기 등에 그쳐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관계성의 강화까지 나아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강한 연대에 기반 하는 신뢰, 협력, 호혜적 정보 교환 등 긍정적 사회 자본 획득이 가능한 단계까지 나아가기 어려웠다.

## (2) 사회화의 개별적 의미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직업과 관련된 지식, 태도,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 하지만 인터넷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상호작용의 내용, 행위로의 연결은 각각 상이하다.

### ① 정보의 능동적 창조

강은진은 인터넷에서 능동적으로 정보를 창출하는 상호작용을 한다. 평소에 인터넷 활동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접한다. 댓글을 읽으며 사회 현상을 여러 측면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한다. 이러한 습관이 직업 선택과 관련해서 직업의 장단점을 균형적으로 사고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의료인과 관련된 기사를 읽을 때는 그들의 상황과 감정을 대리경험 한다. 강은진은 인터넷을 통해 단순히 정보를 습득함에 그치지 않고, 의미를 부여하고 감정이입을 하는 등 능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관련 법률 개정을 둘러싼 인터넷의 다양한 글들을 읽고, 강은진은 자신의 상황에 적합하게 해석한다. 직업의 전문성, 전문직의 책임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만의 방식으로 창조한다. 강은진은 인터넷과 상호작용 시 정보의 수용자에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정보로 재구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

개방적 네트워크는 긴밀한 네트워크로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참여가능성을 높이고, 사회 자본 확대에 유용하게 된다(김명아, 2009).



<표 23> 강은진-인터넷 상호작용

상호작용	면담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인터넷 댓글</p>	<p>P: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글이 올라오면, 분명 이걸 만약에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는데, 막상 댓글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굳이 너무 한쪽으로만 평가하는 거 아니냐?’ 나는 이걸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댓글이 의외로 많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그래서 댓글을 많이 살펴보는 편이에요. 그걸 읽어보면서 ‘이것도 읽어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SNS를 하고 1년이 지나다 보니까, 댓글을 보기 전에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하는 습관이 들었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댓글을 눌러보기 전에 ‘아~ 그런데 분명 또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왜 맞다고 생각할까...?’ 하면서 그 짧은 순간이지만, 진짜 길지도 않아요, 한 10초 동안 멍하니 보면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댓글을 눌러보면 진짜, 상상도 못할 여러 개의 의견이 있어요. [C2]</p>
<p style="text-align: center;">메르스 기사</p>	<p>P: SNS 하면서 메르스 관련 글이 그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걸 보면서 메르스 질병에 대한 지식도 많이 올라왔는데~ 그 의료진들의 수? 이런 것도 많이 올라오고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lt;중략&gt;...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둘 다 뭐 어차피 어떤 직업을 갖든 있을 수 있겠구나...’ 만약에 동물 관련된 일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지만, 내가 살아가기에 적절한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이걸 단점이고. 그러나 내가 하고 싶다는 건 장점이고... 간호사라는 직업을 봤을 때도, 내가 너무 선불리 선택했다는 것이 단점일수도 있겠지만, 이 직업으로 인해서 내가 선택하게 된 수많은 이유들은 장점이고 또 간호사 일에 대해서 엄마가 말한 것처럼 피곤하고, 사람들이랑 많이 부딪히고 하는 게 단점이겠지만, 또 그만큼 나한테 돌아오는 성취감은 장점이고... 그런 걸 다 따져보다 보니까, 진로를 선택할 때에도 ‘뭘 하든 다 장점과</p>

	<p>단점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때. [C2]</p> <p>P: 메르스를 겪은 의료진들은 정신적인 피해가 남아있대요. 그걸 보면서, '이런 것까지 감수하면서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마음가짐일까?' 라는 생각을 깊게 해보면서, 뭔가 마음이...막...</p> <p>R: 공감이 됐어?</p> <p>P: 공감도 됐고 막 벽찔어요. [C2]</p>
간호사-간호조무사 법률 제정	<p>P: 예를 들어 간호사랑 간호조무사에 대한 관계에 대한 법제정이 최근 있었던 말이에요? ...&lt;중략&gt;...아무래도 4년 동안 제가 열심히 배워서 더 많은 지식이 있으면, 그만큼 또 저에게 치료를 받는 환자들도 편할테고, 그 직업에 대해서 갖는 마인드도 달라질 것 같아요.</p> <p>R: 어떻게 달라질 거 같은데?</p> <p>P: 예를 들면, 2년 동안 자격증을 따서 병원에 취업을 하려고 과정을 이수하고 딱 나온다면, 그냥 직장을 얻는다는 기분일 텐데, 4년 동안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더 전문적인 걸 갖춰서 4년 동안 노력했던 경험들을 갖고서 취업이 되고, 환자들을 돌보게 된다면 그냥 내가 고생했던 시간만큼이나 마음가짐의 무게도 달라질 것 같아요.</p> <p>R: 어떻게 다를까?</p> <p>P: 조금 더 책임감이 있어지고, 내가 지내온 시간에 대한... 무엇이냐고 해야 하지? 어...시간에 대한...책임감. [C2]</p>

## ② 직업 태도 형성, 세상 엿보기

김민서는 인터넷에서 직업 관련 태도를 형성한다. 어렸을 때부터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다양한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글을 읽었다. 이러한 경험은 직업 관련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김민서는 우리 사회와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글들을 읽으며, 국가에 기여하는 직업, 사회봉사적인 직업을 선호하지 않는 태도를 지니게 되었다. 또한 직장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김민서는 인터넷을 통해 '세상 엿보기' 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오늘

어떤 생활을 했나, 무엇을 샀나, 어디를 여행 했나 등 그들의 삶이 궁금하다. 인터넷에서 사람들은 집에서 가까운 콘서트 장에 가서 공연을 보고, 대학로에 가서 연극을 자주 본다. 좋은 대학의 넓은 잔디밭에서 관현악단 연주회를 본다. 반면, ‘현실의 나’는 가끔 대전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이 전부이다. 실제 경험은 별로 없지만 인터넷을 통해 세상을 엿보면서 ‘나도 저런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한다. 게임 사이트에서 만난 친구는 외국에 있는 학교에 다니다가 한국에 와서 명문대에 진학했다. 직업 선택도 엄마의 조언대로 약사가 되기로 결정했단다. 엄마가 어떤 진로경로를 거쳐 약사가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언했다. 그 친구는 자신과 취미와 취향도 다르다. 이름 모르는 팝송과 클래식을 듣고 테니스를 친다. 그 친구가 해외여행 이야기를 물었지만 김민서는 가본 적이 없다. 잘 사는 사람들의 삶이 현재 나의 삶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의 삶을 더욱 갈망한다고 말한다.

<표 24> 김민서-인터넷 상호작용

상호작용	면담 내용
김민서	<p>나랏일</p> <p>P: 중학교 때 실망을 많이 해서,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써요. 나만 잘 되면 되니까, 이제는.</p> <p>R: 그래서 기업에 들어가거나 의사가 되는 것도 나 잘 살려고...</p> <p>P: 네. 저 잘 사려고 하는 거지.</p> <p>R: 국가에 기여하고 싶은 게 없구나.</p> <p>P: 그런 거 한 개도 없어요. [E1]</p>
	<p>정당한 보상</p> <p>P: 여기 말고 다른 사이트도 많이 하는데, 거기 보면 회사원 게시판이라든가 잡담하는 데가 있어요. 꼭 하루에 한번쯤은 힘들다고... 하면서 회사원 한분씩 올리는데 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너무 힘든데, 돈은 너무 조금 받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lt;중략&gt;...네. 또 사회초년생일수록 그런 현상이 더 심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정당한 보상이 중요한 것 같아요. [E1]</p>
	<p>세상 엿보기</p> <p>P: 네. 저는 문화라고 해봤자 영화? 영화보고...이런 게 다 인 것 같아요.</p> <p>R: 민서는 뭔가를 경험해본 적 있어?</p> <p>P: 아니요. 경험 해본 건 옛날 초등학교 때 오페라를 본 적이 있</p>

	<p>고. 동아리끼리 여행 갔을 때, 홍대에서 연극본 적이 있고. 또 래퍼 공연 가고. 진~짜. 드물어요. 그런데 카페 같은 데나 다른 커뮤니티를 가보면, 집에서 가까우니까 콘서트도 막 가고, 대학로 가서 연극도 자주 보고 좋은 대학교 가면 넓잖아요? 넓은 대학교는 잔디밭 같은 데서 관현악단이 와서 하고...그런 것도 되게 많던데...여긴 없더라고요. [E2]</p>
	<p>P: 제가 게임에서 같이 하는 애가 있는데, 남자애거든요? 그 남자애는 학교를...외국에 있는 학교를 갔다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연세대를 간 애거든요? 개랑 이야기 하다보니까, 진짜 취미도 아예 다른 부류인 거예요. 저는 그냥 취미라고 하면 아이돌 노래 가수 듣거나, 게임하는 정도인데, 제가 노래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이상한 외국사람 이름 대면서, 자기는 이 노래 좋아한다고 하면서 들어봤냐고 묻는데, 저는 처음 듣는 사람이고 아예 노래도 개는 클래식 같은 거 듣는데 저는 완전 취향도 다르고. 운동하는 것도 테니스한다고 그러고, 해외여행 가봤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가본 적 없거든요. 진짜...이게 같은 나이인데도 흔히 금수저, 흙수저 그러잖아요, ‘금수저는 아예 그런 차원 자체가 다르구나...’ 좀 약간 허탈감을 느꼈죠...&lt;중략&gt;...엄마 때문에 과를 결정하고, 미래도 결정하고. 개는 생물공학과를 가서 약대, 피트 시험을 봐서 약사 하라고 엄마가 그래서 개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E2]</p>

Bourdieu(1985)는 “사회적 공간, 이것은 경제적 차이, 문화적 차이이든 그 차이를 경시한 채 아무나를 아무나와 한데 모아둘 수 없다.” 고 말했다(Schroer, 2006: 96). 이는 경제적·문화적·사회적 자본의 할당에 따라 공간이 나뉘지며, 자본이 서로 차이가 나는 두 행위자들 사이에 만남의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의미이다. 장이라고 불리우는 각 부분의 공간이 독자적 법칙을 가지고 힘의 관계를 보전하려고 한다.

공간의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쪽에 위치하는 사람들과 결혼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물리적으로 이들이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혹은 우연히 만난다 할지라도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고, 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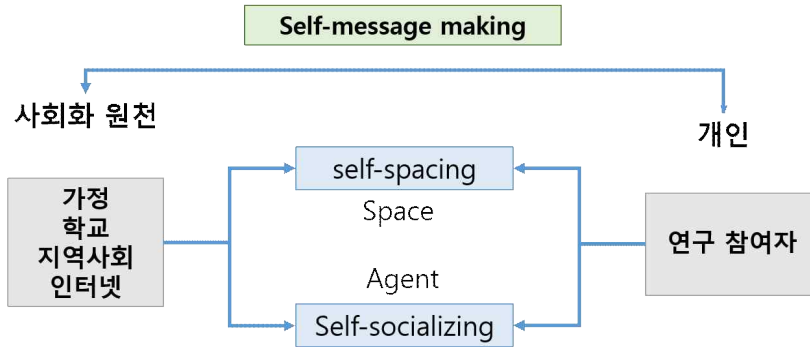
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없으며, 서로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Bourdieu, 1994/2005: 26).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인터넷 공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엿보기도 하고 부족한 경험을 채우기도 한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누구나 만날 수 있고, 현실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그들의 공간에 가까이 갈 수가 있다. 현실에서의 거리감이 무너지거나 그들의 공간에 진입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생활을 엿볼 수는 있다. 그들이 지닌 실천 감각을 체화할 수는 없지만 차이를 인식할 수는 있다. 인식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분리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표 25> 인터넷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VAS 메시지

참여자	상호작용	VAS 메시지
한지민	정보수집	• 인터넷은 진로결정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된다.
	전문학교 홈페이지	• 학점 관리만 잘하면 취업도 잘 되고, 유학도 가고, 스카이 대학 편입도 할 수 있다.
김서연	통신 환경 열악함	• 인터넷을 잘 하지 않는다.
강은진	세상과의 소통	•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가장 덧붙임 없이 들을 수 있는 공간이다.
	메르스 의료인들	•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도 장점과 단점이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 실무경험보다 제도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싶다.
김민서	정보수집	• 인터넷은 세상과 통하는 유일한 통로이다.
	직업태도	• 나랏일은 안 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 사회봉사적인 직업은 선호하지 않는다. • 정당한 보상이 중요하다.
	세상 엿보기	• 잘 사는 사람들의 삶을 갈망한다.

5) 종합 : 자기 메시지 만들기, 자기 공간 조직, 자기 사회화



[그림 10] 자기 메시지 만들기

연구 참여자와 사회화 원천과의 상호작용은 “자기 메시지 만들기(self-message making)” 로 개념화할 수 있다. 자기 메시지 만들기란 개인이 사회화의 관습적 메시지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해석과 행위전략을 통해 사회화 메시지를 개별적으로 창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인터넷 공간에 개별적인 의미를 부여하였고, 사회화 기관이 전달하고자 하는 규범과 가치를 형성하는 데 주체적으로 참여하였다. 이 과정을 자기 공간 조직(self-spacing)과 자기 사회화(self-socializing)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화 과정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상호작용의 과정을 보다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첫째, 내러티브에 등장하는 사회화 원천은 개인 행위의 장소적 배경(space)이었다. 개인은 공간 활용의 방식을 통해 사회화의 규범을 전달받았다. 둘째, 사회화 원천은 사회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관(agent)이었다. 사회화 기관은 ‘사회화 메시지 전달’이라는 방식으로 청소년들에게 질서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첫째, 개인이 장소와 상호작용하는 양상은 ‘자기 공간 조직’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이는 사회화의 배경인 공간의 의미를 개인 행위 실천을 통해 창조한다는 것이다. 각 공간과 장소는 개인의 행위에 제약을 가하여

특정한 방식으로 행위 하도록 관행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하지만 개인은 공간의 질서에 획일적으로 길들여지지 않으며, 공간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거나 대안적인 방식으로 공간을 향유한다.

뒤르켐, 하이데거, 짐멜, 고프먼, 기든스는 공간이 인간 행위의 단순한 주변 조건 혹은 배경이 아니라 실행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뒤르켐은 칸트와 달리 공간이 절대적이고 동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하이데거는 공간이 인간 체험을 조직하기 위한 형식적인 테두리가 아니라 행위자의 행위에 한계를 정해줌과 동시에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보았다. 짐멜은 그 이전에는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었던 공간이 상호작용을 통해 채워지고, 우리를 위한 어떤 것으로 만들어 준다고 말했다. 기든스는 그 장소를 장소이게끔 만드는 상호작용의 종류를 통해서 자신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Schroer, 2006). 장소의 의미는 그때그때 장소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에서 결과한다. 인간의 행위 속에서 그때그때 특수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결과로 얻어진 일련의 특성을 갖춘 그 곳(장소, 지역)을 관찰자가 인식할 때 오직 그때 그 곳(장소, 지역)으로 파악된다.

Giddens(1992)는 특정한 현장들에서 사람들이 만날 때 능동적인 공간 조직(spacing)이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사람들은 만남들을 경계 짓기 위해 장소 내 공간을 공동체적으로 조직한다. 상호작용 공간을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것은 개인의 포지셔닝(positioning), 상호작용 요소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난다. 공간은 상호작용을 위한 관련 틀로서 이용가능 하지만 반대로 상호작용 관련 틀은 공간의 맥락성을 특수화시키는 원인이다. 동시에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역사를 만들 듯 자신의 고유한 지리학을 만든다고 말했다. 상이한 개인은 다양한 장소 이용을 통해 차별화하여 체험할 수 있다(Schroer, 2006: 129-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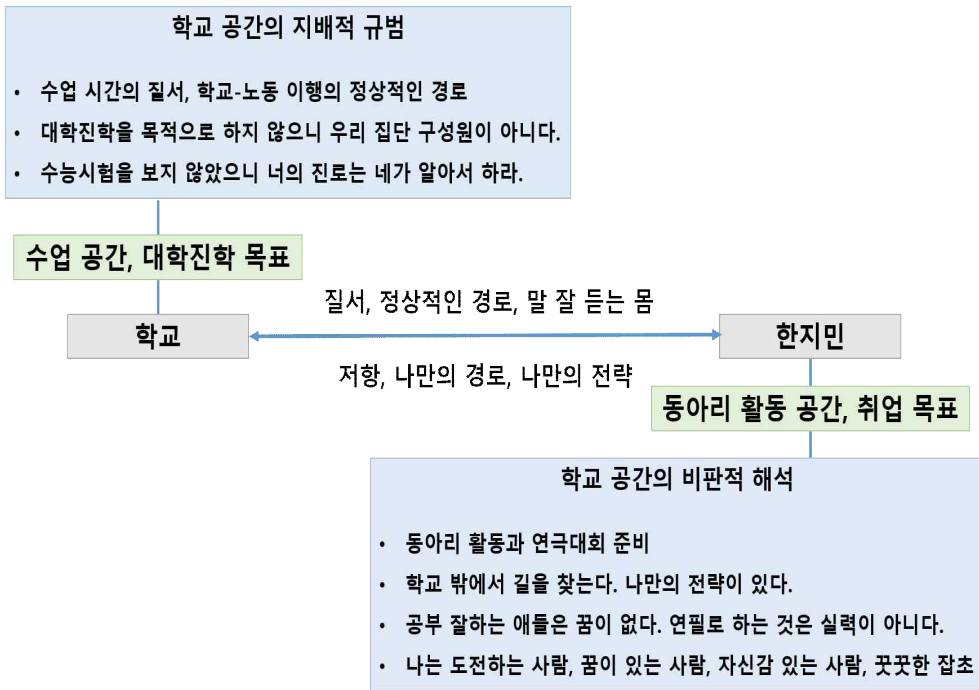
예를 들어, 학교라는 공간은 수업시간과 교실이라는 공간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그 공간에서의 활동이나 질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수업시간의 공간과 학습활동에서 말 잘 듣는 몸으로 길들여지고, 그 공간에서 인정받는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동시에 학교라는 기관은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정상이라고 생

각하는 제도적인 질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여 직업교육을 받는 경로를 학교-노동 이행의 ‘정상적’인 경로라는 가치관을 집단의 구성원들은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학부모, 교사, 학생 등 모든 구성원들은 대학 진학이 목표이다. 이렇게 주어진 공간 의미와 제도적인 질서를 학생들은 이미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그러한 공간적 질서에 순응하여 일관된 방식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한지민-학교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자기 공간 조직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일반계 고등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통상적인 VAS 메시지가 존재했다. 예를 들어, ‘대학에 가야 정상적인 직업인이 될 수 있어.’, ‘4년제 대학에 가야 차별받지 않는 직업인이 될 수 있어.’, ‘성적이 낮으니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성적이 낮은 것을 보니 끈기가 없구나, 혹은 노력하지 않았구나.’ 등의 메시지이다. 한지민에게 학교는 수업시간, 성적, 수능과 입시 제도를 통해 사회의 질서를 전달하고, 학교-노동 이행의 정상적인 경로를 제시하며, 그 길을 따르도록 길들이는 공간이었다. 질서를 따르지 않는 한지민에게 무관심과 배제의 처벌을 하였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으니 너는 우리 집단의 구성원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되겠다.’, ‘수능시험을 보지 않으니, 너의 진로는 네가 알아서 하렴.’ 등의 관습적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하지만 한지민은 학교의 지배규범에 굴복하기 보다는 자신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학교 공간을 활용하거나 비판적으로 재해석한다. 거짓말로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빠지고 미용학원을 다닌다거나, 수능시험 점수가 필요 없는 예술실용전문학교를 검색해서 알아낸다. 수업시간보다 동아리 시간에 더욱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그 곳에서의 체험을 직업생활과 연결 지어 본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꿈이 없는 아이들’ 이고 ‘성적대로 대학가고 거기에 맞추어 취업하는 일밖에 없다’ 고 해석하는 반면, 공부는 못하지만 춤추고, 노래하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자신은 ‘도전하는 사람, 자신감 있는 사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 재미있게 사는 사람, 깨끗한 잡초’ 라고 해석한다.





[그림 11] 학교-한지민 상호작용과 자기 공간 조직(self-spacing)

둘째, 개인이 사회화 기관과 상호작용하는 양상을 ‘자기 사회화’의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자기 사회화란 ‘사회화 원천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개인이 생애사를 중심으로 보다 주체적인 사회화 과정을 거친다.’는 의미이다. 요즘 시대의 청소년들에게는 인터넷이 주된 사회화 기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터넷과 상호작용에 있어서 개인은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 사회화 기관을 선택하고, 세계의 규범과 질서 형성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청소년들은 보다 능동적으로 지식, 가치관을 전달해주는 집단과 세계를 선택하고 있었다. 댓글이나 글쓰기 등을 통해 그 세계를 구성하는 데 참여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자신의 생애사와 관련하여 그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그 세계를 함께 구성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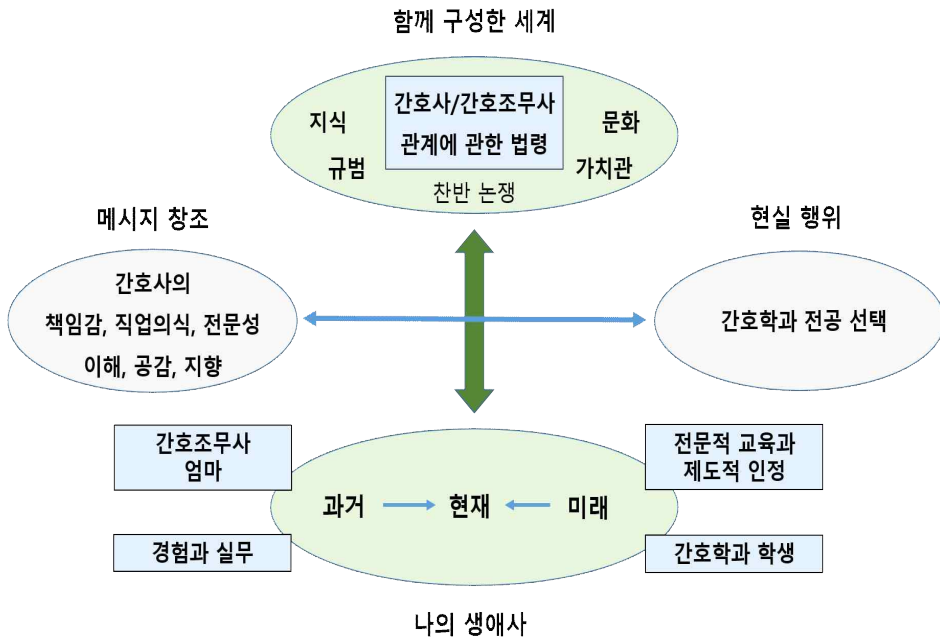
Arnett(1995)과 Heinz(2002) 등은 전통적 방식의 사회화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온라인 사회화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들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하면서 사회화하는데, 자신의 선호와 취향에 따

라 미디어를 선택할 수 있음에 주목했다. 청소년들은 미디어 선택과 이용을 통해 특정한 믿음과 가치관을 지니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강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닌다. 또한 자기 사회화란 개인이 스스로 생애사 안에서 과거와 미래를 현재에 의미 있게 연결 지으려는 노력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생애의 경로와 단계를 전환해 가면서 행위를 하고 관련된 기회와 제약을 받아들이기 위해 애쓰면서 스스로의 삶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전통적 사회화 개념은 구성원들을 사회의 구조에 맞추는 데 초점이 있다면, 자기 사회화 개념은 인터넷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함께 구성한 세계 (co-constructed world)’ 에 초점을 맞춘다. 인터넷 공간 안에서 그들의 동료들과 함께 규범을 만드는 사회화 협력이 이루어지고, 이를 다시 오프라인 현실로 가져와 사회화의 결과와 행위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Anderson & McCabe, 2012).

강은진은 인터넷 공간에서 선호와 관심에 따라 특정 이슈를 선택하고 관련된 사람들을 만난다. 그 세계에서는 간호사 집단과 간호조무사 집단이 대립하고 있었으며, 보건 직업인의 세계가 구성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의료인으로서 혹은 관련자로서 지식, 규범, 가치관, 문화를 공유하고 함께 하나의 세계를 형성하였다. 강은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인터넷 세계 구성에 참여한다. 그들의 논리와 규범을 내재화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면서 자기 사회화가 일어난다.

또한 강은진은 자신의 생애사와 관련지어 그 세계를 이해한다. 간호조무사인 엄마의 삶을 지켜보았던 자신의 과거와 간호학과 학생이 되고 싶은 미래의 자신은 현재 하나의 맥락 안에서 만나 나의 진로 역사를 써간다. 그 세계는 간호조무사 엄마를 두지 않은 청소년이 생각하는 간호조무사의 세계와 다를 것이다. 또한 간호학과를 지원하지 않는 학생이 생각하는 간호사 세계와는 다를 것이다. 과거에는 간호사에게 있어서 ‘현장 업무의 경험과 경력’ 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전문 직업교육 이수와 제도적으로 인정받았는가(면허증 취득)’ 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생각의 변화를 통해 강은진은 하나의 메시지를 창조한다. ‘전문성’ 이란 단지 직업 관련 지식을 좀 더 안다거나 교육을 몇 년 더 받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환자/시간에 대한 책임감(마음가짐의 무게)’ 과 연

결된다고 생각한다. 이 메시지는 간호사 직업을 거부했던 과거 자신과의 화해이며, 엄마가 간호조무사이지만 간호사 집단을 지지하게 된 자신에 대한 정당화이며, 간호학과 진학이라는 미래 행위로의 의미 있는 연결고리가 되어 준다.



[그림 12] 인터넷-강은진 상호작용과 자기 사회화(self-socializing)

김민서는 어렸을 때부터 ‘베스티즈’, ‘오늘의 유머’와 같은 인터넷 동호회를 선택하여 활동하였고, 그 세계는 사람들이 함께 구성한 세계였다. 함께 구성했다는 것은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아서 그 곳에서의 문화와 질서를 만드는 데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생애사와 관련지어 그 세계를 해석한다는 의미도 있다. 인터넷 동호회 안에서 국가와 정치의 모습은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싸우기만 하는 세계였다. 김민서의 가난한 환경과 생애사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원들은 ‘하는 일 없이 싸우는 사람들’이다. 그 세계 안에서 국가는 다른 나라의 좋은 점과 대조되어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구성되었다.

이렇듯 청소년들은 주어진 사회구조적 맥락의 제약을 받았으나 동시에 사회화 메시지를 만들어간 주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이 사회화의 결과에 있어서 큰 변화를 이끌어 내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은 역동적이었고, 상황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내용과 방식은 달랐다. 즉, ‘자기 메시지 만들기’는 구조적 사회화(타자의 주체화)와 개별적 사회화(주체의 의식화)가 동시에 일어나며 구조와 주체가 충돌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주체는 구조에 작용하고 반작용하며 타자의 욕망과 자신의 욕망을 매개하며 조절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는 빈곤청소년 혹은 노동자 계급 청소년들이 주요 사회화 기관과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 밝힌 기존 문화기술지 연구들의 맥락과도 일치한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노동자 계급 청소년들은 계급 구조라는 현실의 모순을 간파하고, 창의성과 합리성을 지닌 ‘반 학교 문화’를 능동적으로 창조해 낸다(Willis, 1981). 또한 빈곤청소년들은 학교 졸업 후 직업세계 이행 과정에서 자신의 현실과 사회적 조건들을 통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Brown, 1987). 국내에서도 빈곤층 십대 여성들이 정상적인 제도와 문화에서는 충족할 수 없는 욕망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이 지배적인 삶의 양식과 규범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노동시장에 일찍 진입하거나, 소모적인 소비와 놀이로 향하는 선택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민가영, 2007).

## 2. 진로선택 행위의 이해

고등학교 졸업 직전 진로선택기에는 연구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진로의 사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예비 직업사회화와 진로선택의 방향이 결정되었다. 청소년들에게 이 시기는 짧지만 가장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시기였고, 어떠한 실천 행위를 하는가에 따라 미래 자신이 속하게 될 직업집단이 결정되는 시기였다. 기존 진로선택 이론들이 개인의 진로선택 과정을 개인적·환경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순차적인 경로로 이해한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진로 구성주의에 기반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진로선택 과정을 진로 이야기 구성과정으로 이해하였다.

### 1) 진로선택 행위와 관련된 힘

#### (1) 진로 이야기 속 ‘욕망’

연구 참여자의 진로선택 이야기 안에서 연구자가 발견한 것은 청소년들의 ‘욕망’이었다. 한지민은 할머니 집/금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이야기했다. 김서연은 엄마와 같은 삶(육체노동/농사일)을 살지 않겠다는 욕망을, 강은진은 누군가를(어린 시절의 자신/엄마/동물) 돌보고 싶다는 욕망을, 김민서는 신분상승을 하고 싶다는 욕망을 이야기했다. 이러한 욕망은 각자 환경과 상황에 대한 해석을 반영하고 있었고, 과거 속 경험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진로선택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욕망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했다. 이들의 욕망은 진로와 관련하여 다양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 이를 “진로욕망(career desire)” 이라고 개념화하고자 한다.

<표 26> 연구 참여자들의 진로욕망

연구 참여자	진로욕망
한지민	할머니 집/금산에서 벗어나고 싶다.
김서연	엄마와 같은 삶(육체노동, 농사일)을 살지 않겠다.
강은진	누군가(어린 시절의 나, 엄마, 동물)를 돌보고 싶다.
김민서	남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져 신분상승을 하고 싶다.

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욕망을 해석하는 관점은 ‘욕망의 억압’에서 ‘욕망의 긍정’으로 변화하여 왔다. 라캉은 욕망이 대타자의 질서에 순응하고 편입되어, 개인은 한 사회가 용인하고 허락하는 형태의 욕망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한다. 반면, 들뢰즈는 욕망을 재현의 질서를 벗어나는 충만한 힘 자체로 보았다. 이렇듯 욕망과 관련하여 주체를 보는 시각과 실재에 대한 입장 등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하지만 욕망이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힘’이며, 역동성을 지니며, 인간의 행동과 판단을 이끌어 내어 인간 경험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데는 의견을 모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진로욕망 개념은 ‘생성의 욕망론’을 토대로 개념화한 것이다. 들뢰즈는 욕망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게 되는 사물, 사건이 특정 상호관계를 맺는 형태로 배치(agencement)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았다<sup>65)</sup>. 따라서 욕망은 특정한 주체의 본질적 속성이거나 고정적으로 소속된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생성되는 것으로서 새로운 접속을 향해 뻗어나가 특정한 배치를 만들어내고 다시 또 다른 욕망이 만들어지는 연속된 유목적인 흐름이다(서동욱, 2002; Deleuze & Guattari, 1980).

연구 참여자들의 진로 이야기 속에서 드러난 욕망은 이들의 진로선택과 관련한 행위와 실천을 이끌어내고, 삶의 원동력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개

65) 이진경(2002: 58)은 배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축구공이 있다. 양 쪽에 같은 한국선수가 서있으면 이는 ‘패스’를 의미하고, 한쪽에는 한국선수, 다른 한쪽에는 일본 선수가 서있으면 ‘패스미스’를 의미한다. 하나의 사물이 다른 것과 계열을 이루면 연결되고,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공시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계열들을 ‘배치’라고 한다.

인의 진로욕망은 그들이 의미 있게 여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드러났다. 그들의 욕망은 개별 상황 속에서 충동으로 보이기도 하였으며,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였으나, 다양한 진로행위를 하게 하는 힘이었고, 과거-현재-미래의 진로 이야기를 연결하는 흐름이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진로욕망을 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는 어떠한 결과를 낳았으며, 행위 결과와 그 상황 속에서 직업인으로서 자아상(像)을 만들어 내었다.

예를 들어, 한지민은 ‘할머니 집/금산에서 벗어나기’에 대한 욕망이 직업을 갖는 일차적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욕망은 ‘서울/도시/방송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직업적 욕망으로 흘러갔고, ‘미용사, 무대연출가, 분장사’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 미용학원 등록, 예술실용전문학교 면접보기, 뷰티학원 등록 등의 진로행위와 계속하여 접속되었다. 김서연은 엄마와 같은 삶(농사/육체노동)을 살지 않겠다고 욕망하였다. 초기에는 역사책 읽기, 역사동아리 활동, 사학과 지원으로 연결되었고, 이후에는 분열적으로 보이는 물리치료학과 지원 행위와 이어졌다. 강은진은 어린 시절 외로움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도,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언니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욕망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다. 이는 간호학과 진학이라는 행위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 이후에도 다문화가정 아동의 멘토가 되어주는 봉사 동아리 활동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흐름은 미래 삶에도 연속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김민서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부러움을 받고 싶다는 욕망을 다양한 직업적 가능성과 연결 지었다. 의사, 은행이나 대기업 취직, 번역가 등 희망하는 직업의 종류에는 일관성이 없었다. 명문대에 진학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 아무나 못하는 직업을 가지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연구 참여자들의 욕망과 진로선택 행위를 연결 지어 이해할 때 비로소 겉으로는 일관성 없어 보이는 이들의 행위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표 27> 한지민의 진로욕망이 이끄는 진로행위

행위	면담 내용
취업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단 금산을 떠나 해요. 일단 그게 목표예요. ...&lt;중략&gt;...일단 근본적인 직업을 갖기 위한 목표는 ‘집에서 나와야 돼서’ . [A5]</li> </ul>
미용사 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년 대학까지 말고 취업할거니까 여기 와서 기술 배워서 서울로 가라고. 그러겠다고 그랬죠. ...&lt;중략&gt;... 어차피 서울로 올라갈 생각이 있었으니까. 여기보다는 서울이 교육도 다양하게 많고 그러거든요. 서울로 올라갈 생각은 있었어요. [A3]</li> </ul>
방송국에서 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가 이 가수는 못해도 다른 일 쪽으로 방송국에서 일을 하면 되지 않나...&lt;중략&gt;...근데 공부를 못해서 일단 대학을 못가잖아요. 제가 성적이 바닥이라서...일단 4년제나 전문대는 못갈 것 같고 그냥 그쪽으로 막 찾은 거란 말예요. 전문학교 쪽으로... [A1]</li> </ul>
무대연출가 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직인데 요새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세트를 만들어주는. 방송국이랑 연계된 데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해도 되고, 아니면 어디 극단에 들어가서 연극세트를 만들어도 되고. [A1]</li> </ul>
예술실용전문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때는 그냥 서울이라는 곳에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떤 변명을 하고서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아서 서울이라는 곳을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A6]</li> </ul>
고용센터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칼국수 집에 갔는데, 엄마가 ‘고용센터에 가볼래?’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 왜? 왜 가야돼?’ 이랬더니, ‘국비로 할 수 있으면 하라’ 고 하셨어요. 그럴까? 하고 그 날 바로 대전으로 가서 신청하고... [A6]</li> </ul>
뷰티학원 다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도 가고 싶긴 해요. 그런데 서울 쪽보다는 경기 외곽을 좀 가고 싶어요. [A6]</li> <li>• 메이크업. 백화점 브랜드 들어가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해도 되고, 아니면 로드샵 같은 곳 들어가서 해도 되고, 샵 들어가도 되고, 웨딩샵 들어가도 되고, 토탈샵도 있고, 혹은 프리랜서로도 뛰어도 되고. [A6]</li> </ul>



<표 28> 김민서의 진로욕망이 이끄는 진로행위

행위	면담 내용
<p>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니요, 그냥 남들이 부러워할 것 같으니까...&lt;중략&gt;...그냥 많이 아는 건 또 부럽고. 의사라는 게 자유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것 자체로 멋있는, 남들이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저도 멋있어 보이고. [E1]</li> <li>• 3수하고, 재수도 해서 의대를 간 것도 부러웠는데, 그분들이 잘생겼는데도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서 부러웠어요. ...&lt;중략&gt;...집에 원래 돈도 많고...&lt;중략&gt;...다 갖추고 있어서~ ‘엄친아가 저런 거구나...’ &lt;중략&gt;...속상하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그냥 운이잖아요? 나도 저렇게 되면 되지~라는 생각만 했지... [E1]</li> </ul>
<p>명문대 가고 싶은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 명문대를 가고 싶어요. ...&lt;중략&gt;...일단 저는 반수를 해서 명문대... 낮은 학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 다니면서 또 다른 수능공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E1]</li> <li>• 그래서 1년 정도는 서울에서 대학생활 하고 싶어서, 이번에 반수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학교 이름도 쪽팔리기도 하고. [E1]</li> <li>• 남들이 가니까? 이왕 남들이 다 갈 거면, 대학 자체를 남들이 개나 소나 다 가는 데잖아요, 전문대이든 일반 대학이든. 이왕 가는 거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을 가는 게... 뭐라고 해야 하지? 부러워하는 그런... [E1]</li> <li>• 의대를 가면 제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텐데, 못 가면 ‘개나 소나 다 가는 대학일지라도, 저는 좋은 대학을 가서 남들이 우러러볼 수 있게 하는 수단?’ ...&lt;중략&gt;...좋아 보이고, 부러움 받고 싶은...그런 수단이 되는...물론 좋은 대학을 간다면. [E1]</li> </ul>
<p>재수를 계획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가 길게 잡은 게, 이번 년도에는 반수를 해서 더 나은 대학교를 가고, 그 대학교에서 2학년 때까지 계속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2학년 끝나고 휴학계를 내서 금산에 다시 오거나 서울에 있는 고시원 가서 수능공부를 다시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E1]</li> <li>• 의대는 못가지만 남들이 딱 봤을 때, ‘재 좋은 대학 나왔다~’ 이 소리...의대를 실패하면, ‘저 사람 괜찮은 데 다닌다.’ 이 소리는 듣고 싶으니까 반수를 하는 거죠. [E1]</li> </ul>

<p>외국어 대학 독어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어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가 언어를 좋아라 해요. 그리고 독일이 다 외국 사람이 가서 공부하기에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의대도 괜찮고, 우리나라보다 더 가기 쉽고. 워낙 가려는 사람이 없다보니... 그래서 독일어 배우면서 어문계 전공하면 거의 유학 가잖아요? 거기 유학 가서 의대 하는 것도 확실히 알면서, 그리고 또 외대랑 홍대는 독어과 나와도 취직이 잘 된다고 알아요. 일반 은행 같은 데도 그렇고. 그래서 독어과로 결정했어요. ...&lt;중략&gt;... 최소 은행은 갈 수 있으니까. [E1]</li> <li>• 처음에는 의대는 이번에 못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관심 있고, 하고 싶었던 번역을 가려고 해서, 가려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주변 친한 애들한테는 말을 했어요. ‘2학기 때 휴학을 하고 반수를 할지도 모른다’고...그랬더니 애들이 ‘어디 하고 싶냐고’ 해서, ‘외대 무슨 무슨과 가고 싶다’고 했더니 [E3]</li> </ul>
<p>대기업 회사원 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범하게 일반 □□□(도시명)에 있는 일반 회사를 가면, 그냥 ‘돈 버는 곳’ 이고, 괜찮은 대기업 가면, 대기업도 남들이 우러러 보잖아요? 이런 느낌? ‘웃하고 악세서리 같은 느낌?’ [E1]</li> <li>• 알고 보니까 되게 잘하는 거예요. 대기업도 막 가고. 삼성, 엘지 그런데 가고...&lt;중략&gt;...윗 선배들 중에서도 거의 다 대기업 다니는 사람도 되게 많고...그래서 그냥 ‘E대(대학)에 남아 있는 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E3]</li> </ul>
<p>신분 상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 공부를 해서 괜찮은 그런 데를 가는 게, 신분상승을 하기 제일...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신분상승을 하려면 의사나 변호사가 되거나 아니면 스카이 나와서 엄청 좋은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 아닌 이상은, 어렵죠. 다른 길로 신분상승을 하는 것은...&lt;중략&gt;...거의 유일한 길이죠. [E2]</li> <li>• ‘하고 싶은 거?’ 아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직업 할 때 중요한 건 일단 ‘돈’ 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잘 버는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부러움도 오고 인정을 받아요... [E2]</li> </ul>

## (2) 진로 이야기 속 ‘불안’

진로 이야기 속에는 진로선택 행위를 방해하는 힘도 존재했다. 선행연구들은 ‘진로장벽’의 개념을 통해 진로선택 행위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논의하였다. 전통적으로 진로장벽은 ‘직업이나 진로계획에 있어서 자신의 진로목표를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내적·외적 요인들’을 뜻한다(손은령, 2004). 내적 장애요인으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낮은 자기효능감, 제한된 직업흥미, 다중 역할로 인한 갈등 등이 연구되었다(Fitzgerald, Fassinger, & Betz, 1995). 외적 장애요인으로는 고정된 성 역할 인식, 교육체제 내에서의 여성과 남성에게 대한 차별적 대우 등이 다루어졌다(공운정, 2005). 사회인지진로이론에서는 내면화된 내적 장벽과 구별하기 위해 외적 장벽만을 진로장벽으로 보기도 한다(Lent et al., 2000). 하지만 선행연구들이 다루고 있는 각각의 요인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외적 장벽이 내면화되기도 하는 등 요인 간 구분이 모호하였다. 따라서 진로장벽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여 본 연구의 현상을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진로 이야기 속에서 연구자가 발견한 현상은 ‘불안(anxiety)’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차원의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있었고, 자기 자신, 부모, 학교, 사회에 대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진로선택 행위를 방해하는 힘으로 작용했다. 한지민의 진로 이야기 속에는 부모님이 등록금을 내 줄 수 있을까, 타지에서 기숙사 혹은 자취생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까, 자격증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 등이 드러났다. 김서연이 사학과 진학을 포기한 이유는 사학과 졸업 후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나이가 많은 부모님이 자신의 교육기간을 기다려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 때문이었다. 물리치료학과 진학 이후에도 전문대 졸업생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걱정했다. 강은진 역시 졸업 후 취업가능성에 대한 불안,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이 있었고, 김민서는 재수학원 비용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

<표 29> 진로선택 행위를 방해하는 힘

차원	유형		관련 개념 및 예시
물질적 차원	비용		교육비(등록금, 학원비 등), 생활비
개인적 차원	능력	인지적	자기효능감, 대처효능감 등
		정서적	진로불안,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등
사회적 차원	신뢰	타인 신뢰	부모, 교사의 지원 등
		제도 신뢰	사회적 안전망, 공정한 기회 등
		사회 신뢰	미래 경제 상황, 취업가능성 등

이들의 불안은 크게 물질적 차원,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가장 직접적인 방해요인은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에게 ‘비용의 부족’에 따른 불안이었다. 한지민의 아버지가 예술실용전문학교 진학을 반대한 이유는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였고, 뷰티학원을 중도 포기한 이유는 학원비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김민서 역시 재수 학원 교육비용을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대 진학을 위한 재도전을 할 수 없었다. 직업교육을 위한 비용의 부족은 연구 참여자들의 진로선택 과정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소득분위별 대학 등록금 지원, 대학의 장학금 제도, 대학의 기숙사 지원, 저소득가정 청소년 대상 취업지원제도 등 사회제도를 활용하여 직접적인 직업교육 비용의 한계는 어느 정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물질적 차원이 아닌 개인 내부적 차원의 불안이 존재했다. 개인은 인지적으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약한 경우 진로선택을 방해하는 힘이 작용했다. 한지민이 대학 진학을 추구하지 않은 이유는 학업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미용사 진로를 포기하고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길로 선회한 이유 역시 미용사 자격증 취득 실패에 따라 미용기술 습득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강은진이 수의사 혹은 심리상담가에 대한 진로대안을 일찍 포기한 이유도 학업능력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에게 자기효능감은 진로타협 과정에서 진로대안을 제외시키는 데 작용하였다.

세 번째, 개인의 비인지적 요인 중 심리적 불안은 진로선택 행위를 방해했다. 선행연구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진로결정의 불확실성과 불안을 다루어 왔다<sup>66)</sup>. 여러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불확실성, 불안의 요인이 개인의 진로경험과 진로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김경옥, 2009; Gati et al., 2011). 개인은 정보가 부족하거나 신뢰할 수 없을 때, 정보와 변화의 상황을 잘못 이해했을 때, 매력적인 대안 간에 갈등을 느낄 때 불확실함을 느낀다(오을임·김 구, 2002). 이러한 불확실 상황에서 개인은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을 느끼며, 그러한 감정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게 된다. 개인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선택을 가장 합리화 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되거나, 선택을 포기 혹은 지연하는 등의 특성을 보일 수 있다(정준표, 2003; Chanel & Chichilnisky, 2009; Luce, Bettman, & Payne, 1997).

이렇게 불안을 개인 심리적인 차원에서 다루어 온 연구들은 개인이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는 것, 개인이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intolerance of uncertainty)’ 부족이 걱정(worry)을 발생시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라고 간주 한다<sup>67)</sup>. 이것이 자신감과 통제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문제해결지향과 부적 상관을 지닌다고 설명했다(Ladouceur et al., 2000).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진로장벽 지각을 직·간접적으로 높이고, 진로선택 과정 자체를 위협적으로 지각하게 하고,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한다고 밝혔다(김나래·이기학, 2012; Buhr & Dugas, 2006). 따라서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미래의 우연한 기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태도와 능력,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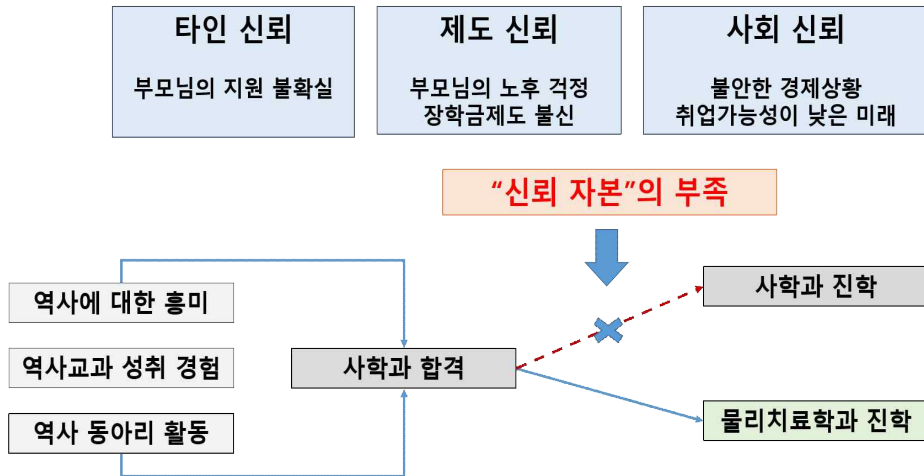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의 진로 이야기를 살펴보면 불확실함과 불안을 개

---

66) 진로 상황에서의 불확실성 개념은 '진로결정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사건과 결정 결과에 대해 예측할 수 없는 환경과 심리상태'로 정의내릴 수 있다(이아라, 2013).

67) ‘불확실한 상황에서, 실제 일어날 결과의 가능성과 상관없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김경옥, 2009).

인 심리적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한계를 지닐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참여자 불안의 원인은 단순히 개인의 인지적·정서적 경향성의 문제라기보다 사회적 차원의 문제임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3] 김서연의 진로선택을 방해하는 힘

김서연의 경우 역사 전공자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오랫동안 진로흥미와 목표를 유지해 오고 있었으나, 전공 선택 시 사학과 진학에 대해 불안해했고, 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상황, 부모님이 오랜 기간 교육비를 충당해 줄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기대, 부모님의 노후생활을 걱정하는 마음 등이 작용한 것이다. 결국 단기간 내 취업이 가능한 물리치료학과에 진학한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개인의 대처능력, 인내력 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삶을 지지해 줄 여러 유형의 자본이 부족한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에게 ‘사회에 대한 신뢰’는 매우 중요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진로선택 이야기 안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신뢰가 등장하였다. 개인 간 형성되는 타인에 대한 신뢰(교사의 조언과 정보, 부모의 지지 등)와 사회규범과 제도에 대한 신뢰(입시제도, 국가장학금지원제도, 취업지원제도, 자격증제도 등),

전체 사회집단에 대한 신뢰(우리나라 경제의 성장가능성, 취업가능성 등)가 그것이다.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한지민은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직업교육에 재도전할 수 있었고, 강은진, 김서연, 김민서는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지원제도, 성적장학금제도, 대학의 기숙사 지원 등을 통해 대학진학을 목표로 할 수 있었다. 이들은 자격증제도를 통해 직업교육 기간을 버티고 졸업 후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진로선택 행위를 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청소년의 진로선택을 방해하는 힘, 즉 사회적 차원의 ‘불안’에 주목하였고,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힘으로서 “신뢰자본(trust capital)”의 개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개념은 Putnam(1993)과 Fukuyama(1995)의 사회자본 개념을 발전시킨 것이다. Putnam(1993)은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여러 척도를 제시하면서 ‘타인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언급하였다. 타인과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시민적·정치적 참여를 활발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연구자는 이 ‘타인과 제도에 대한 신뢰’에 주목하였다. 타인과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사회적 불안감은 감소될 것이다. 이것이 개인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지는 않으나 행위의 적극성을 부여할 것이다. 이는 ‘불안에 대처할 수 있는 자본’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뢰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자본 개념에서 파생되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신뢰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사회적 자본 개념은 부르디외, 콜만을 거쳐 퍼트남, 후쿠야마에 이르기까지 그 의미가 확장되어 왔다. Bourdieu(2003)와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을 개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관계/연결망으로 보았으나, Putnam(1993)은 협력적 행위와 시민적 참여를 증진시키는 자본으로 보았다. 사회적 자본을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회적 관계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신뢰를 ‘타인의 이해가 자신의 이익에 맞도록 행동할 것이라는 주관적 기대’라고 정의할 수 있다<sup>68)</sup>. 하지만 사회적 자본을 경제

68) Coleman(1990)은 신뢰를 ‘한 행위자가 택하는 위험(risk)이 다른 행위자의 행위

적 이익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행위에 적극성을 부여하고 참여를 증진시키는 자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신뢰의 대상이 꼭 개인일 필요는 없다.

Putnam(1993: 35)은 사회적 자본을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조나 협동을 용이하게 하는 연결망, 규범, 신뢰 등과 같은 사회구조상의 특질’이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에서 ‘신뢰’는 연결망, 규범과 함께 사회적 자본을 이루는 근본적 요소이다. 그가 말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은 구조적 측면(연결망)과 정서적 측면(신뢰)으로 구분할 수 있고, 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전통을 지녔다는 의미이며, 개인주의의 약점을 극복하고 집합적 행동을 하게 해 주는 것이다. 한 사회에서 신뢰가 제도화되어 있다면 사회체제가 원활히 유지되도록 하는 윤택유 역할을 함과 동시에 개인의 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도 발생 한다. 이는 집단의 자본 축적에 기여할 것이다.

Fukuyama(1995)는 개인의 경제활동과 공동체의 경제적 번영에 대해 고찰하여, 고 신뢰 사회(high-trust society)와 저 신뢰 사회(low-trust society)를 구분하였다. 고 신뢰 사회는 그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이 보편적인 규범에 기초하여 규칙적이고 정직하며 협동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상호의존성, 도덕적 책임성,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였다(Fukuyama, 1995: 49). 국가의 복지 혹은 미래 성장 가능성 등은 그 사회에 내재한 신뢰의 수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가족의 범위를 넘어선 일반인과 사회 전반으로의 신뢰 확대를 통해 공동체의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두 논의의 핵심은 개인의 행위에 ‘사회적 차원의 신뢰’가 영향을 미치며, 공동체의 연대 의식이 있을 때,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거나 개인의 행위가 보다 적극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이 직업생활을 함에 있어서 타인(가족 등 사회적 관계) 또는 사회와 정부가(사회제도 및 정책, 규범 등) 그리고 전체 집단의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적으로 행위하고 있음을 신뢰할 때, 이것이 진로선택 행위에 대한 불안

---

(performance)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이라고 정의했고, Gambetta(1988)는 신뢰를 ‘정보와 감시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다른 행위자나 집단이 특정 행위를 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주관적인 기대’라고 정의했다(박찬웅, 2006: 7).



을 극복할 수 있는 자본이 된다. 즉,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이 취업에 있어서 대학의 서열이 아닌 노력과 능력에 따른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믿을 때, 부모님의 불안한 노후생활에 대한 부담과 짐을 덜 수 있을 때, 직업생활을 해 나가면서 자신이 직면하게 될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안전망이 존재한다고 믿을 때, 우리 사회의 경제 발전 가능성과 일자리 확대 등 미래 경제 상황이 긍정적일 것이라고 믿을 때, 이들은 불안감을 극복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직업선택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정인(부모, 교사 등)의 도움을 받거나, 집단의 구성원들(정부, 국민)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낮다.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가 오히려 자신에게 의지한다고 느끼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모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며, 최대한 빨리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족구성원들과의 정서적 유대감과는 별개의 논의이다.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자원이 존재한다고 기대하지 않는다. 지역사회는 자신들에게 기회가 아닌 제약으로 작용하고, 학교와 교육제도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웠다. 국가와 정부에 대한 불신도 높으며<sup>69)</sup>, 청년실업이 심각해지는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지니고 있다.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은 ‘불확실성 속의 가난함’이라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직업생활의 미래를 계획함에 있어서 정신적 여유와 느슨함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실수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완충기제가 존재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경우 기회비용을 더 꼼꼼히 따져야만 하고, 걱정할 거리가 많은 사람은 최선의 역량 발휘가 어렵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가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예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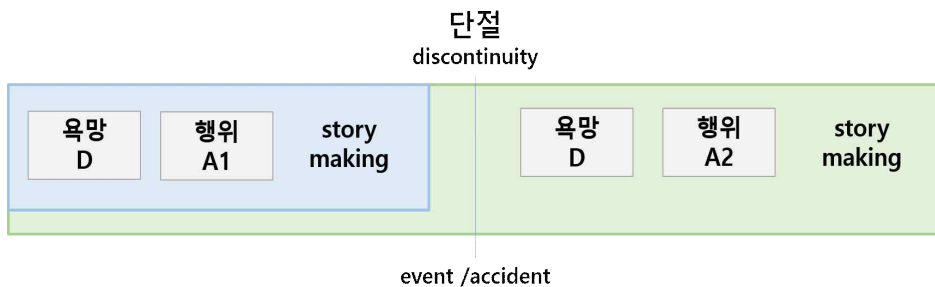
69) 한지민: 사람들이 불법 시위를 하게 만드는 게 국가잖아요. 애초에 국가가 잘 처리를 해줬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잖아요. 근데 애꿎은 사람들 가둬놓고 물대포 쏘고...그것도 불법이에요. 물대포를 쏜다는 거 자체가...물 부족 국가에서 물대포를 쏘다니요 말도 안 되죠. [A3]

한지민: 권력 남용? 내가 대통령이라고 막 사람들 괴롭히고 그러면 안 되죠. 국회 막 일 안한다고 막 그러고...자기부터 일하고 국회한테 뭐라고 해야지. 자기는 해외나 왔다 갔다 하면서....자기 역할은 다 해가면서 할 말을 해야죠. 자기 역할도 안하면서 할 말을 해요. [A3]

불가능해질수록,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질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치러야 할 비용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직업생활을 함에 있어서 실업, 비정규직과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 처할 때 자신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지 못한다면, 저소득가정 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은 실질적이고 폭넓은 진로선택의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사회가 변화할수록 저소득계층에게는 더욱 불리하고 불평등한 사회가 될 것이다.

## 2) 진로선택 과정의 특징

### (1) 진로 이야기의 단절



[그림 14] 진로 이야기의 단절

연구 참여자들의 진로선택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성은 “단절 (discontinuity)” 이었다<sup>70)</sup>. 진로 이야기의 단절이란 과거에 의미 있게 이야기했던 행위와 계획이 부정되거나 흐름이 끊기게 되는 것을 말한다. 외부적·내부적 사건발생으로 인해 과거 내러티브가 현재 내러티브와 일관성 있게 연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자가 단절이라고 파악했던

70) 진로 이야기 단절 현상은 심층면담이 진행되는 중에 발견될 수 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재구성 과정을 거친 것이므로 하나의 통합된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와 만났던 기간 동안 일어난 사건과 사건 전후 이야기 초점의 변화를 통해서 포착되는 것이다.

기준은 참여자가 선택한 진로의 영역이 비슷한가, 아닌가의 여부가 아니다. 내러티브 안에서 경험의 해석이 달라지는 지점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이다.

한지민의 진로 이야기에는 ‘미용사-무대연출가-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전환이 나타났다. 외부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비슷한 진로계통의 흐름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내러티브 안으로 들어가 보면 행위의 초점이 달라지고, 잠시의 공백이 존재하며, 이야기를 재구성해야 하는 단절의 지점이 존재한다. 연구자가 발견한 단절의 지점은 무대연출가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의 전환 지점이었다<sup>71)</sup>. 한지민의 4차 심층면담까지는 연극부 동아리에 대한 특별한 의미부여, 예술실용전문학교 면접이야기 강조, 서울 살이에 대한 계획, 무대연출가 직업의 특성과 취업 전망 등의 주제가 내러티브의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5차 심층면담에서 갑자기 아버지의 반대, 등록금 마련의 어려움, 무대연출학과 진학의 포기, 한지민의 절망감 등 한지민의 진로 이야기 공백이 존재했다.



[그림 15] 한지민, 김서연의 진로 이야기 단절

김서연의 진로 이야기에는 ‘역사학자-물리치료사’라는 전환이 나타났다. 역사학자와 관련된 과거 진로 이야기는 물리치료학과 선택과 전혀

71) 연구자가 한지민과 만났던 지점은 미용사-무대 연출가로의 진로 이야기 재구성이 이루어진 이후였고, 그 시기의 단절은 이미 재구성과 회복의 과정을 거친 이후였다.

연결되지 않았다. 과거 진로 이야기에는 물리치료사와 관련된 어떠한 내러티브도 존재하지 않았다. 1차 심층면담에서 내러티브의 주를 이룬 것은 역사에 대한 흥미, 역사교과 시간에 대한 의미부여, 역사동아리 활동에 대한 자부심, 역사책 읽기와 사학과 진학 이후 전공하고 싶은 주제 등이었다. 이후 2차 심층면담에서는 진로 이야기의 공백이 존재하고, 3차 심층면담 이후 물리치료사 진로에 대한 내러티브가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역사를 좋아했던 과거 아동기~학창시절의 경험이 이후 진로 이야기에서는 무의미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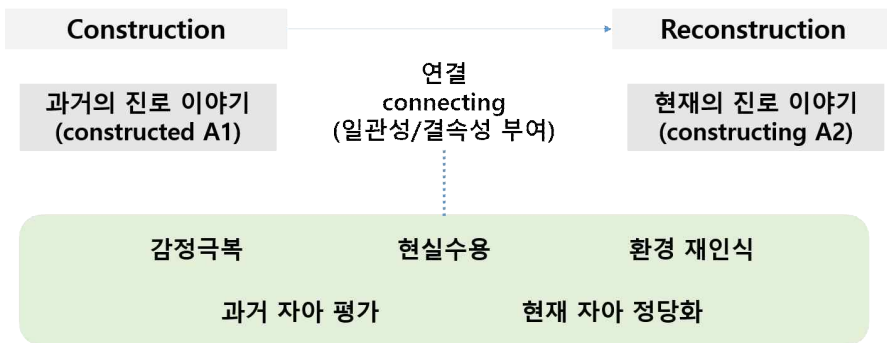
Gottfredson(1981)의 제한-타협이론에서는 이 과정을 진로 타협(compromise)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려 했다. 진로선택 과정에서는 어떤 부분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상황이 발생함에 주목했다. 수용 가능한 진로대안 영역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흥미 영역의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되는 경우 일부분을 포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타협이라 했다. 성역할, 사회적 지위, 흥미를 중요한 타협의 측면으로 바라보았다. 또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받아들이는 과정, 즉 타협에 대한 심리적 적응과정이 뒤따른다. 국내외에서는 진로 의사결정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타협의 방향과 과정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 계속되어 오고 있으며, 동서양 문화권과 집단에 따라 일관된 연구결과가 아닌 타협의 다양한 현상들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고교졸업생들에게 대학 진학 의사결정과정은 복잡하고, 어떤 진로 의사결정과정보다 타협이 필수적으로 드러난다(황매향·김계현, 2003).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의 진로 타협은 오랜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진로대안을 좁혀가는 과정을 거치기보다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난다는 특징을 보였다. 한지민의 경우 아빠의 갑작스러운 반대로 한 달 뒤 입학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예술실용전문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 기한 내 학원비를 준비하지 못해서 다니던 뷰티학원을 중도에 포기해야 하는 일이 일어났다. 김서연의 경우 그동안 지속해서 사학과 진학을 계획해왔고 사학과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 두 달 전 갑작스럽게 물리치료학과를 선택하였다. 진로 타협이 오랜 기간에 걸

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 하나의 진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짧은 기간에 진로 타협을 한 경우 과거 진로 이야기와 현재 진로선택 행위의 흐름이 끊기는 단절 현상을 보여준다.

## (2) 진로 이야기의 재구성

진로 이야기의 단절은 진로 자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했다. 과거 진로 이야기 속 자아와 현재 진로 이야기 속 자아는 중시하는 경험, 경험을 해석하는 방식, 진로목표가 다르다. 이에 연구 참여자들은 다시 이야기를 구성하는 ‘이야기 재구성(reconstruction of the career story)’ 과정을 거친다. 재구성된 이야기에는 감정의 극복, 현실의 수용, 과거 자아의 평가, 현재 자아의 정당화, 둘러싼 환경의 재인식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과거와 현재 진로 이야기, 과거와 현재의 자아가 연속성을 회복하게 되고 결속성을 가지면서 새로운 진로선택 이야기가 형성되었다.



[그림 16] 이야기 재구성을 통한 자아 회복

한지민은 진로 단절 이후 진로 이야기를 연결하고 자아를 회복하는 과정을 거쳤다. 갈등, 분노, 체념의 감정극복 시간을 겪은 후 자신의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등록금을 낼 수 없는 재정적 현실을 수용한다. 그리고 ‘사실 내심 나도 긴가민가했다.’ 고 과거 자아를 재해석하였고, 자신

이 새롭게 구성하게 된 뷰티학원 등록과 메이크업 아티스트 진로목표를 과거 자아와 연결 짓고 현재 자아를 정당화한다. ‘취업의 길이 넓다, 돌이 많은 길이지만 장점이 있다.’ 등 현재 직업 환경을 긍정적으로 재인식하는 과정을 거친다.

김서연은 갑자기 등장한 물리치료사 내러티브 안에서 혼란한 감정을 극복해야 했고, 현실을 수용해야 했다. 자신이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여 자신을 정당화하였으며, 정보를 충분히 탐색하지 않았던 자신, 신중하지 못했던 과거의 자신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보건계통의 직업을 선택한 주변인들, 만족스러워 하시는 부모님들을 둘러보는 등 환경을 재인식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자아를 분열시키지 않고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연구 참여자들은 과거 나에 대한 해석과 현재 나, 미래 나에 대한 기대가 서로 관련성을 가져, 시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연속되고 통합된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기를 추구하였다. 연속성이란 시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나 같은 사람으로 이해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시간의 변화 속에서 내가 어떻게 현재의 내가 되었는데에 대한 대답을 하고자 한다. 개인의 역사, 경험의 흐름 속에서 과거 사건들의 의미 관련성 안에서만 ‘현재의 나’ 는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이해’ 는 ‘나의 나됨’ 이 바탕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미래의 나에 대한 기대’ 가 토대가 되기도 한다. 과거 경험을 해석하는 방식을 통해서 동시에 내가 보는 미래 행위의 선택과 목표, 미래 행위 능력에 대한 믿음을 결정한다. 서로 배치되는 다양한 삶의 관련성들과 역할들, 행위의 과제들과 내면의 심리적인 요구 및 동기들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속성의 생산과 유지는 개인의 근본적인 과제로 간주된다. 결속성을 통해 개인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고, 진정성과 통합성에 대한 자기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것을 통해 개인은 정체성의 혼란과 분열을 막을 수 있다(Keupp et al., 1999; Straub, 2000b; Lucius-Hoene & Deppermann, 2004 재인용).

### 3) 종합 : 진로욕망과 신뢰자본, 진로자아의 단절과 회복

연구 참여자의 진로선택 행위는 “진로욕망(career desire)” 과 “신뢰자본(trust capital)” 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가정 청소년 진로 이야기의 특징은 “진로 자아의 단절과 회복”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진로욕망이란 ‘개인의 진로와 관련하여 존재를 유지하고 행위를 이끄는 힘’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진로행동에 있어서 인간의 기본적 욕망은 강력하게 행동을 이끄는 힘으로 작용한다. 인간을 이해하는 원리가 이성과 논리에서 감성과 욕망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최근에는 여러 학문 영역에서 욕망의 개념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인간의 경제적 행동과 관련하여서는 소비 욕망의 개념을 논의하기도 한다(이준영, 2010). 현대 사회의 인간은 직업생활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고 보존하고자 하며, 직업 선택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과 구별하고 자신의 존재 의미인 정체성을 밝히고자 한다. 즉, 진로욕망은 ‘진로 행위와 관련하여 개인이 진로자아 및 실천행위를 구성해 내는 힘’ 이며, 이는 하나의 대상이나 방향으로 향하지 않으며, 다의적인 진로자아를 구성한다. 진로욕망은 개인의 진로 이야기를 독특하게 구성해 내는 원동력이자, 진로행위를 바꾸는 힘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욕망은 궁극적인 목표 지향점이 아니다. 그것을 달성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한지민이 금산에서 벗어나기를 달성하여야 한다거나 그것의 방향으로 한 단계씩 나아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진로행위의 흐름을 보이고 직업인 성장 이야기의 차이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의 추동력을 의미한다. 엄밀히 말하면 한지민은 금산에서 벗어나기 위한 직업을 가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었든, 결과적으로 비록 금산에서 벗어나는 직업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상관없다. 그러한 인생의 과정과 남들과 차별화되는 어떠한 행보를 하였다는 것 자체가 진로욕망이 작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신뢰자본은 ‘사회적 자본의 한 형태로서 타인이 내 삶을 지지 혹은 지원할 것이라는 믿음,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 제도 및 규범이 마련되어 있다는 믿음, 사회구성원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에게 신뢰자본은 사회적 차원에서 불확실성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자본이 된다. Yamagishi와 Yamagishi(1994) 부부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정적 신뢰(particularized trust)와 일반적 신뢰(generalized trust)를 나누어 구분하였다. 전자는 친족이나 동료 등 특정인과의 신뢰를 의미하고, 후자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익명의 사람들과의 신뢰를 의미한다. 상호의존적 사회에서는 일반적 신뢰가 더욱 중요하며, 개인과 사회가 폭넓게 신뢰하는 연결망을 통해 사회적 자본이 증가한다.

따라서 신뢰자본이 증가할수록 시장에서 경제주체로서, 유연한 노동자로서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직업인에게 신뢰자본이란 불확실한 직업생활 속에서도 생계가 보장되고, 다양한 노동의 기회가 존재하며, 능력과 노력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또한 진로를 선택하는 청소년들에게 신뢰자본이란 자신이 원하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이후 직업능력에 따른 노동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취업제도 및 노동의 문화가 구축되어 있으며, 재교육 및 재취업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는 믿음이다.

셋째,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진로선택 과정은 ‘자아의 단절과 회복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진로선택 행위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하는 힘이 존재했고, 내외부적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단절 현상이 발생했다. 연구 참여자들의 생활 세계 속에는 진로 이행을 돕는 자원이나 상호작용이 풍부하지 못했다. 개인의 진로 생애에 있어서 아동 및 학교에서의 진로 경험과 진로선택기의 행위, 직업교육기관으로의 진입과 수행, 일터로의 이행이 단절 없이 이어지기는 힘들다. 특히 저소득가정 배경의 청소년, 도시와의 접근성이 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단절의 확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입시제도, 자격증제도, 노동정책 등의 확대와 유연화는 이러한 이행을 보다 원활하게 이어



주는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는 단절 현상이 아닌 극복의 모습에 주목하였다. 진로 이야기 속 자아의 자리매김(positioning)<sup>72)</sup>이 급격히 변화하는 단절을 경험하였을 때, 연구 참여자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자아를 회복하기 위한 이야기 재구성을 하였다. 감정 극복, 현실 수용, 환경 재인식, 과거 자아 비판, 현재 자아 정당화 등 진로 이야기의 연결(connecting), 진로 자아의 재구성(reconstruction) 작업은 자아에 대한 이해를 보다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단순히 VAS 메시지를 수용/부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개인의 진로 이야기를 재창조하는 작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진로선택 행위를 통해 사회적 실천 속에서 주체를 억압하는 구조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움직임을 추동하는 동인은 진로욕망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진로욕망은 ‘금산을 벗어나고 싶다(한지민), 엄마처럼 육체 노동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김서연), 외로웠던 아동기의 나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강은진), 신분상승을 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싶다(김민서)’ 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진로선택 행위를 통해 자신의 진로욕망을 발견했다. 그들의 행위 동인은 간호사 직업에 대한 흥미, 수학적 재능, 역사학에 대한 진로 흥미, 학교경험을 통해 형성된 자기효능감, 순차적인 절차로서 형성되는 진로목표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진로행위를 차별화시켰던 추동력은 내러티브 속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났던 진로욕망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단절과 회복의 과정을 통해 사회의 구조가 제시한 환상을 파악하게 되었으며, 환상을 가로질러 자신만의 또 다른 환상 시나리오를 새롭게 창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72) 개인이 담화 내에서 자신을 어떠한 위치에 두는가에 따라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본다. 즉 개인이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파악하는 가라고 본다. Davies와 Harré(1990)는 이를 ‘자리매김’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Lucius-Hoene & Deppermann, 2004 개인용).

### 3. 예비 직업사회화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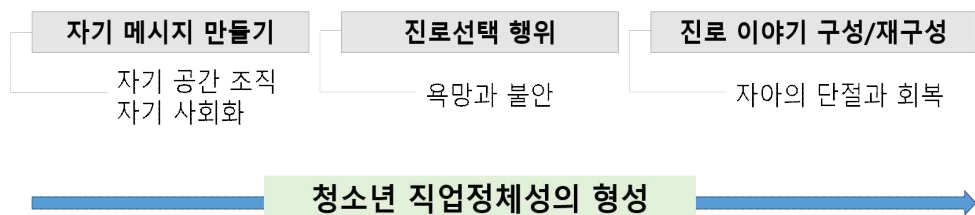
#### : “탈주적 직업정체성”의 형성

##### 1) 청소년의 직업정체성 개념 제안

연구 참여자들의 아동기~학창시절, 진로선택 시기, 고등학교 졸업 후 예비 직업사회화 경험을 통해 직업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인터넷 등 다양한 사회화 원천과의 상호작용 결과 개별적인 VAS 메시지를 만들어 갔다. 사회화 원천은 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하여 사회의 관습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회화 기관으로서 작용하기도 하였으나, 청소년들은 이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수용 혹은 거부하거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재해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예비 직업사회화가 일어나는 공간을 자신의 방식대로 조직하였으며(self-spacing), 예비 직업사회화 기관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자기 생애사를 중심으로 주체적으로 선택·재해석하면서(self-socializing), 개별적이고 주체적인 자기 메시지 만들기(self-message making) 과정을 거쳤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구조적·개별적으로 만들어진 VAS 메시지를 바탕으로 진로선택이라는 실천적 행위를 하였다. 진로선택 행위를 이끄는 힘은 진로 이야기 속에 내재된 진로욕망이었고, 행위를 방해하는 힘은 불안과 신뢰자본의 부족이었다. 청소년들은 진로선택 행위를 둘러싼 진로 이야기를 구성하였고, 이야기 속에서 진로자아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산 지역 저소득가정이라는 배경을 지닌 청소년들의 진로 이야기에는 내외부적 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진로자아의 단절 현상이 존재했다. 그리고 단절을 극복하고 자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직업인으로서 자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상(像)을 지니게 되었다. 자신의 진로 생애를 관통하는 하나의 일관된, 결속성을 지닌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은 주어진 현실과 환경을 재인식하고, 과거 자아를 평가하고, 현재 자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전체적인 예비 직업사회화 과정은 청소년들이 직업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직업인 자아를 구성해 가는 과정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를 “청소년의 직업정체성(vocational identity of adolescents)” 이라고 개념화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직업정체성은 사회화 원천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예비 직업사회화 메시지를 형성하고, 진로선택 행위와 진로 이야기를 구성·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내재화되고 발전되어 갔다. McAdams(2001)는 내러티브에 의한 정체성 형성을 통해 자아가 의도와 의미를 지니게 되며, 자아가 시간의 흐름과 상황을 관통하는 통일성을 지니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구성된 과거와 상상하는 미래가 통합되어 자아에 통일성과 의도, 의미를 부여한다.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서서히 형성되며, 이야기를 구성하면서 또 다른 자아를 형성하며, 반복된 상호작용을 통해 이야기는 발전되고 편집되며, 화자는 점점 광범위하고 더욱 통합적인 정체성을 발달시키게 된다(McAdams & Mclean, 2013).



[그림 17] 청소년의 직업정체성 형성 과정

연구 참여자 청소년들은 아직 일터나 조직에 진입하지 않았으나 VAS 메시지를 형성하고, 진로선택 행위를 하고, 진로 이야기를 구성·재구성 하면서 직업인으로서 정체성을 지니게 되었다. 직업인 정체성이 직업 집단에 소속되거나 특정한 역할을 수행할 때 비로소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은 이미 자신만의 독특한 진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현재의 자신을 이해하고 미래의 직업인 자아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그려 나갔다<sup>73)</sup>.

청소년의 직업정체성 개념의 제안은 정체성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한다. 직업 집단에의 소속을 통해 직업정체성을 파악하는 근대의 관점에서 벗어나 진로 생애 동안 만들어가는 직업정체성 패러다임으로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근대의 정체성 개념은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을 어디에 위치시키는가와 관련되어 있었다. Tajfel(1981)은 자신이 속한 집단을 범주화하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보았으며, 다른 집단과의 차별화, 소속집단에의 동일시를 통해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회적 정체성 개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현대에는 정체성이란 능동적으로 구성되며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정체성은 주어진, 동일한, 고정된, 범주화된 특성이 아니다.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발견되고 창조되는 것이며, 의식적 행위의 결과이자 자기 성찰의 결과이다(Davies & Harré, 1990; Melucci, 1996).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체성 형성을 비선형적인 과정으로 바라보고, 주어진 순간 다양하고 모순적인 세상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중요하게 파악해야 한다(Chappell et al., 2003: 29).

따라서 청소년의 직업정체성이란 ‘일터로 진입하기 이전, 아동기부터 후기 청소년기에 걸쳐 사회화 원천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예비 직업사회화 메시지를 구성하고, 자신의 진로선택과 관련한 진로 이야기를 구성함으로써 형성되는, 내재화되고, 구체화되며, 통합적인 직업인으로서의 자아 이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직업정체성은 예비 직업사회화 이야기 과정에서 창출되는 자기를 재확인하면서 발견되었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적 관심, 자신의 체험에 대한 서사적 재구성, 사회적 인준자로서 역할을 하는 청자와의 교감을 근거로 한다(Lucius-Hoene & Deppermann, 2004: 23). 연구 참여자들은 이야기하는 시점의 관점과 사건이 발생한 시점의 관점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자신에 대한 비판적, 성찰적, 해석적 거리를 갖게 되었다. 이야기의 중심에 자기를 놓고 특정

---

73) 최근 외국의 소수 연구들도 직업을 선택하기 이전 후기 청소년들이 직업정체성을 지님을 주장하였다. 젊은이들이 원하는 일과 직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선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일부는 성인의 직업정체성(young adult occupational identity)을 형성하고 있음을 주장한다(Hoogstra, Schneider, & Chang, 2001).

한 성격, 목적, 동기,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은 자기 이해와 자기 경험을 해석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이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었다. 진로와 직업을 선택해 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규정, 결속성의 부여, 우연적인 삶의 조건들에의 대응 등은 시간과 상황의 변화 속에서 일관된 자아를 형성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였다.

## 2) 탈주적 직업정체성의 형성

연구 참여자의 직업정체성은 “탈주적 직업정체성(vocational identity as a Line of Flight)”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탈주적이라는 용어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탈주선(ligne de fuite), 탈영토화(déterritorialisation) 개념에서 가져온 것이다. 탈주는 사회적 구조나 질서, 제도적으로 틀지어진 정체성의 제약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새로운 대상과 새로운 접촉을 추구하는 욕망의 능동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전경갑, 1999: 246).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예비 직업사회화 경험에서 탈주의 흐름 즉, 탈주선을 포착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직업과 관련하여 ‘자기 메시지를 만들고’, 진로선택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진로욕망’을 발견하였고, 욕망의 생성적 힘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계층과 공간을 넘어서려는 행위들을 반복(répétition)<sup>74</sup>했다. 즉, 직업인 정체성을 구성해 가는 과정은 구조의 억압과 제약을 극복/저항해 가는 과정이었다. 이들이 보여 주었던 ‘금산에서 벗어나기’와 ‘부모보다 조금 더 나은 삶 살기’는 다양하고 파편화된 욕망을 통해 구조를 변혁하고 새로운 사회를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다.

탈주란 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탈영토화 되고 탈코드화된 흐름을 상징한다. 기존 질서의 파괴를 통해 새 질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이동과 유목적 흐름(nomadism)을 통해 새로운 영토를 생성함을 의미한

---

74) 들뢰즈에게 반복은 같은 것의 재생산이 아니라 차이의 역능이다. 규칙성의 정렬되는 과정이 아니라, 특이성들이 응결되는 긍정적이고 ‘즐거움’ 과정이다(Villani & Sasso, 2003: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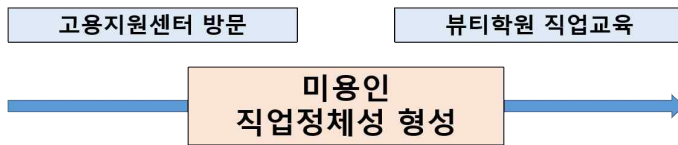
다(이진경, 2002; Deleuze & Guattari, 1980). 따라서 탈주는 부정적인 도피나 무책임한 외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창조이며 적극적인 생성을 의미한다. 탈주는 결코 세상으로부터 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치 사람들이 수도관에 구멍을 뚫듯이 세상을 탈주케 하는 것이다. 모든 경계에서 탈주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체계란 없다. 탈주라는 용어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기존의 지배적인 것에서 벗어나려는 새로움을 향한 움직임들이 역사 속에서 외면당하고, 실패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일 것이다(이진경, 2002: 642-643).

탈주선은 주체가 재영토화 되는데 이르지 못하는 부분 대상들의 연속을 가리킨다. 탈영토화 하는 파열의 선이라고도 부르며, 탈주선의 분명한 쓰임은 자유를 되찾게 해주는 것이다. 탈주선은 탈영토화의 객관적인 선과 결합하여 자유의 새로운 공간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열망을 창조한다(Villani & Sasso, 2003: 99). 우리의 삶을 선으로 보면 경직된 선(rigid lines)과 탈주의 선(lines of flight)이 있을 수 있다. 사회제도를 통해 표준화되고 지배적으로 형성된 가치와 규범 그리고 그에 순응하여 형성된 정체성은 경직된 선으로 볼 수 있다. 경직된 기준에 따라 집단별로 구분하는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계적으로 달성되는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직된 선을 따라 형성되는 정체성은 사회질서에 기여하나 권력의 억압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반면 탈주의 선은 사회의 질서로 틀지워진 정체성이 아닌, 끊임없이 새로운 대상과 접촉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간다.

그리고 탈주의 정체성은 고유성과 자율성을 지니지만 분열적이고 파괴적일수도 있다. 특히 자본주의 소비사회, 미디어 사회에서 개인의 욕망은 미시적으로 해방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예측과 억압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조적 질서로 진입하였고, 대타자의 질서, 문화적 질서 안에서 욕망을 길들였다. ‘대학은 가야지, 전문대보다는 4년제를 가야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통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정상적인 길이다.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면 의사, 역사학자 등 네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성적이 낮은 나는 선택할 수 없는 직업의 범위

가 있다.’ 등 다양한 VAS 메시지를 통해 욕망이 구성되었다. 하지만 문화를 통해 사회화(제어, 길들이기)되지 않는 욕망이 ‘비정상적’인 다양성을 지닌 채 자유롭게 흘렀다. 이 욕망은 표준화된 규범을 따르지 않으며, 체계화되지 않으며, 이성으로 설명하려 하지 않으며, 개별적인 대상으로서 파편화되어 서로 흩어진 채로 존재했다.



#### 대타자의 질서에 순응

- 미용실 아르바이트 노동착취
- 학교에서 소외와 배제
- 예술실용전문학교 진학 포기
- 대학진학이 아닌 취업하기

#### 욕망의 탈주 과정

- 대전의 미용학원 다니기
- 예술실용전문학교 면접보기
- 취업지원제도의 적극적 활용
- 도시생활이 가능한 직업선택
-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되는 직업생활

[그림 18] 한지민의 탈주적 직업정체성 형성 과정

한지민은 예비 직업사회화를 통해 미용인 직업정체성을 형성하였다. 한지민을 억압하는 것은 금산의 할머니 집에 살아야 하는 상황, 빛이 많고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가정의 재정 상황이다. 학업성적이 낮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었다. 하지만 한지민은 금산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진로욕망을 통해 끊임없이 ‘금산 벗어나기’와 ‘부모보다 조금 더 나은 삶’으로 탈주하고자 한다.

한지민이 미용인 직업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은 대타자의 질서에 순응하는 과정이었으며, 동시에 욕망의 탈주 과정이었다. 한지민은 용돈을 벌기 위해 미용실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10시간의 노동에 3~4만원을 받는 노동 착취를 당하였다. 육체노동의 규범을 배웠고 열악하고 고된 일터의 환경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이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얻었고, 대전의 미용학원 등록, 서울의 예술실용전문학교 면접비용 마련이 가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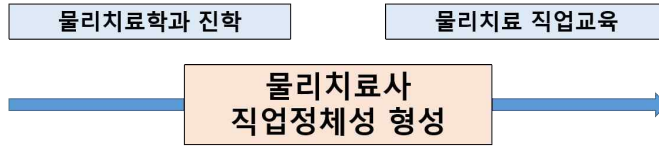
또한 미용실 원장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미용사 직업인의 지식, 태도, 가치관을 습득하였으며, 이는 미용 계통의 직업을 통해 금산을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이기도 했다.

한지민은 자신이 학교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소외와 배제의 상황을 수용했다. 대학 진학을 추구하지 않았고, 수능시험을 보지 않았으며, 졸업 후 바로 취업을 계획했다. 하지만 한지민은 자신만의 경로를 찾기 위해 교실 밖과 학교 밖에서 지속적으로 행위 한다. 수업시간보다는 연극부 동아리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야간 자율학습을 몰래 빠지고 대전의 미용학원에 다니며, 수능시험 점수가 없어도 진입할 수 있는 예술실용전문학교 면접을 보러 서울에 간다. 이 과정에서 ‘또래 친구들과 다르나’ 를 이해한다.

또한 직업교육비용을 내줄 수 없는 가정의 상황을 받아들여야 했다. 직업교육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좌절의 시간을 겪으면서 한지민은 보다 직업인의 사고에 가까워진다. 직업인과 아르바이트생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노동법의 의미와 정당한 보상, 자격증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소득과 교통비, 생활비 등 지출을 고려하는 등 경제적 사고를 하게 되고, 직업의 다양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한다. 또한 자신에게 적합한 업무의 특징을 명확히 했다.

한지민의 예비 직업사회화는 ‘금산 벗어나기’ 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또 좌절하는 반복의 과정이었다. 대전의 미용학원 다니기, 자격증 취득 실패, 예술실용전문학교 면접 보기, 아빠의 반대로 진학 포기, 대전의 뷰티학원 등록하기, 학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좌절하기, 고용센터 찾아가기가 반복되었다. 마지막에는 저소득계층 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뷰티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한지민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금산 벗어나기를 욕망했다. 이러한 과정은 자신이 대학 진학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소득계층임을 수용함과 동시에 ‘금산 벗어나기’ 와 ‘부모보다 조금 더 나은 삶’ 의 가능성 또한 얻게 되는 과정이었다. 한지민은 도시에서의 생활이 가능한 메이크업 아티스트라는 직업을 통해 부모보다 조금 더 나은 삶,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되는 직업생활을 하고자 했다.





### 대타자의 질서에 순응

- 주어진 직업선택 범위의 수용
- 물리치료사 직업의 긍정적 수용
- 여전히 육체 노동하는 삶

### 욕망의 탈주 과정

- 금산(농촌)에서 벗어나기
- 물리치료기계 제조사 취업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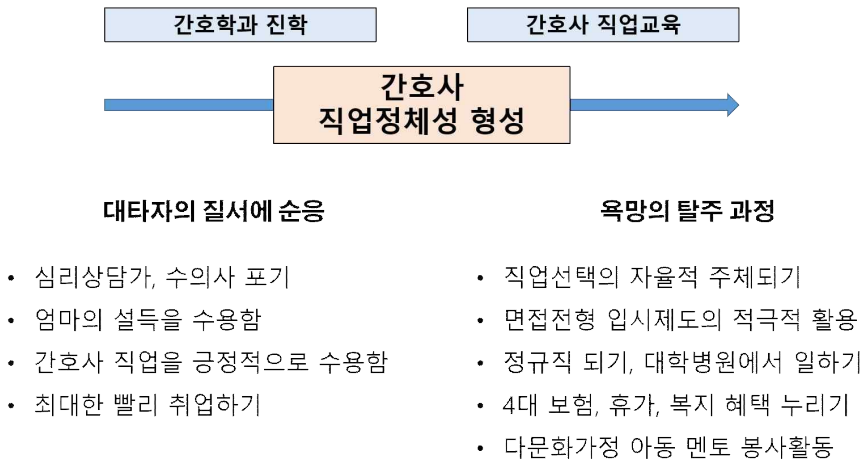
[그림 19] 김서연의 탈주적 직업정체성 형성 과정

김서연은 예비 직업사회화를 통해 물리치료사 직업정체성을 형성하였다. 김서연의 구조적 억압은 농사일을 하는 가난한 부모, 외진 거주지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김서연은 엄마처럼 농사일이나 육체노동을 하지 않겠다는 진로욕망을 가지고 물리치료학과에 진학한다. 이 과정은 사학과를 포기해야 하는 대타자의 질서에 순응함과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욕망의 탈주 과정이었다.

김서연은 물리치료학과 진학 이후 서서히 물리치료사 직업에 대해 이해하고,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보이며, 물리치료사 직업 집단에 소속감을 가지게 된다. 대학의 몇몇 강의에서 좋은 성과를 얻는 등 능력을 인정받고, 직업 흥미와 자신감이 생기는 등 물리치료사 직업에 대한 가능성을 생성하게 된다. 근로 장학생으로 활동하면서 주로 한의원, 정형외과 등 병원을 선택하여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대학 진학 초기 김서연은 ‘엄마처럼 육체노동 하는 삶’에서 크게 떨어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했다<sup>75)</sup>. 돈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벌고 싶지만 그만큼 몸이 망가지는 것이라고 인식했다. 하지만 직업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물리치료 의료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에 취업하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즉, 김서연이 물리치료

75) 김서연: 부족하지 않을 만큼 벌고 싶은데... 그런데 제가 그만큼 많이 번다는 말은 제가 그만큼 치료를 한다는 거잖아요? 몸이 솔직히 망가지잖아요? 어쩔 수 없이... 몸이 힘드니까. ...<중략>... 단점... 사람을 치료한 만큼 몸이 상할 거니까. [D3]

사 직업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으로 보이는 행위들이 연결되어 순간순간 생산되는 변화들로 만들어지는 직업인 ‘되기(devenir)<sup>76)</sup>’ 흐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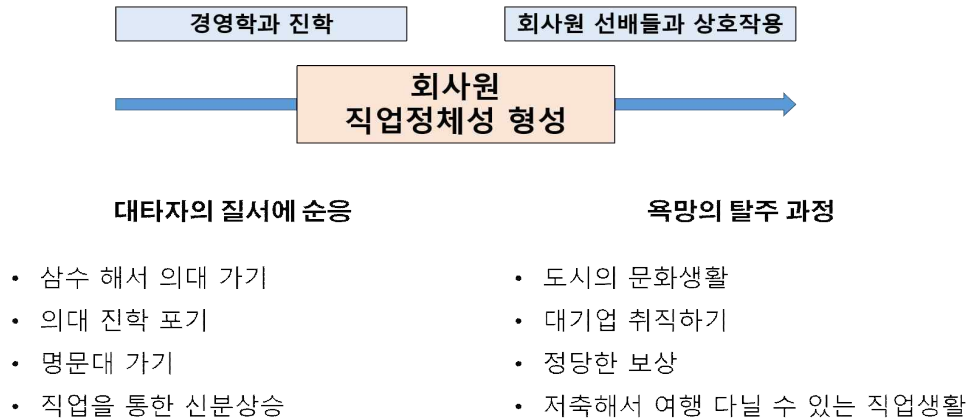


[그림 20] 강은진의 탈주적 직업정체성 형성 과정

강은진은 간호학과 진학을 통해 간호사 직업정체성을 형성하였다. 강은진의 구조적 억압은 저소득가정, 한 부모 가정, 학교에서의 낮은 성적 등이었다. 하지만 강은진은 누군가(어린 시절의 나, 엄마, 동물)를 돌보고 싶다는 진로욕망을 지니고 있었다. 강은진은 엄마의 설득을 수용하였고 간호사 직업을 통해 최대한 빨리 취업해야 하는 자신의 상황에 순응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직업선택의 주체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면접 전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간호사가 되어 대학병원에서 일하고자 하는 가능성을 생산해 내었다.

76) ‘되기/됨/생성’으로 번역되는 용어로서 실체적 의미가 아닌 동사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모든 대상 혹은 존재를 성격 규정하는 잠재적인 점들로 이루어지는 계열들이 순간적으로 만나 변신을 낳는 하나의 과정이다. 들뢰즈와 가타리에게 존재는 ‘생성/되기’들의 합이다. 항상 열려있는 이 합은 존재를 이질적이고 혼돈스러운 변이들에 종속시키며, 그 결과 진행 중인 모든 예측의 원리를 폐지하게 된다. 존재 전체의 모습을 그리는 것은 생성에 의한 현재적 다수성이다(Villani & Sasso, 2003).

강은진의 탈주적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은 ‘받아들임과 거리두기’의 과정이었다<sup>77)</sup>. 강은진은 간호사 직업의 의미가 무엇일까? 엄마가 왜 나에게 이 직업을 권유하였을까?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답을 얻고, 과거 경험을 떠올리고, 경험을 재구성하였다. 라깡과 들뢰즈는 욕망을 ‘물음을 던지고 문제를 제기하며 (무엇인가를) 탐색해 나가도록 하는 힘’으로 규정한다. 진정한 주체는 대타자의 욕망을 파악하고 이로부터 거리두기를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거리두기는 주체가 원하는 것과 대타자가 주체에게 원하게 만드는 것을 분리할 수 있게 한다(황순향, 2016). 대타자라는 사회적 구조와 엄마의 욕망과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분리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강은진의 모습은 탈주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림 21] 김민서의 탈주적 직업정체성 형성 과정

77) 이러한 과정은 깊이 있는 심층면담과 대화의 과정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현상이다. ‘엄마가 간호조무사였기 때문에 자녀인 강은진이 간호사 직업을 선택했다.’라는 설명이나, ‘부모의 직업에 대해 자녀는 호/불호의 태도를 지닌다.’는 설명, ‘부모의 직업생활이 자녀의 직업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실증적인 설명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현상이다.

김민서는 경영학과에 진학하면서 회사 취업을 준비하는 동기들, 회사원 선배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회사원 직업정체성을 형성해갔다. 김민서의 구조적 억압은 한 부모 가정, 저소득가정, 의대 진학이 어려운 학교 성적 등이었다. 김민서는 직업을 통해 신분상승을 하고자 하는 진로욕망을 지니고 있었다. 인터넷 강의를 열심히 듣고, 학교 성적 올리기에 힘썼으며, 대전의 입시학원에 다니는 행위를 하였다. 지방도시의 국립대 경영학과에 진학하는 과정은 의대 진학을 포기하는 과정이기도 하였으나, 도시 생활을 통해 문화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었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남들의 부러움을 받거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과정이었다.

금산 지역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의 예비 직업사회화 과정은 겉으로 보기에 주어진 맥락에서 공통적이고 반복된 실행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회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결과적으로 삶의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 부모 가정, 저소득가정의 맥락 안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았으며, 학교에서 낮은 학업성취, 낮은 직업포부를 보여주었다. 진로선택에 있어서도 부모의 직업지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진로장벽을 경험하였다. 경제규모가 작고 비도시지역인 금산의 공간적 구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벗어남의 비용<sup>78)</sup>을 치러야 했고, 좌절을 경험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신의 계층을 인식하고, 수용하고, 직업생활을 통해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Bourdieu(1994)는 사회적 공간이 물리적 공간 속에 퇴적되어 사회적으로 구성된 차이 혹은 사회적 불평등을 사람들이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구조와 공간 구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것의 재생산 구조를 설명하려고 했다. 그의 아비투스

---

78) Bourdieu(1991)는 개인이 특정 공간에 위치함으로써 원하는 환경과 사건에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다가갈 수 있고, 좋은 장소에 위치한다는 것은 타인의 공간과 시간을 점령하는 데 신속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Schroer, 2006: 103-107). 이는 시공간을 유연하게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자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시공간의 경직화는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동’이라는 행위가 단순한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는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 삶의 기회로 연결되는 사회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개념은 사회 구조가 공간 구조를 만들고 이는 다시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삶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직업생활을 통한 작은 변화를 이끌어 내는 ‘생성 중’에 있었다. 한지민은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처럼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되는 직업생활을, 그리고 도시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욕망하며 행위하고 있었다. 김서연은 시골에서 벗어나 농사를 짓지 않고 육체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물리치료사의 직업을 욕망하며 행위하고 있었다. 강은진은 비정규직 간호조무사인 엄마보다 조금 더 나은 지위의 정규직 간호사가 되어 휴가를 보낼 수 있고,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는 직업생활을 욕망하고 있다. 김민서는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으로서 신분상승을 하지는 못하지만 대기업의 회사원으로서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문화생활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고, 돈을 모아서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를 욕망하고 있다.

<표 30> 직업생활을 통한 작은 변화

참여자	면담 내용
한지민	<p>R: 부모님과과는 다른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P: 네...그럴 것 같아요. 그게 목표예요...  R: 좀...잘 살고 싶어?  P: 그런 건 또 아니예요. 잘 살고 싶진 않은데...또 없이 살고 싶진 않아요...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R: 부모님들도 평범하게 살고 계시잖아...  P: 아니예요. 좀 모지라요~~저희를 위해서 사시는 거니까...약간 좀 애들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저는 뭐 사고 싶어도 한번 생각을 하거든요. [A3]  P: 한 150만원? 엄마는 부족했어요. ...대출한 것도 있고.  R: 대출과 빚이 있었지. 너는 어떨 것 같아, 그 정도면?  P: 저는 일단 제로베이스로 시작하잖아요. [A6]  P: 예전에는, ‘무조건 서울 청담동 샵에 연예인을 맡아야 한다. 연예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의 서브로 들어 가야된다.’ 그랬는데, 제가 화장품을 사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화장품 사는 걸 좋아</p>

	<p>하니까, ‘내가 화장품을 팔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p> <p>P: 네. 메이크업 아티스트인데 판매도 같이 할 수 있는. 저도 화장품을 좋아하니까, 제가 써본 건 ‘이런 거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 화장도 해주고. 그런 것도 괜찮겠다. 싶은 거죠. [A6]</p> <p>P: 음...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헤어샵, 토탈샵 들어가야지’ 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메이크업. 백화점 브랜드 들어가서, 메이크업 아티스트해도 되고, 아니면 로드샵 같은 곳 들어가서 해도 되고, 샵 들어가도 되고, 웨딩샵 들어가도 되고, 토탈샵도 있고, 혹은 프리랜서로도 뛰어도 되고. [A6]</p>
<p>김서연</p>	<p>P: 엄마처럼...그렇게 고생하시니까...저는 여가생활 하면서 일할 때 하고 그러고 살고 싶어요. ...&lt;중략&gt;...되게 힘들고...몸이...그리다 보면은 제 걱정이나 아빠 걱정 하고...자기 몸도 힘드신데...자식도 중요하고 남편도 중요한데...저는 저가 먼저이고 싶어요. 그래서 농업 쪽은 안 가야겠다. ...&lt;중략&gt;...물리치료사는 그래도 퇴근시간도 정해져 있고 문화 활동도 할 수 있고 육체적으로 땀벌에서 힘들게 일하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병원에서...그냥... [D4]</p> <p>P: 좀 물리치료사 쪽이 발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맨날 핫 팩 같은 것만 하면 발전 없이 그냥 월급이 맨날 똑같은 거구. 나중에 내가 발전해서 그 피티사...그러면서 좀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만 열심히 한다면...저 마음가짐에 달린 것 같아요. 하는 만큼 버는 것 같아요. [D4]</p> <p>P: 이 길을 걸어가겠다...이거는 네...거의...근데 또 어떤 교수님은 왜 물리치료과 와서 물리치료사만 하려고 하냐고 약품 같은 거 어디 회사 같은 것도 있고, 너희 미국가면은 더 대우받고 하는데 영어 공부해서 가면은 얼마나 좋냐...미국은 좀 아니고...회사 같은 거는 어 괜찮겠다. 지금 생각은 하고 있어요. 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저희는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기계 만드는 쪽? [D4]</p> <p>R: 적극적으로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p> <p>P: 네...좀...예전보다는. 예전에는 많이 싫었어요. 그때는 마냥 하기 싫어서 싫다 싫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할 거다. 이 생각을 하고. 할 거면 열심히 하자. 열심히 공부하고 경험도 쌓고 이려려고... [D4]</p>

<p>강은진</p>	<p>P: 일단 대학 4년제이고, 엄마는 인터넷 공부하시면서 배운 거지만, 저를 더 4년제 대학에 더..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로 보내고 싶었던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C3]</p> <p>P: 처음에는 그냥 엄마가 일하는 일터에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 병원’ . 그런데 더 좋은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p> <p>R: 어떤 곳, 예를 들면? 더 좋은 곳은 어떤 곳이야?</p> <p>P: 대학병원이 말도 할 것 없이 좋은 곳이에요. 대학병원은 혜택이 정말 좋아요. 보험적용도 다 되고, 간호사로서 어느 정도 위치가 되면 자기 월급을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어요. ‘이만큼은 주세요~.’ 하면 ‘당신은 그만큼의 값어치가 되니까, 그만큼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많은 경험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정말 혜택이 좋아요, 대학병원이. 그런데 저희 엄마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없으니까 원래는 세 파트 타임인데, 맨날 두 파트 뛰고, 16시간 동안 일하고, 월급도 주는 대로 받아야하고, 병원이 잘 안 굴러가면 월급도 적어지고...그래서 일단 좋은 곳은 대학병원이에요. [C3]</p> <p>P: 돈도 많이 벌고, 혜택도 들어오고. 그리고 대학병원이 인력이 부족할 일은 없대요. 그래서 자신이 이 날 쉬겠습니다~. 하면 쉴 수도 있대요. 어느 정도의 휴가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저희도 있어서... 저희 엄마는, ‘이 날 쉬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인력이 부족해요.’ 라고 한대요. 직업혜택도 많고... [C3]</p>
<p>김민서</p>	<p>P: 그래서 잘된 선배들 오셨는데, 한 분은 매번 오신대요. 왜냐하면 그 분이 □□□(도시)에서 하시는 회사 대표신데, 되게 잘된대요. 약간 연줄로 해서, 작년에 졸업한 선배도 거기 회사에 들어가시고, 또 삼성이나 엘지, 증권회사 같은 곳에 들어가서 자기자랑 하러 자기는 어떻게 공부를 해서 여기를 왔는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런 걸 듣고 직업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게 되고... [E3]</p> <p>P: 저는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가고 싶을 때 바로 가는 건 아니더라도 몇 개월 돈을 모아서 해외여행도 가고, 가족끼리 화목하고 하는 게 제일 잘 사는 게 아닐까요? [E2]</p> <p>P: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적 신분이 높아져서 좋다!’ 이르기 보다는 제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p> <p>R: 생각이 많이 달라졌네, 민서?</p>

<p>P: 많이 달라졌어요. 뭔가 되게...그나마 큰 데로 오면서...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E3]</p> <p>P: 네. 혼자 밥 먹거나, 같이 일하는 사람이랑 밥 먹거나. 친구들이랑 밥 먹을 수도 있고.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책도 읽고, 게임도 하고.. 그냥 그렇게...또 내일을 위해서 자고... [E3]</p> <p>P: 제가 40대 되면 직업은 그냥... ‘사람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일’ 일 것 같아요. 너무 나쁜 쪽이라고 보기보다는, 긍정적인 쪽? 일 것 같아요. [E2]</p>
---

이렇게 청소년들은 직업인 ‘되기’를 통해 ‘금산 벗어나기’와 ‘부모보다 조금 더 나은 삶’으로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사회와 구조의 작용에 대응하면서 작용하고 반작용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은 구조를 거스르고 탈주하는 힘을 가진 주체의 모습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물론 예비 직업사회화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은밀하게 자본주의의 현실에 순응하는 소비자, 노동자, 직업인으로 제어되는 모습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즉, 경제사회화 과정에서 경제주체가 자본의 욕망을 스스로 욕망하도록 유도해 가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다. 철저한 경쟁의 규범에 따라 재코드화 하고 규범과 교육제도를 통해 욕망의 흐름을 재영토화 시킨다(전경갑, 1999: 236). 이러한 자본주의의 양면성과 같은 통제와 탈주의 과정을 연구 참여자들의 예비 직업사회화 경험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청소년들은 스스로에게 억압된 욕망을 간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억압되지 않는 욕망을 분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강은진 : 수능을 안 본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긴 했는데, ‘하긴 지민이는 6월 달에 학교 불은 지 오래고, 이미 거기 간다고 마음을 굳혔는데, 굳이 수능을 볼 필요는 없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왜 아직도 지민이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중략>...지민이는 자기에게 어떤 목표가 생기면 정말 거침없이 밀고 나가요. 어떤 사람이 보면 그걸 보고 굉장히 경솔하다, 섣부르다, 너무 빨리 선택한 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자기가 결정한 그것에 대해서 밀고나가는 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



마음에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지민이 그 모습을 보면서, ...<중략>... 그런데 지민이는 항상 같은 답이에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 ... 지민이의 정말 큰 장점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꼭 해요. 다른 누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떻게 바라보든 ‘이건 내 일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내가 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R : 은진이는?

강은진 : 저는 주위 시선도 많이 의식하고, 주변 의견에도 많이 흔들리고... 어떤 목표가 딱 생겨도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해도 막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지 못해요. 그런 면에서는 지민이는 자기가 딱 그 쪽 진로로 가겠다. 마음을 먹자마자 그 학교를 알아보고 면접을 보고 한 번에 붙고, 일찌감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정했어.’ 라고 한 다음에 되게 마음 편하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어쩔지 몰라도 지민이는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 마음대로 밀고나간 거니까 편한 거예요. 그게 부러웠어요. 지민이는 항상 제가 고민을 할 때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한번 살다가는 인생인데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없는 모습이라서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C3]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특정 정체성으로 고정되기를 거부하면서 순간순간 변화하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자기만의 방식으로 직업인 ‘되기’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작가였다. 직업인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은 주어진 시나리오가 아닌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사회화 원천이 전달하고자 하는 VAS 메시지를 스스로 창조해 간다는 점에서 탈주적 이었다. 한지민은 직업인이 되는 과정을 ‘새로운 장난감을 찾는 기분’ 이라고 표현하였다. 블록을 끼웠다가 뺐다가 점점 블록 형태를 확대해가며 자신에게 맞는 장난감의 모양을 갖출 때까지 자유롭게 놀이하듯이 유목하는 과정임을 이야기했다. 이는 다양한 접속(connexion)<sup>79)</sup>이 가능하고 나뉠의 탈주선을 그리고 있는 직업정체성 생성 과정을 표현하는 것

79) 들뢰즈는 『의미의 논리』에서 접속/연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접속은 ‘~et~’ (~와~)로 나타내며, A와 B가 등위(等位)적으로 결합하여 A도 아니고 B도 아닌 제 3의 C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이진경, 2002: 92).

이라고 연구자는 해석한다.

꼬마의 몸짓, 의태, 놀이의 기호계들은 자유를 되찾고, '사본'으로부터, 교사의 언어가 갖는 지배적 능력으로부터 벗어난다. 극미한 사건이 국지적 권력의 평형 상태를 전복시키는 것이다. ...나무라면 진절머리가 난다. 우리는 더 이상 나무들, 뿌리들, 결뿌리들을 믿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너무 오래 참았다. ...사유는 결코 나무 형태가 아니며, 뇌는 결코 뿌리내리거나 가지 뻗고 있는 물질이 아니다(Deleuze & Guattari, 1980/2001: 35).

한지민: 저는 노는 것처럼 해야 해요. 일이라고 생각하면 빨리 하고 집에 가야지 이런 것밖에 생각 안 나지, 박스를 접다가 해도 사람들이랑 앉아서 얘기하면서 하면 금방 하잖아요. 놀이처럼 해야 해요.

R: 재미있는 거 말고는 고려하는 거 없어?

한지민: 놀이처럼 할 수 있는 거랑...제 생각을 계속...창의적인 거가 계속 생각이 나야해요. 여기 과자를 봐도 애는 왜 빨강색이랑 하양색으로만 했지? 여기에 남색으로 해도 이뻐서 텐데...계속 이렇게... [A4]

한지민: 장난감 찾는 기분? 새로운 장난감? 워낙 노는 걸 좋아해서 직업도 그런 걸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제가 새로운 장난감만 찾았어요. 장난감들을 찾았어요...중3 돼서 좀 현실적인 거 찾다가 다시 미용을 했는데 저한테는 좀 안 맞았던 거죠. 블록을 쌓았는데 마지막 블록이 안 맞는 거예요. 뭐야~또 다시 나는 연예인을 해야 할 사람인가보다...하다가 좀 고2때, 다시 안 맞아도 다시 그 블록을 끼운 거죠. 그래서 미용을 했는데, 아 난 이 일이 아닌가보다~다시 블록을 빼서 맞는 블록을 찾는 거죠. 근처까지 온 것 같아요. 찾을랑 말랑... [A4]

## VI. 결론 및 시사점

###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예비 직업사회화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비수도권, 비도시지역인 금산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가정 후기 청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내러티브 탐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예비 직업사회화 내러티브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예비 직업사회화 내러티브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석하여, 경제교육 및 시민 교육에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예비 직업사회화는 “청소년의 직업정체성 (vocational identity of adolescents)” 을 형성하는 과정이었다. 청소년의 직업정체성이란 ‘일터로 진입하기 이전, 아동기부터 후기 청소년기에 걸쳐 형성되는 직업인으로서 자아 이해’ 로 정의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사회화 원천과 상호작용을 통해 예비 직업사회화(VAS) 메시지를 만들고, 진로선택 행위를 통해 진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직업정체성을 형성하였다. 한지민은 미용실 아르바이트와 연극부 동아리 경험, 미용학원과 뷰티학원에서의 직업교육 경험을 통해 미용인 직업정체성을 형성해 갔다. 김서연은 사학과를 포기하고 물리치료학과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물리치료사 직업정체성을 형성하였다. 강은진은 간호조무사인 어머니의 설득으로 간호학과 진학을 준비하였고, 간호사 직업교육을 통해 간호사 직업정체성을 형성하였다. 김민서는 경영학과에 진학하여 동기들, 선배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회사원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등 자기이해의 모습을 보였다.

둘째, 저소득가정 청소년은 예비 직업사회화 과정에서 사회화 원천과 상호작용하여 “자기 메시지 만들기(self-message making)” 를 한다. 청소년들은 구조적·관습적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해석과 행위 전략을 통해 VAS 메시지를 개별적으로 창조한다. 비정

규직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부모는 직업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공통적으로 전달하지만, 한지민은 ‘사무직은 지루하다, 일은 원할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는 자기 메시지를 형성한다. 반면, 강은진은 ‘엄마의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대한 빨리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 는 자기 메시지를 형성한다.

자기 메시지 만들기는 ‘자기 공간 조직(self-spacing)’ 과 ‘자기 사회화(self-socializing)’ 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때 사회화의 장소는 행위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사회유지의 질서를 전달한다. 하지만 개인은 개별적 공간 활용을 통해 대안적 방법으로 그 질서에 저항하고, 일탈하고, 공간의 의미를 재해석한다. 예를 들어, 학교 공간은 ‘정상적인’ 직업 경로를 제시하고, 수업활동에 중요성을 부여하며,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질서를 전달한다. 하지만 한지민은 학교 밖에서 자신만의 직업 경로를 찾고, 동아리 활동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수능시험을 보지 않는 방식으로 비판적인 공간 조직을 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사회화 기관을 선택하고 사회질서 구성에 참여한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는 사회화 기관인 인터넷의 세계는 ‘함께 구성한 세계’ 이며, 이 안에서는 보다 능동적인 자기 사회화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 강은진은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지위 관련 논쟁 공간을 선택하여 의료인들의 세계 구성에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간호사 집단의 가치관을 습득하고, 생애사에 비추어 직업 전문성의 의미를 창출한다.

셋째, 저소득가정 청소년은 VAS 메시지를 바탕으로 진로선택 행위를 하였다. 이 때 진로 행위를 이끄는 힘은 “진로욕망(career desire)” 이었으며, 이를 방해하는 힘은 불안과 “신뢰자본(trust capital)” 의 부족이었다. 진로욕망이란 ‘진로 행위와 관련하여 개인이 진로자아 및 실천 행위를 구성해 내는 힘’ 이다. 청소년들의 개별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내러티브에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진로욕망을 통해 일관성 없어 보이는 진로 행위들을 연결 지어 이해할 수 있다. 한지민의 진로욕망(할머니 집/금산을 벗어나고 싶다)은 대전의 미용학원 다니기, 예술실용전문학교 면접보기, 뷰티학원 등록하기, 고용센터 찾아가기 등 행위를 지속적으로 이끌었다. 김민서는 의대 진학, 명문대 진학, 독어과 진학, 은행원

되기, 번역가 되기, 회사원 되기 등 일관성 없는 진로목표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진로욕망(신분상승을 하여 남들의 부러움을 사고 싶다)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신뢰자본이란 ‘타인이 자신의 삶을 지지/지원할 것이라는 믿음,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규범이 마련되어 있다는 믿음, 사회구성원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미래에 대한 긍정적 믿음’을 의미한다. 비수도권, 비도시지역의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이 계획했던 진로선택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등록금 등 물질적 비용 부족 이면에 작용하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이는 개인적·심리적 불안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불안감이었다. 김서연이 사학과에 합격하였으나 차마 선택할 수 없었던 이유는 역사에 대한 흥미, 적성, 자기효능감의 문제나 등록금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다. 부모가 자신의 길을 지지하고 기다려줄 수 있을까 불안하고, 역사학과 대학원생의 오랜 생활을 버틸 수 있을까 불안하고, 졸업 이후 경제 상황과 취업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 때문이었다.

넷째, 청소년들은 진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작가였으며, 사회취약계층인 연구 참여자의 진로 이야기는 ‘단절(discontinuity)’의 특징을 보였다. 저소득가정에서 부모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웠고, 농촌지역의 사회적 자본 부족과 우연히 발생한 사건들로 인해서 진로이행이 매끄럽게 진행되기 힘들었다. 한지민은 예술실용전문학교에 대해 무지했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반대로 진로 이야기를 수정하고 재구성해야 했다. 김서연은 부모와 진로에 대한 깊이 있는 상의 없이 대학입시를 준비했고, 대학진학 두 달 전 짧은 기간 동안 진로 타협을 함으로써 진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어려웠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은 진로 이야기의 단절을 극복하고 새로운 진로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과거-현재-미래 진로자아(career identity)에 대한 연속성과 결속성을 부여함으로써 진로자아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진로자아의 단절과 회복 과정을 통해 청소년의 직업정체성은 구체화되었고 또한 변화하고 있었다.

최종적으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예비 직업사회화가 지니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은 예

비 직업사회화 경험을 통해 직업정체성을 형성하였으며, 이들의 직업정체성은 “탈주적 직업정체성(vocational identity as a Line of Flight)”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탈주적 직업정체성이란 직업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 구조의 억압과 제약을 극복/저항해 가는 과정이라는 의미이다. 이들은 VAS 메시지를 창조하고, 진로욕망에 따른 진로행위를 하며, 욕망의 생성적 힘을 통해 주어진 공간과 계층을 넘어서려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청소년들은 직업인 ‘되기(devenir)’를 통해 ‘금산에서 벗어나기’와 ‘부모보다 조금 더 나은 삶’으로의 여정을 걷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직업인 ‘되기’를 통해 기존 질서가 제시하는 ‘학교-노동 이행’으로부터 탈주하여 직업생활을 통한 새로운 차이를 생성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던져진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의 공간에서는 영토화된 직업사회화 방식이 존재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이미 코드화된 VAS 메시지와 형식화된 진로교육의 무의미함을 간파하고 있었다. 이들은 능동적인 방식으로 자기 메시지를 만들어 냈고, 진로욕망에 의한 진로선택 행위를 반복하면서 영토의 경계를 넘나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청소년들은 새로운 영역과의 접속(connexion)을 통해 자신의 직업정체성을 생성하고 있었다.

한지민은 학교 안과 밖이라는 경계를 넘나들면서 탈영토화의 적극적인 시도를 보여주었다. 학교나 직업교육기관(미용학원)이 아니라 미용실이라는 일터의 현장에서 배움(apprenticeship)을 행하였다. 자격증 시험 통과를 위한 지식과 기능 습득이 아니라 손님들과의 대화, 원장님의 시연, 서비스 대상의 요구와 자신의 노동 행위 사이의 감성적 접속이 생성해 내는 미용기술의 배움 과정이 미용인 직업정체성을 형성하였다.

김서연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졌던 코드화된 학교-노동 이행 방식이 자신에게는 기만이었음을 알아챘다. 김서연은 학교의 질서에 순응하였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였으며, 교과 흥미와 전공선택이 직업생활로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믿었다. 하지만 진로선택 행위를 할 때 비로소 이러한 방식이 자신에게는 의미가 없음을 깨닫는다. 결국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 육체노동을 하고 싶지 않다’는 자신의 진로욕망에 따라 행위 했고, 이는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영

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생성해 내었다.

강은진은 엄마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대타자의 메시지와 자신을 분리함으로써 탈주하고자 했다. 강은진은 끊임없는 자기 대상화와 진로선택 행위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를 행한다. 표면적으로는 코드화된 ‘학교-노동 이행’의 절차를 그대로 수용하는 듯 보이나, 그녀는 영토 안에 머무르지 않고, ‘거리두기’를 통해 영토의 경계에 서 있었다. 강은진이 자신의 진로욕망을 중심으로 직업 영역에 접속하고자 했던 시도들은 새로운 배치(agencement)를 만들어냈고, 이는 탈주를 통한 간호사 직업정체성 형성 과정이었다.

김민서는 대타자의 욕망을 욕망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가지고 싶다고 욕망하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회적 지위를 얻고자 욕망했고, 세상을 남들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지식을 욕망했다. 고등학교를 내신 성적을 따기 위해 이용하고, 한 부모 가정 혜택을 얻기 위해 부모에게 이혼을 권유하였으며,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공간에 진입하기 위해 인터넷 공간을 활발히 돌아다닌다. 김민서는 자신의 현재 배치 안에서 코드화된 메시지를 따르는 것이 자신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신분상승을 욕망하며 다양한 직업 영역에의 접속을 시도하는 중이며, 이를 통해 주어진 질서에서 탈주를 시도한다.

이 논문은 연구 참여자들이 직업인 되기를 통해 탈주선을 그려가며 새로운 직업의 세계로 이동해 가는 여정을 담았다. 욕망하는 청소년들은 무엇과 접속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자아로 바뀌어갔다. 욕망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차이(différence)’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고, 이는 새로운 ‘정체성’을 생성해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이 직업인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의 고정된 직업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해 가는 여정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여정은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걸음이 아니라 차이를 만들어내는 정체성의 형성 과정이며, 우리는 그 순간의 모습을 잠시 담아낼 수 있을 뿐이다.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 역시 탈주의 과정이었다. 교사였고 연구자인 내가 이질적인 사람, 낯선 공간과의 접속을 통해 변이하는 과정을 담았다. 연구에 들어설 때의 ‘나’와 연구 텍스트를 구성했던 ‘나’는

달랐고,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과 사용하는 용어도 달랐다. 또한 연구를 마무리 하는 ‘나’ 는 이미 기존의 이론적 배치에서 나와 탈주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었다. ‘청소년의 직업정체성’ 이라는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경제교육에서 직업사회화를 주제로 새로운 논의를 할 수 있는 영토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경제교육 연구의 주제는 이러해야 한다는 틀, 진로교육의 논의가 경제교육의 논의와 접목되기 어렵다는 기존의 코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경제교육에서 진로, 노동, 직업에 대한 논의가 자유롭게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주목받지 못하는 청소년’ 의 직업인 되기 탈주가 보다 자유로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억압받는 청소년’ 이 직업의 세계에서 그들의 ‘고원’ 을 생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청소년들이 순간순간 자신의 욕망을 긍정하고, 자신에게 특정한 사고와 행동을 주입하는 기존의 가치에 속박되지 않는 탈주하는 자유로운 직업인이 되기를 기대한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탈주하는 인간상’ 을 통해 경제교육과 시민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수직적 위계와 제도의 구분에 따라 형성된 경직성을 벗어나 끊임없이 변화하고 거둬나며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즉 탈주의 시민은 생산적인 변혁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 2. 시사점과 한계

### 1) 이론적 시사점

#### (1) 경제사회화와 직업사회화에의 시사점

첫째, 본 연구는 경제사회화와 직업사회화 논의의 확장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경제교육에서 ‘노동과 직업’ 이라는 주제로, ‘후기 청소년’ 을 대상으로 하는 논의가 보다 활발해져야 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본 연



구는 ‘청소년의 직업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제안함으로써 직업사회화 연구 대상을 후기 청소년까지 확장하였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직업사회화 연구가 성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예비 직업인인 청소년에게까지 관심을 확대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점차 노동시장 진입 유예기가 길어지는 사회 현상 속에서 직업을 준비하는 후기 청소년의 직업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교육’ 과 ‘노동’ 두 학문 영역을 연계할 수 있는 연구 영역이 필요하며, 이는 경제교육 논의의 확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노동자 역할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경제교육에서 노동자가 아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 교육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는 예비 직업인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가교육은 기업가가 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도전 정신과 창의성과 같은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다. 청소년들이 직업생활에 필요한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배우고, 직업생활을 통해 경제성장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 시기의 일/노동교육은 노동시장으로 빨리 진입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취업 이후 노동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역량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들이 일의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예비 직업인으로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노동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하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비수도권, 비도시지역의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에게 집중하여 노동의 세계에 진입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밝혔다. 이들은 도시지역의 중산층 청소년들과는 달리 공간과 이동성의 제약, 경제적·교육적·사회적·문화적 자본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독특한 진로선택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직업을 갖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개별 맥락과 일상의 경험을 통해 드러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산학협력제도의 활성화로 학생이자 노동자인 청소년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학교-노동 이행을 설명하는 다양한 경제사회화 후속 연구를 기대하는 바이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노동자 역할과 역량을 가르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제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개인의 사회화와 정체성을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었다. 기존 사회화 이론은 사회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지식, 기능, 가치를 개인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습득하는가에 관심을 가져왔다. 혹은 집단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느냐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는 근대 정체성 이론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기존의 정체성 연구들은 동일성을 근간으로 하는 발달 단계적 정체성 이론, 소속 집단의 특성에서 유추하는 사회적 정체성 이론에 입각해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주목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체성을 방향성이 주어지는 것, 특정 단계에 진입되어 형성되는 것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또한 직업 조직이나 일터의 집단에 소속되어 형성되는 것으로 전제하지 않았다. 고정된 직업인의 존재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생활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직업인 ‘되기’ 이야기를 통해 창조되는 정체성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이는 사회화 연구에 있어서 메시지 ‘전달’이 아닌 ‘형성’의 패러다임 전환을 실천한 것이며, 정체성 연구에 있어서 정체성 ‘발견’이 아닌 정체성 ‘형성’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시도한 것이다<sup>80)</sup>.

## (2) 진로이론에의 시사점

첫째, 기존 진로이론들이 진로선택 행위를 설명함에 있어서 부분적인 설득력을 보임을 밝혔다. 그동안 진로이론들은 진로선택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왔다. 성격, 재능, 신체적 조건 등 개인의 타고난 특성, 학습경험과 진로 흥미,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 환경적 배경과 진로장벽 등 개인적·환경적 요인들이 진로선택 과정에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검증해 왔다. 그러나 비수도권, 비도시지역의 저소득

---

80) 이러한 사회화와 정체성 이론과 패러다임의 전환은 나아가 진로교육과 정책의 변화를 시사한다. 직업정체성이 계획된 진로목표의 달성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마다 독특한 경로로 만들어간다고 가정한다면,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직업교육제도 및 취업의 통로가 마련될 것이다. 예비 직업인들이 주류의 방식과 통로를 거치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실패로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가정 청소년들은 기존의 설명과는 다른 특징을 보였다.

우선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은 개인적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진로 흥미나 적성 등은 크게 고려하지 못했으며, 진로선택을 한 이후 그 직업에 대한 흥미를 형성하거나, 선택한 진로에 맞게 자신의 적성을 재해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진로선택에 있어서 교과와 학습 관련 자기효능감<sup>81)</sup>은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특정 영역 직업을 선호하고 선택하는 이유는 그 직업 영역에서 자신이 잘 해낼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이 높기 때문이 아니었다. 이들에게 선택의 자유는 협소했고, 주어진 것을 받아들일 뿐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학교에서 성취가 낮고, 학교 안팎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특정 영역에서 자기효능감이 높게 형성될 여지가 적었다. 특히 학교 안에서 경험을 통해 자기효능감이 형성되기 어려웠으며, 학교 안에서 형성된 자기효능감이 진로선택으로 연결되기는 더욱 어려웠다.

둘째, “진로욕망(career desire)” 개념을 제안함으로써 진로선택 행위를 생애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개별적 차이와 다양성을 드러낼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청소년들은 내러티브에서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다는 욕망, 돈을 벌어서 엄마의 고생을 덜어주고 싶다는 욕망,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는 욕망, 육체노동이 아닌 지식을 탐구하고자 하는 욕망, 좋은 학교에 가고 싶은 욕망, 문화생활과 여행 등 여가생활을 누리고 싶은 욕망 등 다양한 욕망을 이야기했다. 이러한 욕망은 예상하지 못한 경로로 그리고 하나의 경로가 아니라 다양한 방향으로 진로행위를 이끌어 갔다. 기존 진로이론들은 개인의 진로선택이 합리적 사고과정에 의해 혹은 순차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진보의 과정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의 생애에 걸친 긴 이야기는 변화무쌍했으며, 여러 요인들의 상호작용

---

81) 사회인지진로이론에 따르면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는 개인의 진로행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아동과 청소년기 직간접 경험을 통해 개인은 특정 활동이나 수행에 대해서 차별적인 강화를 받게 되고, 이러한 학습 경험과 차별적 강화를 통해 개인은 점차로 특정 활동과 영역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수행에 대한 기대감을 발달시켜 나간다. 이때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는 개인의 진로흥미와 진로목표 설정, 활동의 선택, 선택한 진로에서의 수행에 주요한 영향을 주게 된다(Lent et al., 2000).

이 일관된 방향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었다. 이후 진로욕망이 이끄는 생성적 변화들에 집중한 보다 미시적이고 새로운 관점의 진로이론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3) 교육 불평등 논의에의 시사점

본 연구는 교육 불평등 논의를 ‘공간’의 억압과 ‘이동성’의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금산이라는 지역은 도시와의 연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공간이득을 취할 수 없고, 이동의 제약을 주는 공간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직업을 갖기 위해 혹은 다양한 삶의 기회와 체험을 누리하고자 하였으나 금산이라는 지역사회는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 충분하지 않았다.

비수도권, 비도시지역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에게는 ‘벗어남의 비용’이라는 이중의 부담이 있었다. 자원과 기회가 집중된 도시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교통비, 소요시간, 육체적 노력 등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묵시적 비용을 포함하는 기회비용이 크다. 또한 접근의 효용이 그만큼 커야 도시로의 진출을 지속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직업교육을 받기 위해 도시로 나가하고자 하였으나 교육을 지속하기 어려웠다. 저소득가정(자가용 차량이 없는) 청소년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도시의 학원을 다녔지만 교육의 효용이 그만큼 크지 않았고, 육체적 피로는 역량의 발휘를 제한하였다.

Simmel(1990)은 공간과 시간 그리고 비용(돈)의 관련성에 대해 논의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공간적으로—근접해서, 가깝게, 떨어져, 분리되어, 이동 중에, 특정한 속도로—영위 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경험을 이해하는가에 주목했다(Crang & Thrift, 2000: 121). 그는 삶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에 관심을 보였다. 산업화를 거쳐 정보화 사회에 이르기까지 삶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으며, 가속화는 산업사회의 상호작용과 정보화 사회의 상호작용이 전혀 다른 차원을 지닐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삶의 속도는 행위의 기준, 경쟁, 성취 정도 등에 영향을 준다. 즉, ‘접근성(accessibility)과 이동성(mobility)<sup>82)</sup>

이라는 것이 사람들 간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범위, 형식, 속도, 시간 등에 영향을 미쳐 상호작용의 결과가 변화한다. 또한 삶의 가속화와 관련하여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이동성의 속성’이 부여된다.

돈은 삶의 내용의 형식과 질서를 결정하는 데 기여한다. 이는 삶의 내용의 발전 ‘속도’와 관련이 있으며, 이 속도는 역사의 여러 시기, 어떤 한 시기에서 세계의 다른 지역 그리고 한 집단 내에서도 개인에 따라 상이하다. 우리의 내부 세계는 마치 이차원 위에 있는 것처럼 확대되며, 그 확대 범위는 삶의 속도를 결정한다. 어떤 한 시점에 우리가 상상한 내용 사이에 차이가 클수록 삶의 경험은 더 집약적이고, 우리가 지나온 삶의 범위는 더 커진다. 우리가 삶의 속도로 경험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의 총합 및 깊이의 산물이다. 어떤 주어진 시기에 삶의 속도를 결정하는 돈의 유의성은 무엇보다 화폐 유통에서의 ‘변화’가 삶의 속도의 ‘변화’를 유발한다는 사실로 예증된다(Crang & Thrift, 2000/2013: 117).

본 연구는 공간의 근대적·위계적 조직화를 통해 차별 받는 청소년들의 생활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빠른 삶의 속도를 지닌 도시로 진입하기에는 금산 지역 청소년들의 삶의 속도는 너무 느렸고, 도시인들의 집약적인 공간 향유에 비해 금산 지역 청소년들의 공간 향유는 풍족하지 못했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공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화가 이루어졌고, 자본주의에 의한 공간정복이 이루어졌다(최병두, 2002: 16-18). 어느새 사람들의 공간 인식과 공간 향유 양식을 바꾸어 놓았고, 공간 조직을 통해 사람들은 분리되었으며, 시공간의 압축을 얼마나 경험할 수 있는가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자원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

82) 접근성이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동성)과 재화, 서비스, 활동과 같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Preston & Rajé, 2007).

## 2) 실천적 시사점

### (1) 경제교육 및 진로교육에의 시사점

첫째,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모습을 통해 경제 교육과정 구성, 내용 및 교수방법의 개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교육현장을 내부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결과 ‘경제수업이 부재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에는 경제수업과 관련한 어떠한 이야기도 존재하지 않았다. 연구자의 적극적 질문에도 참여자들은 모두 ‘경제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단답형으로 대답했다.

경제수업의 부재는 우선 교육과정 구성의 문제점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의 고등학교에서는 선택과목으로 경제교과를 선택하지 않았고, 깊이 있고 체계적인 경제수업을 받기 어려웠다<sup>83)</sup>. 가정, 인터넷, 아르바이트 일터 등 다양한 공간에서 경제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학교 밖 공간에서는 경제생활의 사회적 의미, 경제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역할, 경제윤리 등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어려웠다<sup>84)</sup>.

또한 연구 참여자의 인식 안에서 경제수업이 의미 있는 경험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 한다<sup>85)</sup>. 그 원인으로서는 내용 및 교수방법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학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험 중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경제생활과 연결된 경우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학교 밖 경제생활과 학교 안 교육

---

83) 경제교과를 선택하는 학생이 감소하고 학교 현장에서 경제수업이 축소되고 있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선택과목별 지원자 현황을 보면, 경제과목을 선택하여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학생의 수는 전체 사회탐구 지원 인원 606,075명의 2.2%인 6,675명이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7).

84) 청소년들은 주로 인터넷의 정보를 통해 경제현상을 접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출처도 모르는 특정인의 관점을 그대로 수용하기도 하였고,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를 비판 없이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또한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 이익의 관점에 입각해 고민하는 기회를 가지기 어려웠다.

85) ‘경제수업이 존재한다.’는 의미에 대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 경제수업 시수가 계획되어 있고, 경제교사가 존재하며, 경제 교과서로 수업활동이 이루어진 것을 경제수업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내러티브 탐구는 실제 세계가 아닌 연구 참여자가 내러티브를 통해 재현한 세계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 안에서 경제수업은 부재하였다.

이 맞닿아 있을 때 청소년들은 직업과 소득, 미래 경제생활, 직업인으로서의 자질과 태도 등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은 노동권, 노동법과 같은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경제 지식을 배우고 싶어 했다. 소비의 경험이 거의 없던 저소득가정 청소년이 대학 진학 이후 용돈쓰기를 통해 경제생활을 비로소 시작했다고 여겼다. 삶과 연결되지 않는 내용 및 교수방식의 경제수업에서 청소년들은 어떠한 메시지도 형성하기 어려웠다.

둘째, 학교 현장 진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시사한다. 학교 현장의 진로교육은 일회적·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학생들은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예비 직업사회화 메시지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진로상담에 있어서 담임교사는 짧은 시간(5~10분 정도)에 입시 정보를 제공하는 제한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진로상담교사와 같은 전문인의 역할과 조력은 내러티브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교사와의 진로상담이나 진로검사 결과가 진로 의사결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로체험은 양적 측면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참여자들은 5~6가지 진로체험 프로그램 중에서 관심 분야를 찾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질적 측면에서도 VAS 메시지를 형성할 만한 의미 있는 교육활동 즉, 배움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대학탐방은 물리적·표면적 방문과 접촉에 그쳤고, 사회복지사 진로체험은 휠체어 밀기였다. 청소년들은 정보 전달식의 진로강연을 비판하였다.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진로교육’이라는 현상은 존재했으나, 청소년에게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지 못했다. 청소년들은 현장에서 실제 종사하는 직업인의 목소리와 직업생활 이야기를 요구했다.

## (2) 사회과교육과 학교에의 시사점

### : 탈주적 인간상, 배움 중심 학교 문화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예비 직업사회화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의 위기, 수업의 위기를 확인하였다. 특히 경제수업의 경험이 언급조차 되지 않는 이 상황이 경제교육의 위기임을 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는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 교육방법의 문제를 넘어서는 더 본질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제교육은 합리적 경제인이라는 인간상을 제시하고 이에 부합하는 시민을 기르는 데 주력하였다. ‘합리성’의 개념이 다양해지고, 혹은 비판받는 상황 속에서도 경제교육은 기존의 전제와 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 이제 ‘경제수업’은 학교와 교육의 공간 그 어디에도, 어떤 형태로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더 이상 근대적 경제인, 주류경제학 중심 경제수업이 학생들의 삶에 뿌리내릴 수 없고, 학교에서 경제교육이 설 자리를 잃었으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죽어가는 교과영역임을 고통스럽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 누구에게도 아픔을 주지 않는 사유, 사유하는 자에게도 그 밖의 다른 이들에게도 일체 고통을 주지 않는 사유는 도대체 사유일 수 있는가?(Deleuze, 1994/2004: 303)**

이에 연구자는 사회과교육의 새로운 인간상으로서 ‘탈주의 인간상’을 제안하고자 하며, 더불어 경제시민의 재개념화가 필요함을 주장하는 바이다. 탈주의 본질은 자유로움이다. 특정한 사고방식, 이데올로기, 하나의 고정된 정체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유량하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사고와 모든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따라서 탈주의 인간상은 새로운 사유방식으로의 변화를 요구한다.

들뢰즈는 수목형 사유방식과 대별되는 리좀적(rhizome) 사유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리좀적 사유방식 안에서 우리 삶을 바라보면, 사회가 보다 유동적으로 인식되며, 개인의 배움이 경직된 선을 따라 형성되지 않는다는 시각을 갖게 된다. 학생들은 모든 것에 질문할 수 있고, 경제시민이나 직업인이 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길과 낯선 길을 창조할 수 있다. 경제교육이라는 영토화에 저항하는 탈주는 교사, 학생, 교육행정가, 경제교육 연구자 모두에게 요구된다. 고정되고 억압된 틀에서 탈주하여 변화를 생성하는 교사와 학생은 경제수업과 사회과교육의 새로운 흐름을 생성하고,



경제생활의 다양성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혁을 이끌어 낼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는 ‘배움 중심 학교 문화’로 변혁해야 할 것이다. 리좀적 사유방식을 지닌 탈주적 시민은 자발적 배움의 욕망을 억압하지 않는 학교 문화 속에서 성장한다. 현재의 근대적 학교 문화 속에서는 자유로운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담아내기 힘들다. 예를 들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 한지민이 단순히 개인의 욕망과 흥미에 입각하여 학교에서 연극부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은 탈영토화된 진로교육과 수업활동의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기 위한 누군가의 동아리 활동은 입시제도라는 질서에 부합하기 위한 영토화된 방식의 학교생활이다. 동아리 활동을 강화하는 계획에 의해, 혹은 자유학기를 설정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배움과 탈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배움이란 대상과의 만남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사건, 의미, 우연들에 완전히 개방되어 다른 것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다(최승현, 2014: 59). 학생의 신체적·정서적·지적 총체가 충분히 스며들고 머물 때 배움이 일어날 수 있다. 학교 문화는 결과가 아닌 배움의 과정 그 자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교육과 직업세계를 위계적으로 연결 지으려는 선형적 사고를 벗어나는 접근이 필요하다. 진로교육 또한 입시 준비가 아니라 자신의 진로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는 과정과 직업의 의미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일과 노동, 직업에 대한 ‘배움’의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교육과 진로체험은 목표와 의도, 계획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직업교육기관 방문,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일차원적 이동과 단순한 접촉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학습자가 몰입하는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배움은 누군가의 의도나 계획 가운데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사유를 강제하는 어떤 것과의 우연적인 마주침’을 통해서이다(Deleuze, 1994: 323).

### (3) 교육정책 및 사회제도에의 시사점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의 예비 직업사회화 내러티브에는 다양한 사회제도가 등장하였고, 이들의 행위와 실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첫째, 학교제도, 교육제도 등이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의 삶을 제약하는 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학교와 교육제도는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선택의 자유를 충족시키기에는 경직되어 있었다. 특히 농촌지역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선택지는 더욱 협소했다. 한지민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특성화 고등학교가 아닌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활동을 찾기 어려웠다. 김서연은 취업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으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집단에는 소속되고 싶지 않았다.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였으나 중산층의 학생들과 같은 다양한 전공 선택의 자유는 없었다. 강은진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안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진로체험 활동을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민서는 금산의 학교에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육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병렬적이고 수평적인 방법들을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sup>86)</sup>. 또한 이 과정에서도 수도권과 도시지역에 비해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비도시지역 학생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정책과 제도를 가다듬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신뢰자본(trust capital)” 개념을 제안함으로써 사회제도가 사회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학교-노동 이행을 돕는 정책과 제도의 다양화는 저소득가정 청소년이 구조적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한지민이 방황했던 이유는 수능제도 및 입시제도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이지만, 단절된

---

86)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일·학습병행제도의 실시, 산업정보학교 등 학교 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제도에 있어서도 개방형/연합형 선택 교육과정과 공동 교육과정의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단계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 역시 도시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제도 활용의 기회는 도시지역에 더 많다.

진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저소득가정 취업지원제도가 기회를 다시 한 번 제공했기 때문이었다. 강은진은 성적으로 인해 국가장학금을 못 받게 될까봐 불안해하기도 하였으나, 간호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가장학금제도가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김서연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자격증 제도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학교성적은 낮았으나 대학 진학을 통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농어촌전형과 면접전형 등 다양한 수시입학제도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사회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새로운 직업영역과 접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 안과 밖을 유연하게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들의 수평적 접촉과 연대를 확대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 3) 연구의 한계

Ⅲ장의 연구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밝혔듯이, 연구 참여자 모집 결과에 따라 연구자는 연구 설계를 구체화해 나갔고, 최종적으로 연구 참여자의 지역과 성별을 제한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 결과 선정된 연구 참여자 4명은 모두 여성 청소년이었다. 따라서 VAS 메시지가 ‘여성 청소년’의 경우로 한정되었다는 한계를 지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 텍스트 분석에 있어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에 주목하지 않았다. 성역할 사회화가 비교적 이른 시기인 아동기에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후기 청소년인 연구 참여자들의 예비 직업사회화 내러티브에는 젠더와 관련된 사회화 메시지 형성을 뚜렷하게 찾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러티브 곳곳에서 성역할과 관련된 VAS 메시지가 형성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의 학교에서는 여자 고등학교라는 특성 상 보건계통의 전공을 선호하는 문화가 있었다. 한지민의 아버지는 미용사가 ‘기가 센 직업’이라며 반대하였고, 대신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와 같은 직업을 권유하였다. 김서연의 담임교사는 사학과보다 물리치료학과 진학을 권유했고, 명절 때 모인 친척들도 김서연의 물리치료학과 진학을 지지하였다. 김민서는 의사라는 직업이 여성으로서 장

벽이 높지 않으나, 회사원이라는 직업은 여성으로서 승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여러 진로이론들은 성별이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여성의 진로활동 어려움에 주목한 연구들이 하나의 연구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Gottfredson(1981)의 제한-타협이론은 아동이 수용 가능한 직업의 한계를 설정하는 진로 타협 과정에서 성역할에 맞는지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주장하였다(황매향, 2007: 31). Hackett 과 Betz(1981)는 여학생이 전통적으로 남성의 직업으로 여겨졌던 직업을 선택하기 꺼리는 이유가 그러한 영역에서의 자신의 능력을 낮게 인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stin(1984)은 여성에게 불리한 현실의 기회구조가 여성의 직업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예비 직업사회화에서 ‘여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으나, 여성 청소년이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독특한 예비 직업사회화 과정에 대한 향후 후속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강지나(2015). 빈곤 청소년의 빈곤대물림 경험과 진로전망. 『학교사회복지』, 31, 253-279.
- 공윤정(2005). 진로장벽: 이론적 고찰 및 상담 실제에의 적용. 『상담학연구』, 6(3), 861-874.
- 교육부(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80호)』. 교육부.
- 구인회(2003).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족구조와 가족소득,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2, 5-32.
- 권해수·김민성·강영신(2011). 학교 기반의 청소년 핵심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2(1), 141-173.
- 근로기준법, 법률 제67조, 제69조, 제70조 (2014). Retrieved from <http://www.law.go.kr>.
- 김경근(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5(3), 1-27.
- 김경모(2004). 경제교육의 이해와 실천을 위한 틀. 『경제교육연구』, 11(1), 109-136.
- 김경모·전창완(2006). 사회적 역할 모형에 기초한 경제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사회과교육연구』, 13(2), 273-299.
- 김경옥(2009).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성취목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501-519.
- 김경은·성락영(2013). 경제과목을 통한 진로교육의 가능성 모색: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경제교육연구』, 20(1), 1-32.
- 김경준·오해섭·김진모(2006). 농촌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13(1), 85-97.
- 김경휘(2008). 근로빈곤가구 청소년의 사회진출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9, 129-156.
- 김경희·박근혜(2013). 빈곤청소년의 꿈과 미래 설계경험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4(1), 113-134.
- 김광혁(2006). 아동기 빈곤이 학구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 빈곤의 시기와 기간, 정도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1, 195-217.
- 김광혁(2008). 가족소득의 변화가 아동의 학업성취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기현(2003). 일하는 고등학생들: 재학 중 시간제 취업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7(6), 115-144.
- 김기현·유성렬(2006).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중단 분석』.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나래·이기학(2012).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지각된 진로장벽의 관계: 사회비교 경향성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매개효과 검증. 『직업교육연구』, 31(4), 111-134.
- 김동학(2013). 체육대학 교육경험을 통한 체육전문인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명아(2009). 『사이버 공간의 사회자본』. 과주: 한국학술정보.
- 김미란(2014). 대학생들은 부모의 사회계층에 따라 어떻게 다른 대학생활을 경험하고 있는가?: 서울의 한 여자대학교 학생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4(2), 25-65.
- 김미숙·신어진(2009). 도시와 농산어촌 아동청소년의 복지와 여가수준 비교연구. 『농촌의학·지역보건』, 34(2), 188-201.
- 김병극(2012). 내러티브 탐구의 존재론적, 방법론적, 인식론적 입장과 탐구과정 에 대한 이해. 『교육인류학연구』, 15(3), 1-28.
- 김봉환·김은희·김효원·문승태·방혜진·이지연·조봉환·허은영(2017). 『진로교육개론』. 서울: 사회평론.
- 김봉환·이제경·유현실·황매향·공운정·손진희·강혜영·김지현·유정이·임은미·손은령(2010). 『진로상담이론 : 한국 내담자에 대한 적용』. 서울: 학지사.
- 김수정(2010). 청년층의 빈곤과 이행의 곤란. 『사회보장연구』, 26(3), 49-72.
- 김예성(2006). 학교청소년의 시간제 노동 경험과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준태(2015). 경제역량 개념 정립 및 척도 구성을 통한 교양 경제교육 효율화 방안. 『교양교육연구』, 9(2), 67-115.
- 김희삼(2009). 교육격차와 사회통합. 『보건복지포럼』, 39-46.
- 남인숙(2011). 한국의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교육격차. 『현상과인식』, 35(5), 15-38.
- 노경란·박용호·허선주(2011). 대학 재학 중 취업 및 진로개발 서비스 참여 경험이 대졸자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취업여부, 고용형태, 일자리 만족도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49(1), 3-92.
- 노성환(2003).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도 결정요인에 관한

-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 혁(2003).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복지지원 방안: 자립지원시설 실태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노 혁(2006).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성숙수준 연구. 『청소년학연구』, 13(6), 306-327.
- 노 혁(2009). 빈곤청소년의 사회적 배제와 청소년복지정책의 방향. 『미래청소년학회지』, 6(3), 23-43.
- 노혜진(2012). 빈곤가구 자녀의 노동시장 진입과정 유형화. 『사회복지정책』, 39(4), 109-134.
- 류방란·김성식(2006). 『교육격차: 가정 배경과 학교교육의 영향력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문준희·김성환·김민주(2014). 저소득층 청소년의 대학진학선택 요인에 대한 질적 연구: 근거이론의 적용. 『한국사회과학연구』, 33(2), 133-155.
- 민가영(2007). 젠더-계급 상호성을 통해 본 신 빈곤층 십대여성의 젠더 역할 연구. 『여성학논집』, 24(2), 147-189.
- 민경배(2002). 정보사회에서의 온라인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민정(2007). 통합교육과정 실행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세 초등교사의 이야기. 『교육과정연구』, 25(1), 69-93.
- 박지원(1985). 사회적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찬웅(2006). 『시장과 사회적 자본』. 서울: 그린.
- 박창남·도종수(200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22, 281-303.
- 방하남·김기현(2002). 기회와 불평등: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36(4), 193-222.
- 변금선(2013). 청소년기 빈곤이 청년기 노동시장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40(4), 345-373.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496호 (2015). Retrieved from <http://www.mohw.go.kr>.
- 서동욱(2002). 『들뢰즈의 철학: 사상과 그 원천』. 서울: 민음사.
- 설승원·오경자(2008).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정서 통제감이 걱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 『한국심리학회』, 27(1), 209-235.
- 성기선(2010). 중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가정배경의 영향력 변화에 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20(3), 83-104.
- 성열관·김정숙(2014). ‘가난하지만 성실한’ 고등학생들 연구: 빈곤청소년의



- 학교적응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41(2), 33-56.
- 손은령(2004). 진로선택과정에서 지각된 진로장벽의 역할. 『상담학연구』, 5(3), 623-635.
- 손은령(2009). 진로선택과정에서 우연 혹은 기회의 역할 고찰. 『상담학연구』, 10(1), 385-397.
- 신경림·조명옥·양진향(2004).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신명호(2010).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1(2), 217-246.
- 신명호·홍인옥·장세훈·남원석·전홍규·유병덕·한영희·배지영(2004).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빈곤층 실태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심창학(2001). 사회적 배제 개념의 의미와 정책적 함의 비교 관점에서의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4, 178-208.
- 심창학(2003).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사회적 배제 극복 정책의 국가별 비교. 『유럽연구』, 18, 209-238.
- 안선영·김희진·강영배·배경내·조혜경·박민경(2013).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안선영·황여정·이수·이로사·엄효진·박민영(2014).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안수찬·전중휘·임인택·임지선·하종강·박권일(2010). 『4천원인생: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우리 시대의 노동일기』. 서울: 한겨레.
- 안현효(2005). 경제교육의 관점에서 본 경제학 교육. 『경제교육연구』, 12(2), 177-195.
- 양석원(2001). 욕망의 주체와 윤리적 행위: 라깡과 지젝의 주체이론. 『안과밖』, 10, 269-294.
- 연효숙(2006). 헤겔, 스피노자, 들뢰즈의 욕망론에 대한 한 해석. 『해석학연구』, 17, 245-278.
- 연효숙(2009). 헤겔과 들뢰즈에서의 욕망의 형이상학과 그 사회 철학적 함축. 『대동철학』, 49, 325-346.
- 오만석·은기수·김복수·이윤석·김정석(2005). 『한국인의 생활시간과 일상생활 I: 생애주기별 접근』.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 오영수(2005). 경제학, 무엇을 얼마나 가르쳐야 할 것인가?: 중등학교 경제교육의 현황과 과제. 『경제교육연구』, 12(1), 29-52.
- 오욱환(2008). 교육격차의 원인에 대한 직시: 학교를 넘어 가족과 사회로. 『교육사회학연구』, 18(3), 111-133.

- 오을임·김 구(2002). 불확실성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양상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의사결정나무분석(Answer Tree)을 이용하여. 『한국행정학보』, 36(3), 77-99.
- 윤도현(2010). 유럽국가에서 교육(훈련)에서 고용으로의 이행: 이행노동시장이란 관점에서. 『한·독 사회과학논총』, 20(4), 105-136.
- 윤성우(2006). 포스트구조주의의 욕망론: 들뢰즈를 중심으로. 『프랑스학연구』, 36, 125-146.
- 이경상·임희진·박창남·정익중(2008). 『빈곤이 청소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광우·백경선·이수정(2017).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핵심역량 관련 이슈 고찰: 인간상, 교육 목표, 교과 역량과의 관계. 『교육과정연구』, 35(2), 67-94.
- 이두휴(2011). 도시와 농촌 간 교육양극화 실태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1(2), 121-148.
- 이미경(2004). 경제교육의 위상과 경제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경제교육연구』, 11(1), 169-186.
- 이병희·안주엽·전병유·장수명·홍서연(2002).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이행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이승영(2011). 빈곤에 대한 태도가 청소년의 진로신념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아라(2013). 진로 불확실성에 내포된 부정적 결과에 대한 수용-회피 기반 처치가 한국 대학생의 진로탐색과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광·김민수·김명주(2014). 청소년의 진로성숙을 변화·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인가?: 질적연구를 통한 빈곤청소년과 비빈곤 청소년 비교. 『한국사회과학연구』, 33(2), 157-179.
- 이윤호(2010). 우리나라에서 평생경제교육의 정립과 발전 방향. 『경제교육연구』, 17(1), 71-102.
- 이준영(2010). 소비욕망의 개념화와 소비욕망-구매 전환모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연·이영대·정윤경·최동선·김나라·장석민·이건남(2009).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 운영모델 구축 (II)(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진경(2002). 『노마디즘』. 서울: 휴머니스트.
- 이진우(2004). 욕망의 계보학: 니체와 들뢰즈를 중심으로. 『니체연구』, 6,

- 117-148.
- 이혜원·박형준(2009). 고등학교 심화선택 경제교과서에 나타난 진로교육 내용 분석. 『경제교육연구』, 16(2), 91-115.
- 장상수·송병선(2005). 가족배경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8(4), 198-230.
- 장원섭(2001). 중고등학생 시간제 취업 경험의 의미. 『직업교육연구』, 20(2), 95-108.
- 장원섭(2006). 『일의 교육학』. 서울: 학지사.
- 전경갑(1999). 『욕망의 통제와 탈주: 스피노자에서 들뢰즈 까지』. 서울: 한길사.
- 전신현(2003). 지역특성이 성인의 정신 및 육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13, 113-134.
- 전현중·류장수·조장식·박성익·김중환(2009). 누리사업단 대학졸업자의 취업 결정요인 분석-부산지역대학의 사례. 『노동경제논집』, 32(1), 31-56.
- 정광순(2006). 초등교사의 통합교과 실행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교육과정연구』, 24(3), 125-146.
- 정미나·임영식(2010).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관련 변인에 대한 경로분석. 『진로교육연구』, 23(2), 135-152.
- 정수남·권영인·박 건·은기수(2012). ‘청춘’ 밖의 청춘, 그들의 성인기 이행과 자아정체성: 빈곤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와 사회』, 12(5), 35-103.
- 정준표(2003). 합리적 선택이론에 있어서 합리성의 개념. 『대한정치학회보』, 11(2), 415-439.
- 조영달(2012). 『고통의 시대 희망의 교육』. 서울: 드림피그.
- 조영달(2015). 『질적연구방법론: 학교와 수업연구의 새지평: 이론편』. 서울: 근사.
- 조홍길(2006). 욕망의 형이상학과 그 새로운 가능성. 『대동철학』, 35, 255-276.
- 좌현숙(2010). 빈곤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영역간 중단적 상호관계: 심리, 사회, 학교 적응영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병두(2002). 『근대적 공간의 한계』. 서울: 삼인.
- 최승현(2014). 들뢰즈의 실험적 배움론을 통해 본 "창의지성교육". 『교육철학연구』, 36(3), 107-126.
- 최종민(2011). 고등학교 경제교육의 목표 및 기조에 관한 비판적 접근. 『경제

- 교육연구』, 18(1), 23-44.
- 통계청(2015). 2015 청소년 통계. 서울: 통계청.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
- 한겨레(2017). 취업자 수 6개월째 30만 명 대 증가...청년층 '고용절벽' 은 여전. 8월 9일. Retrieved from <http://www.hani.co.kr>.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7).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선택과목별(4·5교시) 지원자 현황. Retrieved from <http://search.kice.re.kr>.
- 허 경(2010). 프로이트와 니체, 욕망의 '억압' 과 '긍정' . 『철학연구』, 41, 199-231.
- 허남순 · 오정수 · 홍순혜 · 김혜란 · 박은미 · 정익중(2005). 『빈곤 아동과 삶의 질』. 서울: 학지사.
- 황매향(2007). 『의사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타협과정』. 과주: 한국학술정보.
- 황매향 · 김계현(2003). 대학입시 의사결정 과정에 나타나는 타협유형. 『상담학연구』, 4(1), 19-36.
- 황석규(2004). 사회화조건과 사회화동질집단: 사회구조적 관점의 사회화연구에 대한 새로운 고찰. 『교육사회학연구』, 14(3), 207-229.
- 황순향(2014). 탈구조주의 이론에 나타난 욕망과 이데올로기의 역학관계. 『철학논총』, 76, 649-677.
- 황순향(2016). 구조와 의식의 문제: 프로이트, 라깁, 들뢰즈와 가타리, 그리고 지젝이론을 중심으로. 『철학논총』, 84, 385-406.
- Adya, M., & Kaiser, K. M. (2005). Early determinants of women in the IT workforce: A model of girls' career choices. *Information Technology & People*, 18(3), 230-259.
- Agar, M., & Hobbs, J. R. (1982). Interpreting discourse: Coherence and the analysis of ethnographic interviews. *Discourse Processes*, 5(1), 1-31.
- Anderson, L., & McCabe, D. B. (2012). A coconstructed world: Adolescent self-socialization on the internet. *Journal of Public Policy & Marketing*, 31(2), 240-253.
- Arnett, J. J. (1995). Adolescents' uses of media for self-socializ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5), 519-533.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 Astin, H. S. (1984). The Meaning of work in women's lives: A socio psychological model of career choice and work behavior.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2(4), 117-126.
- Becker, G. S., & Thomes, N. (1986). Human capital and rise and fall of famili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4(3), 1-39.
- Berghman, J. (1995). Social exclusion in Europe: Policy context and analytical framework. In G. Room (Ed.), *Beyond the threshold: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pp.10-28). Bristol, UK: The Policy Press.
- Berkelaar, B. L., Buzzanell, P. M., Kisselburgh, L. G., Tan, W., & Shen, Y. (2012). "First it' s dirt. second, it' s dangerous. third, it' s insulting" : Urban Chinese children talk about dirty work. *Communication Monographs*, 79, 93-114.
- Bernstein, B. (1990). *Class, codes and Cntrl, vol. 4.: The structuring of pedagogic discourse*. New York, NY: Routldge.
- Blustein, D. L., Chaves, A. P., Diemer, M. A., Gallagher, L. A., Marshall, K. G., Sirin, S., & Bhati, K. S. (2002). Voices of the forgotten half: The role of social class in the school-to-work transi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 311-323.
- Blustein, D. L., Juntunen, C. L., & Worthington, R. L. (2000). The school-to-work transition: Adjustment challenges of the forgotten half. In S. D. Brown & R. W.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3rd ed., pp. 435-470).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 Blustein, D. L., & Noumair, D. A. (1996). Self and identity in career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4(5), 433-441.
- Bourdieu, P. (1985). The social space and the genesis of groups. *Social Science Information*, 24(2), 195-220.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 (Eds.),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pp. 241-258). New York, NY: Greenwood Press.
- Bourdieu, P. (1991). *Language and symbolic power*. Cambridge, UK: Polity Press, 정일준 역(1995).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서울: 새물결.

- Bourdieu, P. (1994). *Raisons pratiques: sur la théorie de l'action*. Paris, France: Seuil, 김웅권 역(2005). 『실천이성: 행동의 이론에 대하여』. 서울: 동문선.
- Bourdieu, P. (2003). *Social capital : Theories and issues*. 유석춘 외 역.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서울: 그린.
- Bowles, S., & Gintis, H. (1976). *Schooling in capitalist America: Educational reform and the contradictions of economic life*. New York, NY: Basic Books, 이규환 역(1986). 『자본주의와 학교교육』. 서울: 사계절.
- Braverman, H. (1974). *Labor and monopoly capital: The degradation of work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NY : Monthly Review, 이한주·강남훈 역(1998). 『노동과 독점자본 : 20세기에서의 노동의 쇠퇴』. 서울: 까치.
- Brooks-Gunn, J., & Duncan, G. J. (1997).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7(2), 55-71.
- Brown, P. (1987). *Schooling ordinary kids: Inequality, unemployment, and the new vocationalism*. London, UK: Tavistock.
- Brown, S. D., & Lent, R. W. (Eds.). (2005).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Hoboken, NJ: Wiley & Sons.
- Bubany, S. T., & Hansen, J. C. (2010). Ability self-estimates and self-efficacy: Meaningfully distinct?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43(3), 168-187.
- Buhr, K., & Dugas, M. J. (2006). Investigating the construct validity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its unique relationship with worry.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0(2), 222-236.
- Chanel, O., & Chichilnisky, G. (2009). The influence of fear in decisions: Experimental evidence. *Journal of Risk and Uncertainty*, 39(3), 271-298.
- Chappell, C., Rhodes, C., Solomon, N., Tennant, M., & Yates, L. (2003) *Reconstructing the lifelong learner: Pedagogy and identity in individual, organisational and social change*. New York, NY: Routledge Falmer.
- Chaves, A. P., Diemer, M. A., Blustein, D. L., Gallagher, L. A., DeVoy, J. E., Casares, M. T., & Perry, J. C. (2004). Conceptions of work:

- The view from urban yout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3), 275–286.
- Church, A., Frost, M., & Sullivan, K.(2000). Transport and social exclusion in London. *Transport Policy*, 7, 195-205.
- Clandinin, D. J. (Ed.). (2007). *Handbook of narrative inquiry: Mapping a methodology*. Thousand Oaks, CA: Sage, 강형석 외 역(2011). 『내러티브 탐구를 위한 연구방법론』. 파주: 교육과학사.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1988). *Teachers as curriculum planners: Narratives of experience*. New York, NY: Teachers College Press, 강형석 외 역(2007). 『교사와 교육과정 : 교사들의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파주: 양서원.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Narrative inquiry :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CA: Jossey-Bass, 소경희 외 역(2006). 『내러티브 탐구: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의 경험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Clandinin, J., & Rosiek, J. (2007). Mapping a landscape of narrative inquiry: Borderland spaces and tensions. In D. J. Clandinin (Ed.) *Handbook of narrative inquiry: Mapping a methodology* (pp. 35–75). Thousand Oaks, CA: Sage.
- Cohen, S. E., & Syme, S. (Eds.). (1985). *Social support and health*. New York, NY: Academic Press.
- Cohen-Scali, V. (2003). The Influence of family, social and work socialization on the construction of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young adults.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9(4), 237–249.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upplement), 95–120.
- Coleman, J. S.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Harvard University Press.
- Coleman, J. S., & Hoffer, T. (1987). *Public and private high schools: The impact of communities*. New York, NY: Basic Books.
- Conger, R. D., Conger, K. J., & Elder, G. (1997). Family economic hardship and adolescent adjustment: Mediating and moderating process. In G. J. Duncan & J. Brooks-Gunn (Eds.),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pp. 299–310). New York, NY: Russell Sage Foundation.

- Conger, R. D., Wallace, L. E., Sun, Y., Simons, R. L., Mcloyd, V. C., & Brody, G. H. (2002). Economic pressure in African American familie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the family stress model. *Developmental Psychology*, 38(2), 179–193.
- Crang, M., & Thrift, N. J. (2000). *Thinking space*. New York, NY: Routledge, 최병두 역(2013). 『공간적 사유』. 서울: 에코리브르.
- Creswell, J. W. (2002). *Educational research*. NJ: Upper Saddle River.
- Crites, S. (1986). Storytime: Recollecting the past and projecting the future. In T. R. Sarbin (Ed.), *Narrative psychology: The storied nature of human conduct* (pp. 152–173). Westport, CT: Praeger.
- Csikszlenti-mihalyi, M., & Schneider, B. (2000). *Becoming adult: How teenagers prepare for the world of work*. New York, NY: Basic Books.
- Dailey, S., & Browning, L. (2014). Retelling stories in organizations: Understanding the functions of narrative repetition.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9(1), 22–43.
- Davies, B., & Harré, R. (1990). Positioning: The discursive production of selves.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ur*, 20(1), 43–63.
- Del Corso, J., & Rehfuss, M. C. (2011). The role of narrative in career construction the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9(2), 334–339.
- Deleuze, G. (1994). *Différence et répétition*. 김상환 역(2004). 『차이와 반복』. 서울: 민음사.
- Deleuze, G., & Guattari, F. (1972). *L'Anti-oedipe: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Paris, France: Éditions de Minuit, 김재인 역(2014). 『안티 오이디푸스 : 자본주의와 분열증』. 서울: 민음사.
- Deleuze, G., & Guattari, F. (1980). *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2*. Paris, France: Éditions de Minuit, 김재인 역(2001). 『천개의 고원: 자본주의와 분열증 2』. 서울: 새물결.
- Denzin, N. K., & Lincoln, Y. S. (2000).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Duncan, G. J., Ziol-Guest, K. M., & Kalil, A. (2010). Early-childhood poverty and adult attainment, behavior and health. *Child Development*, 81(1), 306–325.



- Eric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Y: W. W. Norton.
- Feij, J. A. (1998). Work socialization of young people. In P. J. D. Drenth, H. Thierry, & C. J. de Wolf (Eds.), *Handbook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 3, pp. 207–256). Hove, UK: Psychology Press.
- Fitzgerald, L. F., Fassinger, R. E., & Betz, N. E. (1995). Theoretical advances in the study of women's career development. In W. B. Walsh & S. H. Osipow (Eds.),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2nd ed, pp. 67–110). Mahwah,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Frese, M. (1982). Occupational socialization and psychological development: An underemphasized research perspective in industrial psychology.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55, 209–224.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NY: Free Press, 구승희 역(1996). 『트러스트』.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 Gati, I., Gadassi, R., Saka, N., Hadadi, Y., Ansenberg, N., Friedmann, R., & Asulin-Peretz, L. (2011).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asp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Facets of career indecisivenes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9(1), 3–20.
- Gibson, M. K., & Papa, M. J. (2000). The mud, the blood, and the beer guys: Organizational osmosis in blue-collar work groups. *Journal of Applied Communication Research*, 28, 68–88.
- Giddens, A.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late modern age*. Stanford University Press, 권기돈 역(1997).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 후기 현대의 자아와 사회』. 서울: 새물결.
- Giddens, A. (1992). *Human societies: An introductory reader in sociology*. Cambridge, UK: Polity Press.
- Gottfredson, L. S.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6), 545–579.
- Greenberger, E., & Steinberg, L. (1986). *When teenagers work: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costs of adolescent employment*. New

- York, NY: Basic Books.
- Greve, H. R., & Seidel, M. D. L. (2014). Adolescent experiences and adult work outcomes: Connections and causes. In H. R. Greve & M. L. Seidel (Eds.), *Adolescent experiences and adult work outcomes: Connections and causes* (pp. 1–10). Bingley, UK: Emerald Group Publishing.
-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3), 326–339.
- Hague, E., Thomas, C., & Williams, S. (2001). Exclusive visions? Representations of family, work and gender in the work of the British social exclusion unit. *Gender, Place and Culture: A Journal of Feminist Geography*, 8(1), 73–82.
- Hansen, D. M., & Jarvis, P. A. (2000). Adolescent employment and psychosocial outcomes: A comparison of two employment contexts. *Youth & Society*, 31(4), 417–436.
- Harpaz, I., & Fu. X. (2002). The structure of the meaning of work: A relative stability amidst change. *Human Relations*, 55(6), 639–667.
-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2), 119–133.
- Hartung, P. J., & Blustein, D. L. (2002). Reason, intuition, and social justice: Elaborating on Parson's career decision-making model.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0(1), 41–47.
- Heinz, W. R. (2002). Self-socialization and post traditional society.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7, 41–64.
- Hill, M. S., & Sandfort, J. R. (1995). Effects of childhood poverty on productivity later in life: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7(1–2), 91–126.
- Hoffner, C. A., Levine, K. J., & Toohey, R. A. (2008). Socialization to work in late adolescence: The role of television and family.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282–302.
- Holland, J. L. (1973).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careers*. Englewood Clift, NJ: Prentice-Hall.
- Hollands, R. G. (1990). *The long transition: Class, culture and youth*

- training*. New York, NY: Macmillan Education.
- Hoogstra, L., Schneider, B., & Chang, F. (2001). Young adult occupational identity and well-being: Influences of post secondary education and work. *Sociological Focus*, 34(4), 337–356.
- Jablin, F. M. (2001). Organizational entry, assimilation, and disengagement/exit. In F. M. Jablin & L. L. Putnam (Eds.), *The new handbook of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pp. 732-818). Thousand Oaks, CA: Sage.
- Jahn, J. L. S., & Myers, K. K. (2014). Vocational anticipatory socialization of adolescents: Messages, sources and frameworks that influence interest in STEM careers. *Journal of Applied Communication Research*, 42, 85-106.
- Jahn, J. L. S., & Myers, K. K. (2015). “When will I use this?” how math and science classes communicate impressions of STEM careers: Implications for vocational anticipatory socialization. *Communication Studies*, 10, 1–20.
- Johnson, C. C. (2012). Implementation of STEM education policy: Challenges, progress, and lessons learned. *School Science and Mathematics*, 112(1), 45–55.
- Johnson, R. C., & Schoeni, R. F. (2011). The influence of early-life events on human capital, health status, and labor market outcomes over the life course. *The B. E. Journal of Economic Analysis & Policy*, 11(3). doi: 10.2202/1935–1682.2521.
- Kenyon, S., Lyos, G., & Rafferty, J. (2002). Transportation and social exclusion: Investigating the possibility of promoting inclusion through virtual mobility.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10, 207–219.
- Kingston, P. W. (2000). *The classless society*. Stanford University Press.
- Kohn, M. L. (1977). *Class and conformity : A study in values, with a reassessmen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ramer, M. W. (2010).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Joining and leaving organizations*. Cambridge: Polity Press.
- Krumboltz, J. D. (1996). A learning theory of career counseling. In M.

- L. Savickas & W. B. Walsh (Eds.), *Handbook of career counseling theory and practice* (pp. 55–80). Palo Alto, CA: Davies–Black.
- Ladouceur, R., Dugas, M. J., Freeston, M. H., Leger, E., Gagnon, F., & Thibodeau, N. (2000). Efficacy of a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for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Evaluation in a controlled clinical tria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8*(6), 957–964.
- Lareau, A. (2003). *Unequal childhoods : Class, race, and family lif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박상은 역(2012). 『불평등한 어린 시절: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불평등의 대물림』. 서울: 에코리브르.
- Lee, J. C., & Mortimer, J. T. (2009). Family socialization, economic self-efficacy, and the attainment of financial independence in early adulthood. *Longitudinal and Life Course Studies, 1*(1), 45–62.
- Lent, R. W., Brown, S. T., &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36–49.
- Lent, R. W., Sheu, H. B., Singley, D., Schmidt, J. A., Schmidt, L. C., & Gloster, C. S. (2008). Longitudinal relations of self-efficacy to outcome expectations, interests, and major choice goals in engineering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3*(2), 328–335.
- Levine, K. J., & Hoffner, C. A. (2006). Adolescents' conceptions of work: What is learned from different sources during anticipatory socializa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1*, 647–669.
- Lewis, O. (1961). *Children of Sanchez : Autobiography of a Mexican family*. New York, NY: Vintage Books, 박현수 역(2013). 『산체스네 아이들 : 빈곤의 문화와 어느 멕시코 가족에 관한 인류학적 르포르타주』. 서울: 이매진.
- Lin, N., Cook, K. S., & Burt, R. S. (Eds.). (2001). *Social capital: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NY: Aldine de Gruyter.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Thousand Oaks, CA: Sage.
- Loughlin, C., & Barling, J. (2001). Young workers' work values,

- attitudes, and behaviours.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74, 543–558.
- Lubrano, A. (2004). *Limbo: Blue-collar roots, white-collar dreams*.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Luce, M. F., Bettman, J. R., & Payne, J. W. (Eds). (1997). Choice processing in emotionally difficult decision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23(2), 384–405.
- Lucius-Hoene, G., & Deppermann, A. (2004). *Rekonstruktion narrativer Identität*. Opladen, Germany: Leske+Budrich, 박용익 역(2011). 『이야기분석 : 서사적 정체성의 재구성과 서사 인터뷰의 분석을 위한 이론과 방법론』. 서울: 역락.
- Lunt, P. K., & Furnham, A. (1996). *Economic socialization: the economic beliefs and behaviours of young people*. Cheltenham, UK: Edward Elgar.
- Maanen, J. V. (1988). *Tales of the field: On writing ethnograph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alone, T. (2004). *The future of work: How the new order of business will shape your organization, your management style, and your Life*.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Manen, M. V.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신경림 역(2000). 『체험 연구: 해석학적 현상학의 인간과학 연구방법론』. 서울: 현문사.
- Manen, M. V. (1997). From meaning to method. *Qualitative Health Research*, 7(3), 345–369.
- Marlowe, D. (1964). *The approval motive: Studies in evaluative dependence*. New York, NY: Wiley.
- McAdams, D. P. (2001). The psychology of life stori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5(2), 100–122.
- McAdams, D. P., & McLean, K. C. (2013). Narrative identit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2(3), 233–238.
- McAdams, D. P., & Olson, B. D. (2010). Personality development: Continuity and change over the life cours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1, 517–542.

- McMahon, M., & Patton, W. (2002). Using qualitative assessment in career counselling.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2(1), 51–66.
- Mead, G. H. (1972). *Mind, self, and society: From the standpoint of a social behaviorist*.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나은영 역(2010). 『정신·자아·사회: 사회적 행동주의자가 분석하는 개인과 사회』. 서울: 한길사.
- Meager, N. (2008). Self–employment dynamics and ‘transition labour market’ : Some more UK evidence. In R. J. A. Muffels (Ed.), *Flexibility and employment security in Europe* (pp. 195–222). Cheltenham, UK: Edward Elgar.
- Medved, C. E., Brogan, S. M., McClanahan, A. M., Morris, J. F., & Shepherd, G. J. (2006). Family and work socializing communication: Messages, gender, and ideological implications. *Journal of Family Communication*, 6, 161–180.
- Melucci, A. (1996) *The playing self: Person and meaning in a planetary socie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erriam, S. B. (1998).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s in educ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Miles, M. B.,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n expanded source book*. Thousand Oaks, CA: Sage.
- Miller, M. J., Woehr, D. J., & Hudspeth, N. (2002).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work ethic: Construction and initial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invent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0(3), 451–489.
- Mortimer, J. T. (2003). *Working and growing up in America*. Harvard University Press.
- Mortimer, J. T., & Finch, M. D. (1986). The effects of part–time work on adolescent self–concept and achievement. *Becoming a Worker*, 66–89.
- Myers, K. K., Jahn, J. L. S., Gailliard, B. M., & Stoltzfus, K. (2011). Vocational anticipatory socialization(VAS): A communicative model of adolescents’ interests in STEM. *Management Communication Quarterly*, 25, 87–120.
- Parsons, F. (1909). *Choosing a vocation*. New York, NY: Houghton

- Mifflin.
- Polkinghorne, D. (1988). *Narrative knowing and the human science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강현석 외 역(2009). 『내러티브, 인문과학을 만나다 : 인문과학연구의 새 지평』. 서울: 학지사.
- Preston, J., & Rajé, F. (2007). Accessibility, mobility and transport-related social exclusion.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15(3), 151-160.
-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안청시 외 역(2006).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 이탈리아의 지방자치와 시민적 전통』. 서울: 박영사.
- Riessman, C. K. (1993). *Narrative analysis*. Newbury Park, CA: Sage, 김원옥 외 역(2005). 『내러티브 분석』. 서울: 군자.
- Riessman, C. K. (2008). *Narrative methods for the human sciences*. Thousand Oaks, CA: Sage.
- Room, G. J. (1999). Social exclusion, solidarity and the challenge of global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8(3), 166-174.
- Rosenberg, M. (198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Wesleyan University Press.
- Savickas, M. L. (1985). Identity in vocational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7(3), 329-337.
- Savickas, M. L. (2013). Career construction theory and practice. In R. W. Lent & S. D. Brown (Eds.),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2nd ed., pp. 144-180). Hoboken, N.J. : John Wiley.
- Savickas, M. L., Nota, L., Rossier, J., Dauwalder, J. P., Duarte, M. E., Guichard, J., Soresi, S., Esbroec, R. V., & van Vianen, A. E. M. (2009). Life designing: A paradigm for career construction in the 21st centu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 239-250.
- Schroer, M. (2006). *Raume, orte, grenzen: Auf dem weg zu einer soziologie des raums*. Frankfurt, Germany: Suhrkamp, 정인모 외 역(2010). 『공간, 장소, 경계: 공간의 사회학 이론 정립을 위하여』. 서울: 에코리브르.
- Schuchardt, J., Hanna, S. D., Hira, T. K., Lyons, A. C., Palmer, L., &

- Xiao, J. J. (2009). 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research priorities. *Journal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0(1), 84–95.
- Schultz, T. W. (196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merican Economic Review*, 51, 1–17.
- Serravallo, V. (2004). Less alienated labor: A source of hope-filled mobility socialization? *Journal of Contemporary Ethnography*, 33, 368–405.
- Signorielli, N. (1993). Television and adolescents' perceptions about work. *Youth & Society*, 24, 314–341.
- Signorielli, N., & Kahlenberg, S. (2001). Television's world of work in the ninetie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5, 4–22.
- Simmel, G. (1990). *The philosophy of money* (2nd ed.). (D. Frisby, Trans.). London, UK: Routledge.
- Somerville, P. (2000). *Social relations and social exclusion: Rethinking political economy*. London, UK: Taylor & Francis.
- Spradley, J. P. (1979). *The ethnographic interview*. New York,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 Stake, J. E., & Nickens, S. D. (2005). Adolescent girls' and boys' science peer relationships and perceptions of the possible self as scientist. *Sex Roles: A Journal of Research*, 52(1), 1–11.
- Stake, R. E.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홍용희 · 노경주 · 심중희 역(2000). 『질적 사례 연구』. 서울: 창지사.
- Super, D. E. (198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 282–298.
-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2nd ed., pp. 197–261).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Superka, D. P., & Hawke, S. (1982). *Social roles: A focus for social studies in the 1980s*. Social Science Education Consortium Publications.
- Tajfel, H. (1981). *Human groups and social categories: Studies in social*



- psyc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 Valentine, G. (2001). *Social geographies: Space and society*. Harlow, NJ: Prentice Hall, 박경환 역(2014). 『공간에 비친 사회, 사회를 읽는 공간 : 사회지리학으로의 초대』. 서울: 한울아카데미.
- Villani, A., & Sasso, R. (Eds.).(2003). *(Le) vocabulaire de Gilles Deleuze*. 신지영 역(2012). 『들뢰즈 개념어 사전: 들뢰즈 철학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 서울: 갈무리.
- Vondracek, F. W., & Porfeli, E. (2003). World of work and careers. In G. R. Adams & M. D. Berzonsky (Eds.), *The blackwell handbook of adolescence* (pp. 109-128). Malden, MA: Blackwell.
- Wallace-Brosnious, A., Serafica, F. C., & Osipow, S. H. (1994). Adolescent career development: Relationships to self-concept and identity statu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4(1), 127-149.
- Wanberg, C. R. (2012). Facilitating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An introduction. In C. R. Wanberg (Ed.), *The oxford handbook of organizational socialization*. (pp. 3-7). Oxford University Press.
- Webley, P. (2001). *The economic psychology of everyday life*. London, UK: Taylor & Francis. 김정주 역(2009). 『라이프 심리학 : 라이프 스타일 속에 숨겨진 경제행동의 심리』. 서울: 다산 북스.
- Willis, P. E. (1981). *Learning to labour: How working class kids get working class jobs*. Columbia University Press, 김찬호·김영훈 역(2004). 『학교와 계급재생산: 반 학교문화, 일상, 저항』. 서울: 이매진.
- Wolcott, H. F. (1994). Transforming qualitative data: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Thousand Oaks, CA: Sage.
- Wray-Lake, L., Syvertsen, A. K., Briddell, L., Osgood, D. W., & Flanagan, C. A. (2011). Exploring the changing meaning of work for American high school seniors from 1976 to 2005. *Youth & Society*, 43(3), 1110-1135.
- Yamagishi, T., & Yamagishi, M. (1994). Trust and commit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Motivation and Emotion*, 18(2),

129–166.

- Young, R. A., & Collin, A. (2004). Introduction: Constructivism and social constructionism in the career field.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4, 373–388.
- Young, R. A., Valach, L., & Collin, A. (2002). A contextualist explanation of career. In D. Brown, & L. Brook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4th ed., pp. 206–254).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부 록

## 1. 연구 참여자 모집 설명서(배부용)

### 연구 참여자 모집 설명서

안녕하세요. 서울대 박사과정 연구원(010-○○○○-○○○○)입니다.  
박사학위논문으로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직업사회화 이해'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자발적 연구 참여자를 모집 합니다.

#### 1. 연구 목적 :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직업사회화 이해'

-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직업을 찾아가는 삶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직업사회화를 이해한다.
-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교육 및 경제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

#### 2. 연구 방법 : 내러티브 탐구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경험과 생각)를 바탕으로 수행되는 연구방법입니다.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 이야기를 자유롭게 풍성하게 해 주시고, 연구자와 함께 이야  
기를 구성해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 부모님의 직업생활, 나의 진로와 직업 결정에 영향을 준 사람들(교사, 친구 등), 직업교육  
체험에 대한 이야기, 아르바이트 경험, 학교 경제시간의 경험, 학교 진로지도의 경험 등

#### 3. 참여자 조건

- 18세~24세에 해당하는 청소년
- 직업의 세계에 들어가기까지의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풍부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
- 자신의 가정이 저소득가정이라고 생각하는 분

예> 다음 중 하나의 경우라도 해당되는 분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던 가정  
-한 부모 가정(부모님의 이혼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청소년)  
-조손가정(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청소년)  
-경제적으로 궁핍했고 저소득층이라고 느끼는 청소년

#### 4. 연구 참여 방법

- 인터뷰 : 총 5회, 1회당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소요 예정, 일주일에 1회씩 총 5주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인터뷰의 내용은 녹음하게 됩니다.
- 장소 및 시간 : 연구 참여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정해질 것임(예> 카페 등)
- 면담료 : 면담 시 다과 및 식사비를 연구자가 지급하며, 면담 1회에 ○원을 지급한다. (추가 면담이 필요할 경우 2회까지 요청할 수 있으며, 1회당 ○원을 추가로 지급)

#### 5. 연구 윤리 규정

- 사생활 침해 금지 : 연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연구 참여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연구 참여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비밀 보장
  - 연구 참여자의 정보는 공개되지 아니하며,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 면담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참여자가 요청할 경우 면담내용을 일부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 녹음 내용이 유출 되지 않도록 전사 작업은 연구자가 직접하며, 참여자의 이름은 즉시 코드로 전환하여 기록합니다.
  - 관련 문건은 개인 컴퓨터의 비밀번호 파일 저장, 열쇠가 있는 개인 문서함 사용을 통해 보안에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 연구의 철회 가능
  - 연구는 언제든지 참여자의 요청에 따라 중단될 수 있습니다.  
(중단 시 면담료는 1회당 ○원씩 계산하여 지급함, 기존의 연구 자료는 폐기처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함)
  - 연구 참여로 인한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다.
  - 연구 참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를 것이며,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연구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 02-880-5153

연구책임자 :\*\*\*\*\*@naver.com / 010-\*\*\*\*-\*\*\*\*

## 2. 면담정리표의 예시

면담 정리-D1			
주제어	면담내용	연구자 생각	연구참여자 피드백
아르바이트	<p>P: 원래 공장 알바 하려고 했는데,,,E가 먼저 왔고,,,오늘 적한테 전화 왔는데 진짜 힘들다고 하는것예요. 그래서 그냥 안하기로 하고,,,</p> <p>P: E를 못계 까지 할 수 있다고,,,저는 맨스 팀으로 늦게까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한테만 연락을 안주신거예요. 병장에서,,,근데 진짜 힘들다고,,,</p> <p>P: 알바 이번 년도에 몇 개월 전에 한번 했거든요. 상륙전,,,후후 그때 하루 만에 잘라가지고,,,아,,,진짜 힘들더라고요 3시까지</p>	<p>Q. 아르바이트 찾는 이야기 -목적, 선택기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은지? 구체적인가? 소극적인가?</p> <p>Q.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어떻게 다른가?</p> <p>-아르바이트 구하면서 어려운 점? -직업을 정하기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p>	
이 략			
소통, 소비, 저축	<p>P: 적당히,,,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은 없고,,,그냥 적당히 벌고 싶다,,,</p>	<p>Q. (부모님 혹은 나의) 소통, 소비의 경험, 저축의 경험은?</p> <p>Q. 얼마의 소비 생활의 특성은 어떤? 같이 시장에 가거나 했던 기억이 있어?</p>	
	<p>R: 주변에 대학을 다니거나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없었어?</p>	<p>Q. 저 저임은 가까이 경험해 보고 싶다</p>	

## 3. 면담질문지 준비의 예시

D 면담질문(160617)
<p>1.대학생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어려웠던 점/좋았던 점)</li> <li>-가장 인상 깊은 수업(이유)</li> <li>-등록금 이야기</li> <li>-부모님과 관계(기대, 만족 등)</li> <li>-여기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인간관계의 확장, 시야의 확장)</li> <li>-원서 쓸 때의 기억(농어촌 전형 등 제도에 대한 생각)</li> </ul> <p>2. 전공에 대한 생각의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의 선택에 대한 생각</li> <li>-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특성(규범)</li> <li>-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의 특성(장단점)</li> </ul> <p>3. 직업에 대한 생각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업과 대학의 의미</li> <li>-좋은 직업이란?</li> <li>-어떤 직장에서 일하고 싶은가?</li> <li>-나는 어떤 직업인이 되고 싶은가?</li> </ul> <p>4.금산에 대한 생각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전에서의 생활과 금산의 의미</li> <li>-교통이 불편했던 나의 집이 내 인생에 미친 영향</li> </ul> <p>5.미래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업, 직장생활, 경제생활</li> <li>-자신감의 변화</li> </ul>

## 4. 면담 후기의 예시

2015.11.23. ○○이와의 면담 1회

처음이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것 같은 느낌은 없었다.  
면담 시간이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았으나 마무리를 지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원래 면담을 시작하면 길게 끌어서 문제인데  
오늘은 조심스럽고 또 나아가기, 들어가기 조심스러웠다.  
어떤 부분의 이야기를 할 때 ○○이는 매우 환하게 웃었고  
어떤 부분의 이야기를 할 때 ○○이는 주춤하고 방어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주로 자신의 성격이나, 자신의 성향 등의 이야기를 할 때는 밝은 표정을 지었고  
가족이야기를 할 때는 주저하였다.  
그 주저함은 결로 드러나는 것은 결코 아니었으나  
(얼버무리거나 대답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연구자로 하여금 한 가지 질문을 더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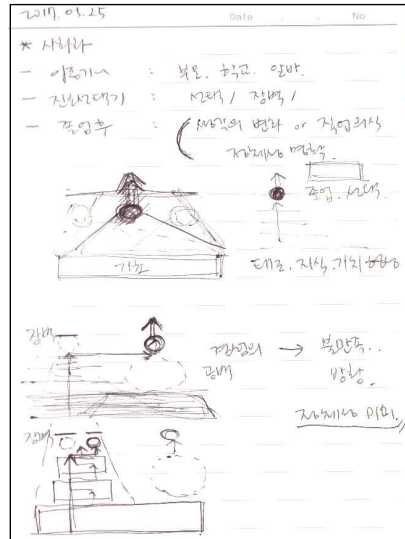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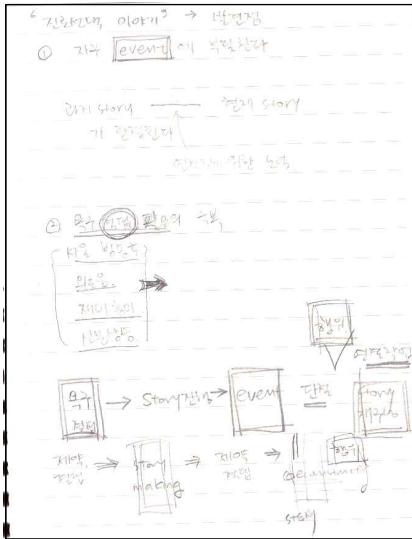
12월 18일, 금산에서○○(면담 4), △△(면담 1)와의 만남

○○이와의 초기 면담은 오늘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내러티브가 반복되고 반복되면서 이야기의 밀도가 채워지는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는  
포화상태를 느끼게 된다. 내러티브의 밀도가 적당하다는 생각을 연구자가 느끼게 된다.  
이 상태를 '포화상태'라고 표현한 듯 하다.

### 중 략

연구자는 면담을 하면서 참여자에게서 아이와 어른을 함께 느낀다.  
성숙과 미성숙이 공존하고 있는 이 청소년들에게서  
불안함과 희망을 동시에 느낀다.  
이는 미래에 대한 궁금함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기 면담과 후기 면담의 두 파트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사회로 나아가기 직전 초기 면담과  
사회에서의 첫 경험을 한 뒤 이루어지는 후기 면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5. 연구자 노트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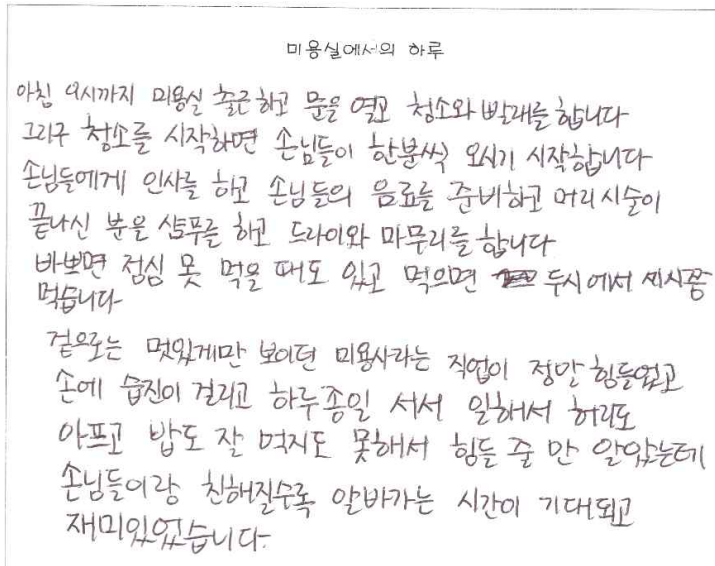


## 6. 다양한 자료 수집의 예시

### 나의 하루, 나의 생각, 나의 경험

© 기억에 남는 하루를 일기로 써주세요.

(그날 있었던 일, 느꼈던 점, 생각했던 점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써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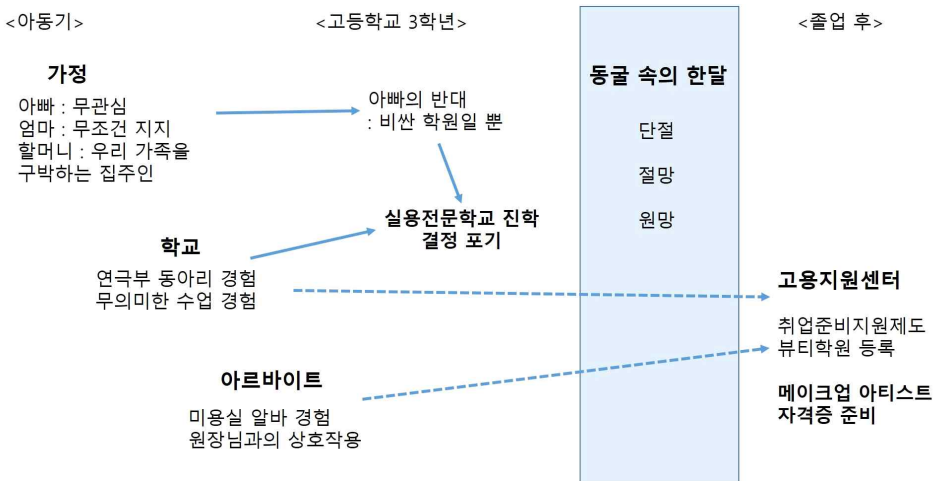




## 7. 1차 개방 코딩의 예시

<p>원래 간호학과 딱 정하기 전에는 동물에 관련된 일 하고 싶었거든요. 사육사라던가 동물 구조하는 일이라던가 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그거는 학과가 없어요. 해봤자 애완동물학과가 이런 거 밖에 없고 돈도 많이 못벌고 취업도 안되고 하니까 계속 저도 아니까 저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엄마가 간호학과 가라고 설득을 해서 엄마한테 설득 당했죠. 근데 지금은 만족스러워요.</p> <p>P: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취업이 잘 되니까... 그리고 안정적이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가 막 돈 많고 그런 집이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다 시켰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일단 취업을 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제일 취업이 잘 되는 학과하고 지역 어디든 가도 병원은 있으니까... 엄마가 또 그 일을 하다보니까 좋게 느껴졌어요. 저희 엄마도 간호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예요. 간호사는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자기가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구, 간호조무사는 전문대에서 인턴병 강의 같은 거로 자격증을 따거나 면허증을 따건 아니네요. 그래서 간호조무사는 더 불안정하고 월급도 더 적고 그래요. 그래서 엄</p>	<p>사육사 동물 구조사 애완동물학과 간호학과</p> <p>전공 선택 이유 : 취업</p> <p>엄마 직업 : 간호조무사</p>
--	---

## 8. 이야기 맵의 예시



## 9. 2차 개방 코딩의 예시

가정	엄마의	이혼을 하고 이혼은 오빠랑 자기 너무 많이 이혼했어요. 오빠랑 이혼이 간...엄마는 막막했을 테니까 자기가 같이 조금 아이들을 키워줄 그런 사람이 필요했을 테니까...근데 저한테는 조금 힘든 기억일텐데...많이 외롭고...제가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집에서 들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바쁘고 오빠도...혼자 자기 인 생 헤쳐나가길 바랬...아직 어리지만...그럴 때 였고...엄마도...집에 굉장 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집에서 교육용 만화책 보고 그림 그리 고 그래서 그때는 꿈이 만화가랑 화가였어요.	# 외로웠던 아동기 # 진로희망- 심리상담가
	이혼	엄청 완전 구석탱이 낚시터 저수지 그런 곳이어서 애들을 집에 초대할 수도 없고 놀러가기도 애매하고 그런 상황이였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지내는 시간이 없었는데...이쪽 읍내쪽으로 이사오니까 친구들이랑 지 내는 시간도 많아지고...일단...눈치 보는 게 적어졌잖아요. 그니까 마음 을 편하게 냈던 것 같아요.	# 저수지의 삼 # 외로웠던 아동기
		그래서 중학교 때 되니까...그 때 외로웠고...작은 거 하나 누군가한테 말할 수 없었던 그런 생각이 나면서 나도 커서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심리상 담가나 그런 일을 하고 싶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 꿈을 좀 많이 쫓어 요.	#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 Abstract

# Narrative Inquiry in Exploring Vocational Anticipatory Socialization of Adolescents from Low-income Families

- “Vocational Identity as a Line of Flight”  
and Its Implications on Economic Education -

Ha-Na, Park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dvisor: Young-Dal, Cho, Ph. D.

Work and labor are the essence of life and the foundation of human history and civilization; we earn income from work to support our economic activities. In today's world where work is highly specialized, a 'job' or 'vocation' is an opportunity to work and produce something of value, and most start preparing themselves for their vocations from adolescence. Generally,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s learnt during adolescence have continuous effects on our lifelong career path. Thus, it is imperative that adolescents obtain adequate knowledge of the

roles of work in a society through social studies and economic education, and vocational anticipatory socialization(VAS) shall be the key to understanding how adolescents experience career development process.

When applying VAS approach,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wide gaps in the life experience of different social classes, groups and backgrounds. We can expect that adolescents from wealthy families would have a different career development compared to those from poor ones, and that such difference would cause gaps in social status and income levels and ultimately, social inequality. In fact, most late adolescents from poor backgrounds experience various difficulties in starting their career and achieving accomplishments.

In this paper, I explored how adolescents from low-income families experience VAS and what the findings mean; based on the findings, I assessed implications on economic education, looking for educational and policy solutions to help socially marginalized adolescents' school-to-work transition. I believe this paper would provide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establishing the future direction of practical, life-long and capacity-building education on the subject of 'vocation' ; also, the considerations in this paper would also serve as a theoretical guideline for curriculum-based career education in future.

The objectives of this paper are achieved by answering the following questions; first, how do the participants form VAS narratives? Second, how should we interpret the participants' VAS? Third, what implications do our findings have on economic education?

In this paper, I used narrative inquiry as a research approach, where the participants share their own experience with the

researcher and the researcher analyzes how they interpret and reconstruct such experience in their narratives. For the purpose of research, I selected four young students from low-income families living in Geumsan County, i.e., non-metropolitan and non-urban region, based on certain selection criteria and process.

According to my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participants formed VAS narratives from their early childhood to their student period, career-searching period and the period after high school graduation. Their narratives were full of VAS messages of various kinds; for instance, their VAS messages were shaped by their parents who have non-regular jobs or do manual labor, by the experience of parents' divorce and changes to family relationships, by the experience at student clubs, classes and schools with constant pressures to pursue higher education, by the realization arising from their attempts to leave Geumsan County, and by the first-hand experience of pros and cons of the internet space. The four participants' career stories were all different; Ji-min Han was able to resume her career thanks to the government's career support system, while Seo-yeon Kim had to give up her dream of becoming a historian and started learning physical therapy at university; Eun-jin Kang pursued nursing at university because she believed higher education would provide a better career than being a nurse assistant, which was her mother's job; Min-seo Kim wanted a career that would guarantee people's recognition and movement to the upper social ranks.

The narratives from the four participants provided insights into how adolescents shaped VAS. First, their narratives showed each adolescent shaped his or her individual VAS messages by interacting with diverse socialization sources such as family

members, educational institutions (e.g., schools), communities, part-time jobs, the internet, etc. At times, such socialization sources acted as a structural barrier that gave them socially conventional ideas, yet they rarely accepted those ideas but instead rejected, reinterpreted or accepted them in a new way. I explained such behaviors under the concepts of “self-message making”, “self-spacing” and “self-socializing.”

Second, adolescents took practical actions, i.e., made career choices, based on their structural and individual VAS messages. Adolescents’ career choice was driven by their “career desire” embedded in their narratives, while at the same time, anxiety and the lack of “trust capital” stood in the way of career choice. According to my research, adolescents made career stories on the subject of career choice, in which I discovered their internal and external life conditions (e.g., coming from rural households and low-income family backgrounds) resulted in a discontinuity of career identity. However, in the course of overcoming career interruptions and recovering their identity, their vocational identity tended to become more specific and precise.

My research showed that adolescents from low-income families formed their “vocational identity of adolescents” through VAS process. I interpreted the participants’ vocational identity as “vocational identity as a Line of Flight”, meaning that they formed vocational identity in a way to resist to and overcome social oppressions and restrictions. I used the term ‘Flight,’ which is borrowed from Gilles Deleuze to explain the concept of a line of flight and deterritorialization. By definition, flight means a nomadic flow of desire in which the subject wishes to escape limitations of the established social structures, orders and systems and to make connections to new objects.

These adolescents repeatedly formed VAS messages, chose their careers based on “career desire” , and made efforts to overcome their given status and social group through the force of becoming(devenir); by seeking their own vocation, they were taking steps to ‘escape from Geumsan County’ and to ‘have better lives than those of their parents.’ The participants responded and reacted to their surrounding society and structure, resisting to and taking flight from them, and in the process, made small changes in their lives through means of career.

This paper provides theoretical, methodological and practical significance as follows. First, it sheds new light on how late adolescents make a school-to-work transition, and I believe this would promote further discussion on how our economic education should focus on teaching ‘work and vocation’ and the roles of vocation. Second, this paper applies a few concepts such as “career desire” and “trust capital” in explaining the career choice of adolescents, providing long-term and comprehensive insights into individual career choice. Third, this paper uses a post-modern analysis in exploring socialization and identity formation; instead of focusing on how people deliver messages (i.e., how people discover their identity), I examined how people ‘form’ their messages by using a paradigm-shifting approach. Fourth, this paper provides how educational inequality may be improved from the perspective of spaces, how the opportunities and limitations of social institutions may be addressed, by pointing out the lack of economic lessons at schools, the weakness of current career education, possible solutions to such problems, etc. Fifth, this paper suggests people who pursue ‘flight(fuite)’ as a new ideal in social studies and economic education. In future, the educational community shall take a rhizomatic approach in



reforming the curriculum, contents and methodology of economic education and seek transformation to a more learning-focused education.

**Keywords** : economic education, vocational anticipatory socialization, vocational identity of adolescents, career desire, trust capital, vocational identity as a Line of Flight, adolescents from low-income families.

**Student Number** : 2007-30397